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6  
연구보고 07-R13-5

#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 :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 강사)  
고가영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전임연구원)  
박지배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전임연구원)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 강사)  
권주영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 GCC 연구원)  
김석원 (키예프국립대학교 · 교수)  
임현숙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 · 강사)  
최소영 (우즈베키스탄 동방대학교 · 강사)  
최인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문화센터 ·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2007-02-01     |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br>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br>- 총괄보고서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007-02-02     |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br>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br>-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br>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007-02-03     |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br>생활실태 연구                                                    | 고려대학교      |
| 2007-02-04     |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br>생활실태 연구                                                    | 동국대학교      |
| 2007-02-05     |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br>생활실태 연구                                                    | 호남대학교      |
| 2007-02-06     |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br>생활실태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
| 2007-02-07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br>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br>연구기관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조 혜 영<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br>문 경 숙<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연구위원 | 박 동 성<br>(한국사회과학자료원)<br>양 한 순<br>(아주대학교)<br>최 진 숙<br>(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            | 고려대학교          | 윤 인 진<br>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채 정 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br>연구소 선임연구원)                                                                                                                                                                                                                                                                                  |
| 협력<br>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 김 익 기<br>동국대학교 교수                                                   | 이 동 훈<br>(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            | 호남대학교          | 김 태 기<br>호남대학교 교수                                                   | 임 영 언<br>(전남대학교 세계한상·<br>문화연구단 연구교수)<br>박 일<br>(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br>배 광 웅<br>(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
|            | 한국<br>외국어대학교   | 임 영 상<br>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황 영 삼<br>(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br>고 가 영(한국외대 역사문화<br>연구소 전임연구원)<br>박 지 배(한국외대 역사문화<br>연구소 전임연구원)<br>이 병 조<br>(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br>권 주 영(한국외대<br>산학협력단 GCC연구원)<br>김 석 원<br>(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br>최 소 영(우즈베키스탄 과학<br>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br>최 인 나(상트페테르부르크<br>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br>문화센터 연구원)<br>임 현 숙(러시아 볼로그라드<br>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br>센터 한국어강사) |
|            | 한국직업<br>능력개발원  | 강 일 규<br>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전 재 식(한국직업능력<br>개발원 전문연구원)<br>길 은 배<br>(한국체육대학교 교수)<br>배 기 형(세종대학교 교수)                                                                                                                                                                                                                                          |
|            |                |                                                                     |                                                                                                                                                                                                                                                                                                                 |



## 연구 요약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 아직도 체제전환이 진행 중인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차세대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지를 시사해 주었다. 먼저 아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16~24세 고려인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요약이다.

1. 고려인 청소년들은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한국 관련 일을 하고자 한국어 공부에 적극적이었다. 종교는 개신교의 비중이 높았다.
2.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의 수입도 평균 이상으로 인식했다.
3. 고려인 청소년 부모들은 한국사회에 호의적이며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열성이고, 한민족끼리 결혼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음식을 즐겨 먹고 있으나 자녀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비율에 그쳤다.
4.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이미 역동적이며 친밀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왔다. 그들은 한국어를 유용한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방문 및 연수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5. 고려인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생활하며 한민족 고유의 명절과 전통인 설, 한식, 단오, 돌, 환갑 등을 아직까지는 잘 기념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하고 있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7.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관계형성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들과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교류에 적극적이다.

8. 그들 선조들의 러시아 이주와 관련,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 학업을 통한 신분상승과 성공을 바라고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교사,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고려인 차세대가 그들 국가의 전문직업인이자 한민족의 성원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한국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이다.

1.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그들 국가의 국어인 우즈베크어나 카자흐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NGO, 한국기업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2. 장학사업과 한국유학 및 한국취업 지원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고려인 청소년들이 현지 국가에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NGO가 협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 혹은 NGO가 공간마련을 지원하되 운영은 현지 NG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주도하는 가칭 한국문화정보센터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 혹은 유관 기관의 부대시설로 세워져야 할 것인데, 센터에는 별도의 전용선이 깔린 인터넷과 영상콘텐츠 제작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영화나 드라마도 볼 수 있는 DVD 시설도 필요하다. 세계의 한민족 청소년들은 자신과 거주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나아가 산업화도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UCC로 제작할 수 있는데, 공유와 개방, 참여의 웹2.0시대에 고려인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야 할 것이다.

## 목 차

|                                      |     |
|--------------------------------------|-----|
| I. 머리말 .....                         | 3   |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및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     |
| 1. 이론적 배경 .....                      | 9   |
| 2. 선행연구 .....                        | 9   |
| 3.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              | 19  |
| III.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 현황 설문 분석          |     |
| 1. 전체 개관 .....                       | 55  |
| 2. 부모와 가정형편 .....                    | 61  |
| 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               | 66  |
| 4. 한국에 대한 관심 .....                   | 71  |
| 5.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           | 85  |
| 6. 한민족 정체성 .....                     | 89  |
| 7. 네트워크 구축 관련 .....                  | 93  |
| 8. 이주 경로 .....                       | 102 |
| 9. 미래에 대한 기대 .....                   | 107 |
| 10.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분석 .....           | 108 |
| IV. 심층 인터뷰 분석                        |     |
| 1. 러시아 .....                         | 127 |
| 2. 중앙아시아 .....                       | 134 |
| V. 요약 및 결론                           |     |
| 참고문헌 .....                           | 155 |
| 부록(인터뷰 녹취록) .....                    | 167 |

## 표 목차

|                                                   |     |
|---------------------------------------------------|-----|
| <표 I-1> 유효 설문지의 지역별 분포 .....                      | 55  |
| <표 I-2> 유효 설문지의 남녀별 분포 .....                      | 56  |
| <표 I-3> 유효 설문지의 연령별 분포 .....                      | 56  |
| <표 I-4> 유효 설문지의 신분별 분포 .....                      | 57  |
| <표 I-5> 장래 희망 .....                               | 58  |
| <표 I-6> 유효 설문지의 종교별 분포 .....                      | 59  |
| <표 I-7> 유효 설문지의 세대별 분포 .....                      | 60  |
| <표 II-1> 부모의 학력 .....                             | 62  |
| <표 II-2> 부모의 직업 .....                             | 63  |
| <표 IV-1> 한국에 대한 견해 .....                          | 80  |
| <표 IV-2> 한국인에 대한 견해 .....                         | 82  |
| <표 VII-1> 한국 정부에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 .....                | 99  |
| <표 VII-2> 한국 정부에 바라는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 .....           | 101 |
| <표 VIII-1> 조상이 최초로 이주한 시기 .....                   | 102 |
| <표 X-1> 성별, 지역별, 신분별, 종교별 교차분석의 통계적<br>유의미성 ..... | 108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1] 유효 설문지의 연령대별 분포도 .....    | 57 |
| [그림 II-1] 부모 생존 여부 .....           | 61 |
| [그림 II-2] 부모의 민족 배경 .....          | 61 |
| [그림 II-3] 동거인 .....                | 62 |
| [그림 II-4] 가족 수입에 대한 주관적 견해 .....   | 64 |
| [그림 II-5] 상대적 가족 수입에 대한 견해 .....   | 64 |
| [그림 II-6] 생활 만족도 .....             | 65 |
| [그림 III-1]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      | 67 |
| [그림 III-2] 한국에 대한 견해 .....         | 67 |
| [그림 III-3] 한국어 공부에 대한 희망 .....     | 68 |
| [그림 III-4]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바람 ..... | 68 |
| [그림 III-5] 가정에서의 한국어 교육 .....      | 69 |
| [그림 III-6] 가정에서의 한국 음식 .....       | 70 |
| [그림 III-7]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바람 .....   | 70 |
| [그림 IV-1]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 .....       | 72 |
| [그림 IV-2] 한국 방문 계획 .....           | 72 |
| [그림 IV-3] 한국 연수 계획 .....           | 73 |
| [그림 IV-4] 한국 방문 희망 .....           | 73 |
| [그림 IV-5] 한국 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바람 .....  | 74 |
| [그림 IV-6] 한인 배우자의 선택 .....         | 74 |
| [그림 IV-7]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계획 .....  | 75 |
| [그림 IV-8] 한국에 대한 관심 .....          | 75 |
| [그림 IV-9] 한국에 대한 지식 .....          | 76 |
| [그림 IV-10] 한국어의 유용성 .....          | 76 |
| [그림 IV-11] 한국 방문 여부 .....          | 77 |
| [그림 IV-12] 한국 뉴스 청취 회수 .....       | 77 |
| [그림 IV-13] 한국 뉴스 출처 .....          | 78 |
| [그림 IV-14]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여부 .....  | 79 |

|                                           |    |
|-------------------------------------------|----|
| [그림 IV-15] 한국 연속극 시청 소감 .....             | 79 |
| [그림 IV-16] 한국에 대한 호감도 .....               | 80 |
| [그림 IV-17] 한국의 능력에 대한 견해 .....            | 81 |
| [그림 IV-18] 한국의 활동력에 대한 견해 .....           | 81 |
| [그림 IV-19] 한국에 대한 친밀도 .....               | 82 |
| [그림 IV-20]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 83 |
| [그림 IV-21] 한국인의 능력에 대한 견해 .....           | 83 |
| [그림 IV-22] 한국인의 활동력에 대한 견해 .....          | 84 |
| [그림 IV-23] 한국인에 대한 친밀도 .....              | 84 |
| [그림 V-1] 한민족 배경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         | 86 |
| [그림 V-2] 한국의 전통 명절을 지키는지 여부 .....         | 86 |
| [그림 V-3] 한민족 문화에 대한 지식 .....              | 87 |
| [그림 V-4] 한국어 듣기 능력 .....                  | 88 |
| [그림 V-5] 한국어 말하기 .....                    | 88 |
| [그림 V-6] 한국어 읽고 쓰기 .....                  | 88 |
| [그림 VI-1]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               | 89 |
| [그림 VI-2] 한국 전통에 대한 학습 .....              | 90 |
| [그림 VI-3] 한인회 참여 .....                    | 91 |
| [그림 VI-4]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 .....             | 91 |
| [그림 VI-5]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 여부 .....            | 92 |
| [그림 VI-6]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               | 92 |
| [그림 VI-7] 한민족에 대한 언급 .....                | 93 |
| [그림 VII-1] 한인단체 활동 여부 .....               | 94 |
| [그림 VII-2] 한국과의 연락 여부 .....               | 95 |
| [그림 VII-3]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 .....          | 95 |
| [그림 VII-4]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바람 .....       | 96 |
| [그림 VII-5]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 .....            | 96 |
| [그림 VII-6] 한국 청소년과 교류를 위한 사이트 구축 필요 ..... | 97 |
| [그림 VII-7]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인상 .....            | 97 |
| [그림 VII-8] 한국 유학생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호감 .....    | 98 |
| [그림 VII-9] 한국 정부의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 98 |
| [그림 VII-10] 한국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 99 |

|                                        |     |
|----------------------------------------|-----|
| [그림 VII-11] 한국 정부에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 .....   | 100 |
| [그림 VIII-1] 한국에서 러시아로 최초로 이주한 가족 ..... | 102 |
| [그림 VIII-2] 조상이 최초로 이주한 시기 .....       | 103 |
| [그림 VIII-3] 조상의 원 거주지 .....            | 103 |
| [그림 VIII-4] 강제이주 때 이주한 지역 .....        | 104 |
| [그림 VIII-5] 최초로 정착한 콜호즈 .....          | 104 |
| [그림 VIII-6] 강제이주에 대한 정보 .....          | 105 |
| [그림 VIII-7] 태어난 국가 .....               | 105 |
| [그림 VIII-8] 함께 이주한 사람 .....            | 106 |
| [그림 VIII-9] 이주의 동기 .....               | 106 |
| [그림 IX-1] 학업의 목적 .....                 | 107 |
| [그림 IX-2] 미래에 대한 기대 .....              | 107 |
| [그림 X-1] 지역별 생활 만족도 .....              | 109 |
| [그림 X-2] 남녀별 생활 만족도 .....              | 109 |
| [그림 X-3] 지역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          | 110 |
| [그림 X-4] 남녀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          | 111 |
| [그림 X-5] 지역별 한국어 듣기와 이해능력 .....        | 111 |
| [그림 X-6] 남녀별 듣기와 이해능력 .....            | 112 |
| [그림 X-7] 지역별 민족 자부심 .....              | 113 |
| [그림 X-8] 남녀별 민족 자부심 .....              | 113 |
| [그림 X-9] 가정에서 한국 음식 .....              | 113 |
| [그림 X-10] 지역별 한국 영화나 연속극에 대한 호감 .....  | 114 |
| [그림 X-11] 남녀별 한국 영화나 연속극에 대한 호감 .....  | 115 |
| [그림 X-12] 지역별 한국에 대한 소속감 .....         | 115 |
| [그림 X-13] 남녀별 한국에 대한 소속감 .....         | 116 |
| [그림 X-14] 지역별 한인(고려인) 단체에서의 활동양상 ..... | 117 |
| [그림 X-15] 남녀별 한인 단체에서의 활동양상 .....      | 118 |
| [그림 X-16] 지역별 한국 친밀감 .....             | 118 |
| [그림 X-17] 남녀별 한국 친밀감 .....             | 119 |
| [그림 X-18] 종교별 한국 친밀감 .....             | 119 |
| [그림 X-19] 지역별 한국 유학생에 대한 생각 .....      | 120 |
| [그림 X-20] 남녀별 한국 유학생에 대한 생각 .....      | 121 |

|                                                   |     |
|---------------------------------------------------|-----|
| [그림 X-21] 한국정부가 주관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br>(지역별) ..... | 121 |
| [그림 X-22] 한국정부가 주관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br>(남녀별) ..... | 122 |
| [그림 X-23] 지역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              | 122 |
| [그림 X-24] 남녀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              | 123 |
| [그림 X-25] 종교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              | 123 |

## I. 머리말



## I. 머리말

2007년은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17만 이상의 고려인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18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은 최소한 4세대에서 6,7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소련(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사할린 한인<sup>1)</sup>도 3세대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구소련 고려인(한인)들이 역사적 조국인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뒤이어 1990년 한소수교, 1991년 소련방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공화국들과 한국의 국교수교, 그리고 카자흐스탄 알마티(1991. 8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1992. 5월),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1993. 12월)와 블라디보스톡(1995. 3월) 등으로 이어진 한국교육원의 설립<sup>2)</sup>은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과 한국인과의 교류를 촉진시켜왔다.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를 방문했고 한국인들도 외교업무와 비즈니스, 그리고 선교와 학문(유학 포함) 연구를 위해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찾았다.

198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지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려인 연구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강제이주와 강제이주 1,2세대에 치우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여름 중앙아시아와 유럽러시아 고려인 3,4세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16~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의 생

---

1) 그들은 ‘고려인’이라기보다 ‘사할린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청소년 세대의 경우 점차 의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본문에서는 모두 고려인으로 설명하였다.

2) 그리고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크(1997. 8월), 키르기즈스탄 비쉬켄(2001. 5월), 남부 러시아 로스토프-나-논누(2001. 9월) 순서로 한국교육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도 등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고려인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조사이다. 나아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된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과의 향후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 \* 설문조사 대상지역

설문조사는 고려인들의 주요 거주 국가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4개 국가 13개 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의 수도와 제정기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내 최대 고려인(한인) 거주지인 극동 러시아의 4개 도시(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또한 신흥 고려인 거주지로 떠오른 남부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와 역내 최대 도시인 로스토프-나-돈누 등 7개 도시이다. 고려인의 최대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이며, 카자흐스탄은 과거 수도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알마티와 고려인의 첫 정착지인 탈디쿠르간 지역이다. 비록 전체 수는 적어도, 독립국가연합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수도인 키예프와 옛 수도이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에 모인 우크라이나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설문분석에서 분류한 6개 지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러시아 수도 -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 ② 남부 러시아 - 볼고그라드, 로스토프-나-돈누
- ③ 극동 러시아 -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④ 우크라이나 - 키예프, 하리코프
- ⑤ 우즈베키스탄 - 타쉬켄트, 타쉬켄트 주
- ⑥ 카자흐스탄 - 알마티, 탈디쿠르간

\* 심층 인터뷰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수도(옛 수도 포함) 4개 지역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의 문항을 기본으로 구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4개 지역의 심층 인터뷰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모스크바 - 청소년 5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 ② 상트 페테르부르크 - 청소년 2명, 교사 1명, 학부모 3명
- ③ 타쉬켄트 - 청소년 3명, 교사 3명, 학부모(교사) 1명
- ④ 알마티 - 청소년 2명, 학부모 1명

\* 설문지 수거 현황 (총 905부)

러시아 - 430부

모스크바 - 95부

상트 페테르부르크 - 52부

로스토프-나-돈누, 볼고그라드 - 69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214부

우즈베키스탄 - 315부

카자흐스탄 - 99부

우크라이나 - 61부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및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3.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및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 1. 이론적 배경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주사 연구에도 이른바 “시계추 이론”이 적용된다. 연해주에 거주하였던 세대나 혹은 연해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주 1세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역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이주 2세대는 소련에 동화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시계추가 원래 자리에서 멀어지듯 한국의 전통 문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페레스트로이카 즈음에 태어난 고려인 이주 3~4세대들은 시계추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듯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1937년 강제이주의 역사를 포함, 조상들이 언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한국뉴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등 상반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만남을 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 2. 선행연구

학술논문의 성격을 지닌 주요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송무 교수의 『소련의 한인들』이다. 이 책은 고려인의 강제이주, 민족문화 보존, 쌀농사, 극장, 문학, 언어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후 1993년에 이광규와 전경수는 『재소한인-인류학적 접근』에서 재소한인들에 대

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박환은 1998년 『재소한인 민족운동사 - 연구현황과 자료해설』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역사를 국내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연구논문으로는 1981년에 이미 이문웅이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중앙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선 1994년 배재대학교의 김우승과 이길주는 각각 「이슬람-정교문화의 충돌과 CIS한인의 정치적 위기: 종교사회학적 분석」, 「CIS 한인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적 측면」을 발표한 바 있다. 1996년에는 재외한인학회의 『중앙아시아 현지조사 자료집』, 한국사회사학회의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과 같은 논문집들이 발표되었다. 1998년에는 이광규 교수의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토착문화의 융합문제」가 발표되었고, 재미교포사회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던 윤인진은 재미교포사회 연구에 적용하였던 틀을 다시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을 『재외한인연구』에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얼마티 한국교육원 외에 다수 연구자들이 참여한 『카자흐스탄한인사』, 『소련 붕괴이후의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석사학위 논문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과정 연구」가 같은 해에 발표되어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99년에는 임홍빈이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와 모국어」, 임채완이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김문옥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여 고려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계속 이어갔다. 2000년에 발표된 고려인 관련 연구들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전반적인 특성, 고려인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 고려인의 문화적인 자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0년 6월 전남대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려인 연구자인 카자흐스탄의 김 게르만은 고려인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활동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최 스베틀라나

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상황에 대한 현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부 국내 연구자의 논문은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시각과 이해만으로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2000년도에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러시아 3,4세 고려인 일상생활문화 변화 연구: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들 두 연구보고서는 제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 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구진이 어떠한 인식에서 연구를 착수하였는지, 아울러 어떠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려인의 문화변화라는 부분을 러시아문화와 고려인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고려인의 러시아화 경향 심화 및 향후 젊은 세대의 문화변화 방향에 대한 일정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반면 후자는 사회·문화생활 및 민족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고려인의 사회·문화변화를 총체적인 문화의 측면에서 다루지 못하고 개별 학문별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5개 연구주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2001년에 들어와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실시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현지 조사보고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방대한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시점에서 2000년 내지는 2001년 현재의 고려인문화만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001년 말에는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언어상황과 한국어의 지위」, 「한국의 IMF 체제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위상고찰과 접근방법론」,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2001년 재외동포재단 위탁과제인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려인 사회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연구: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 성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2001년도의 연구 성과물들은 고려인연구가 점차 지역이나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남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카프카즈,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독특성을 소개하는 글들은 연구주체의 지역단위 세분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001년의 이러한 성과물 가운데 고려인연구가 전문이 아닌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대한 사전학습을 소홀히 한 결과, 이미 고려인사회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연해주 이주를 다시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도 했다.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살피는 국내의 연구 역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한 설문지 및 짧은 형식적인 인터뷰를 통한 현장탐방식의 연구 결과물들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9년까지 발표된 단행본이나 연구논문들은 대부분이 고려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만을 하고 있으며, 현지의 러시아어로 된 1차 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고려인을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연구는 당위적이거나 피상적인 결론만을 내리고 있었다.

물론 문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룬 소연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련 문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각된 고려인 작가에 대한 연구는 문화 부분에서 최초의 관심 분야가 되었다. 최건영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구소련 한인 작가」 (『공산권 연구』 118, 1988년)나 정상진의 「조명희부터 김 아나톨리까지」 (『한길문학』 12) 등은 구소련 한인 작가들을 개관하거나 작가들 개인의 문학 활동에 대한 회고담을 싣고 있다. 하지만 연구사적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작품 분석 및 고려인들의 세계관을 추적하는 부분으로까지는 심화되지 못하여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문학과 관련하여 이정희는 고려인의 희곡 연구를 시도하였다 [「재소한인 희곡 연구: 소련 국

립 극장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단국대 국문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구소련의 한인 문학사에서 연극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논하려 시도했으나, 역시 희곡의 내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희곡 및 공연 문화를 문화적 현상으로 살피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들어서 이전의 고려인 문학세계를 보다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물이 출간되었다. 이명재 외 6명의 국문학자들에 의해 발간된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문학』(한국문화사, 2004)은 작품 속 고려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강제이주에 대한 기억 방식과 민족 정체성을 잘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저술물은 1920~30년대 극동시기부터 희극작가로서 고려인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갔던 연성용과 후대의 극작가 한진,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소련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당한 작가 포석 조명희, 그리고 일단의 조선 청년들에 관한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의 저자인 김준 등의 작품을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련 시기 고려인의 의식과 정신, 문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현지에서 러시아어로 발표된 연구 성과물들을 살펴보면,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러시아 저술가들의 연구 성과물들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연구의 대부분은 학문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제정러시아 정부의 관리, 군인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들이 그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말 연해주 주지사를 지낸 운테르베르게르는 한인들의 이주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이후 I. 나다로프는 러시아 우수리 지방에서 9년간 거주하면서 연해주에 형성된 4개의 주요 한인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1890년대에는 아무르지방 총독으로부터 러시아 극동지방의 한인사회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은 N. 나세킨은 한인사회의 러시아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1911년에는 B. 페소츠키가 러시아 황실의 칙명에 따라 진행한 “한인 문제”라는 연구물에서 연해주지역에서의 한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A. 파노프는 「아무르강 유역의 황색(아시아)인 문제」라는 연구논문에서 연해주지역에서의 농업개발과 관련된 한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한인 이주민들의 거주와 관련된 연구는 S. 네다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한인의 정착지대로 국경지대가 아닌 타이가 지역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토지 분배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한편 G. 포드스타빈, N. 큐네르 같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미 한국어를 다각도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이후 여러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소련체제의 출범이후에는 극동 한인들의 이주사, 인구동태, 거주분포에 대한 저작들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27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된 『10월혁명과 재소한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재소한인의 농업과 프롤레타리아 문화분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기여를 다루는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소한인 연구는 1937년 강제이주를 기점으로 하여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는 1950년대까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 V. 바비체프, M. 김, S. 한 등에 의해 재소한인의 혁명참여와 극동에서의 소비에트 정권 건설에 대한 저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인 빨치산부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재소한인 역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김승화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재소한인의 문화변화에 대한 접근은 R. 좌릴가시노바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재소한인의 민족문화의 변화를 전통과 혁신의 측면에서 민족적인 분화와 서로 상이한 타민족간의 문화적인 통합이라는 이원화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1992년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심리학자인 민 L.B.는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가족 전통 및 관습이라는 연구 소책자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한인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후 김 G.M.은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서의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으로 인한 종교문제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동방학 연구

소의 연구원이었던 엄 나탈리는 알마티 한인들 사이의 국제결혼 및 민족혼합 가정에 대한 논문을 통해 고려인의 혼혈결혼 문제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재소한인의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김 O., 허가이 M., 유가이 L. 등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민족적으로 밀집된 형태의 농촌과 한인이 분산되어 거주하는 도시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언어학자인 박 N.S.는 캐나다의 언어학자인 로스 킹과 함께 고려말의 방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인 학자인 B. 하사노프는 카자흐어와 한국어 사이의 상호 영향을 이중언어 사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철학자 김 O.G.는 소비에트 한인들의 문화 및 언어문제에 대한 논문을 러시아 한인들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이와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한인 인물사에 대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2년 명 D.V., 권 L.A., 김 Z.V., 반 N.G. 등은 백과사전식인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을 발행하였다. 1993년에는 김 G.N.에 의해 「고려사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가 최초의 개괄적인 사료서 측면에서 발표되었다. 1995년에는 김 G.N.과 명 D.V.에 의해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발표되었고, 이 책에서는 공식기록 자료들과 기타 서류에 의한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 연구가 시도되었다. 또한 강 G.V.는 1994년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개괄적 역사』를 출간하였으며, 1년 뒤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를 역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1996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주도로 『카자흐스탄의 한인들: 사진으로 보는 역사』가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책은 현재 한국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지역단위의 한인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1994년 전 V.S.는 『꾸스타나이 한인 역사의 첫 장』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아울러 J.U. 코프좌사로프는 1997년 『카스피해 연안의 한인들』이라는 책에서 카스피 해 연안 아티라우 지역에서의 고려인 정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저술하였다. 또한 한 G.B.는 『카자흐스탄 한인의 과거와 현재』라는 저서에서 한인과 관련된 보고서, 발표, 연설, 공식기록 등의 중요한 사실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2002년에 발간된 저서 가운데

데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박 I.T.의 감수로 만들어진 『카자흐스탄 학계의 한인들』이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한인들의 기여를 다루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김 P.G.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 역사와 현재』가 발간되어 1937~3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강제이주에 대한 역사가 다루어졌다. 김 V.D.는 1994년 『두만강-국경의 강』이라는 책을 통해 1904~1922년 사이 한인유격대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저서인 『군용열차58』에서는 한인들의 강제이주에 대한 기억들이 잘 나타나 있다.

한편 1992년 러시아에서는 30~40년대 러시아 한인사회의 강제이주에 대한 백서가 발표되었다. 이 책에 의해 과거에 엄격히 통제되었던 재소한인 관련 자료들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될 수 있었다. 1997년에는 박종효와 이 O.A.에 의해 한인의 강제이주 명부가 포함된 관련서류들이 『기억의 책』에 수록되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에 모스크바에서는 박 M.N., 장 V.V.에 의해 30명의 강제이주자들의 회고록을 모은 『가슴아픈 시련의 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르쿠츠크의 박 B.D.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제국의 한인들: 극동시절』을 발간하였다. 또 그는 1995년에 『연방러시아의 한인들 1917~1930년말』을 발표하여 1917년 소련정권 수립시점에서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까지의 러시아에서의 한인들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2003년 말에는 고려인 관련 저술물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최초의 대형 백과사전이 출간되었다. 최 B.의 감수 하에 출간된 『러시아의 고려인 백과사전-로씨야에서의 140년간』은 총 1440쪽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1863년부터 2003년 시점까지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복권문제, 언어(고려말), 전통문화, 사회문화교육 단체, 과거 애국지사 및 전쟁 및 노동영웅들, 사회 각계의 고려인 주요 인사들에 관한 자료와 역사를 수록했다. 하지만 인물 선정이나 전체적인 내용 수록에 있어서 백과사전으로서의 부족함이 엿보이는 업적물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적지 않은 고려인 관련 저술물들의 발간이 이어졌다. 특히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한 2004년에 발간된 박 보리스·부가이 니콜라이의 『러시아에서의 140년간』은 고려인 14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고려인 통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온 이 저술물은 러시아 현지의 기록보존소와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서와 자료들을 토대로 집필된 만큼 역사적 사실 전달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제3부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경제적 혼란기 속에서 고려인협회와 고려민족문화자치회, 민족학교 등이 조직되고, 고려인들의 위상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고려인 사회의 변화 양상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문화 부문에서는 문학, 미술, 희곡 등 세부 분야의 고려인 활동을 언급하는 소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문학 연구가 차지하고 있다. 필립 김은 「레닌 기치에 나타난 소비에트 한인 문학」(『비교 한국학』, 1997.8)에서 알마티에서 발행되던 한글 신문인 『레닌 기치』의 ‘문예’란에 주목하였다. 문예란은 사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작가들의 주요 등단 무대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립 김은 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제 시기 간도나 만주로 쫓겨 갔던 시기보다 중앙아시아로의 이주가 고려인들에게는 훨씬 건강하고 밝은 삶을 가져다주었다고 결론 내린다. 필립 김은 시 자체에서 보여주는 삶의 질곡, 시적 심상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학을 순수한 문학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한인동포와 관련된 학술회의도 활성화되었다. 1993년 9월 손 L.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인사회와 다민족적 환경에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1996년 12월 모스크바 국립대 한국학센터는 한국문화사의 기본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997년 7월에는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아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및 언어를 주제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같은 해 모스크바에서도 모스크바삼일문화원 주최로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3년 6월 30일과 7월 1일에 고려일보 8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가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한국과 CIS 각국의 고려인 연구자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발표를 통해 고려인 동포언론의 발전, 현재 고려인의 생활, 동포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현재 고려인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분석하려는 사회학, 언어학, 역사학자들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회의에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고, 한국측 발표자의 한국어 논문 역시 국내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학술대회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집 역시 국내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3년의 학술회의의 안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논문의 제목들이 눈에 띄며, 고려인 사회 연구가 세분화되고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며 동시에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아직 미출간된 자료여서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지로는 1993년 고송무에 의해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소식』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제5호 발행을 앞두고 그가 타계함에 따라 이 학술지의 발행은 중단되었다. 이후 1996년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분과에서 『카자흐스탄 한국학』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제 9호가 발간되었다. 현재 이 학술지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소식』이 국내외 학자들의 고려인 관련 연구물들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동방학부의 한국어-한국문화센터는 1996년부터 『한국어-한국문화센터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 회보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같은 고려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향후 고려인 사회의 주역인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한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러시아 3,4세 고려인 일상생활 문화 변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2000)」

가 있을 뿐이다. 2002년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중앙아시아, 볼고그라드 등 구소련 여러 지역의 3~4세대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생활문화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향후 고려인 사회의 토대가 될 것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독립국가연합의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는 무엇보다 재러 동포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3. 구소련 지역의 한인 이주사

18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구소련/독립국가연합 이주의 역사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860년대 초반부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기 전까지,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1953년 스탈린 사후 불명예를 벗고 구소련의 전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된 시기까지,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 이전과 이후의 시기가 그것이다. 외대 고려인 연구팀이 개발한 「러시아 고려인 140년 이주개척사」 디지털콘텐츠<sup>3)</sup>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937년 강제이주부터 1991년 소련해체까지를 한 시기로 묶어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 1) 제정러시아 시기 ~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전까지

한 세기 반의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sup>4)</sup>은 다른 어떤 해외한인보다도 더 큰 시련과 질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직장을 구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조국을 떠났던 것이 아니며 처절한 삶 속에서 생

3) <http://kosa.culturecontent.com/>

4) 고려인은 현재 구소련 지역(현재의 독립국가연합)에 사는 한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들을 1937년 스탈린 강제이주를 전후로 하여 각각 ‘한인’과 ‘고려인’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1863년 겨울 함경도에 거주하던 조선사람들 일부가 두만강을 불법으로 넘어 러시아령 연해주 지방 내지로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러시아 군당국에 거주요청을 하였다. 이에 러시아 국경수비를 담당하던 군당국은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1864년에 공식적인 허가를 해주었다.<sup>5)</sup> 이렇게 해서 13가구에 이르는 한인들이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한 촌락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고 마을 이름을 ‘지신허’(地新墟)라 불렀다.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1864년은 고려인 이주사의 원년으로 기록되었다.

러시아 영내에 조선사람들의 촌락이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함경도에 거주하던 다수의 빈민들은 당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이주를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186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조선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경을 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지신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외에 많은 조선사람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연추, 시지미, 아지미, 추풍 등은 초기 한인들의 대표적인 공동체 마을이었다.

일단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재이주정책으로 아무르강 유역 등 훨씬 더 내륙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여 생활의 공간을 확대시켰다. 조선과 러시아 간에는 정식 국교가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당국에서는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 지방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한 후 극동지역 개발에 따른 노동력 공급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조선사람들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조선사람들도 뛰어난 근면성을 바탕으로 농사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군인들과 별 마찰 없이 지내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주 초기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로 영구이주하려는 한인들의 수는 지속

5) РГИАДВ, Ф.87, Оп.1, Д.278, Л.1. 「Рапорт командующего 3-й ротой линейного батальон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поручка Резанова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0 ноября 1863г. №205」 ; Там же, Л.9.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и.д. инспектора линейных батальоно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ковника Ольденбурга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5 сентября 1864г. г.Николаевск」 .

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촌락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다른 촌락이 형성되는 등 한인공동체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1869년 초겨울에만 한꺼번에 4,500명이 넘는 조선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다.<sup>6)</sup> 이는 이전에 수십 혹은 수백 명 규모로 이동하는 경우와는 판이하게 달랐으며 지나치게 과도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었다. 이 결과 지역을 경비하는 러시아 당국은 한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에서의 생활보다 러시아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 집요하게 고집하는 한인들의 의지에 러시아 당국으로서도 적극적인 이주방지 대책을 고안해 내야만 했다.

심지어 1870년대 초에는 영구이주 목적이 아닌 단순히 계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두만강을 넘는 조선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연해주 지방의 한인들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다. 계절이주자들은 러시아에서 일이 끝나면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었으나 나중에 이들 중 대부분이 러시아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사회는 영구정착을 하고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일시적 취업을 위해 머무는 단기체류자의 두 부류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 말 20여개의 한인촌이 있던 러시아 극동지역에 약 7천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한인정착촌 대부분은 연해주 지방에 위치하였고 그 중에서 규모가 컸던 지신희, 연추, 푸칠로프카, 코르사코프카 마을 등에는 각각 700~800여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 1878년 동시베리아 군사령관지사 산하 특별위임 관리 비슬레네프(В. Висленев)에 의해 시행된 남우수리스크 지방의 3개 관구(округ, 한카, 수이푼, 수찬)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 20개 한인정착촌의 한인은 총 6,142명이었다.<sup>7)</sup> 비슷한 시기인 1879년 아무르주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에는 624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1870년대 말 프리아무르 지방 21개 한인마을의 인

6)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38쪽.

7) Б. Д. Пак, Корей цы В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М., 1993, с.47-48. 이 수치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는 총 6,766명에 이르렀다. 계속된 이주로 1880년대 초 한인의 수는 총 8,768명까지 증가했다.<sup>8)</sup> 이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령 연해주 일대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한인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884년 조선과 러시아 간의 국교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지속되었다.

조선과 러시아 간에 공식적인 국교가 체결되면서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한인문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한인들이 러시아로 입국할 때 이전과는 달리 정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종전 방식대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령에 거주하게 된 한인들의 절대 수치가 러시아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수요보다 과잉상태에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주민 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1891년 한인들은 크게 세 부류의 지위로 나뉘어 졌다. 첫째는 국교수립 이전에 러시아령에 입국하여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 둘째는 국교수립 이후에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러시아령에 입국한 사람들, 마지막 셋째는 단순히 계절적 노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었다.<sup>9)</sup> 80년대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한인들 간에 일종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셋째의 경우는 불법적으로 거주연장을 행하는 한인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주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게 되어 이주자 거주허가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1890년대 초반에 연해주 지방의 일부 마을에서 추방되는 한인들

8) В. В. Граве, указ. соч., с.128. В. В. Граве, “Китай цы, корей 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амурье,” (Отчёт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В. Граве),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11, СПб., 1912, с.128.

9) 『Приаму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No.181, июнь, 1897, с.17-18. 「Русско-подданные корей цы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В. Граве, указ. соч., с.131. 그러나 제2그룹에 해당되지만 러시아 국적을 희망하지 않는 자와 제1그룹의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의 이행의무를 거부한 자들은 제2그룹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제2그룹 한인의 처분되는 가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었다.

이 생겨났고 이들은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근면성에 호감을 가지고 향후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한인들의 거주를 장려하는 프리아무르(극동) 군관구 군사령관지사(총독, general-governor) 등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두호프스코이와 그로테코프는 한인들의 이주와 거주에 반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총독이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이 재임하고 있던 1893~1902년 시기에 연해주와 아무르주 등 극동 지방에 거주하게 되는 한인들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연해주의 한인만 하더라도 1891년에 1만2천여 명에서 1898년에는 2만3천여 명, 1899년에는 2만7천여 명 그리고 1902년에는 3만2천여 명에 달했던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은 한인들의 러시아령 이주는 러일전쟁(1904~1905)과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의 일제의 조선강제점령 등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상승국면을 유지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항일독립군 투사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속속 모여들어 정치적 성격의 이주자들이 형성되었다. 1910년이 되면 이미 연해주 지역에는 5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극동 지역 전체적으로는 6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50여명의 소규모이지만 자바이칼주의 치타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1)</sup>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1913년이 되면서 연해주 한인의 자치조직인 권업회 회장 최재형을 위주로 이주 5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한인 러시아이주 50주년 행사는 1914년 9월(러시아 구력)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갖기로 하고 이주기념비를 포시에트에 세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1914년 3월 러시아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은 한인이주 행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독일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계엄령이 선포되고 소수민족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무산되었다.<sup>12)</sup> 한인

10)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앞 책, 74쪽.

11) В. Д. Песоцкий,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Отчёт поручика 1-го Сибирск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полка В.Д.Песоцкого),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Приложение к выпуску 11, Хабаровск, 1913, Приложение XIII, с.155.

12)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2002, 73-75쪽.

들이 1914년을 이주 50주년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이주원년을 1863년이 아닌 1864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주원년에 대한 인식은 2003년이 아닌 2004년에 고려인이주 140주년 공식행사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가 독일과 전쟁을 하는 기간에도 연해주의 이주한인은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즉 제정러시아 체제가 끝나는 시점에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약 10만 명이었고 그 중 대부분인 8만여 명이 연해주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연해주 인구의 1/3을 차지하였다.<sup>13)</sup>

전쟁은 러시아의 정치상황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전과 다른 새로운 체제를 등장시킨 혁명을 촉발시킨 것이었다. 구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노동자와 농민계급을 중시하는 새로운 체제는 극동지역의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혁명에 이어서 혁명파와 반혁명파 간의 3년간의 내전, 그리고 내전기에 있었던 일본군의 극동침략 등은 한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였다. 한인들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볼셰비키 정권과 결탁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군의 극동 침입은 볼셰비키에게 안보 불안감과 민족적 적대감을 지니게 하였다. 한인들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신생혁명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내전기 초기에 볼셰비키 권력은 극동에서는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혁명 세력인 백위군의 활동이 강력하였다. 이와 같이 극동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완전히 수립되는 1922년까지 이 지역의 한인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로서 신생정부에 협력하는 사람,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민족주의자로 남는 사람 등으로 한인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일본군과 항일독립군과의 전투 등으로 1917년부터 5년여 동안 극동의 한인들의 삶은 극도의 피폐함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

13) 김 게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173쪽.

일부 극동의 한인들은 이 무렵 중앙아시아나 유럽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제정러시아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사주로 러시아 당국이 항일독립운동가들 중 일부가 극동에서 러시아 내지로 유배당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가령 1910년을 전후해서 프리아무르 총독이었던 운테르베르게르는 이범윤 등 7명의 항일인사들을 이르쿠츠크로 추방시켰으며,<sup>14)</sup> 1911년 5월에야 재입국을 허락하기도 했다.<sup>15)</sup> 당시 프리아무르 및 태평양 지역의 러시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운테르베르게르로서는 한인들의 계속되는 이주도, 나아가 연해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던 한인무장투쟁도 결과적으로 프리아무르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 여겼고, 계속해서 탄압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20세기 이전에 일부 한인들이 러시아령 중앙아시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다. 카자흐스탄의 중북부 지방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지역에 소수의 한인들이 있었음은 1897년 제정러시아 인구조사에서 파악되었다. 물론 그 규모는 타쉬켄트 지역 10여명 등 불과 몇 십 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거주를 목적으로 이미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1922년 볼셰비키 중앙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련의 거의 전 지역에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1922년 말에서 1923년 사이에는 소련 공산당 극동국에서 극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아무르 주나 자바이칼 주로 강제이주시키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한편으로 내전기 직후에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한인들과 기존의 무토지 한인들을 내륙지역으로 재이주시키려는 소비에트 당국의 정책은 1930년을 전후해서까지 지속되었다.<sup>16)</sup>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결정 이전에도 극동한인

14) РГИАДВ, Ф.1, Оп.10, Д.327, Л.8. 「블라디보스톡 경비대장이 연해주지사에게 보낸 1910년 10월 27일자 전문」; В. В. Граве, указ. соч., с.184.

15)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Наука, 1965), с.73.

16) РГИАДВ, Ф.2413, Оп.4, Д.923, Л.22-23. 「1920년대 국경지역 불법이주한 무토지 한인 재이주 문제와 관련 극동집행위원회 비서국으로 보낸 문서」.

들을 강제이주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25년 무렵에는 소비에트 한인자치조직이 전 소련 지역에 걸쳐 조직되었다. 연해주는 물론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의 톰스크, 옴스크,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치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와 하리코프, 도네츠크 그리고 북부러시아의 무르만스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한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sup>17)</sup>

소련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최초의 인구조사는 1926년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수십 명의 한인이 아크몰라 주, 세미팔라친스크 주, 시르다린스크 주에 살았고, 개별적으로는 카라간다, 크즐-오르다와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주, 부하라관구, 수르한다린스크 관구와 키르기즈스탄 지역에 26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년 전인 1924년에는 사회조직인 ‘투르크에스탄 공화국 한인연맹’이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원은 28명이었다. 같은 해 타쉬켄트 인근의 농장에는 이미 한인들이 ‘일심(一心)’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sup>18)</sup> 이 농장이 바로 훗날 고려인 콜호즈 ‘폴리타젤’의 전신이었다.

1937년 강제이주 이전 비교적 큰 규모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례는 1928년에 있었다. 소련에서 식량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식량개발 문제가 고려되었고 벼농사 재배가 구상되었다. 벼농사 재배에 관한 한 이미 극동 지역의 한인들이 유명했었고 이들 일부가 카자흐스탄으로 초청되었다. 1928년 봄에 한인 대표 오가이 P. V. 를 비롯한 70가구 300여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이어서 한인들은 탈디쿠르간 지역에 ‘한인 농업협동조합(Kazris)’을 만들고 벼농사 실

17) 임영상, 황영삼, 「CIS 및 발트지역 고려인 사회의 민간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제13권 2호, 2003, 125-126쪽.

18) 최태강, 심현용,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의 통합문제: 사회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79쪽.

힘에 들어갔다. 한인들의 노력은 성공하였고 1931년 카자흐스탄의 베퍼중지 넓이가 7,200ha에 달함으로써 6,636ha의 극동지역의 것보다 더 넓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이미 소련 내의 각 주요 도시에서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한인들은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자발적으로 혹은 타의로 연해주 지역에서 훨씬 벗어나 먼 내륙지방에까지 가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인들의 소비에트 전지역에 따른 분포는 1911년 초에 취해진 한인 및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제한 폐지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11년 3월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정부는 비귀화 한인들의 금광노동을 허락하는 대신 토지분여 없이 귀화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911년 3월 23일자로는 ‘외국인노동자 사용제한 규정’을 최종적으로 폐지했던 것이다.<sup>19)</sup> 이런 정책으로 1916년대 한인은 이미 우랄산맥 근처인 오비(Обь)강, 즉 서시베리아에서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까지 걸쳐 거주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1937년 강제이주 전에는 연해주 지역은 물론 북사할린, 캄차카, 이르쿠츠크 및 시베리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러시아 지역 등 러시아 혹은 소련의 전 영역에서 한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말 소련에서는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되었다. 1921년부터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신경제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나 레닌이 1924년에 사망하면서 최고정치집단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권력투쟁에는 경제발전에 관한 문제도 결부되었다. 스탈린이 모든 권력투쟁을 종식시키면서 1928년부터 농업집단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군소자영농과 부농들이 정권의 타도대상이 되면서 농촌사회는 콜호즈와 슝호즈 체제로 전면 개편되었다. 극동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제 한인들은 새롭게 개편된 집단농업 제도에 적응해야 하였다. 어려운 기후여건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의 한인들은 벼농사 재배에 높은 생산량을 내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농업 체제 하의 한인들은 1930년대의 새로운

---

19) Ban Byung Yool, “Korean nationalist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Chientao(1905-1921),” Ph.D. diss., August, 1996, pp. 75-77;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 책, 99-103쪽.

정치환경 하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극동시기 한인들의 정치-경제적인 활발한 활동 이외에도 1920~30년대 한인들은 교육, 언론, 예술 등의 문화 분야에서도 중흥기를 이루었다. 우선 한인들의 교육활동을 들 수 있다. 극동지역 한인들의 교육활동은 18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 한인들의 학교교육은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당시 정교회의 지도부는 신성종무원이라는 국가의 한 행정부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을 상대로 한 선교 및 교육활동은 순수한 종교적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1899년 1월 1일 독자적인 블라디보스톡 주교구와 블라디보스톡 주교구 정교회 선교부 위원회가 조직(10월 10일)되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족 선교와 교육이 더욱 체계를 잡아나갔다.<sup>20)</sup>

1910년대에 들어서 한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1917년경에 한인들에 의해서 건립된 182개 사립학교(학생-5,750명, 교사-257명)와 43개 공립학교(학생-2,539명, 교사-88명)에서 총 8,289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그러나 1922년 소연방의 구성 이후 소련의 교육체계는 크게 변화를 겪었다. 1925~26년 말에 사립학교는 사라지고, 154개의 공립학교에 학생수가 10,646명(교사-2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신한촌의 한민학교와 이포(리포허)지역의 명동학교는 체계적인 민족교육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초등학교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이시기에 중학교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24년에 블라디보스톡에 9년제중학교(8호모범한인증학교)가 열려 607명의 학생(교사-19명)들이 공부를 했다.<sup>21)</sup> 특히 8호모범중학교는 1930년대에 많은 한인지식인들이 교사로 활동하며 한인학생들을 교육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는 고급교원과 대학교육을 이수한 엘리트 양성을 위한 대학들이 건립되며, 한인 사회의 민족교육의 체계가 보다 자리를 잡아갔다. 1923년 한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우수리스크 러시아사범전문학교 내에 조선어과가 개설되었

20) Н. П. Матвеев,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г.Владивостока, 1860-1910, Владивосток, 1910, с.174.

21) 『레닌기치』, 1964년 9월 16일, 2면. 「소련 조선인 인민 교육 력사 중에서」.

다. 초기 21명의 한인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듬해에 자립적인 조선사범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1926년에 고려교육전문학교로서 정식 설립된 이후 강제이주 전까지 244명의 교사들을 배출해 내었다. 하지만 하나의 사범학교로는 증가하는 학교의 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1930년에 포시에트에 또 하나의 조선사범학교가 건립되었다. 1931년에는 극동지역 한인의 역사에서 최초로 조선(고려)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을 열었다. 1932년 가을부터 4개 학부(역사, 문학, 수리, 생물)에서 730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했으며, 학교 내에는 단기과정의 노동학원이 부설되었다.<sup>22)</sup> 이처럼 한인들은 민족교육을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한 문화와 역사, 전통을 유지시켜 나갔다.

극동 시기 한인들의 언론활동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극동지역 한인사회에서 신문의 발행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조신문』, 1909년에는 『대동신보』가 발간되었고, 1911년 5월에는 『대양보』, 1912년 4월에는 권업신보』이 발간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1911년에는 치타에서 『대한인정교보』 잡지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항일적인 성격을 띠었던 이들 출판물들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정부의 압력으로 단명에 그쳤다. 1917년 혁명 이후에 한인을 상대로 하는 출판물들이 다시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혁명 초기에 우수리스크(소왕령)에서는 『청구신문』, 1917년에는 『한인신보』가 역시 짧은 기간 동안 발간되었다. 1918년 봄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이동휘와 김 알렉산드라 등의 한인사회당 인사들에 의해 조직된 출판사 ‘보문사’에서 잡지 『자유중』, 1920년 말에는 『우리목소리』 신문이 간행되었다. 같은 시기인 1920년 봄에 블라고베첸스크에서는 러시아공산당 흑룡주위원회(프리아무레) 조선부(고려부) 기관지인 『새세계』 신문, 흑하 공청동맹에서 『붉은별』 잡지, 대한국민의회 기관지인 『자유보』 신문 등이 발행되었다.<sup>23)</sup>

그러나 1920년대 초 『레닌기치』의 전신인 『선봉』을 제외하고 대부분

22)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II』, 2002, 38-51쪽.

23) 『레닌기치』, 1968년 5월 15일, 3면. 「조선말 적기간행물의 어제와 오늘」.

의 한인신문들은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1923년 3월 1일 『레닌기치』의 전신인 『선봉』 신문이 연해주 당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창간되었다. 『선봉』은 1922년 10월 25일 백위파의 수중에 있던 연해주가 볼셰비키에 의해 해방된 이후 발간되어 오던 『3월 1일』 신문이 4호부터는 『선봉』으로 명칭이 바뀌어 발간되기 시작한 신문이다. 당시 『선봉』은 당시 발행부수가 3~4천부에 달했다. 이 신문은 1937년 강제이주 직후인 1938년 5월부터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다시 『레닌기치』라는 제하에 명맥을 이어 나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4)</sup> (1991년부터 『고려일보』로 개칭) 80여 년을 지속해온 최고(最古)의 해외 한인신문인 『레닌기치』의 가장 큰 공은 역시 한인사회의 공연예술과 문학 및 전통발전 등,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는데 있다. 『레닌기치』는 특히 고려극장과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극평은 물론 극장의 생활과 배우들의 공연작품 선전 및 광고 등의 창작사업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해 왔으며, 공연작품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지적 및 보완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왔다. 이외에도 시, 소설 등 한인문학 발전에 미친 영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고려인의 140여년 러시아 이주개척사에서 눈에 띄는 분야 중의 하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한 눈부신 예술활동을 들 수 있다. 고려인들의 예술활동이 꽃을 피웠던 중앙아시아 시기의 고려극장의 역사는 이미 1930년대 극동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문학작품이 소개되고 푸쉬킨,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등의 문학작품들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곳에서 독자적인 문화예술 공연단체들(가무예술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1920년대 말에 연해주의 거의 모든 한인정착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선 블라디보스톡 담배공장 산하 한인노동자들-전후검, 전 빅토르, 이기영, 이 마리아, 최봉도(카자흐스탄 공훈배우)-이 중심이 되

24) 『레닌기치』, 1981년 10월 9일, 4면. 「독자들과 노동기자들의 말-우리의 레닌기치」, 『레닌기치』, 1988년 5월 15일, 3면. 「“레닌기치” 선해를 맞이하여」.

어 결성된 단체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1924년에 ‘신한촌’ 클럽 내에서 결성된 단체로, 블라디보스톡뿐 아니라, 연해주 전체에서 주도적인 단체 중의 하나였다. 이곳에서는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공훈배우들이 되는 이함덕, 이길수, 태장춘, 김해운 등이 활동을 했다. 이 단체는 특히 러시아 극장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선봉』 신문사 편집국원들과 한인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극동대학 산하 당학교 수강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극상연을 하는 대중적인 관람이라는 전통을 세워나갔다. 이외에도 제8호 모범중학교 내의 클럽을 들 수 있다. 이는 ‘신한촌’ 희곡클럽의 지부였는데, 바로 이곳에서 저명한 무대감독이자 극작가인 연성룡과 최길춘, 이경희가 배출되었다. 또 하나는 푸칠로프카 마을의 1929년 설립된 청년농민학교 내의 클럽이다. 이곳에서는 이후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철학박사가 되는 박일과 인민배우로 활동하게 되는 김진, 조선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회원이었던 조명희가 주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sup>25)</sup>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32년 9월 9일 소비에트 당국의 결정에 따라 ‘한인극장’(<고려극장>의 전신)이 탄생되었다.<sup>26)</sup> 이 무렵 1932~37년 시기에 배우단이 형성되고 민족연극이론이 생겨났으며, 한인극장의 창작방향의 색깔이 정해졌다. 이 시기에 공연된 우수한 작품들로는 이정님 각색의 <춘향전>, 채영의 <장한몽>, 크. 트레네프의 <야로바야의 사랑> 등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인극장에 민족창작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주었다.

## 2) 강제이주 ~ 소련 해체까지

1930년대의 일본의 팽창은 소련에 거주하던 한인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국제적 사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의 내전기(1918~1921)에 일본이 연해주 지역에 침략한 사실로 인해 일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소련 당국은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로 군사작전을 감행하자 또 다시 극동 지방에 대한

25) <http://kosa.culturecontent.com/> - 스토리뱅크-원형스토리 은행-3시기: 고려인 전성시대 -27.고려극장의 전성기.

26) АИПК, Ф.708, Оп.101, Д.83, Л.83, 108.

안보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외모상 일본인과 비슷한 한인들이 일본인 첩자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실제 일본인 첩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련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단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이른바 1937년의 한인 강제이주 조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보다 조금 앞선 1935~36년도 시기에 사회지도자급 한인 2천여 명이 체포되어 처형되는 정치탄압을 당하였다. 이른바 1930년대 후반 소련에서 불었던 대대적인 정치적 숙청작업에 한인들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다.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소련공산당 최고회의는 극동 지방의 일본 스파이활동의 침투차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극동지방 전소련 공산당과 극동지방 집행위원회, 극동지방 내무인민위원부에게 다음의 극동지방 국경지역에서 모든 한인을 이주시킬 것을 권고.

대상지역: 포시에트, 몰로토프, 한카이, 호롤리스크, 체르니고프, 스파스크, 슈마코프, 포스티셰프, 비킨스크, 바첼스크, 하바로프스크, 수이푼, 키로프, 칼리닌, 라조, 스바보드넨, 블라고베센스크, 탐보프스크, 미하일로프스크, 아르하린스크, 스탈린스크, 블류헤로프스크 지구에서 남부 카자흐스탄주의 아랄해 지역과 발하쉬 지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공화국으로 이주시킬 것. 이주 작업은 포시에트 지구와 그로데코보 지구 인근부터 개시할 것.

2. 이주 작업은 즉각 개시하며 1938년 1월 1일까지 종료할 것.<sup>27)</sup> (이하 생략)

스탈린이 직접 서명한 상기 내용의 비밀결정은 당대에는 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러시아의 비밀문서 해제조치의 결과 공개된 것이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도전할 수 없었으며 강제이주 당사자인 한인들조차 항의를 못하였다. 결국 1937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 북사할린, 캄차카 등 소련 극동지역에 살고

27)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앞 책, 303-304쪽.

있던 한인 17만여 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열차를 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장 많이 간 곳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었고 일부는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유역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노보시비르스크 등 극동이 아닌 시베리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경우는 강제이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극동의 한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강제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강제이주열차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입하여 처음 한인들을 내려준 곳은 우쉬토베였다. 1928년에 촌락이 건설된 우쉬토베는 1930년에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는 정거장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쉬토베 지역 행정당국은 이러한 극동에서 온 이주자들을 수용할 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이주자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였다. 한인들이 집이 없어서 토굴을 짓고 간신히 겨울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극동에서 강제이주된 한인들은 카자흐스탄에 20,170가구(95,256명), 우즈베키스탄에 16,277가구(76,525명) 등 36,447가구(171,781명)였다.<sup>28)</sup> 여러 연구자와 인용된 문서에 따라 가구 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 인적 규모는 171,781명으로 강제이주 한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전국에 걸쳐 분산 배치되었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분할과 지배라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다.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수용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르는 영토적 차치요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결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당국은 한인들의 벼농사와 어로능력을 감안하여 많은 수의 한인들을 경제활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배치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조직된 한인 콜호즈를 보면 1938년 12월 당시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28) 위 책, 317쪽.

즉, 크질오르다 주에 28개, 알마티 주에 19개, 악튜빈스크 주에 4개, 북 카자흐스탄 주에 5개, 남카자흐스탄 주에 2개, 구리예프 주에 3개(어업콜 호즈), 카라간다 주에 3개, 쿠스타나이 주에 2개 등 총 66개였다.<sup>29)</sup>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시르다리아 강변에 위치하고 벼농사에 적합한 지역인 크질오르다 주에 카자흐스탄 전체 이주한인의 40%가량을, 그리고 이미 1920년대 후반에 벼농사 실험에 성공한 카라탈 군 등지에 25%가량의 가구를 배치하였다. 그 외에 카라간다, 악튜빈스크, 쿠스타나이, 구리예프, 북 카자흐스탄, 서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 등 전국 각지에 골고루 한인이주자들을 거주시켰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동일하게 농사짓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타쉬켄트 주 치르치강 유역에 우즈베키스탄 전체 이주한인의 65%를 배치하고 사마르칸드, 페르가나, 호레즘, 부하라 주 및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 골고루 분산 배치시켰다.

극동의 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한인들의 어업콜호즈 또한 그대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아랄 해 근처와 카스피 해, 그리고 발하쉬 호수 근처에 배치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업콜호즈는 발하쉬 근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중앙당국의 임의적인 배치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카라칼팍스탄 지역의 어업콜호즈의 일부는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이전시켜줄 것도 요구하였으나 실행은 쉽게 되지 않았다.

강제이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라진 한인들에 관한 것이다. 사실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직전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규모는 대략 20만 명 정도였다.<sup>30)</sup> 강제이주 된 17만여 명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약 3만 명에 가까운 한인들의 행방이 묘연한데 이주 직전 갑자기 체포된 정치적 피해자 2천여

29) 김계르만, 앞 책, 212-214쪽.

30) Сим Енг Соб, Ким Герман(ред.),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 I), Алматы-Сеул, 1998, с.10. 「소수민족 사이에서의 과업에 대해서」.

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이 넘는 한인들의 자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이다. 파악되지 한인들이 만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인지 도중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탄압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 단지 연구수행과정에서 강제이주 직전에 적지 않은 수의 연해주 남부의 한인들이 중국 조선족 자치지역으로 넘어 갔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 강제이주를 모면한 한인 세대들이 아직까지 중국에 생존해 있어서 시급히 인터뷰를 통한 구술증언 및 녹취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된 한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개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지 민족인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의 도움이 있었지만 허술한 소련 당국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한인들은 생활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배치된 한인들은 국가체제의 속성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탈할 수도 없었다. 1938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제각기 소속된 콜호즈와 솅호즈 혹은 도시의 공장들에서 타민족과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체득해 나갔다. 그러나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쳐왔다. 그것은 소련과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 상황이었다.

1941년에 시작된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노동군으로 징집되어 군수자원과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서 원인 모르게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온한 자’, ‘일본의 스파이’ 꼬리표를 달고 강제이주를 당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원했던 전투병이 아닌 노동군대에 징집되어 혹독한 고통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탄전의 경우 약 2천명의 한인들이 수용되어 석탄을 채굴하는데 동원되었다. 노동군 문제는 강제이주 못지않게 한인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안겨준 중대한 것임에 반해 지금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인들은 실질적으로 적성민족으로 분류되어 전투병으로 차출되

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아주 소수의 한인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전쟁 영웅으로 간주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후방에서 전쟁물자 생산에 주력해야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부 운 좋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바람처럼 전선에 배치되어 큰 공을 세운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역 전투병으로 참전하여 다시 한 번 한인들의 군작전 및 군사적 능력을 발휘했다. 한인 전투병들은 주로 서남부전선과 발트 해 연안 지역, 제2백러시아 전선, 카렐리아 전선의 제19군, 우크라이나와 서남부전선 제49군 60사단에 소속되어 싸웠다. 또한 제3우크라이나 전선의 근위박격포부대 제61자포로지에 근위연대, 백러시아 부대 및 제2우크라이나 전선, 볼호프스크 전선 등지에서도 싸웠다. 나아가 이들은 소련영토 이외에 서부유럽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과 독일에까지 진격하여 전투를 벌였다.<sup>31)</sup>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콜호즈와 솅호즈 체제 하에서 벼농사와 면화농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이주과정 및 이주 직후에 있었던 인적 희생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 시기에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한인들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벼농사에 주력하던 경제형태도 면화생산의 확대로 전환되어 나가면서 한인들은 초창기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작물의 생산에도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인들의 콜호즈가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치르치강변에 ‘북극성’, ‘폴리타젤’, ‘북쪽등대’, ‘프라브다’, ‘스베르들로프’ 등의 한인 콜호즈는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소련 전국적인 명성을 떨친 유명한 콜호즈였다. 특히 ‘북극성’ 콜호즈의 김병화, ‘폴리타젤’의 황만금 회장 등은 수많은 한인 콜호즈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갈대밭으로 뒤덮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놓고 높은 생산력을 지닌 콜호즈를 이끌었으며 인근의 저생

31) <http://kosa.culturecontent.com/> - 스토리뱅크-원형스토리 은행-2시기: 시련 속의 개척-20.2차대전의 한인 전투영웅들.

산 콜호즈를 편입시키면서 타민족 농민들도 지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크질오르다 주의 ‘선봉’ 콜호즈 구성원이던 김만삼은 높은 벼생산으로 전국적인 칭송을 받은 한인지도자였다. 한인들이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뛰어난 민족적 근면성 외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한인들은 농업 위주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에도 무척 높은 관심을 보였고, 공산당 기관지 성격이지만 순 한글로 된 『레닌기치』를 발행하고, 예술단체인 <고려극장>도 운영하였다. 특히 한글신문 『레닌기치』는 이미 극동 시기인 1923년부터 『선봉』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어 왔던 한인신문으로써, 강제이주 이듬해인 1938년 5월에 크질오르다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알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고 1990년까지 한글로 간행되었다. 1991년부터는 『고려일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러시아어와 한글의 혼용체제로 바뀌었다. 소련 시기에 『레닌기치』는 러시아어에 동화되어 가던 한인사회에서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한글의 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측면에서 러시아어가 실질적으로 한인들의 생활언어와 국가적 공식언어로 정착되면서 『레닌기치』의 이러한 노력은 절대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레닌기치』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에서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던 <고려극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50~80년대를 거치며 고려극장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다. 극장은 물적, 인적, 내용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1960년에는 엔. 오스트로프스키명칭 타쉬켄트극장예술대학을 졸업한 김 블라디미르, 박 소피야, 송 올라 등, 12명의 제2세대 젊은 배우들이 고려극장에 배치되었다. 1975년 들어서 <고려극장>은 다시 한 번 경사를 맞이했다. 쿠르만가식 알마타예술대학을 졸업한 진 블라디미르, 최 메리, 김학연, 김 갈리나 등 14명의 제3세대 젊은 배우들이 충원된 것이다.<sup>32)</sup> 명실상부하게 <고려극장> 내에는 채영, 연성용, 태장춘, 김진 등 제1세대 배우들과 함께 총 3대의 한인배우단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극장의 공연프로그램 및 사업도 더 확대되었다. <고려극

32) 『레닌기치』, 1985년 11월 7일, 4면. 「배우들의 기념일」.

장>의 주요 공연활동은 도시의 극장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순회공연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고려극장>의 주요 활동사업 중의 하나였던 순회공연은 연극단과 가무단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이때 『레닌기치』 신문은 공연광고 기사를 통해서 한인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고려극장> 내에 조직된 <아리랑가무단>은 카자흐공화국, 우즈베크공화국을 비롯한 주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백러시아 등의 발트 해 국가 등지를 다니며 순회공연을 했다. <아리랑가무단>은 1년에 총 130회 정도의 순회공연을 가졌고, 매해 8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관람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연극단 또한 해마다 130회 이상의 순회공연을 가지면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sup>33)</sup>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한 후 발생한 소련의 정치적 변동은 고려인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흐루시초프가 1954년부터 단행한 중앙아시아 처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슬라브계 민족들이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이주해 오다가 하면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미개간된 땅을 위해 인력이 새롭게 재편성되어 투입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아의 초원(골로드나야 스제피)’ 개척 사업은 대표적이었고 여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투입되었다. 1955년부터 ‘거주이전의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이듬해부터는 고려인들의 자발적이고도 새로운 이주가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로스토프 주, 스타브로폴 주 등 러시아 남부의 비옥한 흑토지대로 많이 이주하였다. 또 일부는 새로운 농지를 찾아 북카프카즈 등지로 이주하여 밀농사가 대부분이던 현지에서 최초로 벼농사를 보급하고 성공시켰다. 북카프카즈에서는 고려인들의 상당수가 북오세티야-알라니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려인들은 농업 외에 상업활동에도 종사하였다. 이곳에서는 기후가 농사짓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려인들은 뛰어난 농업생산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들은 잠시 머물고 되돌아가는 고본질 차원이 아니라 영

33) 『레닌기치』, 1970년 11월 6일, 3면. 「순회공연을 끝내고」, 『레닌기치』, 1981년 10월 9일, 4면. 「쑤베트조선극장예술의 자랑찬 50년-수자와 사실」.

구거주 목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열정 또한 높았다. 또 다른 고려인들은 볼고그라드까지 진출하여 벼농사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렇게 하여 광활한 농토를 형성하고 있는 남부러시아 지방에 고려인들의 정착지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곳의 고려인들은 개별 세대 및 작업반 형태로 주거지를 형성하여 능숙한 영농솜씨로 버려진 땅을 참외류 재배에 성공시키고 파 및 기타 야채류 재배에도 성공하였다. 고려인들이 활동하는 경작지의 수확은 그렇지 못한 지역의 수확보다 훨씬 더 많았다. 볼고그라드 주, 보로네췌 주, 리페츠크 주, 니제고로드 주, 로스토프 주, 탐보프 주 및 다른 주들은 고려인들의 뛰어난 생산력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경작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들 지방정부는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일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남부지방과 러시아의 알타이 지방으로, 또 일부는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물론 교육을 위해 중앙아시아에서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로 간 후 그곳에 정착하는 고려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기도 하였지만 소련 내 고려인들의 인구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인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일종의 계절농의 경우가 많았다. ‘고본질’이라고 하는 계절농은 상주 거주지와 일터가 떨어져 있고 그 거리가 매우 먼 경우가 많았다. 가령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이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으로 고본질을 떠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사짓는 시기에 고향을 떠나서 경제활동을 하고 농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생활인데 높은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법적이지만 관행화된 고려인들의 경제행태였다. 고본질로 인해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지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남부지방, 러시아 남부지방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고본질을 떠나는 사람으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많았다.

고본질의 작업반 평균세대수는 10-25세대인데 작은 규모일 때는 5-6세대, 큰 규모일 때는 40-50세대에 이른다. 작업반의 수와 구성은 다양한 생산여

건, 개별적 환경, 세대원들의 실력 등에 좌우되며 한 번의 계절작업 동안에도 바뀐다. 가족 전체(배우자와 자녀들), 홀로된 사람들, 이혼자 및 독신자들이 작업반에 가입할 수 있다. 작업반은 봄철의 경작준비 기간에 우선 남자들만으로도 구성되다가 일이 많아지고 특히 제초시기, 추수기에 들어서면 가족들이 총동원되면서 작업반의 수는 2-3배로 증가한다. 소련 시기에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동들과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모들과 함께 양과밭이나 수박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만약 임차지가 거주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학생들이 밭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일은 필수적이다. 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추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얻어 들판에서 보내는 일도 흔하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3~4주일 동안 자신들의 가족분여지(고본)에서 제초작업, 비료주기, 물뿌리기에 종사했던 것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남사할린 영역이 소련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한인들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매우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경험했던 사할린 한인들은 명칭에서도 보듯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한인들과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할린 한인문제에는 일본이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은 러일전쟁으로 일본에 빼앗겼던 남부사할린을 되찾고 수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소련 당국의 기본원칙은 일본인들을 전원 일본으로 귀국조치 시키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러한 귀국행렬에 한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인들 중에는 일본보다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더 많았으며 또 일부는 소련국적을 가지고 아예 현지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북한 국적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송환과정도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부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때까지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이나 남한으로 떠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사할린 한인들은 1945년 이후 줄곧 소련 당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고 당연히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없었다. 단지 한국어의 구사능력은 대

록에 있던 고려인들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1950년대 후반 부터는 대륙 쪽으로 유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으나 실제로 이르쿠츠크 이동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할린 출신들이 이르쿠츠크 등 시베리아 주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대륙의 고려인 사회에 또 다른 인적 집단이 형성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소련 체제하에서 한인들의 이주는 정치적 환경과 연관되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1937년에 소련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17만여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집단강제 이주당하고 1945년에 남사할린 지역의 한인들이 소련의 통치권 하에 편입되면서 한인들의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는 또 다른 한인들의 자발적 이주가 나타났던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한인들의 인구이동의 결과 1989년의 소련 마지막 인구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인들의 국가별 분포가 나타나게 되었다. 전체 한인들의 숫자는 439,000명이었고 러시아공화국 107,051명, 우즈베키스탄 183,100명, 카자흐스탄 103,100명, 키르기즈스탄 18,400명, 타지키스탄 13,400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13,900명 등이었다. 그 중에서 러시아공화국의 연해주 지방에 8,454명, 사할린에 35,191명의 한인들이 공식 거주하고 있었다. 연해주의 경우 1937년 강제이주 직후에 한 명도 남지 않았던 한인들이 1989년에는 8천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소련 정부의 자유로운 이주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이주 당시의 인구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련 시기에 대체적으로 198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만 명의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소련 한인의 75%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인의 약 90%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발트삼국, 벨라루시, 우크라이

나, 몰도바 등 전체 소련구성국에 걸쳐 한인들이 소규모이나마 거주하였던 것이다.

소련 최후의 사회주의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내의 한인사회에 민족자치조직의 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1989년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 고려인협회의 주도로 전소고려인협회의 창설이 진행되었고 이듬해에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소련 내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적극적인 조직의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192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한인조직 이후 수십 년만의 한인조직이 소련에서 결성되면서 소련 한인들의 권익신장 확대에 대한 큰 기대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소련이 해체되는 큰 정치적 변혁을 맞이하면서 전국규모의 소련고려인협회가 와해되고 지역적인 고려인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 3) 소련 해체이후 ~ 현재까지

1991년 12월 30일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과거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이 개별적인 독립국가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 또한 고려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국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특히 고본질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이었다. 또한 체제의 변화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고는 자본주의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했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민족에 관계없이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현지 민족주의의 대두로 언어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 취업에 제한받는 고려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어가 현지 국가의 공식어로 지정되면서 안정된 직장과 직장 내 진급을 위해서는 현지 지역 언어의 구사가 필수적이었다. 러시아어에만 익숙해있던 고려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고려인들은 삶의 거처를 모스크바 등 아예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반에 고려인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과거사에 관한 법적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탄압받은 제 민족들의 복권에 대한 러시아공화국의 법령’(1991.4.26)에 이어 1993년에는 러시아연방에서 ‘한인복권에 대한 최고회의의 결정’(1993.4.1)이 내려짐으로써 1937년 강제이주자들의 법적 복권문제가 명백히 해결되었던 것이다.<sup>34)</sup> 물론 1950년대 흐루시초프 시대에 이미 정치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당시의 효력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새로운 체제 하의 러시아연방은 공식적으로 1937년의 강제이주를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한인들을 완전히 복권시켰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을 법적으로 계승했던 러시아연방에서 이러한 공식적 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지 중앙아시아 국가 등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법적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의 조직 등 활발한 정치,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국가별 이주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이러한 이주는 국적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우선 소련 해체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첫 번째 이주방향은 연해주였다. 우선 연해주는 사할린 한인들을 제외한 소련 고려인들과 현재 대다수 러시아 고려인들의 고향이고 이곳에는 자신들의 뿌리가 있다. 고려인들의 연해주 귀환문제가 대두된 또 다른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에는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키르기즈인들이 주류민족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민족들은 주로 교육제도와 문화면에서 소비에트화되고 러시아화된 스탈린식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스탈린식 정책들은 많은 민족적 특성을 빼앗아 갔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자민족 언어와 관습, 전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민족의 민족의식 각성과 우월성의 강화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비토착 민족들은 점차 불안과 동요를 겪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 간의 공공연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34)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앞 책, 405-408쪽.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나 선조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의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연해주로의 재이주 문제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문제인데 이미 소련 해체 전에도 이주해 간 고려인들도 있었지만 그 규모는 1만 명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었고 생각보다는 적은 수의 고려인들만이 이주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도 한국의 NGO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지만 새롭게 이주해 간 고려인들은 직업, 교육환경, 거주 등 많은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의 새롭고도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 단계로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반기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이주자 및 난민들은 러시아연방의 서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고려인 이주민들의 뚜렷한 유입은 볼고그라드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비공식 통계로 2001년에 1만~1만4천 명(2002년 인구조사 결과 6,066명)으로 추산되었고, 또 인근의 크라스노다르 주에는 약 1만 명(인구조사 결과 3,389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5)</sup>

볼고그라드 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교통상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볼고그라드 주는 국경지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지대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다양한 민족들의 이주지로서 중심적인 곳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자들은 볼고그라드 주에 완전 정착하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볼고그라드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농촌지역을 떠나 불가 강을 끼고 볼고그라드 시와 마주하고 있는 볼스키 시로 이주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는 등 점차 비농업분야로 활동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최

---

35) Г. 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кн. 2, 1945-2000. (Алматы Дай к-Пресс, 2006), с.174.

근에 와서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사회의 관심사는 바로 2000년에 들어와 서부터 이주가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 고려인들의 정착문제이다. 아랄 해의 환경재해로 인해 사실상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누쿠스 지역 출신 고려인들인 이들은 볼고그라드 인근의 노보알렉세예프카 지역에 한국의 지원을 받아 정착촌을 건설,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sup>36)</sup>

또한 이곳에는 타지키스탄의 고려인 난민 2천 명 정도가 모여들어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와 군의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거주지와 일터 및 사회보장 등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연해주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이들은 이제 볼고그라드 주에 완전히 정착을 한 상태이며, 러시아 국적 역시 취득을 한 상황이다.<sup>37)</sup>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볼고그라드 주의 고려인 외에도 볼가지역의 사라토프도 신흥 고려인들의 정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초에 사라토프 주에는 91명의 고려인이 등록된 반면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약 550명으로 늘어났고, 2002년 인구조사 결과 사라토프 시와 주에는 2,533명의 등록된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토프 주에는 여름철에 고려인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여 약 15,000명에까지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계절농에 종사하는데 겨울에는 살던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sup>38)</sup>

러시아를 관통하는 볼가 강 연안 및 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우랄 지방은 그동안 고려인사회의 규모가 러시아의 극동지방이나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한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고려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가 지나가는 곳으

36) 송준서·김상철, 「변화하는 우랄-볼가지역 고려인사회: 확장과 새로운 도전들」, 임영상·황영삼 편, 『소련해체 이후의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143쪽.

37) 위 글, 142쪽.

38)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75.

로, 소련 붕괴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도 조선족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기존의 볼가-우랄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규모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규모는 여름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고려인 인구를 포함하면 약 7만3천여 명 수준으로 확장되어 러시아 전체 고려인 수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sup>39)</sup>

사할린의 한인문제도 1990년대 이후 또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일본과 한국 거주 친지상봉 협력단이 가동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1990년에 120명에 달하는 사할린 한인들이 친지상봉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보잉 727’ 항공기를 타고 남한으로 향했던 것이다. 1990년 5월에 일본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9월 일단의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직항 항공편을 탔다. 1991년 4월 26일 소련 각료회의는 외국인의 소련체류에 관한 새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사할린 주정부 내무국에 의하면 1981-1987년 동안 개인적으로 친지를 만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갈 신청을 한 한인들이 177명에 달하였다. 그 중 128명은 소련 국적을 지닌 한인들이었다.<sup>40)</sup>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이주는 이주 1세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산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의 한인들의 이주 외에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외의 구소련 국가의 고려인 이주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지만 본격적으로 동포들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것이 1980년대였는데, 이때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계절농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농업에

39) 송준서·김상철, 앞 글, 119쪽.

40)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61-162.

익숙한 고려인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룬 것이었다. 1990년대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들 국가들의 민족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크림반도 지역을 비롯한 남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수의 추정치는 약 2만 명에 이른다.<sup>41)</sup> 현재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적취득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고본질 위주의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서류준비를 위한 본국으로의 귀국 또한 경비문제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벨라루시에 고려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해는 1934년이였다. 이후 30~40년대에 걸쳐 고려인의 상주 거주민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0~60년대에 일부 고려인이 벨라루시로 이주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었다.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벨라루시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나타났다. 현재 벨라루시에는 약 1,2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혼혈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수 고려인 가정 수는 3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민스크의 경우에는 300명 정도의 고려인이 있다.<sup>42)</sup>

발트삼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는 현재 약 200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 소련을 구성하던 에스토니아는 1992년 정식 출범한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이 아니며, 인근의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와 함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소련이라는 동일한 체제 하에서 동질감을 가졌던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던 에스토니아의 고려인들은 이제 에스토니아어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에스토니아 고려인들을 더 이

41) 임영상·방일권, 「남부 우크라이나 고려인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다해, 2003, 169-207쪽.

42) 임영상·황영삼 편, 앞 책, 64쪽.

상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고려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에서의 인식은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려인들이 어떤 국가에 얼마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일률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본다면 대체적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중 소련해체를 전후해서 가장 많은 고려인 인구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고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이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다.

2002년 러시아연방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고려인들의 수가 107,051명(1989년)에서 148,556명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사실 공식통계는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불법체류 고려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해체 이후 고려인들의 수가 매우 급속히 증가한 유일한 국가인데 이것은 주로 이주자들의 유입 때문이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고려인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연해주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18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한다. 가령 연해주 지역의 경우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해 등록된 한인의 경우 약 1만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국적 및 불법체류 고려인들의 수까지 포함했을 때 그 수는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현지 고려인들은 증언하고 있다.<sup>43)</sup> 현재 연해주 지역 무국적 및 불법체류 고려인의 경우 신원, 건강, 체류와 관련한 까다로운 증명서류 구비 및 이에 따른 경비, 무엇보다 비협조적인 행정접수 및 처리로 인해서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엄청난 생계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구소련의 국가 중 최대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을 감안한다면 선부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언어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고려인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

43) 우수리스크 <동북아평화기금> 사무장 강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증언, 2007년 9월 15일, 장소: 우정마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연방의 내부를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의 여러 주에서 고려인들의 현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즉 볼고그라드 주의 경우 1989년에 272명에서 2002년에는 6,066명으로서 22배나 증가하였고, 사라토프주의 경우 1989년에 545명에서 2002년에는 2,533명으로 5배 증가하였으며, 연해주는 8,454명에서 17,8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던 것이다. 고려인 수의 현저한 증가는 모스크바 주, 아스트라한 주, 스베르들로프 주, 첼랴빈스크 주, 칼리닌그라드 주, 옴스크 주, 오렌부르크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및 하바로프스크 주, 크라스노다르 주, 스타브로폴 주 등지에서 일어났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려인 수는 3,633명에서 8,63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외부 이주자들의 유입에 기인한다. 고려인들의 증가는 사실상 불가관구, 우랄관구, 북서관구, 시베리아관구 및 중앙관구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sup>44)</sup>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인구조사보다 신빙성이 적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로는 1999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수가 147,500명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1989년 인구조사 때와 비교하여 35,600명이 줄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많은 수의 감소는 이주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사실 소련 최후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198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는 지속해서 감소되었다. 변호사이며 열정적 연구자인 블라지미르 김이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는 약 17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1999년에 실시된 카자흐스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고려인 수는 99,665명이다. 이 수치는 1989년에 비하면 1,100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고려인들의 정착상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소련의 전국 인구조사에 따른 키르기즈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즉 1939년에 508명, 1959년에 3,622명(총인구의 0.1%), 1970년에

---

44)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18.

9,404명(0.3%), 1979년에 14,481명(0.4%), 1989년에 18,355명(0.4%), 그리고 1994년에는 18,558명(0.4%) 등이다. 1959-1989년 30년 동안 고려인 수가 거의 6배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에 고려인들이 출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초였으나 그 수는 극히 적었다.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의 대규모 이주의 원인은 인근의 키르기즈스탄의 경우와도 같았는데 당시의 거주지 제한조치의 해제, 이주의 자유, 좋은 기후와 풍부한 천연자원, 새로운 생활의 가능성 등이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고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즉 1939년에 43명, 1959년에 2,365명, 1970년에 8,490명, 1979년에 11,179명, 그리고 1989년에는 13,431명이었다.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주로 수도인 두샨베, 레니나바드 인근(오늘날 후잔트) 그리고 남부지역인 쿠르간튜브에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한때 1만3천여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던 타지키스탄에는 현재 고려인 수가 1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sup>45)</sup>

이 지역 고려인들의 급격한 감소는 무엇보다도 소련 붕괴 이후 발생한 내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91년 독립 직후에 발생한 내전으로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1992년에는 러시아가 내전을 중지시킨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내전의 후유증으로 수도인 두샨베에서는 폭탄테러와 암살이 자주 자행되었으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얽힌 여러 세력들(공산당원, 타지크족벌, 소규모 이슬람군, 군사지도자들)간의 무력충돌은 1997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타지키스탄의 고려인들로 하여금 또다시 이주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으로의 이주의식은 어떠할까.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려는 방문취업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

45) Там же, с.138-142.

에 한해서만 한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 한국어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을 신청한 고려인은 우리 정부가 예측한 규모보다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다. 제도 초기여서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고려인들은 아무리 취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가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 경제성장 노상에 있는 인근의 카자흐스탄으로 취업하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기도 한다. 취업의 경우가 이렇진대 영주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고려인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Ⅲ.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 현황 설문 분석

1. 전체 개관
2. 부모와 가정형편
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4. 한국에 대한 관심
5.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6. 한민족 정체성
7. 네트워크 구축 관련
8. 이주 경로
9. 미래에 대한 기대
10. 지역별 및 남녀별 분석



### Ⅲ.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 현황 설문 분석

#### 1. 전체 개관

CIS 지역에서 수거한 설문지는 총 905부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16~24세에 해당하는 설문지가 총 702부이고, 나머지는 16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이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702부만 유효설문지로 정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체 지역을 1) 러시아 수도, 2) 남부 러시아, 3) 극동 러시아, 4) 우크라이나, 5) 우즈베키스탄, 6) 카자흐스탄 총 6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러시아 수도’는 러시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남부 러시아’는 고려인의 신흥주거지로 부상한 볼고그라드와 1960년대 이래 고려인의 이주가 이루어진 북카프카즈 지역의 최대도시 로스토프, ‘극동 러시아’는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우크라이나’는 키예프와 하리코프, ‘우즈베키스탄’은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와 탈디쿠르간 등의 지역 등이 조사대상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1〉 유효 설문지의 지역별 분포

|    | 러시아<br>양 수도 | 남부<br>러시아 | 극동<br>러시아 | 우크라<br>이나 | 우즈베키<br>스탄 | 카자흐<br>스탄 | 합계  |
|----|-------------|-----------|-----------|-----------|------------|-----------|-----|
| 빈도 | 85          | 66        | 166       | 43        | 268        | 74        | 702 |
| %  | 12          | 9         | 24        | 6         | 38         | 11        | 100 |

〈표 I-1〉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많은 설문지가 수거된 장소는 고려인들의 최대 거주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전체 설문지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극동 러시아,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순이다. CIS 지역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2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지역에 10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내에는 전체적으로 1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 키르기즈스탄, 몰다비아, 벨라루시, 에스토니아 등 구소련 구성공화국 전역에 2만 내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문 조사는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시)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표 I -2> 유효 설문지의 남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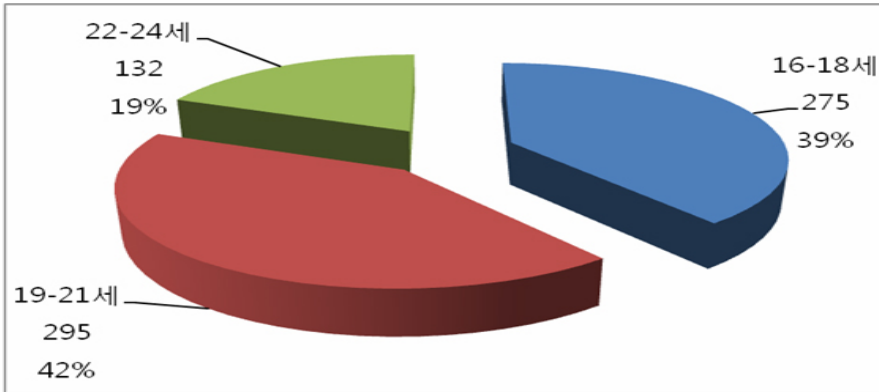
|    | 남자  | 여자  | 기타 | 합계  |
|----|-----|-----|----|-----|
| 빈도 | 205 | 493 | 4  | 702 |
| %  | 29  | 70  | 1  | 100 |

설문의 남녀 분포도(<표 I -2>)에 있어서 총 702명의 응답자 중 여자 493명, 남자 205명, 남녀를 표기하지 않은 설문이 4명으로 여자가 70%로 남자 2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비율에서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추후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 -3> 유효 설문지의 연령별 분포

|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24세 | 합계  |
|----|------|------|------|------|------|------|-----|-----|-----|-----|
| 빈도 | 77   | 82   | 116  | 100  | 106  | 89   | 56  | 45  | 31  | 702 |
| %  | 11.0 | 11.7 | 16.5 | 14.2 | 15.1 | 12.7 | 8.0 | 6.4 | 4.4 | 100 |

<표 I -3>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18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가 15.1%, 19세 14.2%, 21세 12.7%의 분포로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의 일반적인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24세는 4.4%, 16세라는 응답도 11%가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대학생의 비율을 더 높게 산정하였던 조사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I -1] 유효 설문지의 연령대별 분포도

[그림 I -1]은 유효 설문지의 연령대별 분포도이다. 본 설문은 대학생을 위주로 조사 되었으므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세에서 21세라는 응답이 전체의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6~18세의 고등학생 응답자들은 39%였다.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4:6으로 정하였던 원칙에 따르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표 I -4> 유효 설문지의 신분별 분포

|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직장인 | 무직 | 기타 | 합계  |
|----|------|-----|------|-----|----|----|-----|
| 빈도 | 144  | 448 | 2    | 56  | 25 | 27 | 702 |
| %  | 20   | 64  | 0    | 8   | 4  | 4  | 100 |

<표 I -4>는 전체 응답자 702명 중 64%인 448명이 대학생이었고 중고등학생도 144명으로 20%를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응답자는 타쉬켄트 지역의 23세인 교사와 23세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스크바의 24세인 법학자, 볼고그라드 지역의 23세인 농민, 탈디쿠르간 지역의 20세의 상인 등이었다. 장래 희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서는 다음의 직업군을 제시하였다.

1. 전문직(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
2. 고위관리직(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사, 장교 이상의 군인 등)
3. 사무직(정부 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위직 군인 등)
4. 기술직(생산감독, 숙련기능공)
5. 상업·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 택시 운전사 등)
6. 판매직(도·소매업,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7. 서비스직(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8. 생산직, 운수 및 단순노무자(공장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9. 가정주부
10. 기타(구체적으로)

〈표 I -5〉 장래 희망

|    | 전문  | 고위 | 사무 | 기술 | 자영 | 판매 | 서비스 | 농업 | 노동 | 주부 | 기타 | 합계  |
|----|-----|----|----|----|----|----|-----|----|----|----|----|-----|
| 빈도 | 384 | 58 | 33 | 33 | 41 | 8  | 25  | 1  | 1  | 10 | 38 | 632 |
| %  | 61  | 9  | 5  | 5  | 7  | 1  | 4   | 0  | 0  | 2  | 6  | 100 |

이 설문 결과(〈표 I -5〉)를 통해 보면 전체응답자의 70%가 변호사, 교수, 의사 등의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을 희망한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고위관리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직, 기술직, 자영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5%에서 6%씩을 기록했고, 생산직이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과 관련한 직업이나 운수 및 공장근로자, 단순노무자 같은 생산직은 0.4%, 그리고 가정주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응답자의 64%가 대학생이므로 전문직이나 고위직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지역 내 소수 민족으로서 그 동안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신분상승의 욕구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민족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입신양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장래희망이 농업이라고 대답한 볼고그라드의 23세의 기혼여성이 있었으며, 노동자를 희망한 하바로프스크의 20세의 현재 직업이 없는 남성도 있었다.

<표 I -6> 유효 설문지의 종교별 분포

|    | 개신교 | 정교  | 천주교 | 불교 | 유교 | 회교 | 무교  | 기타 | 전체  |
|----|-----|-----|-----|----|----|----|-----|----|-----|
| 빈도 | 245 | 148 | 25  | 11 | 1  | 6  | 137 | 47 | 620 |
| %  | 39  | 24  | 4   | 2  | 0  | 1  | 22  | 8  | 100 |

한편, <표 I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를 묻는 설문제 전체 응답자의 39%가 개신교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신교 문화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이유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많은 수의 한국 개신교 교회와 선교사들이 러시아와 CIS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 교민뿐 아니라 해당지역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선교활동을 해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현지 교민들과 고려인들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친숙하게 접함으로써 고려인들이 모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느끼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정교는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상 러시아의 국교나 다름 아닌 만큼 러시아의 역사와 슬라브 민족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인의 종교 분포도에서 러시아 정교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주 후 세대가 지나면서 문화, 종교적으로도 러시아 사회에 많이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교라고 대답한 사람도 22%로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연방 70년의 역사 동안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식적인 노선 하에 반(反)종교 캠페인을 벌였던 것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은 구교(가톨릭)가 4%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로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알마티, 타쉬켄트 등)이므로 종교에 있어서 거주하는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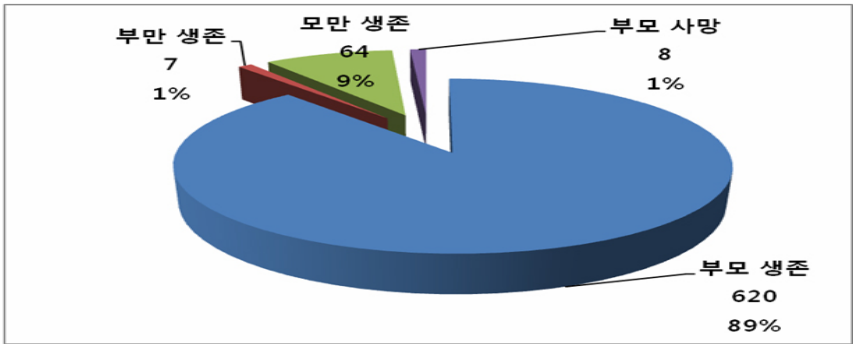
이 외에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11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타쉬켄트 거주자가 6명, 모스크바 1명, 블라디보스톡 1명, 탈디쿠르간 1명, 알마티 1명, 하리코프 1명이었으며, 유교라고 대답한 사람도 1명 있었는데, 그는 하바로프스크에 사는 18세 남자였다. 또한 타쉬켄트에 사는 21세 여성은 자신의 신앙이 무속신앙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표 I -7> 유효 설문지의 세대별 분포

|    | 1세대 | 1.5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5세대 | 모름  | 합계  |
|----|-----|-------|-----|-----|-----|-----|-----|-----|
| 빈도 | 3   | 9     | 14  | 201 | 187 | 24  | 206 | 644 |
| %  | 1   | 1     | 2   | 31  | 29  | 4   | 3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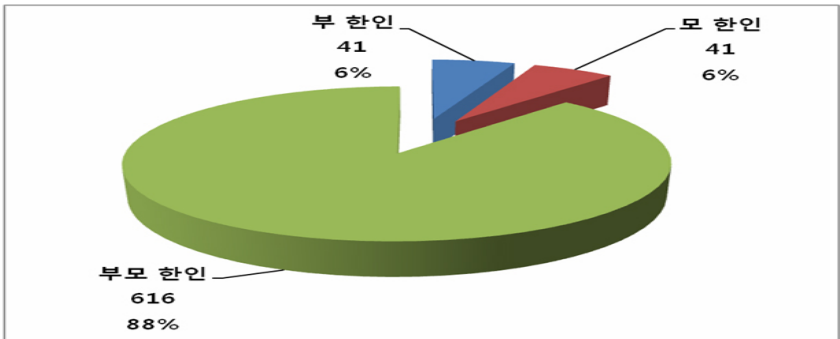
<표 I -7>은 이민 몇 세대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설문에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들 중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206명으로 전체 유효 응답자 644명 가운데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신이 이민 3세대라고 답한 응답자가 31%, 4세대가 29%, 5세대가 4%였다. 자신을 3세대라고 답한 청소년이 부모 혹은 본인이 사할린 출신이라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태이다. 자신을 이민 1세대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3명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민 세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부모와 가정형편



[그림 II-1] 부모 생존 여부 (총 6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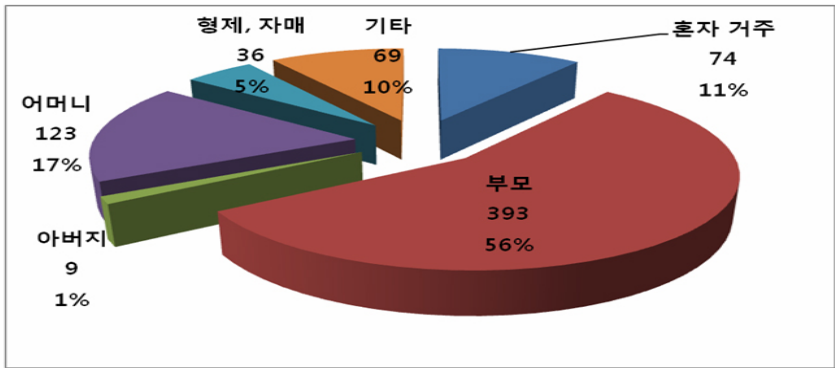
부모의 생존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그림 II-1])에서 총 699명의 응답자중 620명인 89%가 부모 모두 생존해 있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모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64명으로 9%를 차지했고 부만 생존한 경우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가 각 1%씩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8명이 있었다.



[그림 II-2] 부모의 민족 배경 (총 698명)

[그림 II-2]는 부모의 민족 배경에 대한 답변이다. 전체의 88%가 부모 모두 한인이라고 답했다. 고려인들이 이주한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

도 여전히 같은 민족끼리의 결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려인들이 지금까지 고려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한인인 경우는 각 6%씩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3] 동거인 (총 702명)

동거인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56%가 부모랑 함께 산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어머니랑 함께 산다는 응답이 17%, 혼자 거주한다는 응답도 11%의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36명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거나, 조부모와 친척들, 또는 동거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생님과 함께 산다는 답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전체 유효 응답자의 1%에 불과했다.

<표 II-1> 부모의 학력

|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중퇴 | 대학 졸업 | 대학원  | 기타   |
|-----|------|------|------|------|-------|-------|------|------|
| 아버지 | 2    | 5    | 52   | 36   | 190   | 259   | 20   | 13   |
|     | 0.3% | 0.9% | 9.0% | 6.2% | 32.9% | 44.9% | 3.5% | 2.3% |
| 어머니 | 1    | 7    | 37   | 59   | 145   | 339   | 14   | 14   |
|     | 0.2% | 1.1% | 6.0% | 9.6% | 23.5% | 55.0% | 2.3% | 2.3% |

부모의 학력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응답이 44.9% 어머니는 55%였으며 대학 중퇴 이상은 아버지가 80.6% 어머니가 83.1%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상당히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2%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하였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9.6%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아버지가 10.2% 어머니가 7.3%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응답자의 조부모 세대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이후 거주 이전의 제한 속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없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높은 교육열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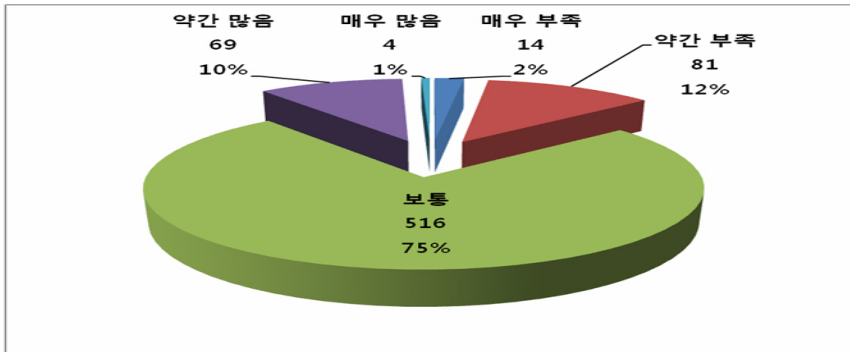
〈표 II-2〉 부모의 직업

|     | 전문   | 고위   | 사무  | 기술   | 자영   | 판매  | 서비스 | 농업   | 노동  | 무직   | 기타  |
|-----|------|------|-----|------|------|-----|-----|------|-----|------|-----|
| 아버지 | 83   | 70   | 33  | 79   | 138  | 15  | 18  | 72   | 8   | 18   | 42  |
|     | 14.4 | 12.2 | 5.7 | 13.7 | 24.0 | 2.6 | 3.1 | 12.5 | 1.4 | 3.1  | 7.3 |
| 어머니 | 159  | 32   | 28  | 24   | 74   | 58  | 40  | 12   | 2   | 171  | 39  |
|     | 24.9 | 5.0  | 4.4 | 3.8  | 11.6 | 9.1 | 6.3 | 1.9  | 0.3 | 26.8 | 6.1 |

\* 무직에는 가사도 포함되며, 하단의 수치는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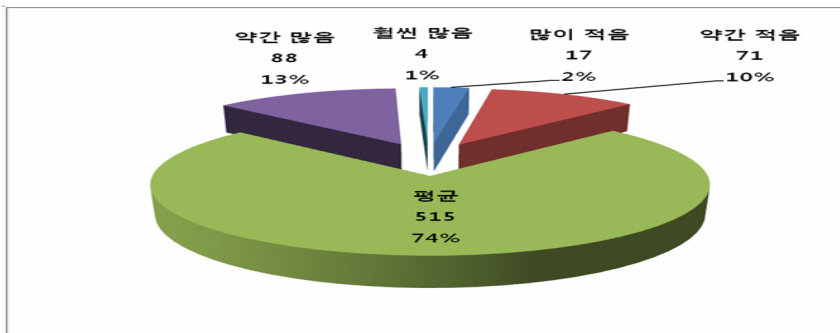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 부모들이 전반적으로 고학력인 것에 비례하여 부모가 전문직이나 고위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아버지가 26.6% 어머니가 29.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주부가 27%에 불과한 것은 과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했던 구소련 내 지역 분위기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주부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종사 직업과 응답자의 장래 희망 직업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인 사회에서도 자녀가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종사 직업이 영향을 많은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70%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부모의 직업을 기타라고 표기한 42명의 경우 아버지 직업은 선교사, 목사, 건축

가, 디자이너, 법학자 등 다양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도 요리사, 미용사, 심리학자, 경제학자 등 다양했다.



[그림 II-4] 가족 수입에 대한 주관적 견해 (총 6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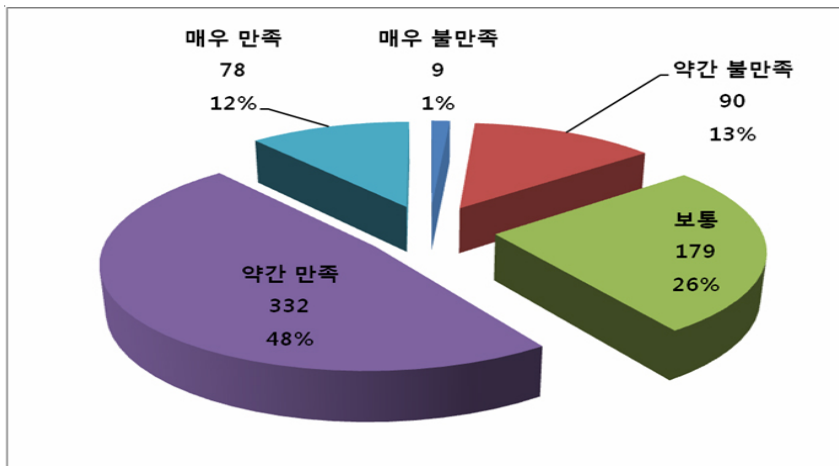
현재의 가족 수입은 가족이 생활하기에 어떠한 수준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이 12%, 약간 많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1%의 응답자들이 가족의 수입이 매우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매우 적다는 응답도 2%였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정의 소득 수준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상대적 가족 수입에 대한 견해 (총 695명)

상대적인 가족수입을 묻는 질문에도 총 695명의 응답자 중 74%인 515명이 보통이라고 답해 고려인 가족들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중간 수준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약간 많거나 약간 적다는 응답이 각각 13%와 10%로 다음을 차지했고 다른 현지 가정에 비해 수입이 훨씬 많다는 응답은 1% 상대적으로 극빈층에 속한다는 응답도 1%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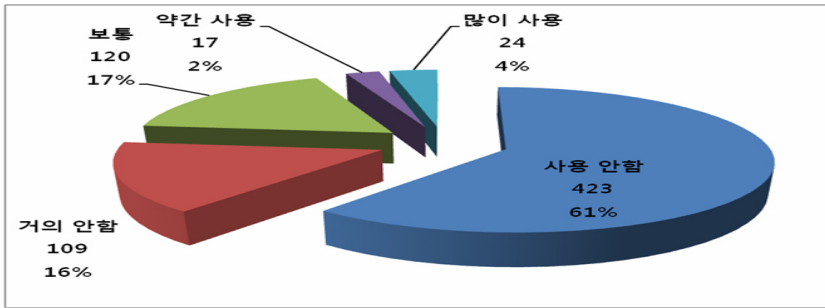
[그림 II-6] 생활 만족도 (총 688명)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약간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6%를 차지해 생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 현재 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2%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 고려인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면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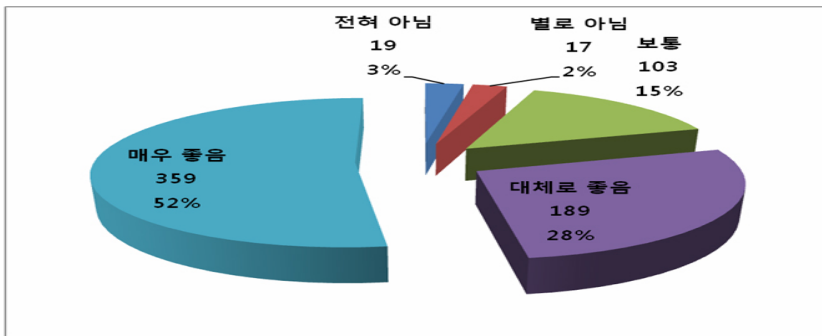
### 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br>사용한다.         | 423             | 109             | 120      | 17         | 24        |
|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br>좋게 말씀을 하신다.   | 19              | 17              | 103      | 189        | 359       |
|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br>공부하기를 원하신다.      | 23              | 24              | 62       | 117        | 461       |
|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br>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 43              | 69              | 206      | 149        | 220       |
|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br>가르치신다.         | 409             | 94              | 66       | 46         | 72        |
|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br>만드신다.           | 20              | 21              | 50       | 81         | 518       |
| 7.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br>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 28              | 20              | 85       | 74         | 227       |

아래 [그림 III-1]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16%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7%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보통 이상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23%나 되었다. 부모랑 대화할 때 한국어 사용 비율이 낮은 것은 응답자 부모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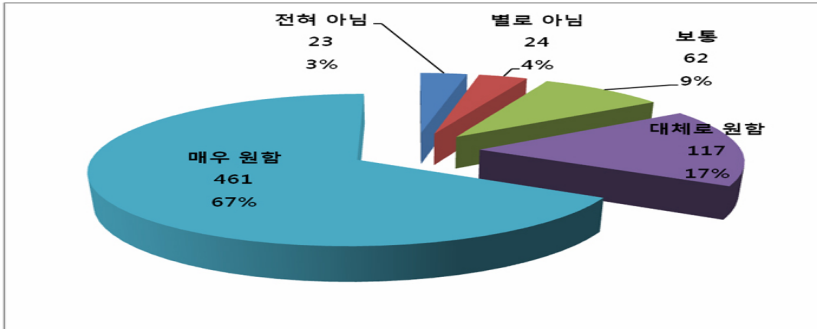


[그림 III-1]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총 6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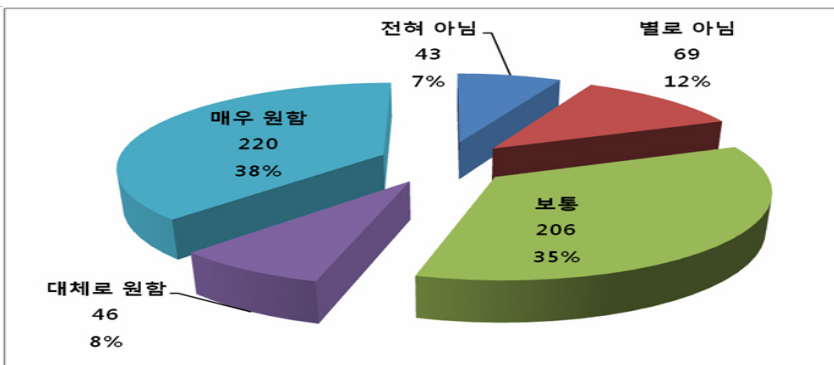
[그림 III-2] 한국에 대한 견해 (총 687명)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매우 좋다고 답했으며, 28%는 대체로 좋다고 말해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부모가 80%에 해당했다. 이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모국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나 전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최근 들어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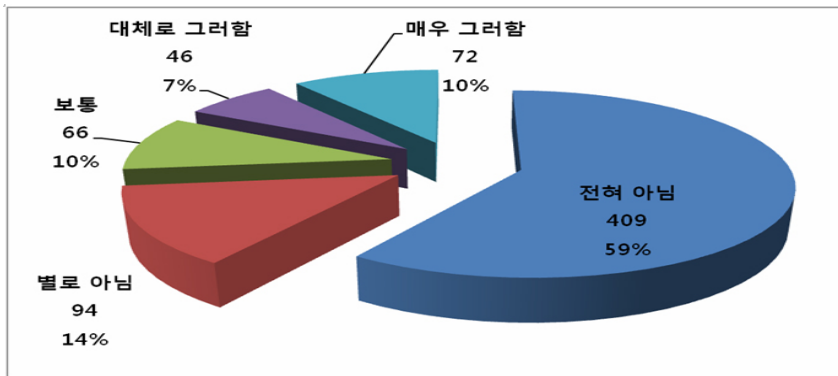
[그림 III-3] 한국어 공부에 대한 희망 (총 687명)

[그림 III-3]은 부모님이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자의 67%가 매우 원한다고 답했으며, 17%는 대체로 원한다고 응답해, 대다수인 84%가 한국어 공부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취업이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했다. 이 같은 기대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별로 아니라는 응답이 4%, 전혀 아니라는 응답도 3%를 차지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소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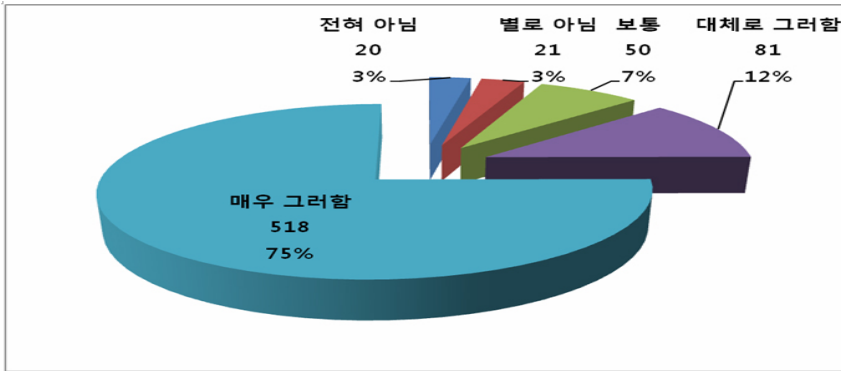
[그림 III-4]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바람 (총 584명)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절반 정도인 46%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원한다고 답하고 있고, 38%는 매우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수입 면이나 직업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부모도 19%를 차지했다. 고려인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상이 높은 것만큼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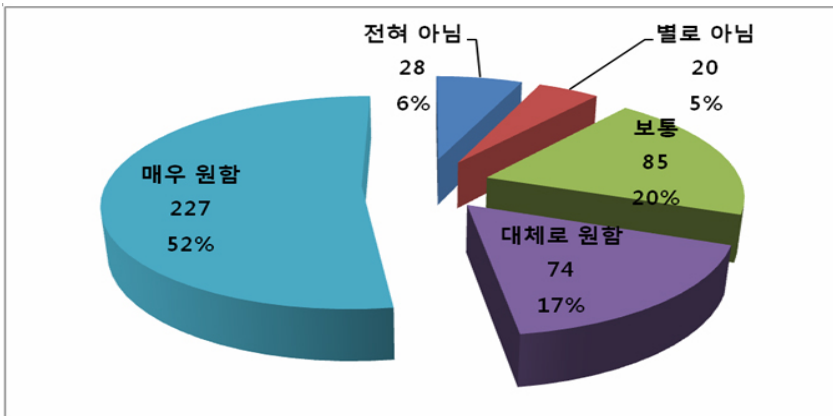
[그림 III-5] 가정에서의 한국어 교육 (총 687명)

부모님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전혀 아니라고 응답했고, 별로 아니라는 응답도 14%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에 해당해 고려인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부모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설문에서 자녀가 한국어를 공부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84%였던 것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이민세대가 지나면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응답도 17%를 차지했으며 이중 10%는 매우 열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6] 가정에서의 한국 음식 (총 690명)

부모님이 한국음식을 만드시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75%, 대체로 그렇다가 12%에 해당해 전체 응답자의 87%가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였던 것에 반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민세대가 오래되면서 언어는 많은 부분 현지에 동화되었으나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민족적 정체성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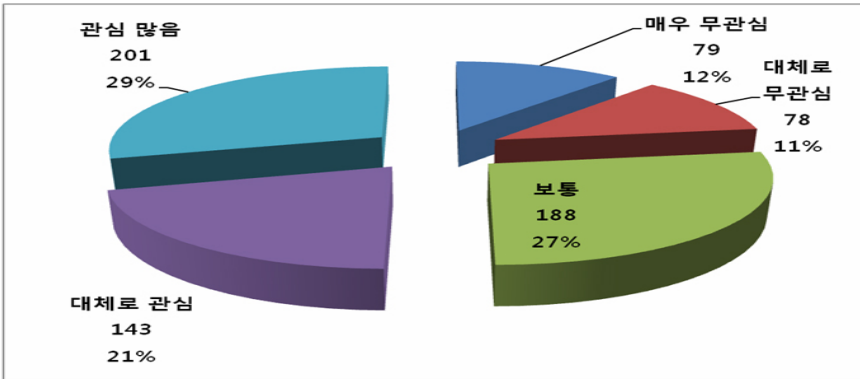


[그림 III-7]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바람 (총 434명)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 듯 복수답변이 많아 유효 응답 수가 줄어들었다. 매우 원한다는 답변이 52%이고, 대체로 원한다는 답변이 17%로, 69%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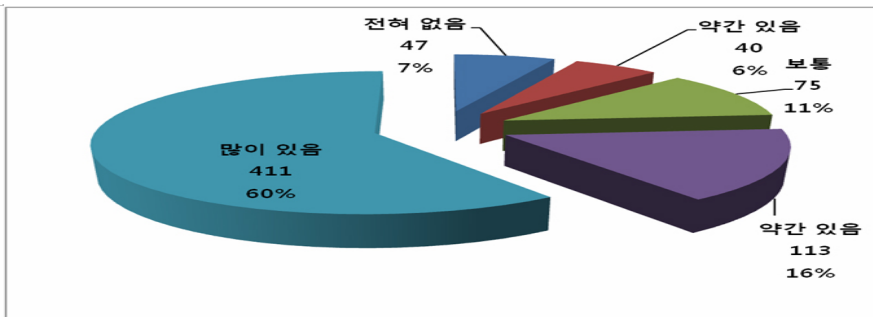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관심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 79              | 78              | 188      | 143        | 201       |
| 2. 향후 2-3년 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 47              | 40              | 75       | 113        | 411       |
| 3.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 108             | 76              | 120      | 127        | 261       |
| 4.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 13              | 7               | 30       | 64         | 577       |
| 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 24              | 27              | 70       | 136        | 435       |
| 6. 나는 배우자로 한국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 45              | 23              | 99       | 94         | 164       |
| 7.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 70              | 74              | 181      | 128        | 224       |
| 8.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 146             | 111             | 166      | 103        | 151       |
| 9.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 168             | 100             | 123      | 113        | 166       |
| 1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 32              | 39              | 102      | 124        | 373       |



[그림 IV-1]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 (총 6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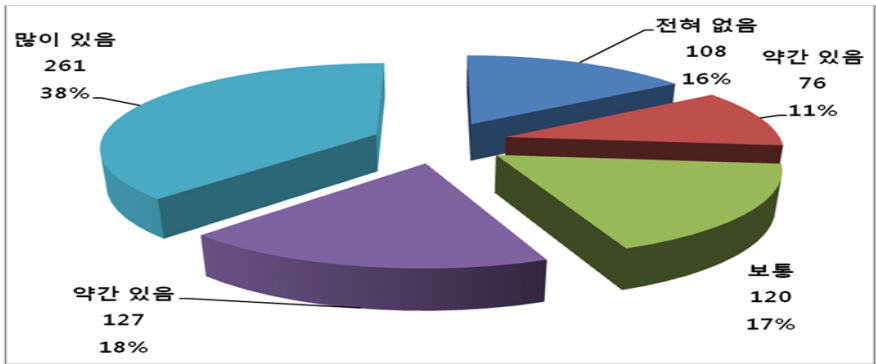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을 묻는 설문에서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50%가 대체로 관심이 있거나 아주 많다고 답변하였다. 27%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뉴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한국 방문 계획 (총 4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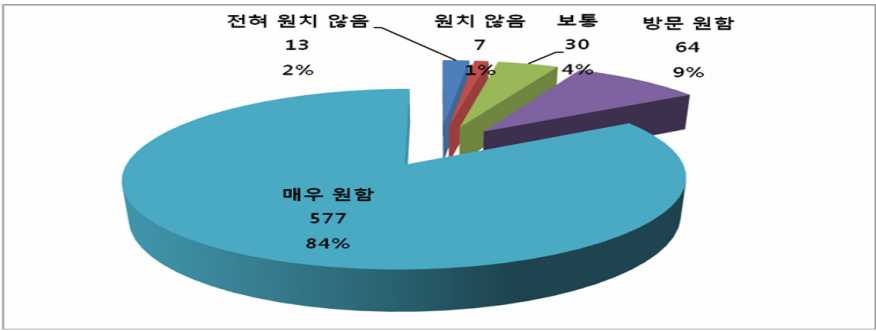
전체의 60%의 응답자들이 향후 2~3년 이내의 한국방문에 대한 상당한 적극적 의사를 나타냈고, 방문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응답자도 16%로 나타나 76%의 응답자가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동경하는 마음이 크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방문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IV-3] 한국 연수 계획 (총 6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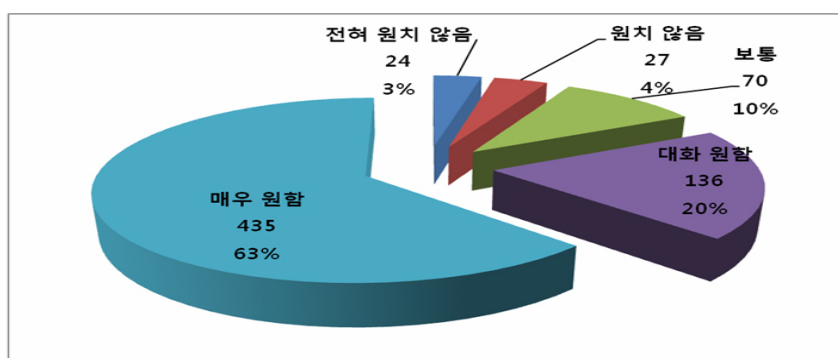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56%가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38%는 아주 있다고 답했다. 한국 방문의사를 묻는 질문보다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기로 유학이나 연수를 할 경우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답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연수나 유학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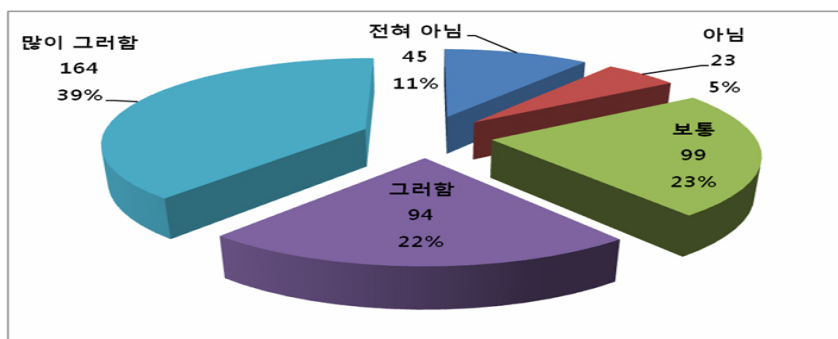
[그림 IV-4] 한국 방문 희망 (총 691명)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원한다는 답변이 93%로 대다수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뉴스에 관심이 없고,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방문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691명의 응답자중 20명은 한국방문을 원치 않거나 전혀 원치 않는다고 응답해 3%를 차지했다.

아래 [그림 IV-5]에서 한국에 있는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그렇다고 말해 한국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치 않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해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서로간의 교류의사 확인 및 폭넓고 구체적인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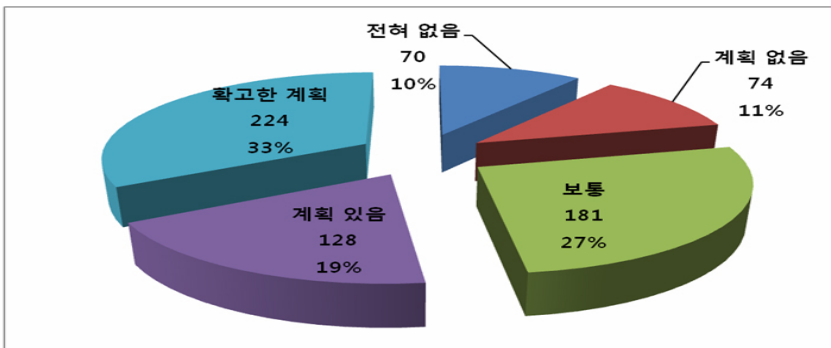
[그림 IV-5] 한국 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바람 (총 6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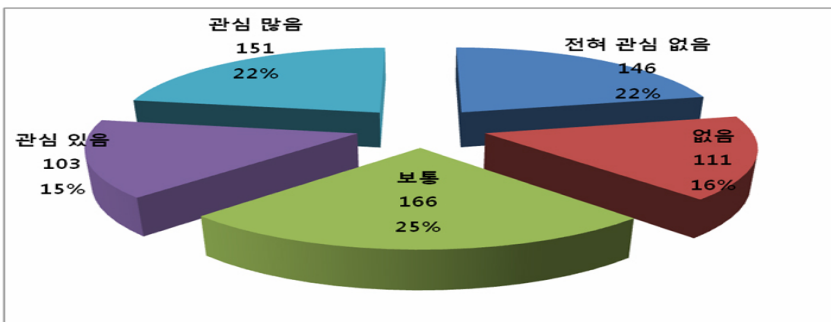
[그림 IV-6] 한인 배우자의 선택 (총 425명)

당신은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들 대부분에게 한국 사람은 고려인인 것이다. 따라서 다민족 사회인 구소련 사회에서 61%가 고려인 배우자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고려인들이 아직도 동족과의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류의 영향 등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인에게 아직도 한국인은 세계관이 다른 한민족일 뿐이었다.

아래 [그림 IV-7]은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고려인 청소년 52%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수입이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고, 최근 많은 한국기업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진출하고 있고, 현지사정에 능통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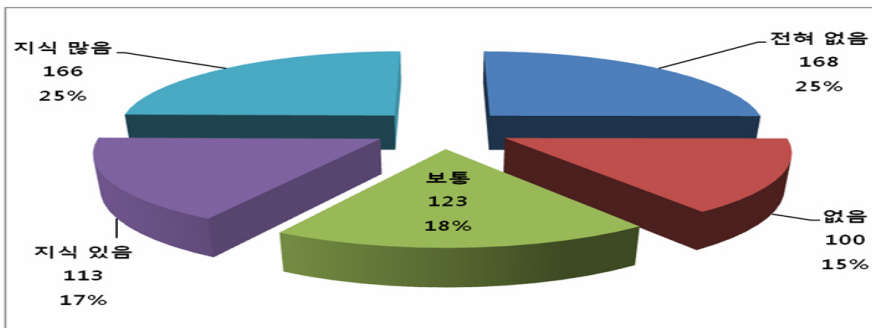


[그림 IV-7]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계획 (총 6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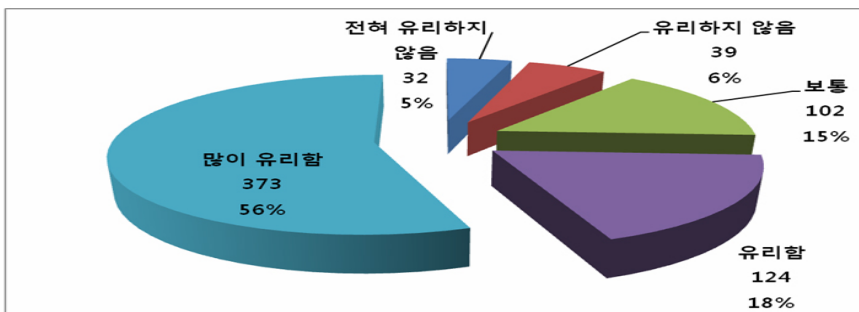
[그림 IV-8] 한국에 대한 관심 (총 677명)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림 IV-8]과 같이 골고루 나타났다.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관심이 더 많다는 답변이 37%에 불과하고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대답도 22%나 되었다. 한국에 매우 가고 싶어 하고 한국관련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대체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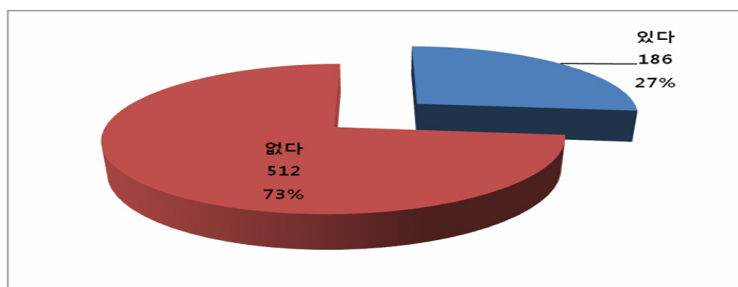
[그림 IV-9] 한국에 대한 지식 (총 670명)

[그림 IV-9]에서는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4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0%로 서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이 많다는 응답과 전혀 없다는 응답도 똑같이 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에 관한 지식이 수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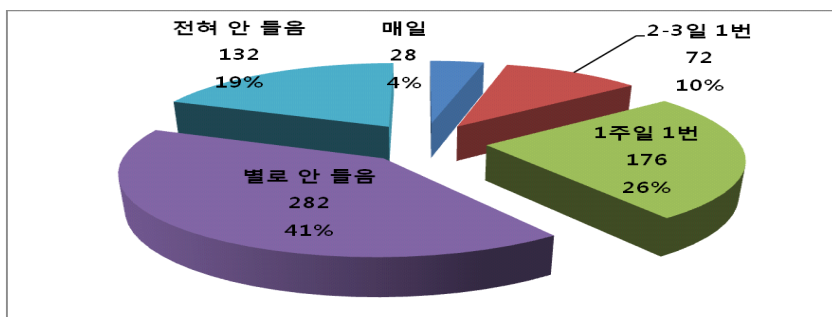
[그림 IV-10] 한국어의 유용성 (총 670명)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많이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응답자의 74%가 유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단지 11%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장래 취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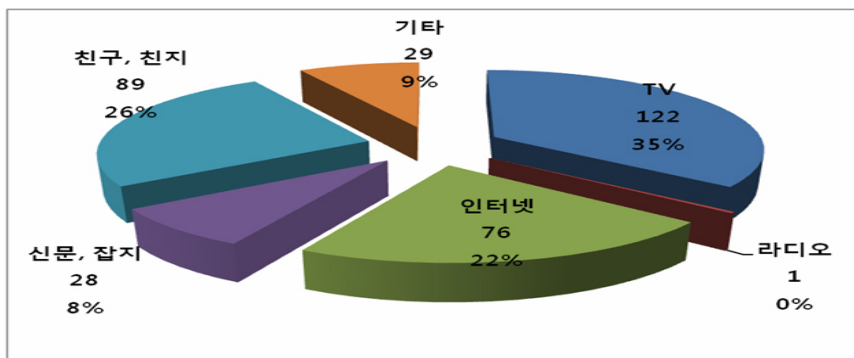
[그림 IV-11] 한국 방문 여부 (총 698명)

[그림 IV-11]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73%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27%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 방문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2.14회 한국을 다녀왔으며 전체 응답자 698명의 1인당 평균 한국 방문 회수는 0.55회로 나타났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답변자도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림 IV-12] 한국 뉴스 청취 회수 (총 690명)

설문에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의 60%가 한국 뉴스를 안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세대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과 한국어 한국문화 자체에는 관심이 있으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큰 관심이 없고, 한국 관련 뉴스도 잘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뉴스를 조금이라도 듣는다는 응답은 40%이고 이중 2~3일에 한 번씩 듣는다는 응답이 10% 매일 듣는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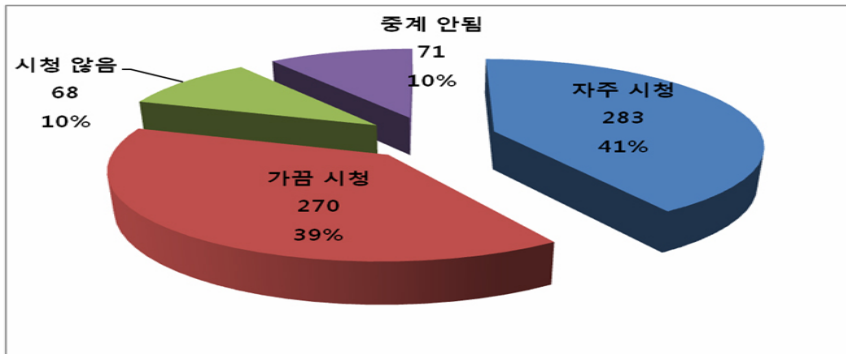


[그림 IV-13] 한국 뉴스 출처 (총 3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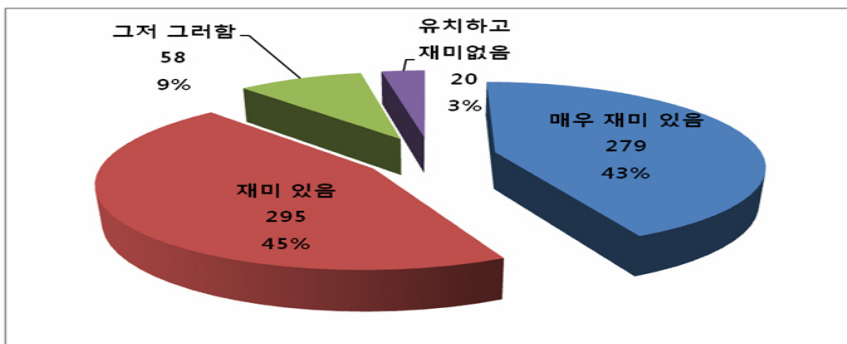
한국뉴스에 대한 출처는 TV, 신문, 인터넷, 지인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기타 29명의 답변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 한국인, 고려인협회 등이 있었다.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과의 교류가 많은 고려인협회 등이 고려인들이 한국인들과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IV-1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연속극을 가끔 또는 자주 시청하는 청소년이 전체 유효 응답자의 80%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욱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뉴스나 한국 소식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데 비해, 한국 드라마에는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2007년 초 TV를 통해 방영이 되면서 시청률 10%이상의 큰 인기를 얻었고, 구소련 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은 인터넷이나 녹화

된 비디오, 위성 방송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그림 IV-14]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여부 (총 6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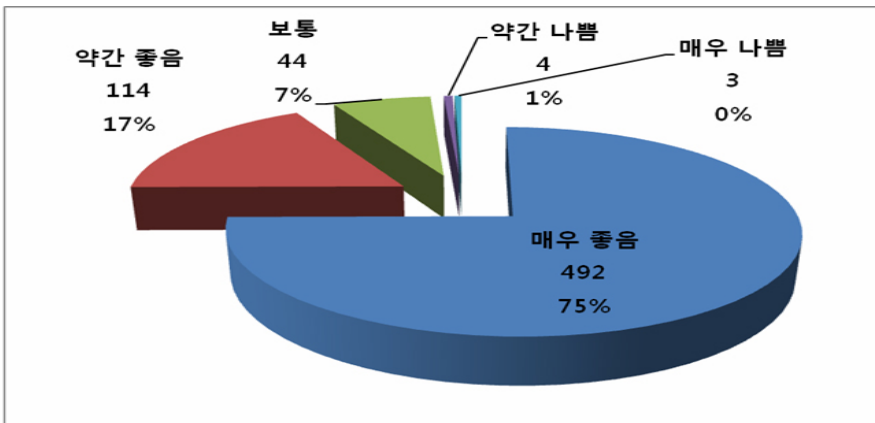
[그림 IV-15] 한국 연속극 시청 소감 (총 652명)

한국 연속극을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미있거나 매우 재미있다는 답변이 88%로 압도적이었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9% 유치하고 재미없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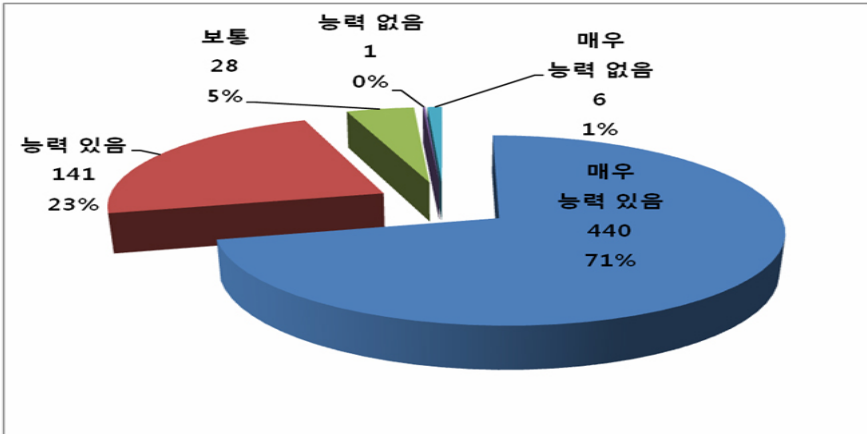
[표 IV-1] 한국에 대한 견해

|        | 매우  | 약간  | 어느 쪽도 아님 | 약간 | 매우 |         |
|--------|-----|-----|----------|----|----|---------|
| 좋다     | 492 | 114 | 44       | 4  | 3  | 나쁘다     |
| 능력이 있다 | 440 | 141 | 28       | 1  | 6  | 능력이 없다  |
| 활동적이다  | 437 | 115 | 45       | 7  | 3  | 비활동적이다  |
| 친밀하다   | 384 | 147 | 50       | 22 | 6  | 친밀하지 않다 |

아래 [그림 IV-16]은 한국에 대한 호감의 정도를 묻는 질문이다. 92%가 좋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중에서 75%가 매우 좋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나쁘다고 답변한 사람은 1%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이 모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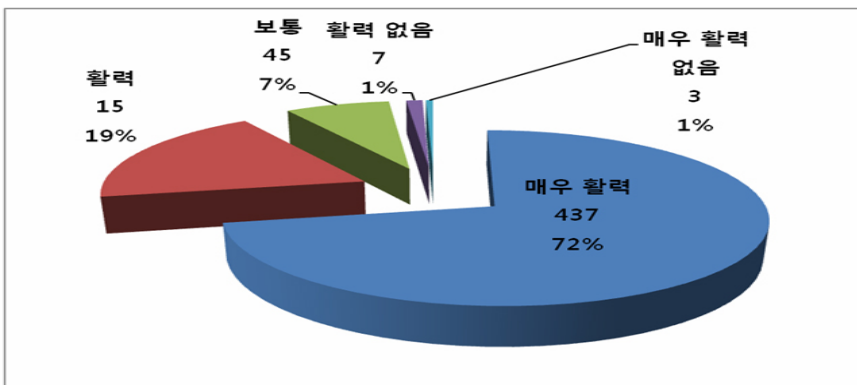


[그림 IV-16] 한국에 대한 호감도 (총 6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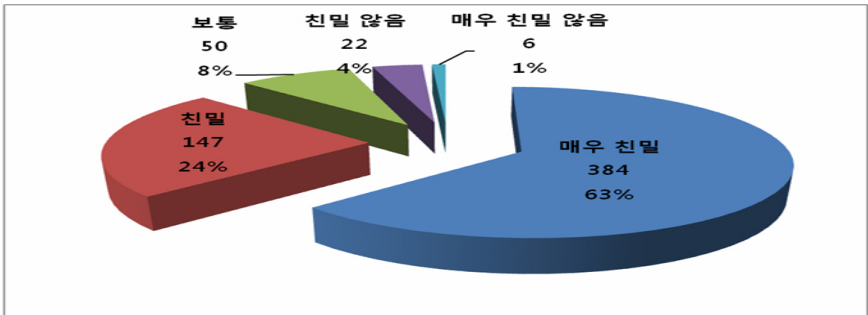
[그림 IV-17] 한국의 능력에 대한 견해 (총 616명)

[그림 IV-17]의 한국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4%가 한국이 능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1%는 매우 능력 있다고 답하였다. 능력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에 불과하였다.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제품들의 위상,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는 휴대폰, MP3,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높은 인기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능력 있는 나라로 인식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8] 한국의 활동력에 대한 견해 (총 607명)

[그림 IV-18]의 한국이 활동적인 국가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1%가 활력적이며 그 중에 72%는 매우 활력적이라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이 능력 있고 활력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좋아하고 있었다. 이는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줬던 한국인의 역동적인 응원모습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한국을 활동적인 국가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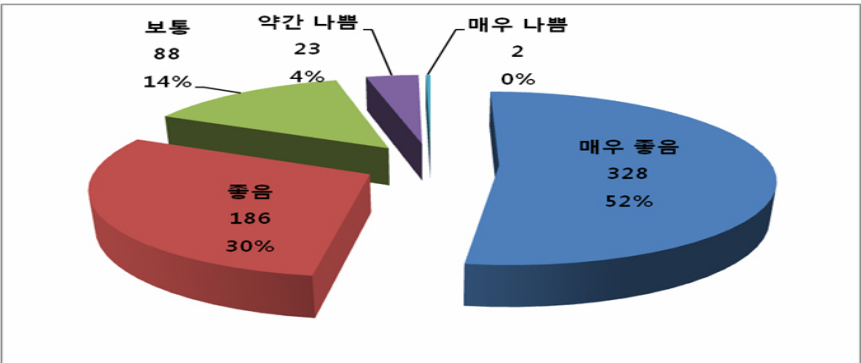
[그림 IV-19] 한국에 대한 친밀도 (총 609명)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묻는 질문에서 친밀하다는 의견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능력이나, 활력에서 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보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을 능력 있고 활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경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국을 가깝게 느끼는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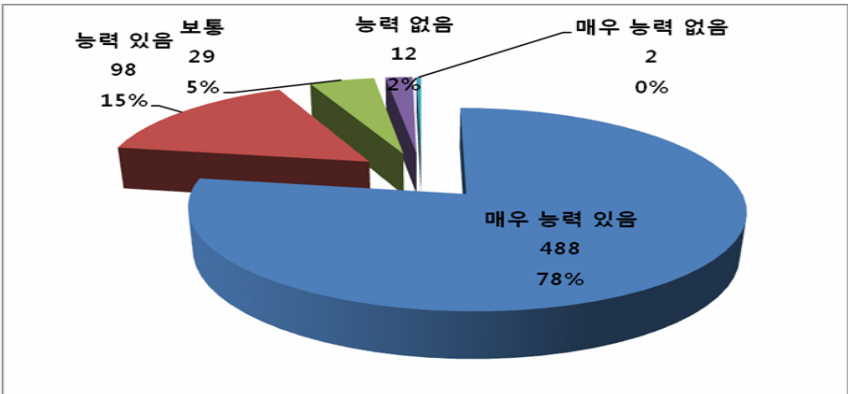
<표 IV-2> 한국인에 대한 견해

|        | 매우  | 약간  | 어느 쪽도 아님 | 약간 | 매우 |         |
|--------|-----|-----|----------|----|----|---------|
| 좋다     | 328 | 186 | 88       | 23 | 2  | 나쁘다     |
| 능력이 있다 | 488 | 98  | 29       | 12 | 2  | 능력이 없다  |
| 활동적이다  | 477 | 105 | 23       | 16 | 5  | 비활동적이다  |
| 친밀하다   | 360 | 170 | 70       | 25 | 7  | 친밀하지 않다 |

아래 [그림 IV-20]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답변이다. 반수가 넘는 52%의 응답자가 한국인을 매우 좋아한다고 답했고, 좋다는 의견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호감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도 9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명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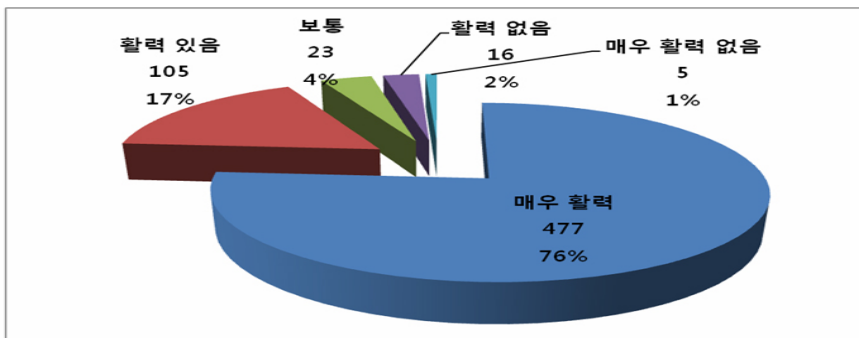
[그림 IV-20]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총 6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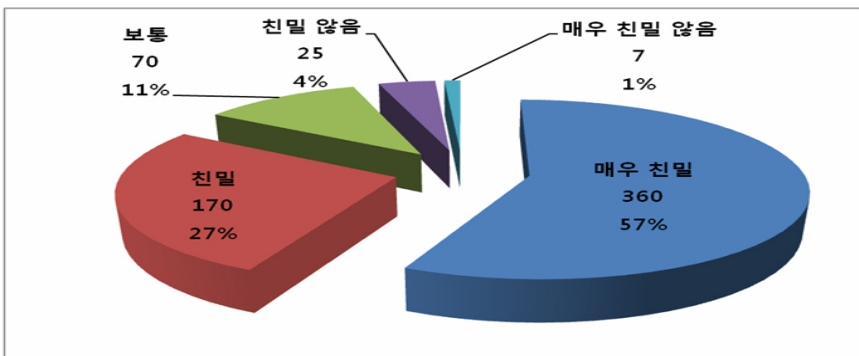
[그림 IV-21] 한국인의 능력에 대한 견해 (총 629명)

한국인의 능력은 한국의 능력을 묻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국인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 능력 있다는 답변이 절대다수인 전체의 93%를 차지하였고 더욱이 매우 능력 있다는 답변이 78%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94%의 수치에 근접하며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과 한국인이 매우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래 [그림 IV-22]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활력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국인이 활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고려인 청소년이 93%에 달했으며, 활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려인 청소년은 3%에 불과하였다. 설문 결과 고려인들은 한국과 한국인 모두 활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역시 한국이 활동적인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수치의 응답을 기록했다.



[그림 IV-22] 한국인의 활동력에 대한 견해 (총 6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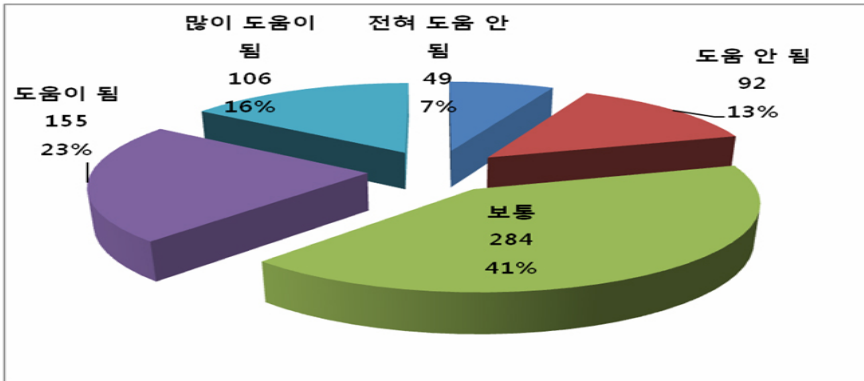


[그림 IV-23] 한국인에 대한 친밀도 (총 632명)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능력 있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친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 84%가 한국인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친밀도인 87%보다도 약간 더 낮은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능력과 활동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호감도나 친밀도에서는 그 보다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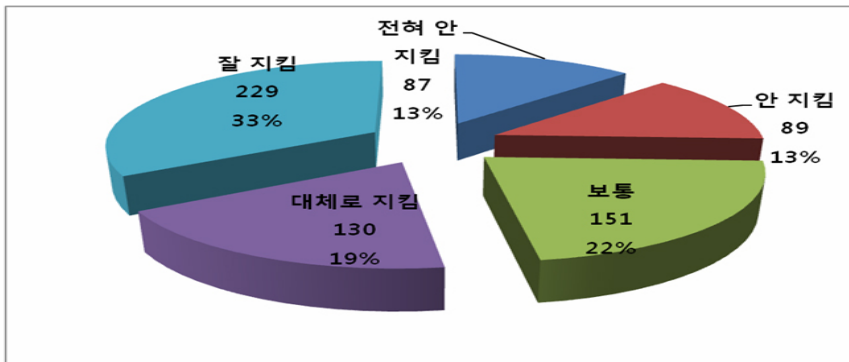
## 5.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한민족 배경은 내가<br>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 49              | 92              | 284  | 155        | 106       |
| 2.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br>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 87              | 89              | 151  | 130        | 229       |
| 3.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br>있다.             | 82              | 120             | 225  | 169        | 82        |
| 4.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 110             | 115             | 175  | 140        | 136       |
| 5.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 174             | 124             | 181  | 117        | 82        |
| 6. 나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br>있다.               | 114             | 44              | 77   | 100        | 343       |



[그림 V-1] 한민족 배경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총 686명)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했다. 고려인들이 이주한지 몇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니 민족적인 배경은 현지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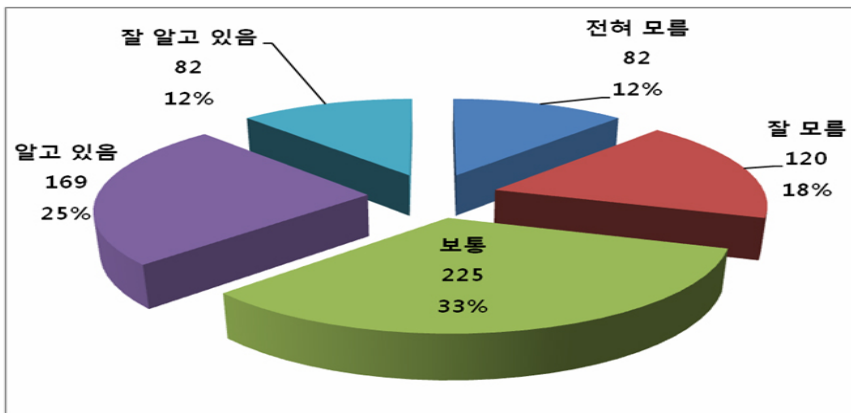


[그림 V-2] 한국의 전통 명절을 지키는지 여부

한국의 전통 명절 즉, 설, 추석, 단오, 한식 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의 전통 명절을 지킨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33%는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고, 전혀 안 지킨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전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

직 많은 고려인 가정에서 민족의 전통 명절을 지키고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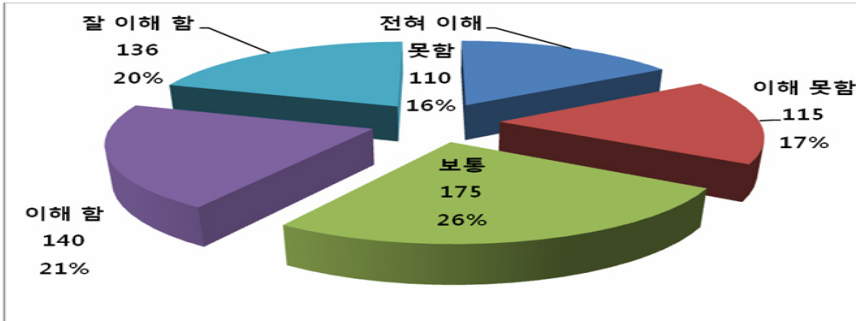
아래 [그림 V-3]의 한민족 문화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응답자의 33%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0%였다. 전통문화를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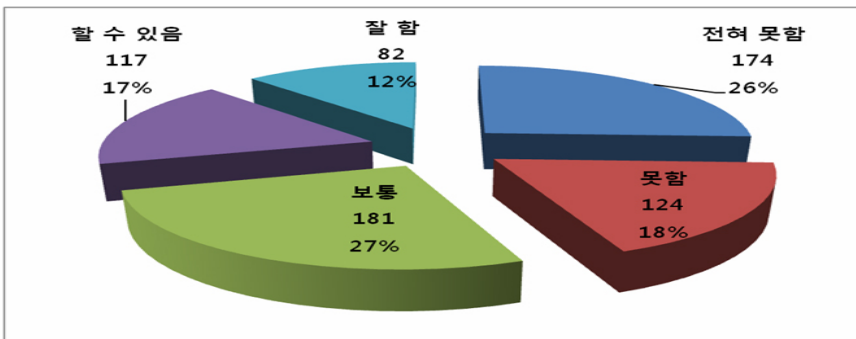
[그림 V-3] 한민족 문화에 대한 지식 (총 678명)

[그림 V-4], [그림 V-5], [그림 V-6]은 각기 한국어 듣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의 읽고 쓰기 능력에 대한 답변이다. 먼저 한국어 듣기는 이해한다는 답변이 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답변도 26%이며, 보통이거나 이해한다는 답변이 67%를 차지했다. 이는 그들 부모 세대가 한국어를 거의 상실했지만, 한국교육원과 개신교와 원불교(모스크바의 경우)에서 행한 한글교육 및 쉬쿨라(초중등통합학교)와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가 공식 강좌나 전공과정으로 개설된 덕택으로 보인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경우,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이 29%이며, 보통이라는 답변이 27%, 못한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다. 못한다는 답변이 많지만 새롭게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읽고 쓰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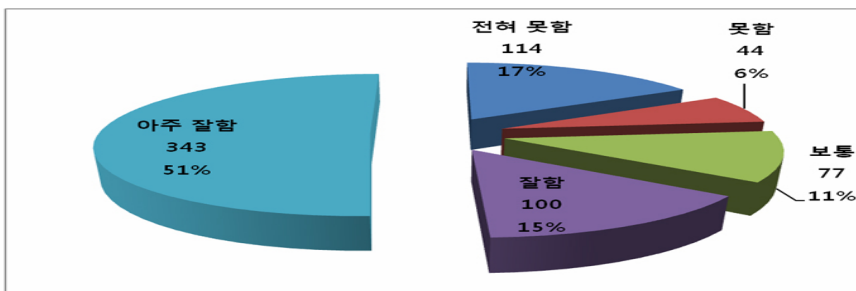
력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51%가 한국어를 아주 잘 읽고 쓸 수 있다고 답했고, 보통 이상이라는 대답이 77%에 이르렀다.



[그림 V-4] 한국어 듣기 능력 (총 6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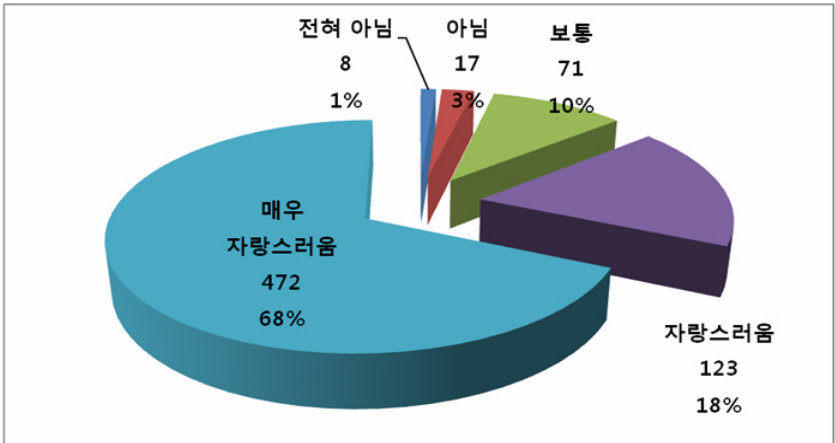
[그림 V-5] 한국어 말하기 (총 678명)



[그림 V-6] 한국어 읽고 쓰기 (총 6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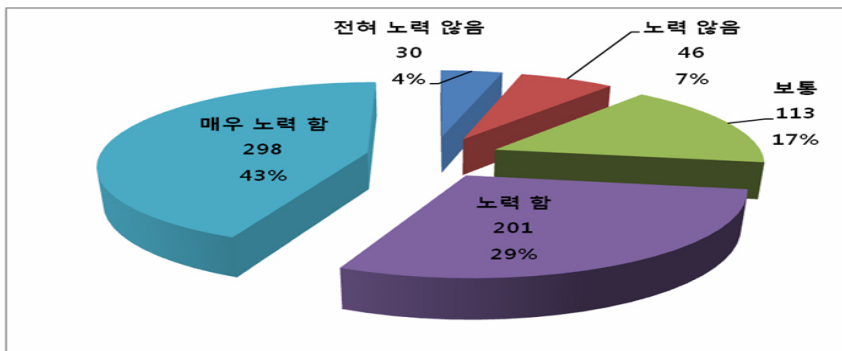
# 6. 한민족 정체성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 8               | 17              | 71       | 123        | 472       |
| 2.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 30              | 46              | 113      | 201        | 298       |
| 3.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169             | 133             | 172      | 96         | 118       |
| 4.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 152             | 168             | 161      | 123        | 79        |
| 5. 나는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34              | 29              | 132      | 188        | 296       |
| 6. 나는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40              | 34              | 170      | 189        | 251       |
|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113             | 105             | 180      | 117        | 168       |



[그림 VI-1]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총 6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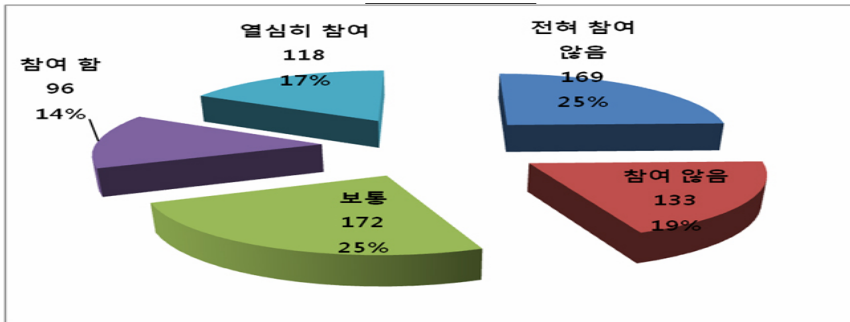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진 고려인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86%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694명의 응답자 중 25명만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등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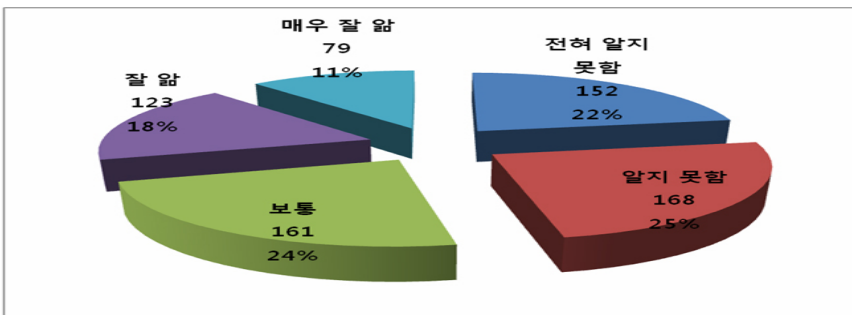
[그림 VI-2] 한국 전통에 대한 학습 (총 688명)

한국전통에 대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학습의지는 이전의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설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설문에서 무려 72%의 학생이 한국전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는 응답자가 많은 만큼 한국의 전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고려인 청소년들도 많았다.

아래 [그림 VI-3]은 한인회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인회는,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진출한 한국 교민(청소년)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고려인청년협회이다. 열심히 참여한다고 17%, 참여한다고 14% 등 31%만이 적극적인 참여로 대답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44%였는데, 성인세대의 고려인협회 참여조차 호응이 적은 점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림 VI-3] 한인회 참여 (총 6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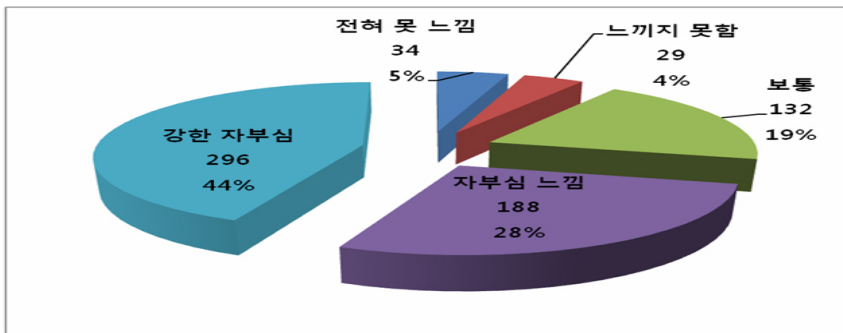


[그림 VI-4]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 (총 6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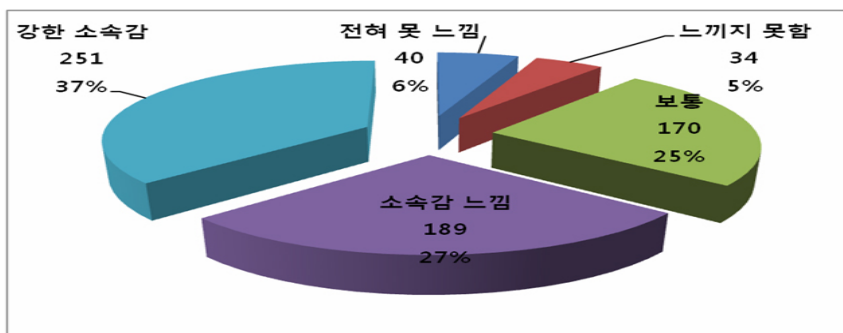
한민족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묻는 설문에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대답이 나왔다. 매우 잘 알거나 잘 안다는 대답이 29%로 나타났고,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민족적 배경 같은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부족하고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683명 중 22%인 152명의 응답자가 한민족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아래 [그림 VI-5]과 [그림 VI-6]은 각기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소속감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대다수인 72%가 느낀다고 답했으며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은 9%에 불과하였다. 특히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답변이 44%나 되었다. 전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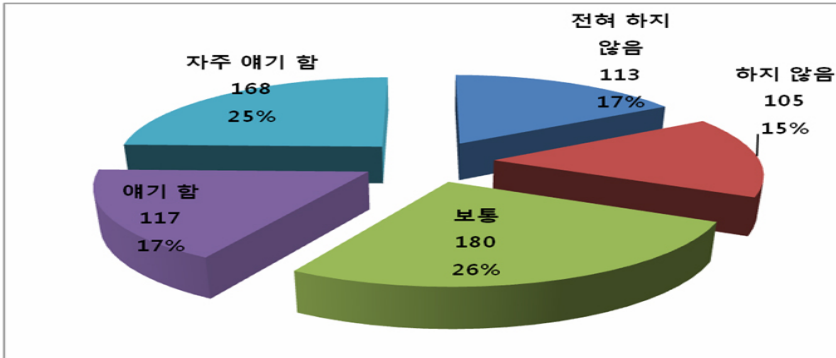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의 경우, 소속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64%로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묻는 질문에 80%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대체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만 그들이 한민족임에 자긍심을 갖는 것 보다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5]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 여부 (총 679명)



[그림 VI-6]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총 6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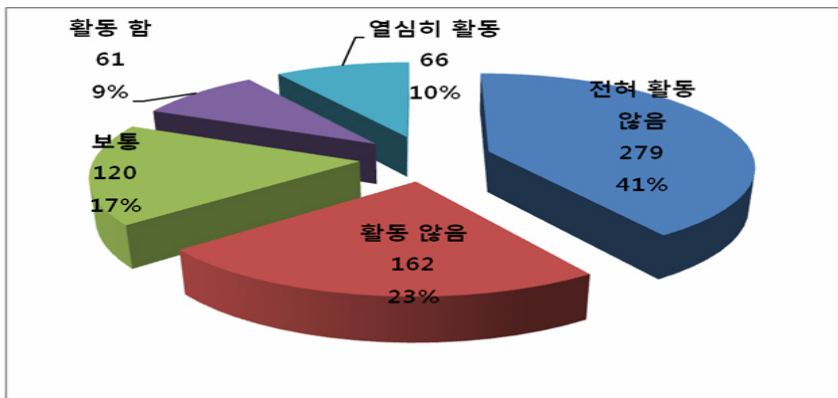
[그림 VI-7] 한민족에 대한 언급 (총 683명)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응답자의 42%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 자주 언급한다는 응답이 25%를 차지했다. 반면 한민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였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7%나 차지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네트워크 구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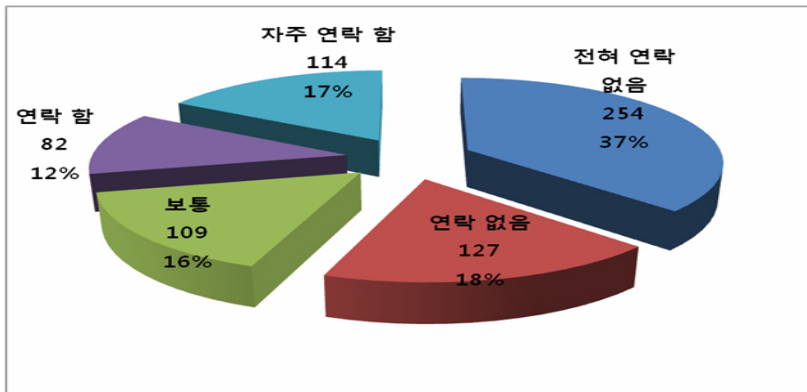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79       | 162       | 120  | 61      | 66     |
| 2.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 254       | 127       | 109  | 82      | 114    |
|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117       | 69        | 160  | 175     | 154    |
| 4.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 15        | 13        | 68   | 139     | 445    |
| 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 238       | 88        | 122  | 71      | 155    |

|                                           |     |     |     |     |     |
|-------------------------------------------|-----|-----|-----|-----|-----|
| 6.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65  | 40  | 120 | 144 | 307 |
| 7.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 27  | 30  | 161 | 200 | 253 |
| 8.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 80  | 48  | 222 | 156 | 153 |
| 9.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 195 | 92  | 129 | 103 | 161 |
| 1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 298 | 117 | 120 | 54  | 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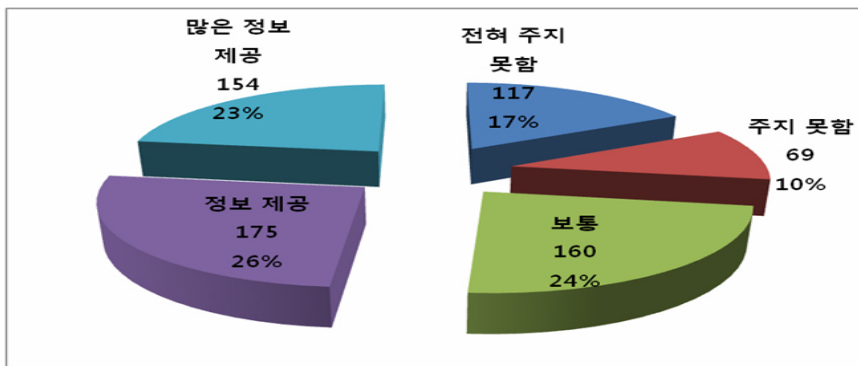
[그림 VII-1] 한인단체 활동 여부 (총 688명)

한인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64%이며, 그 중에서도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1%에 이르렀다. 반면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인단체는 교민 중심의 한인단체가 아니다. 설사 한국교민이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별도의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교육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소수의 고려인 청소년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VII-2] 한국과의 연락 여부 (총 686명)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5%에 달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과 한국과의 네트워크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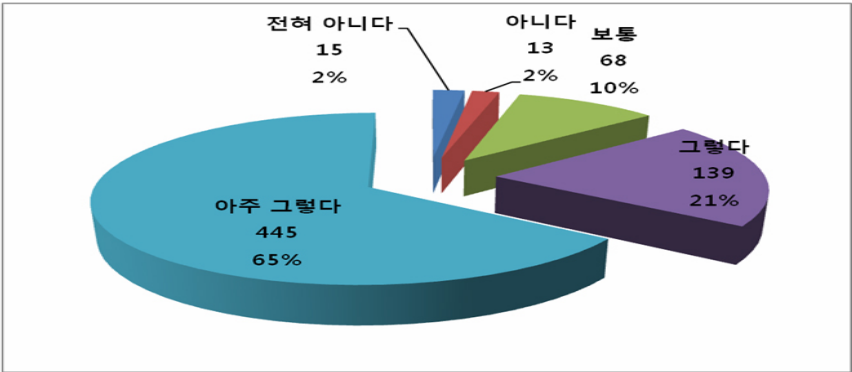


[그림 VII-3]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 (총 6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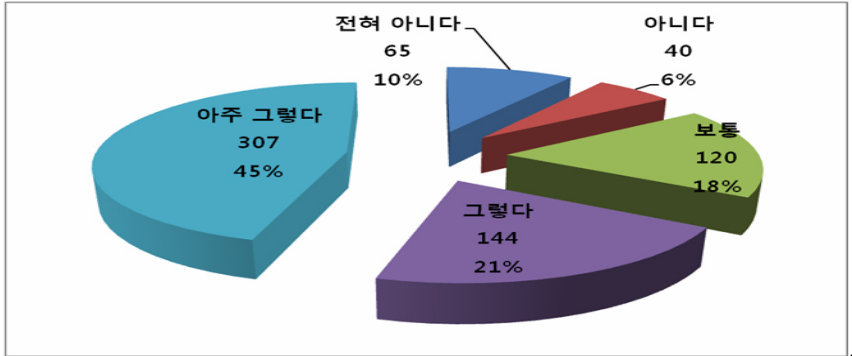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7%이고, 정보를 주고 있다는 답변이 49%로 응답자의 절반이 한국의 정보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크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VII-4]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전체 고려인 청소년 가운데 86%가 그렇다는 답변을 주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니라는 답변은 4%에 불과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욕구도 높은 만큼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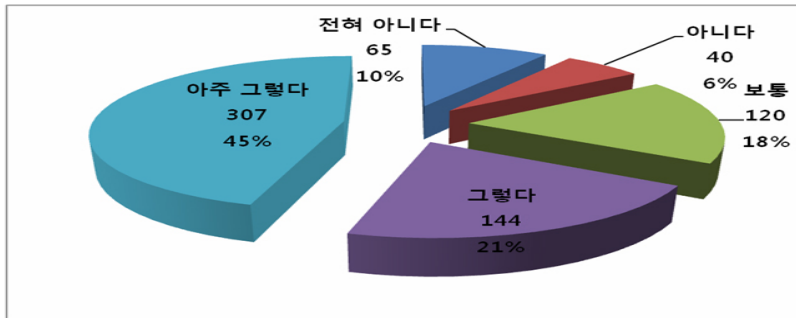
[그림 VII-4]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바람 (총 680명)



[그림 VII-5]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 (총 6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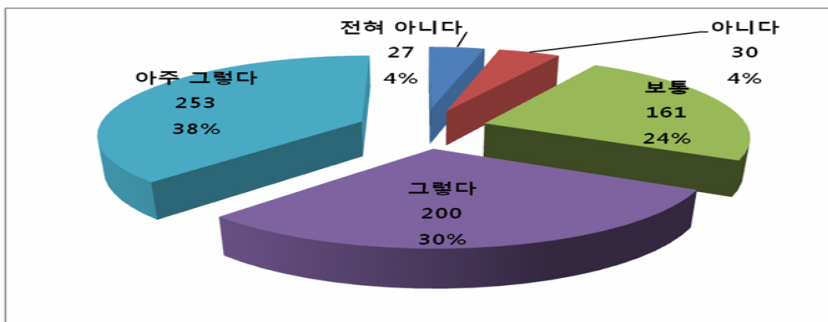
인터넷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한국문화를 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사이트에 66%가 접속한다고 답변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45%는 아주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라는 답변은 16%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사이트는 매우 친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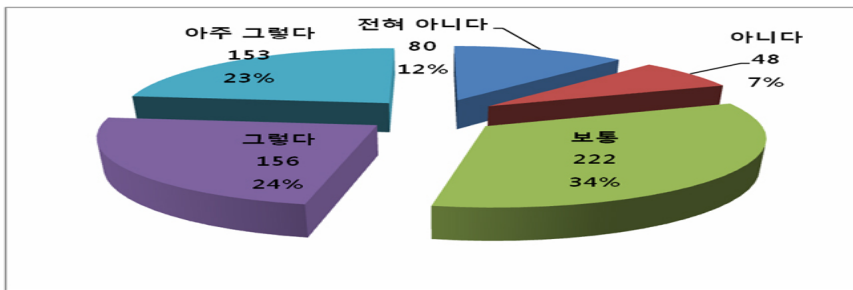
[그림 VII-6] 한국 청소년과 교류를 위한 사이트 구축 필요 (총 676명)

[그림 VII-4]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86%의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림 VII-6]은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는데 역시 필요하다는 답변이 6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아니라는 답변은 16%에 불과하였다. 한국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답변한 청소년 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로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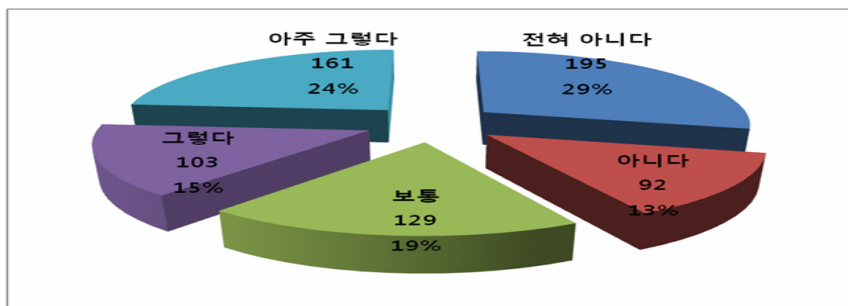
[그림 VII-7]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인상 (총 671명)

최근에는 러시아나 구소련 지역에 공부하러 가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고 현지 한인 교회나 한인회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과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66%이며, 아니라는 답변은 8%, 보통이라는 답변은 24%였다. 대체적인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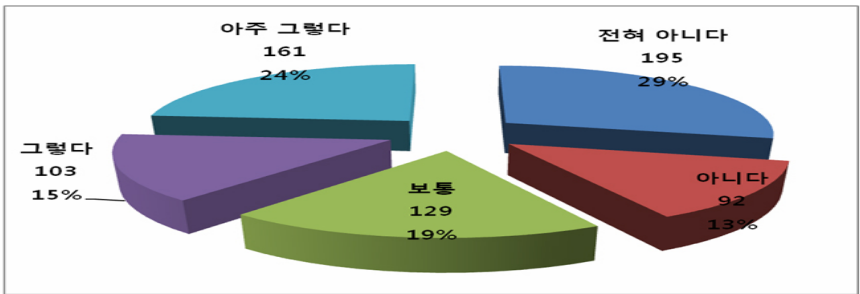
[그림 VII-8] 한국 유학생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호감 (총 659명)

한국 유학생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47%이고 아니라는 답변이 19%였다. 전혀 아니라는 대답도 12%가 있었다. 한국 유학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은 교류를 원하는 비율이 86%, 한국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66%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최근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이 그들로 인해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되는 수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9] 한국 정부의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총 680명)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39%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답변이 42%에 이르렀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29%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보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더 많았으며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사관과 한국 교육원 등 한국 정부기관에 연줄이 없는 경우, 아예 정보가 전달되지도 않는 현지의 소리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VII-10] 한국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총 6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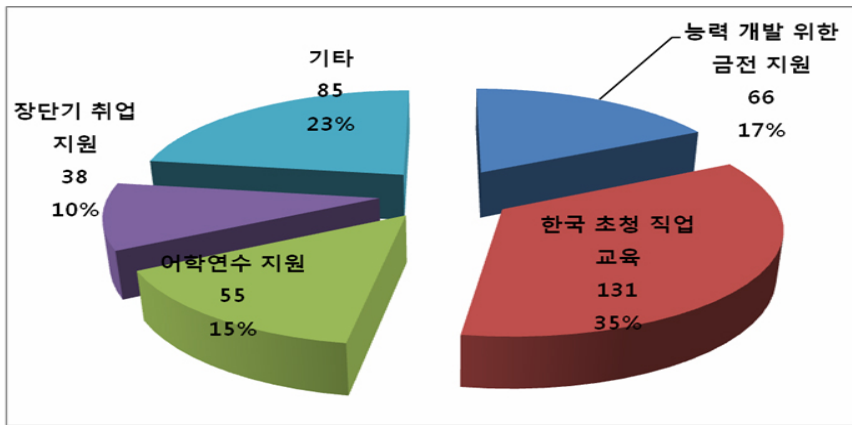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서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39%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2%로 알고 있다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유학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자는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 한국 정부에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

|                            | 응답자 | 백분율  |
|----------------------------|-----|------|
| 1.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 | 66  | 17.6 |
| 2. 능력개발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 9   | 2.4  |
| 3.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 7   | 1.9  |
| 4.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훈련 실시  | 131 | 34.9 |
| 5. 한국 청소년과 교류 프로그램 제공      | 34  | 9.1  |

|                       |    |      |
|-----------------------|----|------|
| 6. 원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 2  | 0.5  |
| 7. 단기방문 지원            | 18 | 4.8  |
| 8. 어학연수 지원            | 55 | 14.7 |
| 9. 장, 단기 취업지원         | 38 | 10.1 |
| 10. 인턴프로그램 지원         | 4  | 1.1  |
| 11. 기타(구체적으로 제시)      | 11 | 2.9  |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 등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자들 상당수가 복수 답변을 한 것은 바라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기타의 답변 가운데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지원을”, “아무 것도 필요 없음”, “어떤 것이든 상관 없음” 등이 있었다. 중요한 답변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1] 한국 정부에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 (총 375명)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답변이 유효 응답의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에 장단기 취업 지원 10%를 추가하면 직업 관련 지원에 대한 바람이 45%를 차지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관련 취업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능력 개발을 위한 금전지원이 17%로 다음을 차지했고 어학연수 지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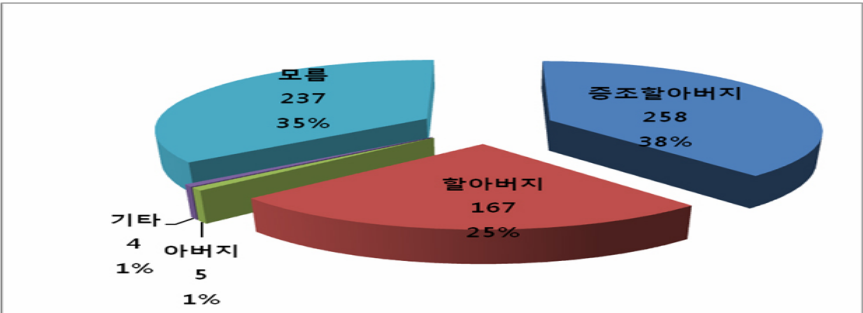
15%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에게 크게 취업 지원과 학업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 한국 정부에 바라는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

|                       | 응답자 | 백분율  |
|-----------------------|-----|------|
| 1. 한국 내 취업 알선         | 77  | 19.1 |
| 2. 한국 내 상급학교 학교 진학 지원 | 138 | 34.2 |
| 3.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취업 지원  | 77  | 19.1 |
| 4. 단기체류 지원            | 31  | 7.7  |
| 5. 어학연수 지원            | 44  | 10.9 |
| 6. 인턴십지원              | 23  | 5.7  |
| 7. 기타(구체적으로 제시)       | 14  | 3.5  |

한국 정부나 관련단체 등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인적자원 활용 정책을 수행하기를 가장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한국 정부에게 바라는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에서도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업 지원에 대한 것이 높았다. 한국 내 상급학교 진학 지원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현지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을 바란다고 말한 응답자와 한국 내 취업을 알선해 주길 원한다는 답변이 똑같이 19.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어학연수 지원은 10.9%로 총 학업 관련 지원을 원하는 응답이 45.1%를 차지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것이 한국 내 취업 알선과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취업 지원이 똑같이 19.1%, 인턴십 지원이 5.7%로 총 43.9%를 차지했다.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복수 응답자가 많아 고려인 청소년들의 기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7번 항목 기타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답변과 모른다는 답변 등이 있었다.

## 8. 이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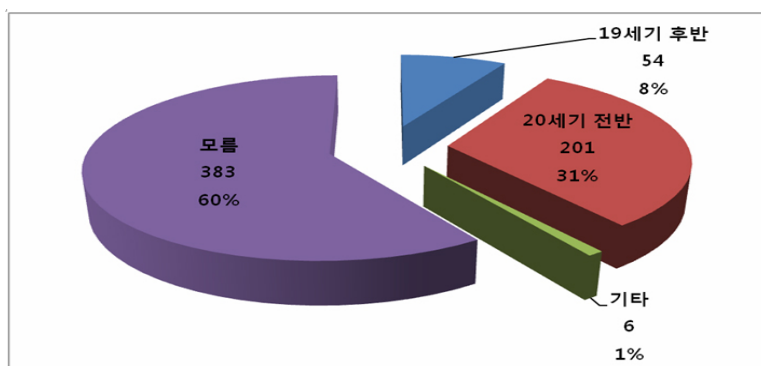
[그림 VIII-1] 한국에서 러시아로 최초로 이주한 가족 (총 671명)

가족 중에서 조선(한국) 땅에서 처음 러시아로 이주하신 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증조할아버지가 38%로 가장 높았고, 모른다는 답변이 3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적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가족 중 누가 처음으로 러시아로 이주하였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VIII-1>과 [그림 VIII-2]는 고려인 청소년에게 조상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주한 시기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가족의 최초 이주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9.5%가 모른다고 대답했고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1930년대가 15.7%, 1920년대가 6.4%로 다음을 차지했다. 모른다는 답변을 제외한 이주시기에 대한 응답 중 20세기 전반에 이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1860년대 최초 이주세대를 비롯하여 19세기 후반에 이주했다는 응답이 8%였다. 전체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조상이 최초로 러시아로 이주한 시기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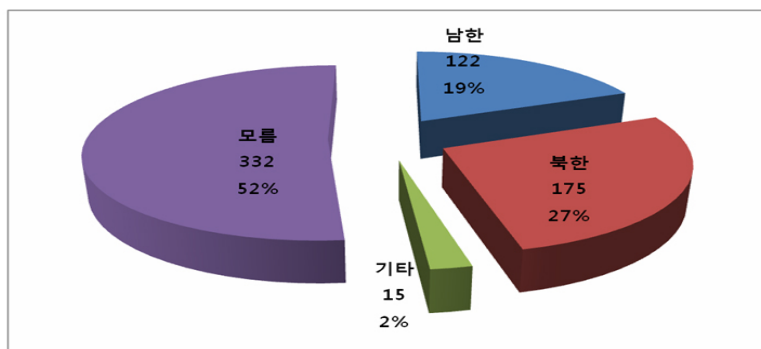
<표 VIII-1> 조상이 최초로 이주한 시기

|    | 1860-70년대 | 1880-90년대 | 1900년대 | 1910년대 | 1920년대 | 1930년대 | 기타  | 모름   |
|----|-----------|-----------|--------|--------|--------|--------|-----|------|
| 빈도 | 22        | 32        | 25     | 34     | 41     | 101    | 6   | 383  |
| %  | 3.4       | 5.0       | 3.9    | 5.3    | 6.4    | 15.7   | 0.9 | 5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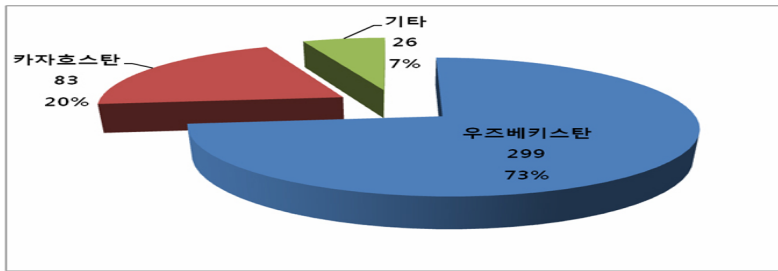


[그림 VIII-2] 조상이 최초로 이주한 시기 (총 644명)

가족 중에서 처음 러시아로 이주하신 분의 고향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 역시 아래 [그림 VIII-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른다는 답변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 북부 지역 출신은 27%이며 함경도(길주) 등에서 이주한 것으로 응답했다. 남부 지역 출신은 19%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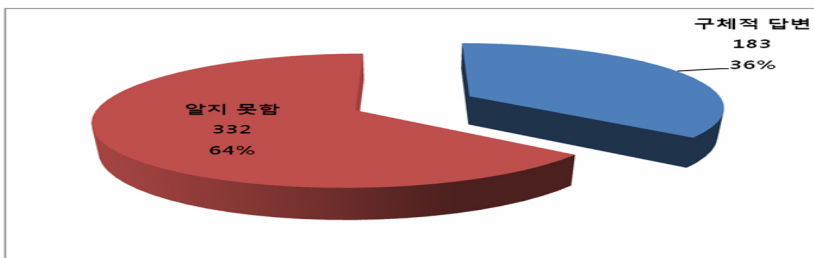


[그림 VIII-3] 조상의 원 거주지 (총 644명)



[그림 VIII-4] 강제이주 때 이주한 지역 (총 408명)

가족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즈베키스탄이 73%로 압도적이며 카자흐스탄은 20%를 차지하였다. 기타 지역은 블라디보스톡, 카프카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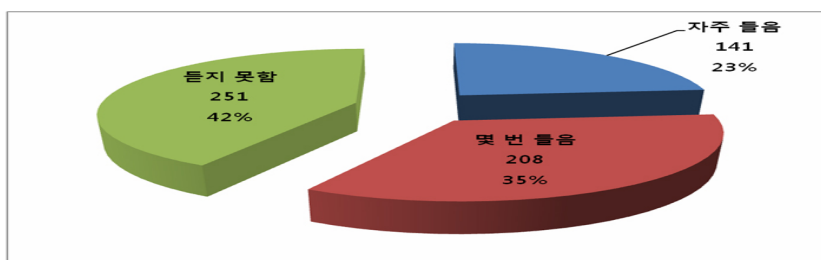


[그림 VIII-5] 최초로 정착한 콜호즈 (총 5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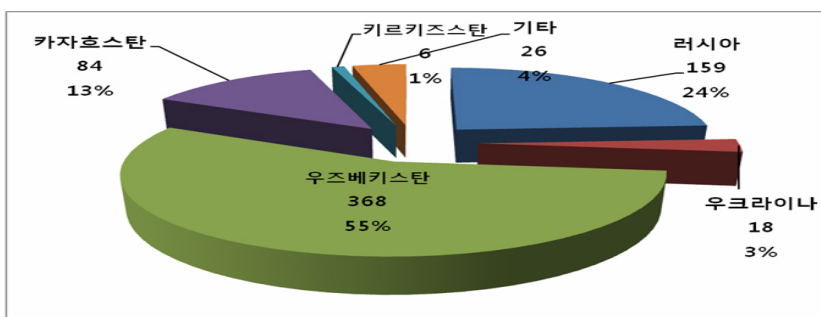
강제 이주 후 가족이 정착한 콜호즈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64%를 차지했으며 유효 답변 가운데 구체적으로 콜호즈 이름을 언급한 경우가 183건이며, 그 가운데 김병화 콜호즈 11명, 세베르나이 마약(북쪽등대) 8명, 스베르들로프(고려인들만의 호칭인 ‘시온고’라고 답한 것도 포함) 26명, 폴라르나야 즈베즈다(북극성) 6명, 폴리타젤 9명, 프라브다 13명 등이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조상이 처음 정착한 콜호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VIII-6]은 강제이주에 대해서 자주 들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는 답변은 23%, 몇 번 들은 바 있다는 답변은 35%, 전혀 듣지 못했다는 답변이 42%였다. 전반적으로 강제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른들이 강제이주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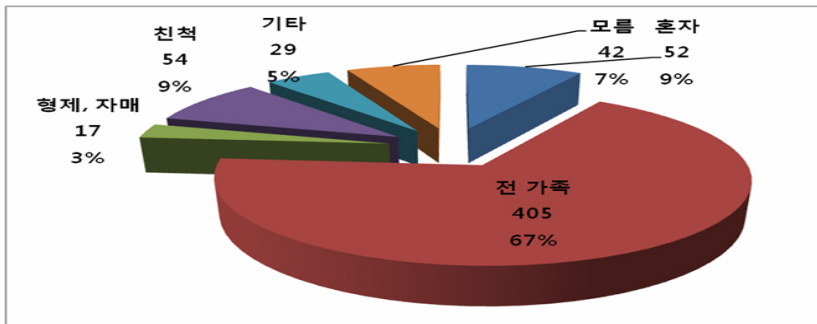


[그림 VIII-6] 강제이주에 대한 정보 (총 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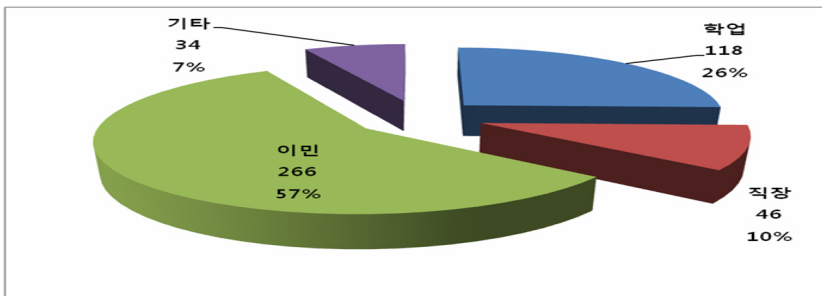
[그림 VIII-7] 태어난 국가(총 661명)

태어난 곳을 묻는 질문에는 우즈베키스탄이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러시아로 24%이고 카자흐스탄은 1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8%였고, 키르기스스탄은 1%였다. 전반적으로 강제 이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 후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I-8] 함께 이주한 사람 (총 5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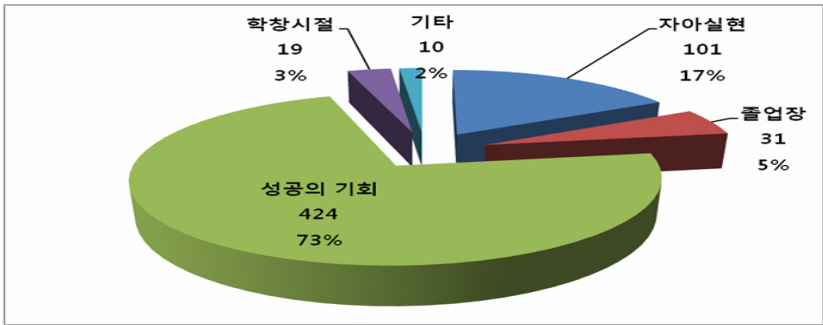
한편, [그림 V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거주지로 누구와 같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 가족이 함께 이주한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 경우는 5%를 차지하였는데 주로 현지에서 태어났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누구와 같이 왔는지 모른다는 답변은 너무 어렸을 때 이주하여 가정 사정으로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림 VIII-9] 이주의 동기 (총 4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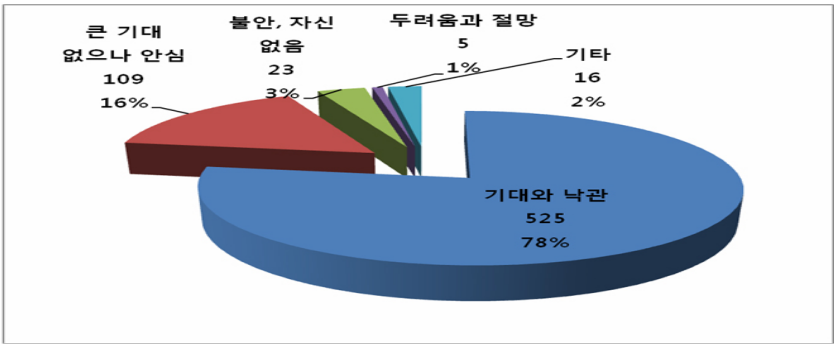
현재 거주지로 이주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족 이민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학업 때문이라는 답변은 26%, 직장 때문이라는 대답은 10%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적은 사람 가운데 “말할 수 없음”, “구소련의 붕괴”, “정치적 상황” 등이 있었다.

### 9.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림 IX-1] 학업의 목적 (총 585명)

공부의 목적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답변이 73%로 가장 많았다. 희망 직업을 묻는 설문에서 전문직이나 고위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통한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이라는 답변이 17%였고, 졸업장이라고 답한 응답이 5%, 학창시절을 위해서 라는 대답도 3%가 있었다.



[그림 IX-2] 미래에 대한 기대 (총 678명)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고려인 청소년의 상당수인 78%가 미래를 기대와 낙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큰 기대는 없어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16%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태도가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 10.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분석

<표 X-1> 성별, 지역별, 신분별, 종교별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 성별      | 지역      | 신분      | 종교      |
|---------------|---------|---------|---------|---------|
|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  | 0.035*  | 0.001** | 0.278   | 0.299   |
| 한국에 대한 느낌     | 0.668   | 0.624   | 0.094   | 0.387   |
| 한국 능력에 대한 견해  | 0.010** | 0.021*  | 0.016*  | 0.423   |
| 한국 활력에 대한 견해  | 0.712   | 0.835   | 0.003** | 0.278   |
| 한국에 대한 친밀감    | 0.404   | 0.180   | 0.982   | 0.013*  |
|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 0.018*  | 0.117   | 0.019*  | 0.409   |
| 한국어 이해 능력     | 0.303   | 0.001** | 0.372   | 0.112   |
| 한국 드라마에 대한 느낌 | 0.007** | 0.000** | 0.845   | 0.293   |
|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  | 0.104   | 0.698   | 0.009** | 0.736   |
| 미래에 대한 믿음     | 0.036*  | 0.269   | 0.069   | 0.008** |
| 정체성에 대한 생각    | 0.207   | 0.056   | 0.624   | 0.007** |
| 네트워크에 대한 견해   | 0.054   | 0.094   | 0.737   | 0.2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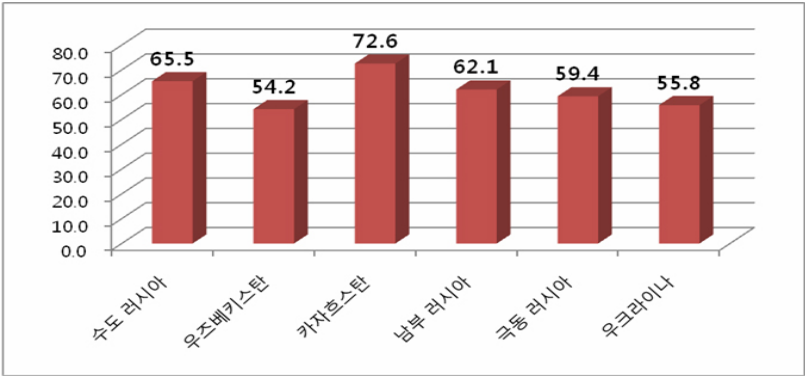
표 안의 수치는 Pearson Chi-Square Asymp. Sig. (2-sided)

성별: 남 vs 여, 지역: 중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 vs 기타 지역, 신분: 대학생 vs 기타 신분, 종교: 개신교 vs 기타 종교

\*:  $p \leq 0.05$ , \*\*: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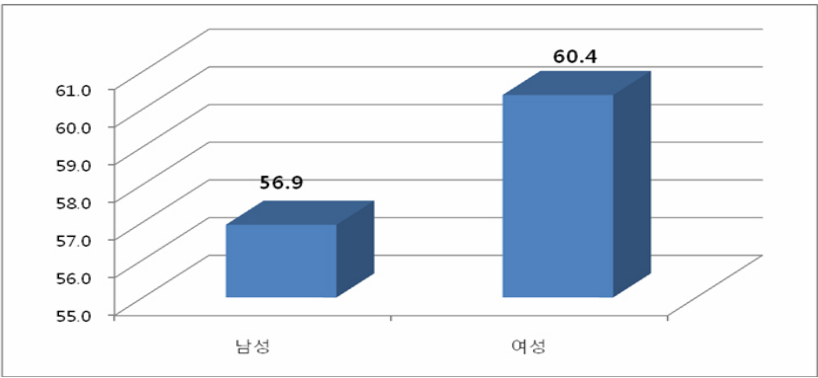
<표 X-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은 성별, 지역별, 한국 능력에 대한 견해는 성별, 지역별, 신분별, 한국 활력에 대한 견해는 신분별,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종교별,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성별, 신분별, 한국어 이해 능력은 지역별, 한국 드라마에 대한 느낌은 성별, 지역

별,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는 신분별, 장래에 대한 믿음은 성별, 종교별,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종교별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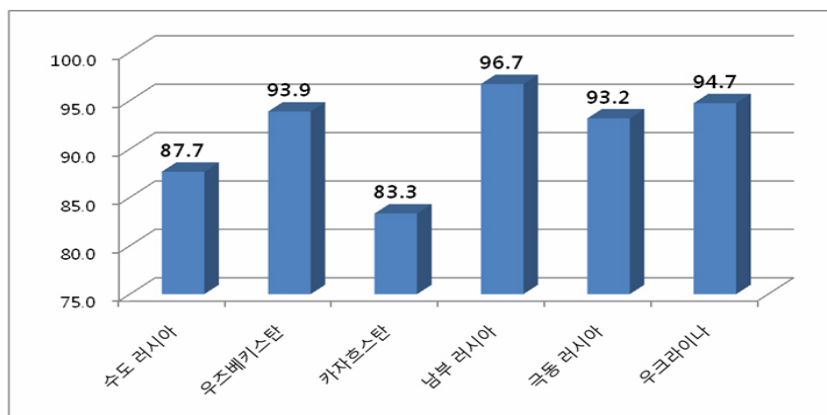
[그림 X-1] 지역별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는 카자흐스탄이 7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수도 러시아로 65.5%를 차지하였다. 남부 러시아 역시 62.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54.2%에 불과해 조사 지역 중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2] 남녀별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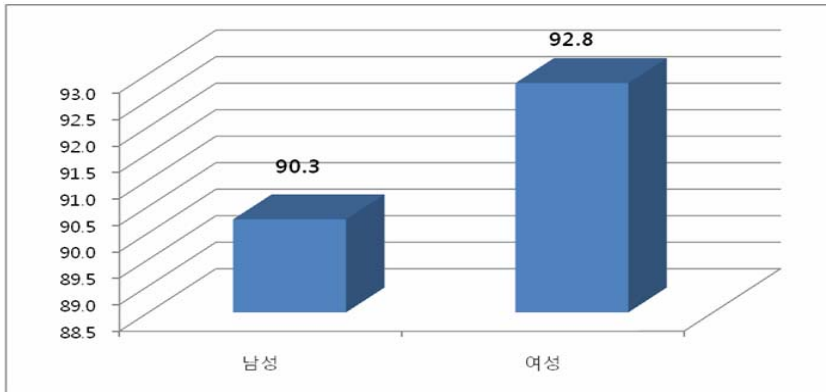
남녀별 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여성의 경우 60.4%, 남성의 경우 56.9%로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도 여성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아 여성이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남성에 비해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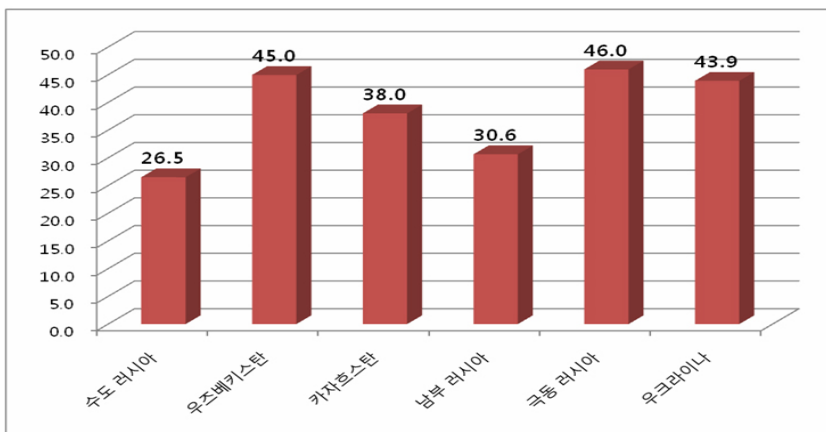
[그림 X-3] 지역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남부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이 무려 96.7%의 호감도를 보여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크라이나가 94.7%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고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두 수도와 카자흐스탄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가장 낮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83.3%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다.

아래 [그림 X-4]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남녀별 비교이다. 남녀 모두 90%가 넘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는데, 남자가 90.3%로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했고 여자는 좀 더 높은 92.8%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설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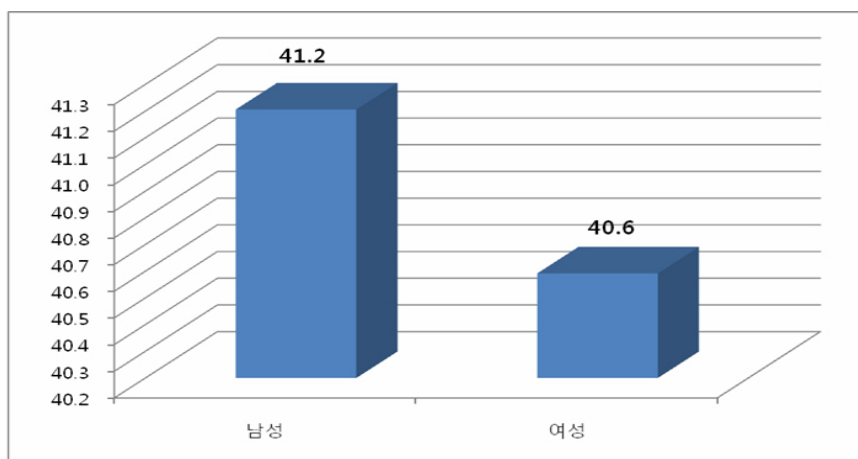
[그림 X-4] 남녀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그림 X-5] 지역별 한국어 듣기와 이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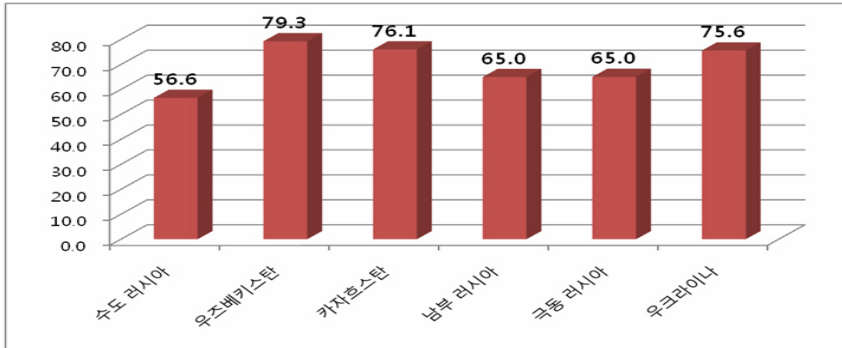
지역별 한국어 듣기와 이해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극동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이 각각 46%, 45%, 43.9%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 가장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청소년들이 26.5%로 가장 한국어 듣기와 이해능력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 내 인구에 비해 고려인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 즉 고려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래 [그림 X-6]은 남녀별 듣기와 이해 능력에 대한 답변이다. 남성과 여성의 한국어 듣기 능력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며, 남자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성비가 여자가 두 배 이상 높았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여성응답자 중 좀 더 다양한 수준의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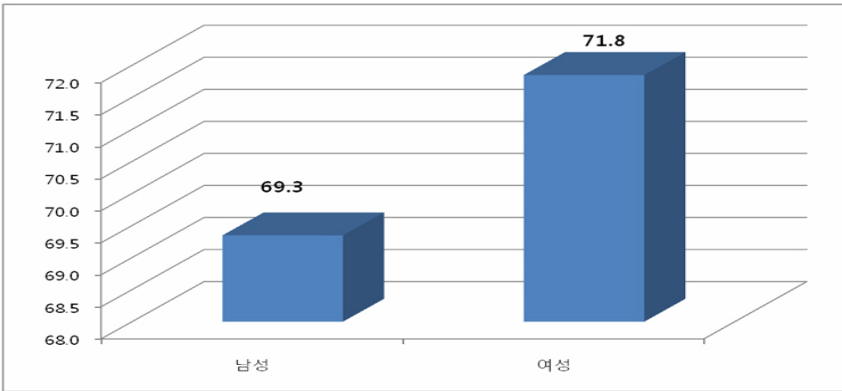


[그림 X-6] 남녀별 듣기와 이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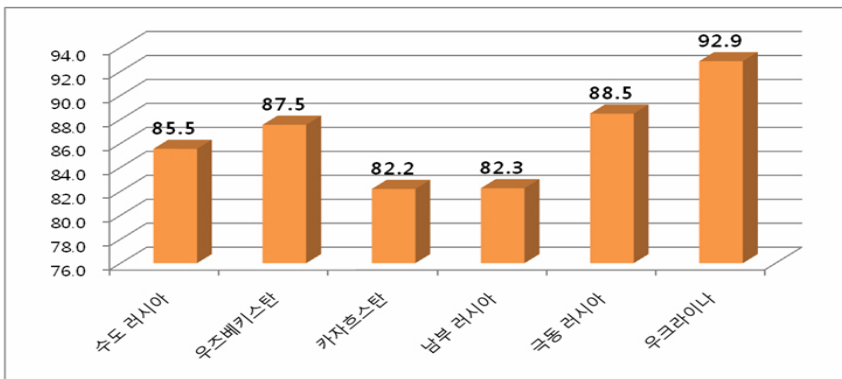
지역별로 민족적 자부심을 묻는 설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79.3%로 가장 높고, 카자흐스탄은 76.1%, 우크라이나가 75.6%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극동 러시아와 남부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 자부심이 6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두 대도시 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 자부심이 56.6%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 중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지역에서 민족적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의 정도와 민족적 자부심은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X-8]은 민족 자부심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림 X-7] 지역별 민족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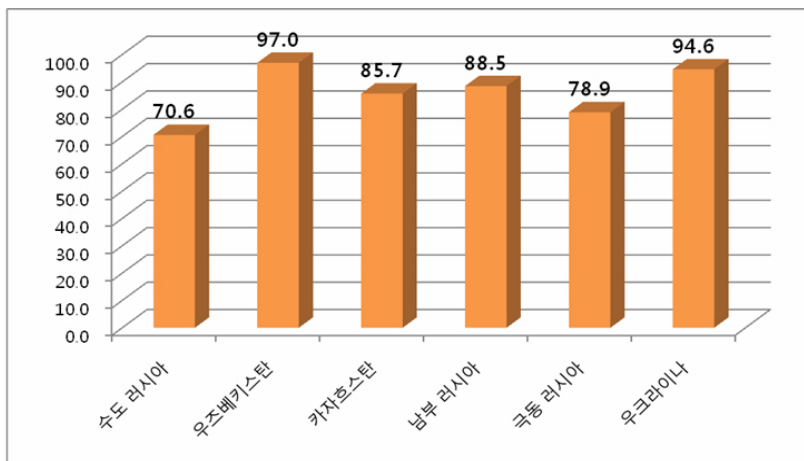


[그림 X-8] 남녀별 민족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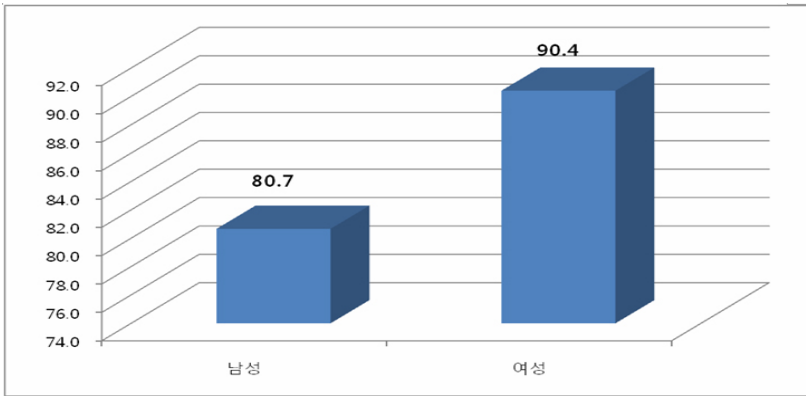
[그림 X-9] 가정에서 한국 음식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드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지역별 분석을 보면, 우크라이나 답변자 가운데 92.9%가 그렇다는 답변을 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극동 러시아가 88.5%, 우즈베키스탄이 87.5%로 그 뒤를 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남부러시아가 각각 82.2%, 82.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고려인들은 한국어 능력에 비해 한국음식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훨씬 오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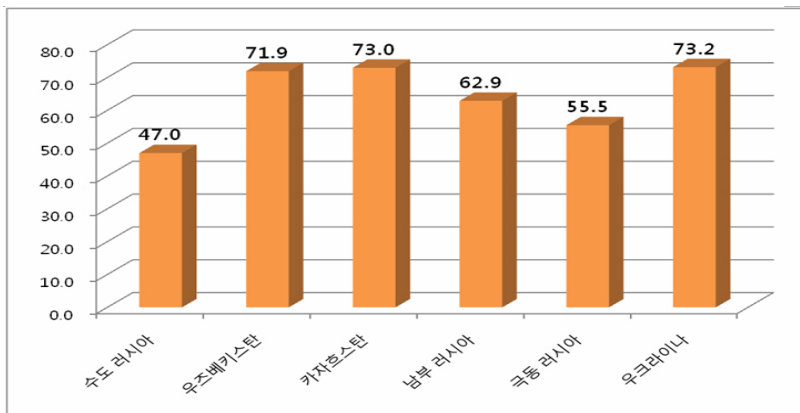
[그림 X-10] 지역별 한국 영화나 연속극에 대한 호감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이 재미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지역적 분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의 무려 97%가 재미있다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94.6%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8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가 70.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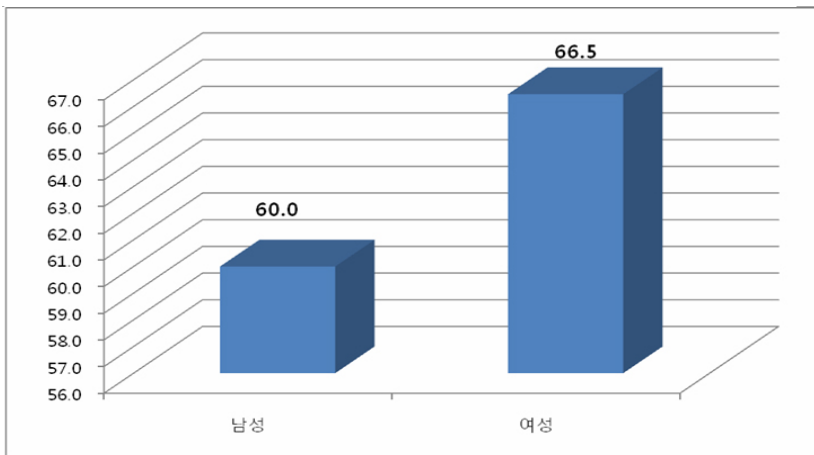
[그림 X-11] 남녀별 한국 영화나 연속극에 대한 호감

남녀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흥미는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90% 이상이 흥미롭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80.7%만이 흥미롭다고 답하였다. 이는 드라마 자체가 여성적 취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므로 고려인들뿐만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한국드라마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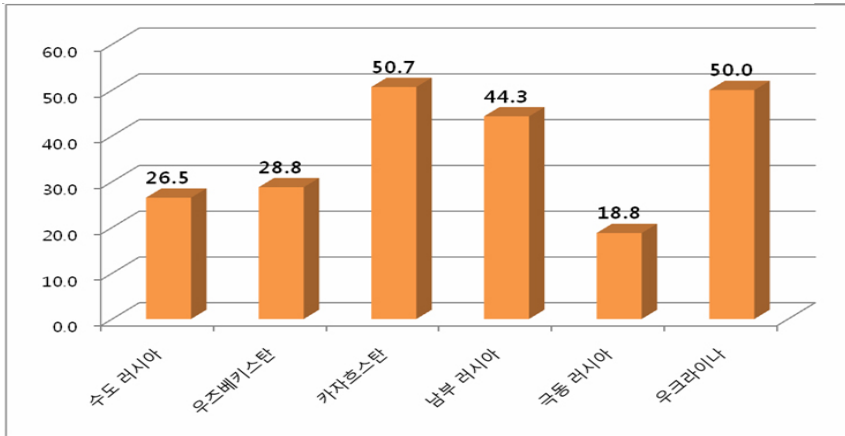
[그림 X-12] 지역별 한국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가 73.2%, 카자흐스탄이 73%, 우즈베키스탄이 71.9%로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극동 러시아는 55.5%,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는 47%로 소속감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이외의 CIS지역에서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이내의 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고 응답한 지역에서 소속감 역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13] 남녀별 한국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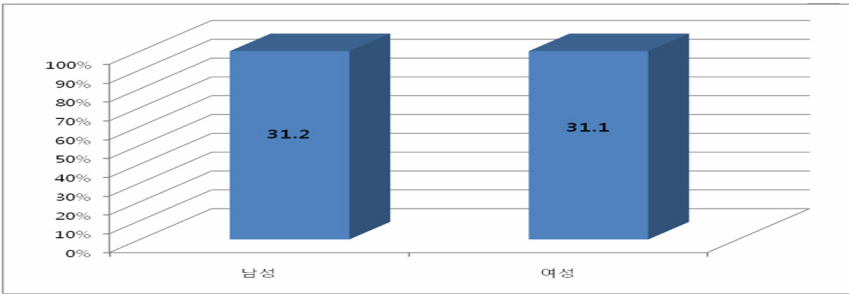
남녀별로 볼 때는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청소년 여자의 66.5%가 강한 소속감을 느꼈고, 남성의 경우 60%가 그렇게 답했다. 전반적으로 고려인 남성보다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부심과 소속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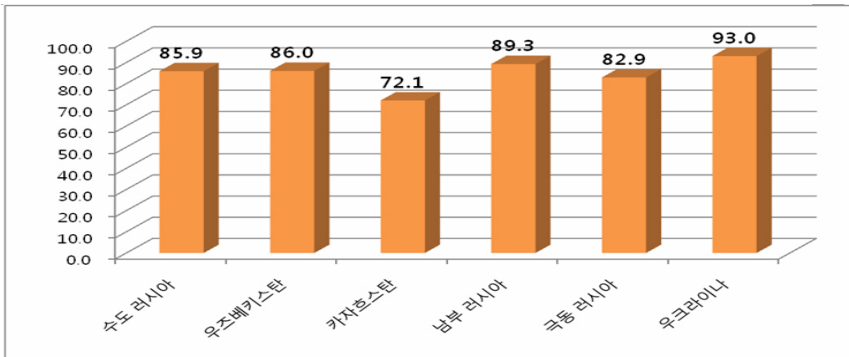
[그림 X-14] 지역별 한인(고려인) 단체에서의 활동양상

고려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50.7%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한인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5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남부 러시아 청소년들도 44.3%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 러시아 청소년들은 18.8%로 한인 단체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래 [그림 X-15]에서는 고려인단체 참여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1.2%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하였고, 여성 역시 31.1%가 그렇게 답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소속감이나 자부심도 더 크게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단체에 대한 참여에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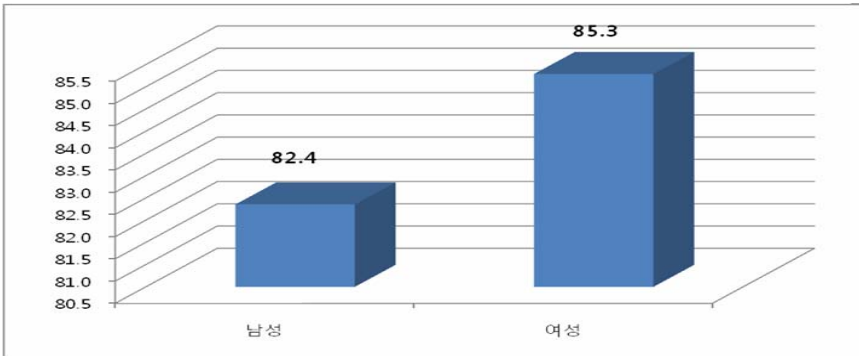


[그림 X-15] 남녀별 한인 단체에서의 활동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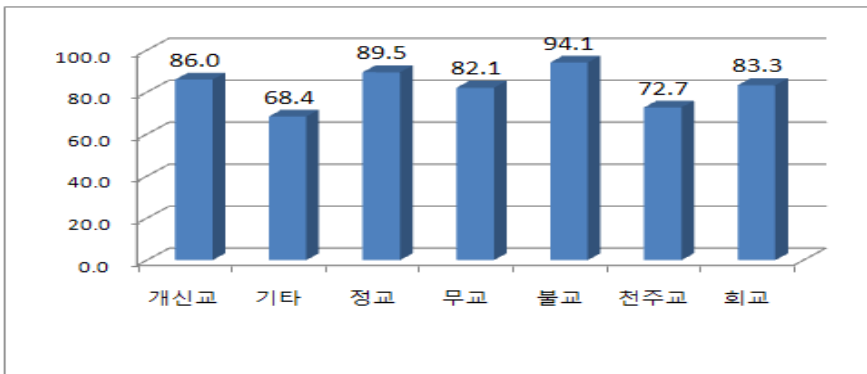
[그림 X-16] 지역별 한국 친밀감

한국이 친밀하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93%가 한국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청소년들의 72.1%가 그렇게 답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주었다. 이 설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과 비례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속감도 높고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높으며 한인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도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도나 친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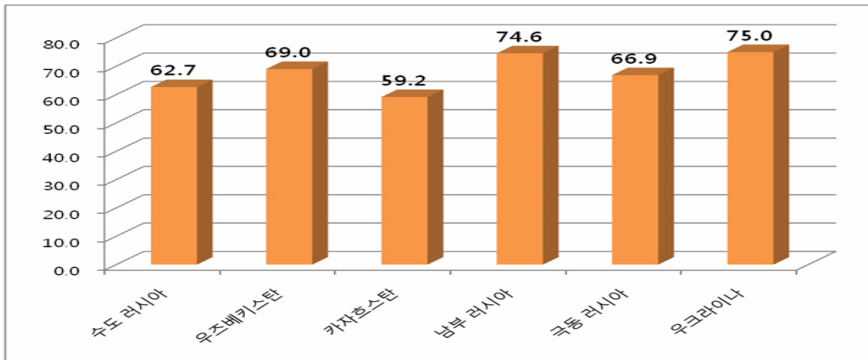
[그림 X-17] 남녀별 한국 친밀감

남성과 여성의 경우 여성의 85.3%가 한국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남성의 82.4%가 그렇게 답해 대동소이하나 이 질문 역시 여성이 약간 더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X-18] 종교별 한국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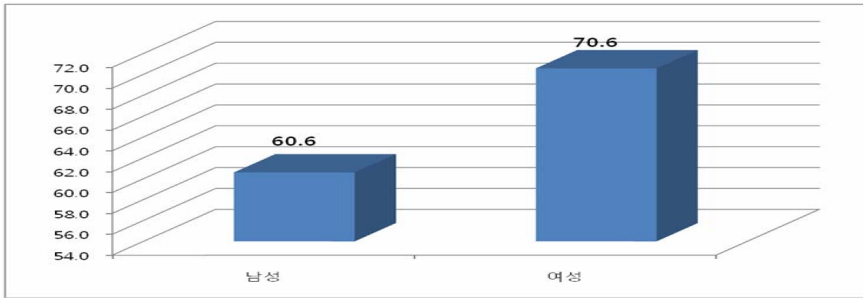
종교별로 볼 때 불교 신자들의 94.1%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 신자의 각각 89.5%와 86%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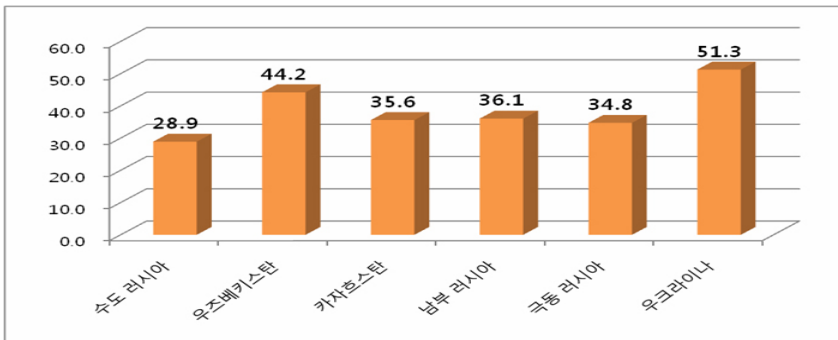
[그림 X-19] 지역별 한국 유학생에 대한 생각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75%, 남부 러시아 청소년들의 74.6%가 그렇다고 답하여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경우는 62.7%로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59.2%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가장 낮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인상도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지역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한인사회에 대한 참여도 활발하나 한국에 대한 호감도나 친밀감이 낮고 유학생에 대한 호감도도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래 [그림 X-20]에서와 같이, 남녀별로 볼 때 고려인 청소년들 가운데 여성들의 70.6%가 한국 유학생을 좋게 보고 있고, 남성의 경우 60.6%가 그러함. 전반적으로 청소년 여성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한국 유학생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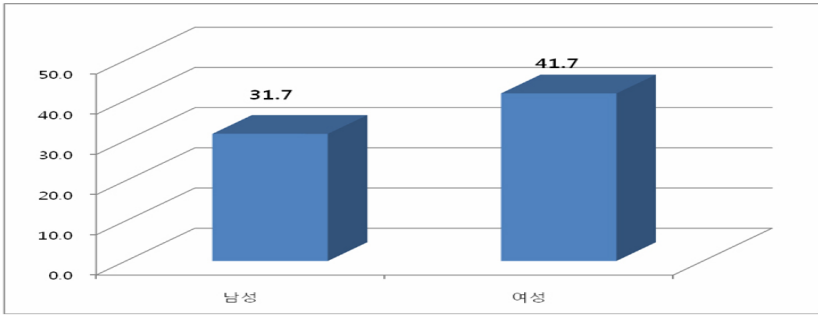


[그림 X-20] 남녀별 한국 유학생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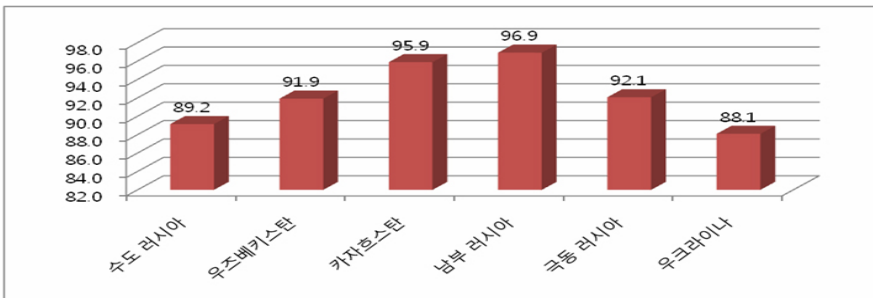
[그림 X-21]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지역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청소년의 51.3%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44.2%가 그렇게 답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30% 정도의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한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단지 28.9%만이 한국 정부의 유학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하여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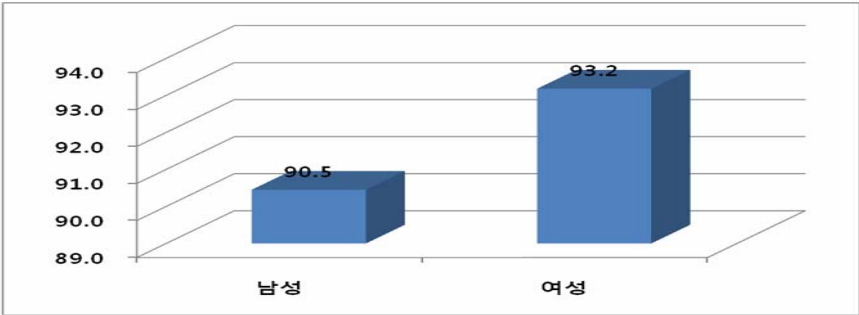
[그림 X-22]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남녀별)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한 결과를 남녀별로 볼 때 여성의 41.7%가 한국 정부의 유학프로그램을 알고 있어 남성의 31.7%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설문에서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성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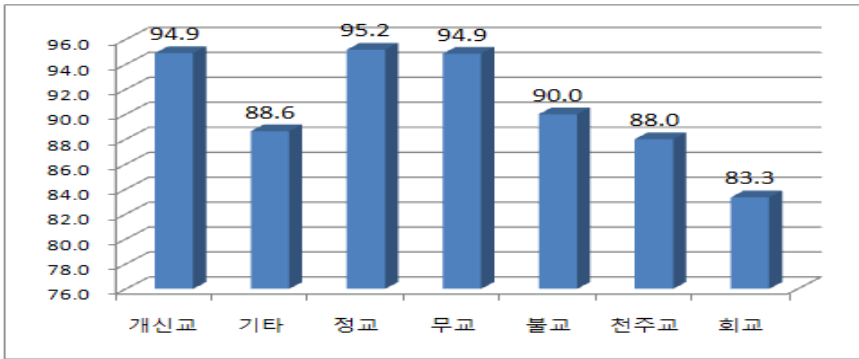
[그림 X-23] 지역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한편 지역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그림 X-23]에서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지역별로 볼 경우 카자흐스탄과 남부 러시아가 각각 96%, 97%로 가장 높았고, 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89,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X-24] 남녀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에서 남녀 공히 상당히 낙관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남성이 90.5%인데 비해 여성은 93.2%로 여성이 조금 더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25] 종교별로 본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그림 X-25]는 종교별로 미래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정교 신자들의 95.2%가 미래를 낙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신교도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공히 94.1%로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성향은 종교 유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IV. 심층 인터뷰 분석

1. 러시아
2. 중앙아시아



## IV. 심층 인터뷰 분석

### 1.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학업과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 러시아의 대도시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미 1950년대에 고려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주의 물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는 이미 부모 세대에 이주하여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 각지에서 새롭게 공부를 위해 또는 일자리를 위해 이주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고려인 전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심층 인터뷰는 페테르부르크 청소년 3인, 학부모 3인, 교사 1인, 모스크바 청소년 5인, 학부모 2인, 교사 2인 총 1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신상은 다음과 같다.

#### 1) 모스크바

청소년 : 박 비카(여), 18세, 대학생(동방대),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 손 아냐·가명(여), 19세, 건설회사 보급담당 매니저,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 박 콘스탄틴(남), 17세, 고등학생, 출생지 모스크바

청소년 : 리 료샤(남), 16세, 고등학생,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 윤 드미트리(남), 16세, 고등학생, 출생지 포르투갈

교 사 : 엄 넬리(여), 68세, 모스크바 1086번 한민족학교장,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교 사 : 전 마이나(여), 60세, 모스크바 1086번 한민족학교 교사, 출생지 북한

학부모 : 김 마르가리타(여), 47세, 전 농아학교 교사,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학부모 : 손 알렉세이(남), 46세, 회사원,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 2) 상트 페테르부르크

청소년 : 김 율리아-가명(여), 20세, 대학생(페테르부르크국립대), 출생지  
페테르부르크

청소년 : 이 아나스타시야(여), 21세, 대학생(페테르부르크국립대), 출생지  
사할린

교 사 : 김 라리사(여), 한국어교사/통역,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학부모 : 박 클라라-가명(여), 52세, 러시아문학 교사, 출생지 카자흐스탄

학부모 : 김 나탈리아-가명(여), 38세, 전업주부, 출생지 우즈베키스탄

학부모 : 이진우(남), 40세, 페테르부르크 동서문화재단 대표, 출생지 한국  
부산

### (모스크바)

모스크바 시에서 심층 인터뷰는 2007년 5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학부모(아버지) 1명, 대학생 학부모(어머니) 그리고 고려인 민족학교 1086번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한국어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의 질문으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1086번 한민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두 여학생(비카와 아냐)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동방학 대학교로 진학한 여대생인 박 비카는 원래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서 동방학 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동기들 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를 전공하려는 학생이 최소한 5명은 되어야 그룹이 형성된다는 말에 몹시 안타까웠다.

또 한명의 인터뷰 대상자였던 아냐 역시 1086번 한민족학교를 졸업하고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이 두 학생은 특히 한국 문화,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가수들(비, 세븐, 동방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한인으로서의 긍지도 매우 높았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다양하게 접촉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이들이 민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종교 단체의 한국어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았다.

고등학생은 1086번 학교에 재학 중인 디마와 료사를 인터뷰하였으며, 임시정부 장군이었던 백추 김규면 장군의 증손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디마는 아버지가 포르투갈인인 혼혈 학생이었다.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스크바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두 학생 모두 한인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특히 료사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예뻐서”라고 대답했다. 두 학생 모두 집안에서는 주로 한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설날을 비롯한 한국 명절들을 집안에서 기념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수 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나 기본적인 자기소개나 대화조차 되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5명 중 1명만 제외) 용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먹는 것이었다. 모스크바의 한국 청소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한국 학생들은 용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비라고 대답한 것과 대조되는 답변으로 용돈이 다른 문화생활에 사용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한인 청년을 위한 단체나 조직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은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기를 원했고 좀 더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기를 원했다.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것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녀들의 결혼 상대가 한인이기를 바라지만, 아들의 경우는

반드시 한인 여성과 결혼해야 하고, 딸인 경우는 러시아 남성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러시아 여자가 들어오면, 풍습도 모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여성은 아내감으로나 며느릿감으로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렇지만 한인 남성들은 보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딸을 고생 시키기에 러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한인들이 권위적인 남성상을 유지하는 등, 한국인의 풍습과 정체성을 매우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인터뷰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말한 것처럼 고려인들은 집안에서 거의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결혼 상대로 민족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하면서도, 한식을 요리할 줄 아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음식이 정체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86번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인 전 마이냐 교사의 말이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사회가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이들 청소년들의 부모도 생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 특히 생활 규율과 학습지도에 소홀해졌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사 마이냐가 지적한 것처럼, 모스크바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방과 후에도 부모들이 일하러 가고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사할린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온 아나스타시야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아나스타시야는 극동의 사할린에서 살다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왔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이지

만 한국인이 많고 한국식 생활이 낫설지 않은 곳이다. 그녀의 할머니는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말과 러시아말을 섞어가며 대화를 한다. 그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그녀 역시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었다면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러시아어만을 고집했다. 많은 한국식 가정에서 자란 고려인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아나스타시야 역시 러시아 땅에 살면서 러시아인이고 싶었다.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녀는 자신은 러시아인이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그녀의 답변은 너무나 솔직해서 오히려 신선하다.

질문자: 당신은 민족적으로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나스타시야: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한인이 아니에요.

질문자: 한인이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야: 제 마음으로 저는 러시아인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외적으로는 러시아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한인이지요. 누군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인>이라고 답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저는 이미 러시아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제가 항상 한국인이나 러시아-한인들과 어울렸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지요.

(중략)

아나스타시야: 저는 자신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자: 그러니까 러시아-한인이 아닌 러시아인이요?

아나스타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한인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러시아인, 러시아국적의 러시아인이라고요.

아나스타시야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도 않는다.

질문자: 당신이 한인(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자긍심을 느끼시는지요?

아나스타시야: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인이지만 주변에 전부 러

시아인들이 있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주변의 시선을 받기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요.

이렇게 사할린에서 이주한 21세의 여대생인 아나스타시야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 사람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러시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면에 하나의 모순을 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질문자가 무안할 정도로 단호히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나스타시야는 한국문화에 대한 답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드러낸다.

질문자: 당신의 삶 속에서 한국문화가 필요한가요?

아나스타시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생략)

아나스타시야: 제가 한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잖아요. 문화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모국, 한국이 있잖아요. 문화는 흥미롭잖아요.

아나스타시야: 우리가 100% 러시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혼합된 형태로는 될 수가 있잖아요.

질문자: 결코 (러시아인이) 되지 못할까요?

아나스타시야: 결코 우리가 러시아인은 될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의 모국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평생을 마치 러시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살아왔어요.

자신이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하던 아나스타시야는 같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러시아인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아나스타시야는 한국인인가? 그녀는 한국 음식에 익숙하다. 그녀는 사할린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으며, 페테르부르크로 와서도 빵을 먹지 않고 밥을 해 먹는다.

질문자: 밥(쌀)도 종종 드세요?

아나스타시야: 밥은 매일 먹어요. 빵은 못 먹겠어요.

아나스타시야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에 정서적으로 끌린다.

아나스타시야: 그룹<신화>, 가수 보아, 그룹 SES, 현대적인 가수나 그룹들로서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져요. 듣기 좋아요. 이해는 잘 못 하지만 흥미 있고, 러시아 음악과는 달라요. (중략)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영화 「언니가 간다」는 정말로 웃기는 영화라서 좋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웃지를 않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웃고 그래서 좋아요. 이전보다 올해부터 한국에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견해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아나스타시야는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성장하면서 한국적 멘탈리티를 키워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국인인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청소년과는 단지 성장 배경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나스타시야 스스로도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으로 적응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외형상으로 스킨헤드의 공격 대상이다.

아나스타시야: 위험하다기 보다는 스킨헤드족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순간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듯 아나스타시야는 비록 러시아적인 속성을 후천적으로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한국인의 모습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한국에 대한 관념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그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만들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음악을 들

으며, 한국 영화 속에서 한국 젊은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한국적 정서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녀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한다.

아나스타시야: 고려말(한국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라서 의무적으로 배우다보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원해요. 주변에 고려말 구사자가 없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언젠가 향후에는 한국에서도 잠시 지낼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중략) 한 5년 정도 후에. 하지만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영토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고려인 청소년들 역시 다양한 생각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과 상관없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러시아인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리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해도 한국인으로서의 외형과 정서를 지울 수 없다. 이들은 한국인을 통해서보다 한국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자신이 부인하려 했던 한국적 정서를 발견한다. 김 올라(가명) 역시 「엽기적인 그녀」와 「나는 민어요」의 배경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그 속에 흐르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한다.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기 원한다. 아나스타시야는 그러한 정서적 변화를 잘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 2. 중앙아시아

1937~38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유형 민족’으로 고난의 생활을 시작한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약 20만)과 카자흐스탄(약 10만)을 비롯하여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고

려인의 최대 거주지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수도인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옛 수도인 알마티와 첫 정착지 우쉬토베가 있는 탈디쿠르간 주가 주요 거주지이다. 중앙아시아 연구팀은 바로 이들 지역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는데, 현지 연구자인 최소영(타쉬켄트)과 김 게르만(알마티)의 소개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청소년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 청소년은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타 전공자라 하더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도 면담을 가졌다. 인터뷰 대상자의 간략한 신상은 다음과 같다.

## 1) 타쉬켄트

청소년 : 김 아리나(여), 22세, 대학생(타쉬켄트니자미사범대), 출생지 타쉬켄트

청소년 : 박 비카(여), 22세, 대학생(세계언어대), 출생지 타쉬켄트

청소년(교사) : 김 리타(여), 23세, 세종한글학교 교사, 출생지 타쉬켄트

학부모(교사) : 황 나제취다(여), 38세, 타쉬켄트주 33번학교 한국어교사, 출생지 타쉬켄트 주

교 사 : 배희은(여), 28세, 타쉬켄트 31번학교 IT교사(코이카단원), 출생지 한국

교 사 : 허선행(남), 42세, 세종한글학교장, 출생지 한국

교 사 : 남 빅토르(남), 33세, 타쉬켄트사범대 교수, 출생지 타쉬켄트 주

## 2) 알마티

청소년 : 전 다리아(여), 20세, 대학생(카자흐스탄국립대), 출생지 알마티

청소년 : 리 나탈리아(여), 20세, 대학생(카자흐스탄건축아카데미), 출생지 알마티

학부모 : 김춘옥(여), 60세, 전업주부, 출생지 사할린

타쉬켄트와 알마티에서 인터뷰를 가진 고려인 청소년은 20~22세의 대학생 4인과 지난 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23세의 새내기 선생 1인 등 모두 5명이다.<sup>46)</sup> 알마티에서는 러시아어로 인터뷰를 했고, 타쉬켄트에서는 한국어로 진행하다가 구술자가 한국어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러시아어로 답변하도록 배려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 세대는 이른 바 ‘중앙아시아 고려인’으로 셈한다면 ‘3세대’이다. 그들은 1991년 소련 해체와 구성공화국들의 독립 이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따라서 러시아어만 사용하고 러시아어로 생활해 온 ‘중앙아시아 고려인 2세대’인 그들 부모들과는 오직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단, 사할린 출신 모친을 둔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를 배웠으나 부친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역시 가정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 가정 모두 한민족의 생활문화, 특히 음식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빵보다는 밥을 더 선호했으며, 민족의 전통명절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한식에 ‘산(산소)에 가는 것’을 꺼렸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0년 한소수교 이후 한국과 미국의 한인 선교사들이 대거 중앙아시아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한 결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가 상당 부분 복음화 되었는데, 어떤 가정의례보다도 장례의례를 중시해온 고려인 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한 5인의 청소년 가운데 1인만 정교도이고 4인 모두 개신교도였다.

1991년 8월과 1992년 5월에 개원한 알마티 한국교육원과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 ‘한국으로의 창’이 되어왔다. 한국교육원은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어교사의 한국초청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외동포재단이 2000년부터 시행 중인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사업도 중앙아시아의

46) 사실은 타쉬켄트에서 17세 고등학생과 아주 흥미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녹화테이프를 분실했다. 만일 테이프를 찾게 되면 추가할 예정이다.

경우 한국교육원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성을 드러낼 수 있는 NGO로써 한인교회들 또한 예배와 함께 주말 한글교실의 운영과 고려인의 한국사회 초청에 열의를 보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선교활동의 전면 금지로 한인선교사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상태이다.)

한국교육원과 한인교회(우즈베키스탄은 과거의 일이 되었으나)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조국인 한국을 알고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도록 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 또한 그 공과가 인정받아야 한다. 1991년 전남대학교 임채완 교수와 광주일보의 노력으로 구소련 5개 지역에 한글학교가 설립된 바 있다. 현재는 단지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 1개만 남았는데, 최근 수강 학생수가 450명에 이르렀다. 한국교육원 등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만 쉼<sup>47)</sup>의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고려인과 현지인들이 계속 모여들었는데, 세종한글학교가 또 하나의 ‘한국으로의 창’으로 기능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타슈켄트에서 인터뷰한 청소년 모두 대학 진학 전에, 또는 재학 중에 세종한글학교를 다녔다. 타슈켄트이든 알마티이든 한국어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경우라도 고려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하여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관련 일을 하기를 희망했다. 작년에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한 김 리타는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졸업한 김 아리나는 알마티의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한국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라 한국어를 공부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은 그들 부모 세대들과는 무관하게 지냈던 한국정부 또는 한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중이다. 수년 전부터 한국으로 유학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고려인 동포들도 최장 5년간 한국

---

47) 미화 1달러가 1,250쉼이다.

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어 실력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과 중앙아시아 거주 한국인 청소년(유학생과 한인교포 자녀)과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코 언어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고려인과 한국인,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서로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모습이 비슷하고 김치와 국수를 같이 먹고 이제 한국어(고려말이 아닌)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도 고려인은 고려인이고 한국인은 한국인이었다. 고려인 여학생은 타민족보다는 같은 한민족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은 현지 거류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한인과의 교류를 적극 희망했다. 나아가 해외한인 청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 정부나 다른 기관들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나아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유학할 수 있는 지원책을 원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유학과 취업 등)에 대한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고 선발과정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데도 한국기관의 추천을 받아 유학을 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고려인 청소년들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한민족청소년들과 교류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1주일에 1~2회 간단히 메일을 체크하는 정도에 그쳤다. 세종한글학교의 교사인 김 리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인터넷 카페에 들린다고 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1시간씩 1주일을 사용하면 최소한 4천 습이 필요한데, 타쉬켄트 고려인 청소년 대학생의 1주일 용돈이 보통 1만 습이다. 이용료가 현지 수준에서 결코 만만치 않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효용을 알면서도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8)</sup>

48) 재외동포재단은 코리안닷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을 통해 전 세계 한인들 네트워킹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일본, 그리고 점차 중국의 청소년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독립국가연합,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아

따라서 한국 정부나 NGO가 시급히 전개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고려인 청소년들이 IT교육을 받고 제한적이거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 아닐까 생각된다.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의 경우도 인터넷은 하루에 제한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 3~4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별은 내 가슴에」, 「겨울연가」, 「올인」 등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거듭된 재방영으로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장금」을 통해 우즈베크인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데, 2007년 7월 타쉬켄트에서 열린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 ‘도전 골든벨’에서 영예의 우승은 고려인이 아니라 우즈베크인 오스타노바 폴리나였다.

한국어 열풍이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세종한글학교를 운영하는 허선행 교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야 하는 고려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즈베크어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외대 고려인 연구팀이 조사할 당시에도 고려인 청소년들은 우즈베크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영어, 한국어가 필요했던 것이다.<sup>49)</sup> 7년이 흐른 2007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장 취업을 위해 한국어나 영어를 공부하여 모스크바와 알마티,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현실이라 하겠다.

타쉬켄트 니자미사범대 남 빅토르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좋아지면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세종한글학교 허선행 교장도 현재 월 150달러의 임금을 주는데 200달러만 줄 수 있으면 고려인 선생들이 결코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인이나 현지 한인교민, 유학생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려인 청소년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지 않고 주류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

직도 먼 이야기 일뿐이다.

49)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3,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재외동포재단, 2003, 91-125쪽 참조.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이주 초기 콜호즈를 개척할 때부터 고려인 콜호즈를 순회하면서 연극과 합창 등을 공연해온 <고려극장>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sup>50)</sup> 그들은 전문예술단이었으나, 콜호즈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규모가 큰 콜호즈마다 ‘소인예술’, 곧 아마추어 예술단이 조직되었다. 인민이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문화창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소비에트의 정책<sup>51)</sup>에 힘은 바가 크기는 하지만, 고려인들이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김병화, 폴리타젤, 프라우다, 스페르들로프 등 타슈켄트 주의 선진 콜호즈마다 소인예술단이 있었다. 폴리타젤 콜호즈의 황만금 회장은 콜호즈의 ‘청춘’ 가무단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소비에트 시대 명성을 날렸던 ‘고려인 콜호즈’ 모두 쇠락한지 오래다. 무엇보다 청장년층이 모두 콜호즈를 떠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로 고본질(계절농사)을 떠난 것이다. 과거와 같은 콜호즈 예술단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히 아동합창단의 부활은 가능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sup>52)</sup>

그렇다면 과거 ‘고려인 콜호즈’ 소인예술단의 전통을 회복하면서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이 경제 행위가 되는 문화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2006년과 2007년 연속적으로 경기문화재단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단편영화를 찍어 입상한 타슈켄트의 박 비카와의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밑줄은 필자).

질문자: 그럼 부모님은 비카한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50)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는 소수민족으로 국립연극극장을 갖고 있는 민족이 독일인과 위그르인, 그리고 고려인밖에 없다.

51) 연극, 음악, 성악, 무용, 조형예술, 공예미술 분야에서의 소인예술 활동은 소비에트 사회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에서 새 인간의 교양과 형성에 서 문화가 예술이 막대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도시와 농촌의 문화기관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레닌기치』 1977.9.24(1면). 「소인예술」

52) 2007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월) KBS1 TV는 60분짜리 다큐멘터리 「폴리타젤 고려인의 희망가」를 방영했다. 구소련 시절 ‘청춘’ 가무단의 공연장이기도 했던 폴리타젤 콜호즈의 대극장이 잠시나마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한국의 음악인이 콜호즈의 고려인과 현지인 아동들과 캠프를 열어 우리 동요를 가르친 후 콜호즈의 고려인들을 초청하여 감격어린 공연을 올린 것이다. 한국정부나 NGO의 지속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면 폴리타젤을 비롯한 아직도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콜호즈에 ‘희망’의 찬가가 울려 퍼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일을 하기를, 부모님이 비카한테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비카: 우리 부모님들은 영어나 한국말을 잘 배우고 통역사 되라고.

질문자: 통역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카: 네.

질문자: 왜 통역사죠? 하필이면?

비카: 왜 통역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질문자: 처음에 비카 통역사였죠? 통역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비카: 통역사는 좀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의 대화를 통역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언니랑 포토샵을 배우고 사진 찍기를 관심이 생겨서 이거 지금 직업을 이런 식으로 되고 싶어요.

질문자: 근데 지금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컴퓨터가 없으면...

비카: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포토샵 배우기 어려워요.

질문자: 사진은 지금 어떻게 찍고 있어요?

비카: 우리 선생님 있는 거 가지고 찍었어요.

질문자: 앞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사진기를 빨리 장만을 해야 하고 컴퓨터도 빨리 사야 되겠네요?

비카: 네. (웃음)

2006년 비카와 같이 제작한 단편영화 『부재중』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김 아리나도 한국어를 공부하여 통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부터 어린 시절 그가 생각했던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밑줄은 필자).

질문자: 그럼 아리샤는 아리샤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 외에 어떤 공부를 또 하고 있죠?

아리샤: 영어도 꼭 꼭 영어를 잘해야 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음. 취미지만 잘 할 수, 할 줄 모르지만. 그 할 수 있으면 영화도 찍고 음, 이런 디자이너에 관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할 예정에 있어요.

질문자: 영화를 찍어봤나요?

아리샤: 네. 작년 가을에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음. 우리 음. 언니랑 언니, 포토샵을 잘하는 언니랑 이런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질문자: 그 영화를 찍기 전과 찍고 나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자기 생활에 차이가 생겼나요?

아리샤: 네, 영화를 찍기 전에 이런 관심이, 촬영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촬영하고 영화를 만든 후에, 제가 원래 이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질문자: 앞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영화도 하고 싶고 디자인도 하고 싶고 한국어도 해서 전문 통역가도 돼야 되고 그 일들을 함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갈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아리샤: 네, 제 생각에는요. 아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타쉬켄트의 고려인 청소년(대학생)들에게 포토샵을 가르치고 단편영화 제작을 도운 것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봉사단원으로 파견되어 타쉬켄트의 고등학교(31번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희은이다. 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밑줄은 필자).

질문자: 작년에 여기 학생들하고 단편 영화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구상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슨 새로운 좀 뭔가 좀 느끼고 새롭게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배희은: 사실 그 영화 만들고 솔직한 마음인데 좀 답답해진 거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 그럴 수도. 그니까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느 면은 이해를 하지만 또 실존할 수 없다는 생각, 자기와 다르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게 그 하나만 있었던. 그 주인공 우리는 주인공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 아이에게 애는 이런 성격이야 하고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애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기도 하다는 거를 애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주인공의 그 마음을 아, 그 이걸 이해가 가는 데 이걸 이해가 안 가요. 왜 애는 이렇게 하죠?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지나고 나서도 그 영화 어땠냐? 그러니까 오 그 이상한 여자애 나오는 영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그렇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어떨... 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조금은 또 다른 면은 애네들이 그래도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거, 아닌 거, 그니까 내 거는 이해를 하는데 남의 거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소한 거니까. 생각은 좀 하게 됐구나,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요.

질문자: 그런데, 그 작품 내용 주제보다는 그 과정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배희은: 아, 근데 저희가 좀 애들이 진짜 기분이 좋아했던 건, 이게 돈 된다는 생각을, 그니까 상금을 받았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큰 액수였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영화 만들었는데 이것밖에 안 주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떤 장비를 살 거를 빼고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해줬어요. 너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받는다, 고 하니까 어휴. 제가 이걸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니가 그때 아이디어 내서 이게 된 거야, 그거 니 아이디어니까 니가 한 거지, 그렇게 애길 해줬더니, 아이들이...그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두 번째 뭐 공모전이 있다, 그러니까 흔쾌히 음...합시다! (웃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

단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돈도 되고 이런 일들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2007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전에도 타쉬켄트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예비대학생인 고등학생도 참여했다. 과거 ‘소인예술’ 활동의 전통을 가진 고려인의 ‘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그들 영상동아리는 몇 편의 UCC를 제작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UCC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형편이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UCC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국 유학생이 갖고 있는 낡은 캠코더(SONY TRV-40) 1대가 전부이다. 작품기획 회의와 시나리오 작성, 영상편집까지 유학생의 개인 숙소에서 해결한다. 5명의 동아리 멤버 가운데 중고 컴퓨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열정이 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독립한지도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그들 국가의 국어인 우즈베크어와 카자흐어 공부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른 바 ‘국제친선어’인 러시아어만 갖고도 학교공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중요하다. 과거 소비에트시기에 고려인들은 다양한 전문직과 고위 관리직에 진출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현지어를 모르는 고려인들은 공직에서 물러났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전문직은 스스로 물러나 자영업과 판매업으로 직업을 바꾸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38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콜호즈의 고려인사회는 일벌레와 다름 아닌 노력영웅이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고려인 콜호즈는 부유해지고 고려인들은 다른 어떤 민

족보다도 열심히 자녀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문직으로 살고 있는 60대 중후반 이상의 원로 고려인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콜호즈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그들 부모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하리코프, 니지니 노브고로드, 예카테린부르크, 톰스크 등 대학도시로 유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로 변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수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타쉬켄트 니자미사범대학 한국어문학과 남 빅토르 교수가 이를 확인해주었다.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96년까지인가, 그때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100%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받았습시다(…). 지금은 사범대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70% 정도는 자비로 공부를 하고요.” 2007년 9월 현재 타쉬켄트 니자미사범대의 등록금은 연간 미화로 500달러 정도이다. 사범대 교수의 월급이 100달러 내외이니, 500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타쉬켄트 근교의 농촌(콜호즈)에 살고 있는 고려인 가정에서 대학공부를 시키는 일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생각조차 바뀌고 있다.

아래는 타쉬켄트 주 아흐마드 야사비(구명: 스베르들로프, 고려인들의 호칭은 시온고) 콜호즈의 33번 쉬콜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황 나제취다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이다(밑줄은 필자).

질문자: 우리 고려 사람들의 전통이 자식들한테 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공부를 철저히 시켰던, 어딜 가나 우리 한민족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음 과거와 지금 이 우즈베크 사회가 변화되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 관점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요?

나제취다: 보통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계속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많지만, 음 지금 거의 다 별로 공부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제취다: 예, 아마 그렇죠. 오늘 1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공부

하는 건 그 어떤가, 힘든가? 왜, 뭐 부족한 거 좀 말해보라고. 하나  
 까 어떤 학생들이 우즈베크 학생들이 말하는 건, 선생님 때문에 라고,  
 선생님이 월급이 적으니깐 그래서 제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  
 는다고. 우즈베크 사람이 그렇게 우즈베크 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4명 중에서 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3명 고려인들이 아마 우리  
 직접 공부 하겠다하는 그게 없으니까 다 게으른 이처럼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 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학생  
 들이 직접 자기말로 하면서. 아, 또 다른 학생이 말한 건, 공부잘하지  
 만 자신이 없다. 그 입학하는 거 말예요. 거기서 다른 학생들이 돈으  
 로 입학하니까 저는 자신이 없다고.

나제쥬다: 그래서 그리고 우즈베크, 거기도 우즈베크 학생이 6명이에  
 요. 저희 반에서. 그러니까 우즈베크 학생들은 원래 입학하는 생각 없  
어요. 우즈베크 사람, 우즈베크 학생들은.

질문자: 우즈베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아예 다 생각을 안했다 말입  
니까?

나제쥬다: 네, 그냥 졸업하고 그냥 일하러 가겠다고... 그러면 14명이  
죠. 14명 중에서 8명. 입학하겠다는.

최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연  
 평균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과 물류 중심으로  
 고려인 대기업가들도 등장했다. 고려인단체의 활동도 이제 자신들의 힘으  
 로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 최대 거주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  
 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도 언젠가는 국가경제가 발전할 때가 올 것  
 이다. 우즈베키스탄도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농산물은 주변의 어떤 나라보  
 다도 풍족하고 값이 싸다. 과거 실크로드 문화의 중심지로 위정자의 정책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카자  
 흐스탄도 그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청소년들은 그들 나라의 전문분야에  
 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1,2세대들은 고려인의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인 콜호즈와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유능한 소비에트 고려인으로 인정받았다.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국어(우즈베크어와 카자흐어)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들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한국정부와 NGO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이 아닐까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IT와 CT(Culture Technology)의 기반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다 형편이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찬란한 우즈베크 문화와 콜호즈의 고려인 생활문화 등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가칭 한국문화센터들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이제까지 한국교육원이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작은 규모라도 절절한 공간을 빌려 타쉬켄트와 누크스, 사마르칸드, 부하라, 페르가나 등 고려인 주요 거주 도시마다 세워져야 한다. 운영이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현지 한인교민(유학생)과 고려인 청소년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공간은 고려인과 우즈베크인, 그리고 한인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 혹은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고 상호 평가하고 나아가 한국의 콘텐츠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코이카 단원 혹은 방학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 V. 요약 및 결론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 아직도 체제전환이 진행 중인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차세대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지를 시사해 주었다. 먼저 아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16~24세 고려인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요약이다.

1. 고려인 청소년들은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특히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한국 관련 일을 하고자 한국어 공부에 적극적이었다. 종교는 개신교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파송된 한인선교사들의 활발한 선교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2.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의 수입도 평균 이상으로 인식했다. 부모의 직업도 전문직과 고위직이 많았으나 자영업과 판매업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제이행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독립에 따라 많은 고려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규모 비즈니스로 직업을 바꾼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3. 고려인 청소년 부모들은 한국사회에 호의적이며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열성이고 한민족끼리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한국음식을 즐겨 먹고 있으나 자녀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비율에 그쳤다. 소비에트 시민으로 살아온 부모세대들은 이미 한국어 구사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4.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이미 역동적이며 친밀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왔다. 그들은 한국어를 유용한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방문 및 연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영화와 드라마, 즉 한

류(한국 대중문화) 열풍이 불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의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5. 고려인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생활하며 한민족 고유의 명절과 전통인 설, 한식, 단오, 돌, 환갑 등을 아직까지는 잘 기념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상실한 그들 부모세대와 달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음이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고 쓰기 능력에 대한 설문에서 확인되었다.
6.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려인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려인협회의 분열상과 자체 역량 부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7.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관계형성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들과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교류에 적극적이다. 또한 그들은 한국정부의 유학 및 취업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정보의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8. 러시아 이주와 관련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한민족의 최대 비극인 1937년 강제이주의 역사, 또한 그들의 선조들이 정착한 중앙아시아의 콜호즈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 학업을 통한 신분상승과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교사,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고려인 차세대가 그들 국가의 전문직업인이자 한민족의 성원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한국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이다. (단, 1)은 중앙아시아 지역에만 해당)

1.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그들 국가의 국어인 우즈베크어나 카자흐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sup>53)</sup>
2. 장학사업과 한국유학 및 한국취업 지원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기관)와 장학재단, 또는 한국의 NGO에 의한 장학금 지원과 한국 유학생 선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종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불만이 나오곤 한다. 따라서 특히 한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현지 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이 업무를 대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학금지불과 한국어교재(사전)나 PC 등 기자재 기증 또한 전체 학생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해당 청소년들에게 직접 수여함으로써 청소년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능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쉬콜라 졸업생들 중에서도 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급하고 일정 정도 성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고려인 청소년들이 현지 국가에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NGO가 협력해야 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기 위해서는 한국 및 다른 세계의 한민족청소년과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한국을 이끌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에 국한하여 언급하겠다. 현재도 전 세계 한민족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 만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청소년들도 PC를 갖추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

---

53)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차세대 100인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성동기 교수는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 현지어 습득의 가치를 홍보하고, 한국기업들의 채용 시 우즈베크어 테스트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성동기, 「구소련 붕괴이후 고려인 독립세대의 민족의식 분석과 향후 전망」, 『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정책세미나 자료집』, 118-119쪽.

부 혹은 NGO가 공간마련을 지원하되 운영은 현지 NG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도하는 가칭 **한국문화정보센터**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 혹은 유관 기관의 부대시설로 세워져야 할 것인데, 센터에는 별도의 전용선이 깔린 인터넷과 영상콘텐츠 제작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영화나 드라마도 볼 수 있는 **DVD** 시설도 필요하다. 우선 당장에 타쉬켄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청소년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민간네트워크가 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한민족청소년들이 자신과 거주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나아가 산업화도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UCC로 제작한 것을 코리언닷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등에 올려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와 개방, 참여의 웹2.0시대에 고려인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길원(2002). 키르기스스탄의 한민족 한 줄기(一家系).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2집.
- 강만길(1999).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서울: 한길사.
- 강성률(2002.3.). 나는 고려인이다, 고려인의 혼을 그린다-우즈베키스탄의 동포 화가, 안일. 민족예술, 통권 80호.
- 강윤희(2006).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젠더 재구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모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 \_\_\_\_\_(2005). 체제전환기 러시아 경제개혁의 성별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 강인철(1998). 시베리아 횡단-러시아 역사기행: 그래도 고려인은 살아있다. 해인.
- 고송무(1984). 소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국협총서, 제5호,
- \_\_\_\_\_(1990).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서울: 이론과 실천.
- 고재남(1996).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연해주. 한민족공동체, 제3권.
- \_\_\_\_\_(1993). 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국가안전기획부(1997). CIS 한인관련 자료집.
- 국립민속박물관(1999).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_\_\_\_\_(2000).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의 생활과 문화.
- \_\_\_\_\_(2000). 카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_\_\_\_\_(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생활과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2003).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2003년도 사료조사·수집 지원사업 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집.
- 권영훈(2001). 고려인이 사는 나라, 카자흐스탄. 열린책들.
- 권희영(1996).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세계한민족총서 5, 통일원.
- \_\_\_\_\_(1999).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 권미현(2000).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계르만(1994). 카자흐스탄 한인사회 민속과 문화. 역사민속학, 제4권.
- \_\_\_\_\_(2005). 한인 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 김달현 외(200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문화생활과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재외동포재단 2000년 경희대 아태지역연구원 수탁 연구과제) 미간행.

- 김 블라지미르(1995). 러시아 한인강제이주사(김현택 역). 경당
- 김상철(2001). 러시아 북카프카즈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특성. 역사문화 연구, 14집.
- \_\_\_\_\_(2000). 카자흐스탄 한국학 발전방안: 지역학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승화(1989). 소련한족사(정태수 편역).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우승(1994). 이슬람-정교문화의 충돌과 CIS한인의 정치적 위기: 종교사회학적 분석. 사회과학연구(배재대학교), 제11권.
- 김 피오토르 게르노비치·방상현. 재소한인 이주사. 서울: 탐구당.
- 김 필립(1997). 레닌 기치에 나타난 소베트 한인 문학. 비교 한국학.
-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 김학수 편(1981). 현대 소련의 해체. 오늘의 사상신서 28. 서울: 한길사.
- 김영기(1998). 구소련 지역 고려인 언론과 민족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9권. 전대사회과학연구소.
- 기광서(2001). 구소련 한인의 민족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제10호.
- 마쓰베이 김(1990).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이준형 역). 서울: 역사비평사.
- 바닌 유리 외(1999). 러시아의 한국연구(기광서 역). 서울: 풀빛.
- 박종수(2001). 러시아와 한국. 백의.
- 박환(1998). 『在蘇韓人民族運動史』-연구현황과 자료해설. 한국사연구총서Ⅱ, 국학자료원.
- \_\_\_\_\_(1995).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서울: 탐구당
- 반병률 외(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반병률(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1999). 3.1운동과 만주, 노령지역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1997). 露領沿海洲 韓人社會와 韓人民族運動, 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7.
- \_\_\_\_\_(1997). Korean E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1860s-1910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9.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1997). 러시아당국과 抗日民族運動. 아세아문화, 13.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 \_\_\_\_\_(1997). 在露韓人 強制移住以前の 韓人社會의 動向, 1923-1937. 한국독립운동

- 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방일권(2000).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집.
- 부가이 니콜라이, 오성환(2004). 시간의 시련.
- 부가이. 최정운 역(1996).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 박보리스. 부가이 니콜라이 지음(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김광한, 이백용 옮김). 시대정신.
- 신승권(1995). 연해주 한인의 이주과정 및 생활상. 한민족공영체, 제3권.
- 신연자(1988). 중앙아시아의 한국인탐방: 소련의 고려사람들. 동아일보사.
- 심현용(2005).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변화. 광복60주년기념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편찬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교(2003). 구술사 이론·방법 워크샵 자료집.
- 양원식(2003).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권.
- 역사문화연구소 편(2003).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연구. 도서출판 다해.
- 역사문화연구소 편(2003).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려인 사회 네트워크. 도서출판 다해.
- 원학회 외(2002). 러시아의 지리. 아카넷.
- 윤병석(1994).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 윤인진(1998).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재외한인연구』, 제7권.
- 이계룡(2003). 고본지: 고려인들의 토지 사랑 - 터 발의 고려인 러시아 대지를 가꾸다. 행복한 집.
- 이광규(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 총서 1. 서울: 집문당.
- 이광규. 전경수(1993). 재소한인-인류학적 접근.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집. 서울: 집문당.
- 이길주(1994). CIS 한인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적 측면. 사회과학연구 (배재대학교), 제11권.
- 이명재(2002). 러시아 지역의 한글문학 현황. 통일문학, 제 1권 1호.
- \_\_\_\_\_(2002 겨울). 北韓文學에 끼친 蘇聯文學의 영향 : 소련과 高麗人 文學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0권 4호, pp. 159-186.
- 이명재 편(2002). 「소련 지역의 한글 문학: 국외 고려인 문단 조사」 보고서, 국학자료원.
- 이명재 외(2004).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문학. 한국문화사.
- 이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1994). 스탈린

- 체제의 한인 강제이주-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공개 극비문서(김명호 역). 건국대학교출판부.
-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서울: 탐구당.
- 이선미 외(2006). 재외한인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서울: 북코리아.
- 이송호 외(2004).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 이정희(1992). 재소한인 희곡 연구: 소련 국립 극장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단국대 국문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훈(1994). 중앙아시아 한인문제와 정책과제. 한민족공영체, 제2권.
- 이창주(1998). 유라시아의 고려사람들.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 이 철(1991). 한국인의 러시아 이민사.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슬라브연구, 제7권.
- 임영상(2007). 타슈켄트 주 고려사람 콜호즈의 변화: 상 치르치크 구 스베르들로프 콜호즈. 역사문화연구, 제27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_\_\_\_\_(200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의 고려인 콜호즈들: 레닌기치(1938~1953) 기사 분석. 역사문화연구, 제25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_\_\_\_\_(2002). CIS 고려인 사회의 현황과 안정을 위한 네트워크. 국회외교통상위주관 재외동포법 관련 공청회 발표 미출간 논문.
- 임영상 외(2001). 독립국가연합지역 한국학 진흥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년 정책연구과제, 한국학술진흥재단.
- 임영상 외(2001).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려인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연구: 남부러시 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2001년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
- \_\_\_\_\_(2003). 블루밍톤 한인 커뮤니티와 구술사. 역사문화연구, 제18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_\_\_\_\_(2000).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러시아 3, 4세 고려인 일상생활문화 변화 연구: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2000년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
- 임영상, 김상철(2000).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문화변화. 국제지역연구, 제4권 4호.
- 임영상 외(2005). 소련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임채완(2002).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統一問題研究, 제14권 제2호, pp. 175-210.
- 장준희(1998). 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전경수 편(2002).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상진 외(2002). 재소련 고려인 문학의 정체성. *民族發展研究*, 제6호, pp. 289-317.

정상진. 조명희부터 김 아나톨리까지. *한길문학*, 12.

좌릴가시노바 R. S.(1981).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이웃민족들과의 문화접변*(이문웅 역).

최건영(1988). 페레스트로이카와 구소련 한인 작가. *공산권 연구*, 118.

최협(1992). *해외거주 한인들의 적응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권. 전대 사회과학연구소.

텐 유리 미하일로비치(정홍식)(2003). *나의 사랑 러시아 !*(이원용 옮김). 재외동포재단.

하니로젠버그(1991). *소련 여성과 페레스트로이카*(최광렬 옮김). 서울: 한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1994).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한국사회사학회(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지성사.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방법과 사례-구술사*. 선인.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한 발레리 세르게이비치(1999).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김태항 역). 재외동포재단 총서 4, 고담사.

황영삼(2000). 모스크바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집.

Billington, Rosamund et. al.(1991). *Culture and Society*. London: Macmillan Press.

Bourdeaux, Michael(ed.)(1995). *The Politics of Religion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Armonk, N.Y.: M.E. Sharpe.

Brunner, Georg. *Nationality Problem and Minority Conflicts in Eastern Europe*.

Guetersloh(1996). Verlag Bertelsmann Foundation.

Corinne A. and Krause(1991). *Grandmothers, Mothers, and Daughters: Oral Histories of Three Generations of Ethnic American Women*. Boston.

David L. and Ransel(2000). *Village Mothers. Three Generations of Change in Russia and Tataria*.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Di Leonardo, Micaela(1987). Oral History as Ethnographic Encounter. *Oral History Review*, 15.

Epshtein, Mikhail, et. al.(1995). *After the Future: the Paradoxes of Postmodernism and Contemporary Russian Cultur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Fitzpatrick, Sheila(1992).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Geertz, Clifford(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ellner, Ern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 Gilbert, Martin(1985). *Atlas of Russian History*. Dorset Press.
- G.K. 브라우닝(1992), 소련의 여성과 정치(손봉숙 옮김).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 Hughes, Robert P., Paperno Irina(eds.)(1994). *Christianity and the Eastern Slaves: Russian Culture in Modern Tim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nt, Lynn(1999). *Beyond the Cultural Tur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Richard(1981). Oral History, Quantification and the New Social History. *Oral History Review*, 9.
- Kalbous, George(1993). *Russian Culture*. New York: Simon & Shuster Custom.
- Kann, Kenneth(1981).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a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2.
- Kapitanoff and Lorraine T.(1993). *Russian Culture and Civilization*. Kendall / Hunt Publishing.
- Kellas and James G.(1991).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New York: St.Martin Press.
- Kelly, Cathriona and Shepherd, David(eds.)(1998). *Russia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and Galina M.(1997). *On the state of religiousness among Koreans attending protestant churches of mystic orientation(Kazakstan)*. in 18th AKSE CONFERENCE PAPERS. Stockholm.
- Kreindler, Isabelle(1986). The Soviet Deportation Nationalities: A Summery and an Update. *Soviet Studies*. Vol. 38, No.3. pp.387-405.
- Manoly R. and Lupul(1988). *Continuity and Change. The Cultural Life of Alberta's First Ukrainians*. Alberta: University of Alberta.
- Miller-Gulland, Robin(1997). *The Russians*. London: Blackwell.
- Okihiro, Gray(1981). Oral History and the writing of Ethnic History. *Oral History Review*, 9.
- Paul, Thompson(2000). *The Voice of the Past-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 Ransel, D. L.(2000). *Village Mothers: Three Generations of Change in Russia and Tataria*.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Ritchie and Donald A.(1995). *Doing Oral History*. New York: Twayne Publishers.
- Ro'i, Yaacov(ed.)(1995). *Muslim Eurasia: Conflicting Legacies*. Essex: Frank Cass.

- Roosevelt, Priscilla(1998). *Country Estate: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osenthal, Bernice Glatzer(1997). *The Occult in Russian and Soviet Culture*.
- Royce, Anya P.(1982). *Ethnic Identity: Strategies of Divers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halin, Dmitri N.(1996). *Russian Culture at the Crossroads: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Boulder, Co: Westview Press.
- Sinyavsky, Andrei(1988). *Soviet Civilization: A Cultural History*. New York: Arcade Publishing.
- Stites, Richard(1991). *Russian Popular Culture: Entertainment and Society Since 19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1981). *The Ethnic Revival in the Modern World*.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1).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Smith Graham(ed.)(1996).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Post-Soviet States*. London: Longman.
- Subtelny, Ores(1988)t. *Ukraine : a history*.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uh, Dae-Sook(ed.)(1987). *Koreans in the Soviet Union.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No. 12*. Hawaii: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Trusedell, Barbara(2003). The Practice of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역사문화연구, 제 18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Wallerstein, Immanuel(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dman, Betts S.(1987). Oral History in Biography: A Shaping Sourc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8.
- Williams, Robert C.(1990). *Russia Imagined: Art,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1840-1995*. New York: Peter Lang.
- Yow, V. R.(1994). *Record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for Social Scientists*. SAGE Publication.

Аренов М., Калмыков С.,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заметки о языков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Асылбеков М.Х. & В.В. Козина(1995).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современ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Ш.(1997). *“Семейные и календарные праздник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СНГ как этноконволидирующий фактор.” Семья, гендер, культура -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1994 и 1995гг.*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_\_\_\_\_(1980).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этн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у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В кн.: этн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у национальных групп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Москва: Наука.

Дымов Олег(1998). *Тепло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и* в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в казахстан народы: время и судьбы. Алматы: Арыс-Казахстан.

Зуев П.А.(1992).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Алма-Ата: Казахстан.

(1999).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Сеул.

(1995).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1).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8, Алматы.

(1999).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7, Алматы.

(1999).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6, Алматы.

Ким Сын-Хва(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Наука.

\_\_\_\_\_(1965).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рестьян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начале XXвека.* Алма-Ата : Наука.

Кан Г.В.(1994).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 Казахстан.

Ким, В.Д.(1999). *Правда - Полвека Спустя.*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ан.

Ким Г.Н.(2001). *Коре сарам: историография и библиография.* Алматы.

\_\_\_\_\_(1999).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п.19-1945вв.). Алматы.

\_\_\_\_\_(1989).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уч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обзор. Алма-Ата: Наука.

\_\_\_\_\_(1995). *Корейцы за рубежом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Алматы.

Ким Г.Н., Мен Д.В.(1995).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Ким Г.Н., Сим Енг Соб(2000). *История просвещ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19в - 2000г.* Алматы.

- Ким Саккат(2000). *Зелённые горы*. Алматы.
- Ким Борис, Козыбаев Сагымбаев(2001). *Доброе имя народу...* Алматы.
- Ким Владимир(2001). *Тай ны Чёрного дракона*. Алматы.
- корей цы и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й регион. *Выпуск No. 1, 2 / 2000год, ККНЦ*.  
(제1회 카자흐스탄-한국 국제학술회의).
- Ким Виктор-Ли(1997). *Самая длинная ночь...* (повесть). Алматы.
- Кузин А.Т.(1993).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 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_\_\_\_\_(2001). *Переход корей це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пределы Россий 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иски исследова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юнер Н.В.(1912). очерки Кореи, ныне япон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Циосен.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Т. 41. Владивосток.
- \_\_\_\_\_. Корей цы. рукопись. Архив автор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Этнологии РАН, Ф. 8, оп. 1, No. 253-а*.
- Ли, Г.Н.(1998). *Корей ц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Бишкек.
- \_\_\_\_\_(2002). *Семей ные устои корей цев КОРЕ САРАМ*. Бишкек.
- Мен, Д.В., Л.А. Квон, з.в. Ким, Н.Г. Пан(1992).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Казахстан.
- Мин Л.В.(1992). *Семей ны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корей 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азахстане*. Алма-Ата: Общество Психологов Казахстан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 Нам, С.Г.(1998). *Россий ские корей цы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1860-1925 гг.)*.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Москва.
- (1999)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оссий ские корей цы.  
*Корей ская диаспора, No. 5*.
- Надэтниче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ли казахи и русск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Алматы,  
2000.
- Насекин Н.А.(1904). Корей цы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Журнал МНП*.
- \_\_\_\_\_(1985). Корей цы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 я корей 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 ский край .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ого отдела ИРГО, Вып. 1, Хабаровск*.
- \_\_\_\_\_. Корей 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Русский вестник, Т. 269, М. 1900,*  
с. 296-303.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том 1, 2. Алматы, 2000.*

Недатын С.В.(1913). *Корейцы-колонисты (К вопросу о сближении корейцев с Россией)*. Книга 1. СПб.

\_\_\_\_\_(1912).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Корее :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СПб.

\_\_\_\_\_(1913). *К вопросу о принятии корейцев в христианство и в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СПб.

Надаров И.П.(1889).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его состоянии. (Сообщение в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И.Р.Г.О. 1889. 4. 19.), *Известия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25, СПб*

Панов А. А.(1910). *Жёлты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истори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очерк)*. СПб.

Пак, Чон Хе, Ли, О.А.(1997). *КНИГА ПАМЯТИ - Архивные списки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1937 году*. Москв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Пак Б.Д.(1994).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Иркутск.

\_\_\_\_\_(1995).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 Москва.

\_\_\_\_\_(1967).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России в 1910-1914 гг.* Иркутск.

Петров, А.И.(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_\_\_\_\_(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897-1917 гг.* Владивосток.

Хван Людмила(2004).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Нукус.

Югай П.А.(1990).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шкент.

## 부 록

### 1. 인터뷰 녹취록(한국어, 러시아어-번역)



## 1.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① 동방대학교 일본어과 박 비카 (18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3, 장소: <스시코>식당)

답: 제 이름은 박 비카이고 16세예요.

문: 16세?

답: 아니, 18세예요.

문: 18세예요.

답: 저는 18세이고 우즈베키스탄 아르말리크 출생이에요.

문: 몇 년도 출생이지요?

답: 1988년 출생이고, 할머니와 오빠, 그리고 어머니와....

문: 아버지는요?

답: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잊어서 못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원관에 갔었고, 하지만 2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했고, 올해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도요?

답: 예.

문: 많아요?

답: 원관에서 장구를 쳤어요. 한국문화는 재미있어요.

문: 한국 노래도 많이 배웠나요?

답: 예.

문: 학교에서? 원관에서?

답: 원관에서요. 저는 한국음악도 좋아해요.

문: 어떤 음악을요?

답: 비, 동방신기....

문: 예. 저도 <비>를 좋아해요. 그 밖에요?

답: 보아, 유진도 좋아해요.

문: 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세대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지요.

답: 한국영화를 좋아해요.

문: 어떤 영화?

답: 드라마.

문: 어떤 드라마요?

답: <클래식>, <마이섹시걸>, <엽기적인 그녀>, <집으로>, 그리고 김기덕의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어요. 깊이 있는 영화이지요.

문: 예.

답: 한국영화는 <매우 현실적>이지요? 즐거운....재미있어요.

문: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뭘 잘 불러요?

답: 노래를 하라고요?

문: 예. 들어볼게요.

답: 조금 도와주세요. 아무 노래나....<아침에>.

문: 와, 진짜 잘 부른다! 한 번 더, 앵콜.

답: 부끄럽네요.

문: 그 가수 노래 잘해요. 노래하면 잘 할 것 같아요.

답: 일본 노래도 영어 노래도.

문: 누구를 닮으셨나요?

답(어머니): 아버지요.

문: 또요?

답: 또 뭐요? 가사를 더 기억 못해요.

문: 좋아요.

답: 고마워요. 더 부끄럽네요.

문: 한국에 가보셨나요?

답: 아니요.

문: 가보고 싶었었나요?

답: 예. 한국에 있었다면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내가 러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대해주지 않아요.

문: 러시아인 친구들도 많이 혹은 적게 있나요?

답: 있지만 적어요.

문: 주로 러시아-한인 친구들인가요?

답: 예.

문: 정서와 멘털리티가 달라서요?

답: 조금 달라요. 외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조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알게 되면 향상은 아니지만 교제나누기가 더 쉬워져요.

문: 남자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은 한인과 할 것인가요?

답: 모르겠어요. 누구를 사랑할지, 민족적으로 누구일지 별로 걱정은 안돼요.  
 문: 걱정이 안돼요?  
 답: 예.  
 문: 걱정 안 해요.  
 답: 어머니께서는....  
 문: 현재 누구와 사세요?  
 답: 어머니와요.  
 문: 부모님들은 민족 구분상 어떻게 되나요?  
 답: 두 분 다 한인이세요.  
 문: 부모님들의 학력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답: 아버지는 쉬콜라(초중등통합학교, 어머니는 대학을 마치셨어요.  
 문: 부모님들은 무슨 일하시나요?  
 답: 어머니는 삼촌의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아직 쉬고 계세요.  
 문: 자주 만나시나요?  
 답: 아니요.  
 문: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좋은 편이에요. 어머니께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문: 어머니께서 훌륭하시네요. 최고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세요?  
 답: 만족해요.  
 문: 만족해요?  
 답: 예.  
 문: 만일 타임머신을 탔다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  
 세요? 지금처럼 살기를 원했을까요?  
 답: 아니요. 시간을 덜 허비하고 더 많이 공부를 했었을 것이에요.  
 문: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답: 예. 아직 늦지는 않았지요.  
 문: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이지요. 그렇지요?  
 답(어머니): 예.  
 문: 아직 어리지요. 타임머신이 필요 없지요. 용돈은 얼마씩 받으세요?  
 답: 400루블(약1만6천원)씩 받아요. 필요하면 더 주시고요.  
 문: 친구들도 그 정도 받나요?  
 답: 모르겠어요.  
 문: 주로 용돈을 어디에 쓰세요?  
 답: 식비에요.

문: 식비에요? 그 다음으로요?

답: 영화, 클럽, 카라오케 등에서 사용해요.

문: 카라오케요?

답: 화장품 구입에도 쓰고요.

문: 화장품.

답: 그게 전부예요.

문: 부모님과과는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세요?

답: 아니요.

문: 할머니와는요?

답: 할머니와도 러시아어로 대화를 해요.

문: 그래요?

답: 할머니는 고려 말을 아시지만 나와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문: 러시아어로만 대화를 나누시네요?

답: 예. 러시아어로.

문: 고려 말로 다 이해하세요?

답: 아니요. 잘 이해 못해요. 조금 이해해요.

문: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고려 말을 배우실 것이지요?

답: 나중예요. 계속 배우고 싶어요.

문: 더 나중예요?

답: 여름예요.

문: 어디서 배워요?

답: 스스로요. 한국어 기초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어요.

문: 재미있어 하면 어머니께서 비용을 주실 거예요.

답: 예.

문: 부모님들은 당신이 한국어를 계속 배우기를 원하시지요?

답: 예.

문: 많아요?

답: 많이 원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문: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답: ....

문: 멘탈리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답: 예. 아마도.

문: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될까요?

답: 아니라고 봐요. 사람 자체에 달려있다고 봐요. 어떻게 결정하고, 배우고 싶

어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많은  
한인들은 특별히 마음이 끌리지 않는 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 부모님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답: 긍정적으로요.

문: 긍정적으로요?

답: 예.

문: 어떤 평가들을 들으셨나요?

답: 가끔씩 신문 <재리 한인>을 받아보는데 그 신문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한국이 발전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문: 언제 처음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답: 아마 모스크바에서요.

문: 모스크바에서요.

답: 예.

문: 학교에서요?

답: 예. 학교에서.

문: 학교는 마음에 들었어요?

답: 예. 많이.

문: 어떤 점에서?

답: 대학에서와는 달리 학교의 분위기가 좋았고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어서 좋  
았어요. 대학에서는 학교에서와 같은 그런 좋은 친구들이 저에게 없어요.

문: 언제 자신이 한인이라고 느끼셨나요? 모스크바에서요?

답: 예.

문: 타쉬켄트에서가 아닌가요? 그곳에는 한인들이 더 많잖아요.

답: 예. 그곳에 한인들이 더 많지요.

문: 왜 타쉬켄트가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느끼셨어요?

답: 예. 그곳에 한인이 많지요. 하지만 이곳은....

문: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인가요?

답: 예. 다른 사람이지요.

문: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으시나요?

답: 예.

문: 한인으로서 모스크바에 살며 어려움도 있었나요?

답: 예.

문: 어떤 어려움들이었지요?

답: 지금은 적응이 되었지만, 전에는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욕할 때에는 매우 싫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문: 사람들이 당신을 외국인이라 생각했네요.

답: 예.

문: 어느 대학에 다니세요?

답: 동방대학교예요.

문: 어떻게 그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답: 과목이 마음에 들었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문: 왜 전공으로 일본어를 택하셨어요?

답: 한국어를 택했었는데 지원자가 나와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그룹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문: 최소 몇 명이 필요하지요?

답: 최소 5명이 필요해요.

문: 그럼....

답: 그때라도 그룹을 구성했어야 했는데.

문: 아쉽네요.

답: 예. 아쉬워요.

문: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답: 어머니께서는 저의 선택을 허락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어요.

문: 운이 좋았네요. 좋은 어머니이세요.

답: 좋은 어머니이세요.

문: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나요?

답: 아마도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실행하고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순한 주부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문: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답: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요?

문: 예. 당신이 미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들었거든요.

답: 예. 머리 이발미용 일이 마음에 들어요.

문: 현재 코스를 밟고 있나요?

답: 여름예요.

문: 스스로 직접 머리를 자주 깎으세요?

답: 예.

문: 당신은 불교의 중이 아니잖아요.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답: 그렇게 안돼요?

문: 예. 안돼요. 당신은 중이 아니잖아요.

답: 예. 아마도요.

문: 어머니는 자주 고려음식(한국음식)을 만드시나요?

답: 일주일에 서너 번이요. 밥(쌀)은 매일 먹어요.

문: 매일이요?

답: 예.

문: 어머니는 매일 빵을 드시고요.

답: 어머니는 주로 빵을요?

문: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답: 하루에요? 되는대로 먹어요.

문: 고려음식을 만들 줄 아세요?

답: 아니에요. 겨우 밥을 지을 줄 알아요.

답(어머니): 밥솥으로요.

답: 아니요. 그냥 솥에요.

문: 배워야 되겠네요.

답: 예. 배워야 되겠어요.

문: 고려음식 외에 다른 음식도 만들 줄 아세요?

답: 김밥도 만들 줄 알아요.

문: 김밥도 만드세요? 복잡한데.

답: 아니에요.

문: 복잡하잖아요.

답: (밥과 재료를) 그냥 넣고 말면 되잖아요.

문: 왜 대학을 다니세요?

답: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요.

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미래를 낙천적으로 보고 있어요.

문: 졸업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답: 전공에 따라 통역사나, 혹은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문: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나요?

답: 예.

문: 한국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나요?

답: 예.

문: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좋아요.

문: 부정적인 것도 있나요?

답: 아니요.

문: 그곳에도 문제가 존재해요.

답: 그렇지요. 모든 나라마다 자신의 문제가 있지요. 한국은 매우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나라이거든요.

문: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답: 음, 예.

문: 점진적인 발전은 적은 문제를 수반하지만, 빠른 발전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요.

답: 예.

문: 이곳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들도 있나요?

답: 없어요.

문: 있어요.

답: 없어요.

문: 민족으로서 한인(한민족)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답: 평가요?

문: 한인들의 민족적인 특색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한인들은 근면하다고들 해요. 근면성과 어른에 대한 공경은 한인들의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의 특색이라고 생각해요.

문: 부정적인 측면은요?

답: 좀 해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전통들이라 많다고 할까요.

문: 집에는 어떤 전통들이 지켜지고 있나요?

답: 겨우 음식 관련한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 음식이요? 아기 돌잔치는요?

답: 예. 돌과 회갑도 있어요.

문: 부모님의 날.

답: 예. 부모님의 날.

문: 이 곳 모스크바에서도 부모님의 날을 기념하나요?

답: 예.

문: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부모님의 날 전통을 계속해서 기념해 나갈 것인가요?

답: 예.

문: 부모님의 날, 설날, 추석....추석은 집에서 새셨나요?

답: 집에서는 아니에요.

문: 집에서는 아니라고요?

답: 학교에서 기념했어요.

문: 학교에서요?

답: 그리고 원관에서요.

문: 전통을 계속해 나갔으면 하시나요?

답: 아마도 전부 유지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억한다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문: 당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이 삶 속에서 도움이 되나요?

답: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은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그대로 한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문: 모스크바 거주 한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타쉬켄트에서는 없었지요?

답: 예. 없었어요.

문: 모스크바에서는요?

답: 민족주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 전에는 없었나요?

답: 없었어요.

문: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한국인 친구들도 있나요?

답: 있었는데 그만두었어요.

문: 있었어요?

답: 예.

문: 해외의 모든 한인 젊은이들의 교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이 필요하나요?

답: 예. 있었다면 재미있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문: 있다면 교제를 나눌 것인가요?

답: 예. 기꺼이요.

문: 한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답: 교육을 받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 모두에게 그런가요? 아니면 한인이 더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답: 한인들에게 더 어려움이 있어요. 가령 저의 오빠의 경우 한인이라서 취직이 되지 않았거든요. 직장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직장에서 오빠에게 물

어본 것은 <어느 민족이나?>는 질문뿐이었어요. 결국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문: 유감스럽네요.

답: 예. 그게 다였어요.

문: 과거에 저도 모스크바에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한분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대답에 방을 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민족이 개를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방을 줄 수 없다고 했지요. 사실 저는 개를 먹지 않거든요.

답: 예. 가끔씩 <당신은 개고기를 먹냐>고 물어보곤 해요.

문: 개고기 드세요?

답: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먹어요.

문: 한국정부나 사회단체들로부터 가장 받았으면 하는 도움은 무엇인가요?

답: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의 도움이요.

문: 그밖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나요?

문: 한국에 일하러 갈 기회가 있었다면 한국에 갔을까요?

답: 예.

문: 아니면 공부하러?

답: 예. 또는 공부하러.

문: 초대하면 한국에 갈 것인가요?

답: 예.

문: 그밖에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앙케트에 있는 문제들이요?

답: 앙케트에 많은 질문들이 많아요. 언어, 몇 세대인지...

문: 몇 세대를 아세요?

답: 3세대 아니면 4세대예요.

문: 이상이에요. 자유 주제로 말해도 되요.

답: 예. 저도 이 만남이 재미있었어요. 나 자신을 다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해요. 많은 한국인들이 친선협력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문: 고마워요.

## ② 학부모 김 마르가리타 (47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4, 장소: <스시코>식당)

문: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요?

문: 어디에서 출생하셨는지 등등.

답: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답: 김 마르가리타이에요.

문: 김 마르가리타?

문: 언제 출생하셨지요?

답: 1960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했어요.

문: 타쉬켄트에서요?

답: 타쉬켄트 주에서요? 또 무엇을 말해야 하지요?

문: 어머니에 대해서요.

답: 어머니의 이름은 이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이고 러시아어 교사였으며, 현재 모스크바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김 알렉세이 티모페예비치이고,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셨으며, 기사-경제전문가로 타쉬켄트주 아르말리크에서 일하셨어요.

문: 아르말리크?

답: 예. 타쉬켄트 주에 있는 도시에요.

문: 예.

답: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오빠 알렉산드르는 모스크바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남동생 블라디미르는 사업가로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요.

문: 모스크바에 언제 오셨어요?

답: 형제들은 80년대에 왔고, 우리 가족은 7년 전에 왔어요.

문: 7년 전예요?

답: 예.

문: 2,000년도예요?

답: 예. 2000년도예요. 자녀는 두 명이 있고, 아들은 알렉세이에요.

문: 아들은 몇 년도에 태어났지요?

답: 82년도예요.

문: 82년도.

답: 예. 기혼자이고, 레스토랑에서 수석 요리사로 근무해요.

문: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하나요?

답: 사마라에서 일해요.

문: 사마라

답: 도시 사마라에서 일해요.  
 문: 따님은요?  
 답: 딸은 동방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문: 일본어요?  
 답: 예. 2학년에 다녀요.  
 문: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답: 오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문: 오빠요?  
 답: 예.  
 문: 같이요?  
 답: 도와주고 있어요. 저의 전공은 농아학교 교사예요.  
 문: 뭐라고요?  
 답: 농아학교 교사였다고요.  
 문: 농아학교요?  
 답: 예. 농아학교.  
 문: 지금은요?  
 답: 전예요. 지금은 아니예요.  
 문: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답: 어디에서요?  
 문: 학교에서요?  
 답: 거의 20년 동안 근무했어요.  
 문: 젊어 보이시는데요.  
 답: 고마워요. 한인 여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문: 타쉬켄트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셨지요?  
 답: 예. 학교에서.  
 문: 모스크바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어디가 살기에 더 나으세요?  
 답: 타쉬켄트가 삶은 더 조용하지요. 단지 이곳은 삶이 역동적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지요.  
 문: 어느 편이 더 좋아요?  
 답: 조용한 삶이 더 좋아요. 타쉬켄트에서의 생활수준이 모스크바에서와 같았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했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태어나서 자라난 조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적응해 가고 있어요.  
 문: 돈을 많이 벌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생각이신가요?  
 답: 아니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들어 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도 이곳에 있고요.

문: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답: 소비에트 시기에는 우리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요.  
어느 종파로 마음이 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종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 남편도 한인인가요?

답: 예. 이혼했어요.

문: 가족 모두가 한인이네요?

답: 예. 오빠의 아내는 러시아인이예요.

문: 민족 간의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개인적으로는 같은 민족 간의 혼인을 선호해요. 나이가 들면서 같은 민족에  
대해 마음이 더 끌림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르거나 혹은 늦게 주변에  
같은 민족의 사람이 있어야 됴을 알게 되지요.

문: 며느리도 한인인가요?

답: 예.

문: 오빠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한인이네요?

답: 예.

문: 비카는요?

답: 시집을 보낸다면요?

문: 예.

답: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문: 왜요?

답: 딸의 인생이고 스스로 결정해야지요.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문: 첫째 원인이 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답: 스스로 결정해야지요.

문: 두 번째는 사랑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답: 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즉 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인 여성을 원할  
것이고, 딸의 경우에는 그 남자가 딸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어느 민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 왜요?

답: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 어떤 차이가 있지요?

답: 작은 차이지요.

문: 설명해 주세요.

답: 설명할게요.

문: 흥미롭네요.

답: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아들을 위해주었으면 해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주는 것은 한인 여성들만이 잘 할 수 있거든요.

문: 그래요?

답: 딸의 경우에는 단순하지요. 남편(사위)이 딸을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문: 제가 만났던 한인학교 교장선생님은 한인 여성들에게는 러시아인 남성들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답: 아내는 한인이고 남편은 러시아인 경우가 많아요. 친척들 중에도 있어요. 실제로 한인 여자들에게는 행복하고 좋아요.

문: 한인 남성들에게는 그런 성격과 특성이 있지요?

답: 아마도요. 약간의 독재적인 면이 있어요.

문: 한국에서도 그래요.

답: 이곳의 한인 남성들도 그런 면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남자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구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요.

문: 자녀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마쳤나요?

답: 아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쳤어요.

문: 우즈베키스탄에서요?

답: 예. 11학년을 마쳤어요.

문: 아들과 함께 이사를 오셨나요?

답: 예. 아들은 이곳에 와서 일했고, 지금은 사마라에서 일해요.

문: 그냥....

답: 그곳에서 공부했어요.

문: 우즈베키스탄에서 쉬콜라를 마쳤어요?

답: 예.

문: 이후에는요?

답: 교통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았어요. 1학년을 마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생활이 힘들었고 결국 일을 해야 했어요.

문: 안타깝지요?

답: 예. 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대학 졸업을 늦게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마라에서 유럽식 및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수석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통신대라도 다녀야할 것 같아요.

문: 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나요?

답: 우리 소비에트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자 해요. 가령 우리 집안에서도 부모님들도 대학을 졸업하셨고 우리들도 가르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했지요. 한국에서도 그렇지요?  
 문: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정에서도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 부모님들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셨고, 우리와는 러시아어로 대화하셨어요. 주변이 러시아적인 것들로 되어 있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적응해야 했지요. 저의 첫 번째 언어는 고려 말이었어요. 3살 때까지 할머니와 살았고, 이후에는 탁아소에서 보내져서 홀로 러시아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문: 우즈베키스탄에는 한인들이 많은데 탁아소에 당신 혼자만 한인이었나요?  
 답: 초기에 제가 살던 도시에는 한인들이 적었어요. 우즈베크인들도 적었어요. 이후에 점차 한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비카가 공부할 때는 한반의 절반이 한인들이었어요.  
 문: 한반의 절반이요?  
 답: 10-1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저 혼자만이 한인이었어요.  
 문: 왜 그렇게 되었지요?  
 답: 왜냐하면 살던 도시는 신생도시로 금속 및 철 콤비나트가 있어서 주로 러시아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들어왔던 곳이에요. 당시 한인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고, 나중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어요.  
 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나요?  
 답: 필요할 때 마다요. 할머니나 외삼촌들이 주기도 해요.  
 문: 부자겠네요.  
 답: 그래요. 부자예요.  
 문: 자녀들이 용돈을 주로 어디에 소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답: 클럽이나 극장....맥도널드, 책이나 옷 구입 등에....  
 문: 자녀들은 고려 말을 알고 있나요?  
 답: 비카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들은 전혀 몰라요.  
 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답: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문: 즉 가정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은 고려 말을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답: 예. 전부.  
 문: 자녀들이 고려 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답: 예. 물론이지요.

문: 왜요?

답: 어찌되었건 모국어잖아요. 우리는 비록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자신을 한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문: 멘털리티가요?

답: 예. 고려 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고려 말을 알기를 원해요. 비카는 스스로 배우고자 해요. 단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교회에서, 그리고 원관에서 1-2년 정도 공부했어요.

문: 비카는 한국말을 잘 하던데요. 학교에서 5년, 원관에서 1-2년 배웠다고 했어요.

답: 현재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가장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잊고 시간도 부족하고.

문: 자녀들 스스로 전공을 택했나요?

답: 예.

문: 딸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답: 비카가 자신의 전공(일본어)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편으로 자신이 원한대로 훌륭한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 수련강좌를 찾아서 기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래요. 미용사가 되지 못해도 가족, 친구들, 친척들, 어머니의 머리는 잘라주게 되겠지요.

문: 한국음식을 만들 줄 아세요?

답: 만들 수 있는 가지 수가 적어요.

문: 예를 들자면요?

답: <바비>(밥-역자)는 항상 먹어요. 언어가 섞여 있어서 표현이 우습지요. <시락장물>, <북차이>는 된장국의 일종인데, 안에 고기나 두부, 떡....김치 등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맵거나 싱거울 수도 있어요. <떡데쿠기>, 흥미롭지요?

문: 예. 명칭이 흥미롭네요.

답: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 <떡데쿠기>는 일본식이라고 했어요.

답: 손으로 열고 뜨거운 물에....일본식이라고요?

문: 현실의 삶에 만족하세요?

답: 예. 만족해요.

문: 바보스런 질문이지요.

답: 적절한 질문이에요.

문: 적절해요?

답: 예.

문: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답: 아니에요. 만족해요.

문: 이곳 상황에 부적절한 질문들이 있어요.

답: 예?

답: 직접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요?

문: 뭐라고요?

답: 직접 작성하지 않았나요?

문: 예. 연구소에서 작성했어요.

답: 괜찮아요. 모든 질문에 답할게요.

문: 러시아-한인 젊은이들과 한인들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나요?

답: 아무래도 돈벌이할 수 있는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봐요.

문: 일자리 구하는 문제는 복잡한가요?

답: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문: 과거와 비교해서 어때요?

답: 소비에트 시기에는 대학 졸업 후에 당국에서 졸업자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냈어요. 보내지 않더라도 직장구하기가 복잡하지는 않았지요. 저도 학교에 잘 정착해서 근무하고 꽤나게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마음에 들었었지요.

문: 전공이 무엇이었지요?

답: 농아학교 교사였어요.

문: 대학에서 전공하셨나요?

답: 예. 그랬어요.

문: 대학에서요?

답: 아니요. 학교에서요.

문: 일자리 구하기가 복잡해요?

답: 그렇게 생각해요.

문: 한국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일자리 구하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문: 집에서 한국명절을 기념하시나요?

답: 한국 명절들이요? 명절들을 잘 몰라요.

문: 설날 아세요?

답: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새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 설날을 모르세요?

답: 예.

문: 환갑은요?

답: 환갑은 알아요.

문: 설날은 음력 새해잖아요.

답: 아니요. 우리는 러시아식으로만 맞이해요.

문: 환갑은요?

답: 환갑이나 돌은 반드시 기념해요.

문: 러시아인들은 기념하지 않나요?

답: 예.

문: 환갑도요?

답: 예. 환갑도 한민족 기념일이잖아요.

문: 또 있어요.

답: 어떤?

문: 부모님의 날이요.

답: 부모님의 날. 3년 동안 추모하고, 해마다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며, 산소에 다녀오지요.

문: 언제 산소에 다니시나요?

답: 제삿날예요. 3년 동안 연속해서.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문: 3년 동안만이요?

답: 예. 이후에는 부모님의 날이 있고, 4월 5일에 산소에 다녀요.

문: 과거에는 4월 5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날을 기념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답: 지금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문: 집에서 한국음식을 만들어 드시나요?

답: 생일 때에는 모두가 모여서 한국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찰떡>, <전병>, <카추리> 등을 꼭 먹어요. <순대>도 먹고요, <두부>, <미역>도 먹어요.

문: 미역.

답: 우리는 한국음식을 좋아해요. 비카, 달콤한 <카추리>도 좋아하지? 쌀로 만든....명절 때.

문: 얇게 생긴 것이요?

답: 예. 매우 맛있어요. <폐고자>도 있어요.

문: 어제는 무엇을 드셨나요?

답: 어제 무엇을 먹었지?

문: 아침, 점심, 저녁예요?

답: 아침에는 항상 도시락으로 빵을 먹고, 비카는 밥을 좋아해요. 비카는 아침에 밥과 국을 좋아하지요.

문: 부모님 세대는 한반도에 계셨고, 그곳에 당신의 세대가 있지요. 그리고...

답: 이제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문: 가까워져요?

답: 예.

문: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답: 과거에 우리 세대의 한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동화되고 그들에게 적응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자신들을 한인들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한국어, 전통을 더 배우고 관심 있어 해요. 비카의 경우도 나보다 한국적인 것을 더 많이 좋아해요. 한국 식당에서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국음식을 잘 못 먹는데 비카는 저의 음식까지 먹어치우곤 해요. 또한 음식의 이름도 다 알고 스스로 주문도 하고, 저는 포크를 사용하지만 비카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답: 예.

문: 자신이 한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계시나요?

답: 어렸을 적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러시아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 또한 주변의 러시아인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스스로를 더 많이 한인으로서 느끼고 있지요. 하지만 다름 한편으로는 고려 말도 모르고 전통도 많이 모르고, 음식들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외모는 한인(한국인)이지만, 정신은 80%는 러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 슬프네요.

답: 예.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역사의 장난이지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의 세대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지요. 저의 부모님의 경우도 매우 살기가 어려웠어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빈곤하게 살았는데 우리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이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 한민족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어느 지역의 한민족을 의미하는지?

문: 일반적인 한민족에 대해서요.

답: 모든 한민족.

문: 한국인과 러시아-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사실은 한국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인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이런 자리도 처음이에요

문: 처음으로요?

답: 예. 처음이요.

문: 제가 영광이네요.

답: 제가 영광이지요. 저도 재미있어요. 한국인들과 교제를 나누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문: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답: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편하고 반가워요. 그동안 러시아인 사이에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곳에는 어디서든지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는 다민족 사이에서 그들은 많고,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살아왔거든요. 우리 러시아 한인들은 역사적으로 강하게 살아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낯선 민족 사이에서 성공하고, 그들에게 익숙해져야 했기 때문이지요. 적응한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 말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저의 부모님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문: 어찌되었든 당신이 관습과 전통, 음식 만드는 법 등을 보존해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 전공이 역사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중국-한인(조선족-역자)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답: 그들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존하고 있나요?

문: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거주지 등을 포함 모든 것을 결정하고 허용하지요. 가령 거리에는 중국어 대신 한국어로 <이발소>라고 간판이 붙어있고요. 또 한국학교들도 허용이 되어있어요. 한남학생으로부터 들었는데, 심지어 북경대학에서 한국어로 입시시험을 시행하려고 까지 했더군요.

답: 좋은 정책이네요.

문: 단지 좋은 지역에서의 거주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요.

답: 그저 그만한 곳이에요?

문: 예.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거주지의 문제는 규제를 받지요.

답: 일정한 지역이에요?

문: 예.

답: 이곳에서도 40-50년대에는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부모님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떠났고,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 공부했고요. 이어서 한인들의 지역적인 정착이 시작된 것이지요.
- 문: 이곳의 언어정책은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150여개 소수민족이 있다보니 모든 언어를 허용했다면 지배하기 어려웠을 것이예요. 따라서 소비에트 정부가 엄한 정책과 언어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 답: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 문: 예.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한인들이 살았지만 서로의 정책이 달랐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당신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 답: 예. 아들이 저에게 <왜 어머니는 나를 고려 말로 이름 짓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식 이름은 제가 모르거든요. 이곳에서는 성만 남아있고, 이름은 모두 러시아식이에요.
- 문: 지금도 한국식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 답: 단지 제가 한국식 이름들을 몰라요. 외할아버지는 이춘식이었어요.
- 문: 그 밖에 질문이?
- 답: 물어보세요. 답해드릴게요.
- 문: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가르치시나요?
- 답: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어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문: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 답: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도 이제 달라졌고, 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문: 한국영화도 보시나요?
- 답: 딸이 가져와서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 문: 어떤 영화들이요?
- 답: 비카, 어떤 영화를 보았지? 솔직히 조금 보았어요.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 문: 언제 처음 한국에 대해서 듣게 되었나요?
- 답: 소비에트시기에 제가 알기로 알마티에서 발간된 <코레야>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나온 인상 깊은 잡지였어요. 페이지마다 김일성의 모습이 있었지요. 한국어로 되어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읽을 줄을 모르셨지만 매우 애정을 갖고 잡지를 다루고 넘기셨어요. 할머니의 모국이 들어있는 잡지잖아요. 풍경과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진 예쁜 잡지였어요. 할머니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잡지를 넘기셨고, 잡지 속의 김일성과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모국에 대한 향수였다고 생각해요.
- 문: 남한에 대해서는 언제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답: 소비에트 시기는 폐쇄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80년대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문: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답: 예. 정책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살았어요.

문: 남한에서의 학생 시위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답: 예. 그랬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인민의 수령이라고 들었고요.

문: 현재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우리는 한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껴요. 한국은 전후의 폐허와 기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이룩해 내었잖아요. 이러한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고, 한국민족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높은 경제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한인이라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문: 이미 읽으신 대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양케트를 작성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함이지요.

답: 어떻게 러시아-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인가요?

문: 예. 젊은이들에게.

답: 이 설문은 현재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군요.

답: 독일에도 한인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아마도 그 수가 적지요.

문: 주로 한인들의 수가 많은 곳에서, 미국에는 100만의 한인들이 있고, 일본 및 중국에도 있지요. 독일에는 얼마 전에(60년대-역자)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답: 조금만이요.

문: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답: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 문제만. 이 곳 러시아에서도 나쁘지 않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삶 속에서 자리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문: 한인(한민족)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특질들이 있을까요?

답: 글썽요. 말하기 어렵네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요.

문: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답: 그래요.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가 복잡하네요.

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한인들은 매우 시끄럽다고 대답하더군요.

답: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 이곳의 한인협회, 가령 전리고려인연합회 등과 접촉을 하시나요?

답: 거의 관계하지 않아요.... 한인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해줄게요. 그러니까 러시아-한인들 간에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문: 그다지요?

답: 예. 별로요.

문: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답: 예. 그런 점이 생각이 나요.

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답: 미국의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인들을 일본인 및 중국인들과 비교한 글이었어요. 그는 일본인과 중국인은 공동체 형태로 모여 살고자 노력하는 반면에, 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즉 사망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한인들이 그러한 삶에 가장 잘 적응해가고 있다고 읽었어요. 우리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 흥미롭네요.

답: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문: 그렇게 들었어요.

답: 우리들은 뭐지요?

문: 한명의 사람이 한인일 때는 두려워해야한다. 모두가 일본인일 때에는 일본인을 두려워해야한다는 말이 있지요. 즉 한인이 많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답: 예. 한인들은 각자가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읽었던 책은 60-70년대의 오래된 것이었어요. 저자가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언급해 놓은 책이었지요.

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답: 이 만남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카가 두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한국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대화를 나누게 되어 반가웠고, 한국의 삶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해요.

문: 대단히 감사해요.

답: 감사드립니다.

### ③ 건설회사 사원 손 아나 (가명) (19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5, 장소: <스시코>식당)

답: 제 이름은 아나이고 19살이며,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화학기술을 공부했고, 7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은 잘 하지 못해요.

문: 언어 실습이 적었나요?

답: 예. 언어실습이 적었어요.  
 문: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답: 1988년도 출생이에요.  
 문: 어디에서?  
 답: 우즈베키스탄 호드켈리에서요.  
 문: 호드켈리? 못 들어봤어요.  
 답: (우즈베키스탄 북부의-역자) 카라칼팍스탄에 있어요.  
 문: 들어봤어요.  
 답: 한국음악 많이 들어요.  
 문: 노래 <어머나>?  
 답: 아니요. 가사를 몰라요. 단지 <어머나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부분만 알아요.  
 문: 영화는?  
 답: 영화를 좋아해요.  
 문: 어떤 영화를 보았어요?  
 답: ‘프라하 연인’, ‘마이걸’, ‘클래식’, ‘엽기적인 그녀’, ‘풀하우스’....  
 문: 모두 러시아어로 된 것을 보셨나요?  
 답: 한국어로만 된 것이요.  
 문: 누가 한국어로 말하지요?  
 답: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오래된 고려 말을 알고 계시고, 전에는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도 고려 말을 알고 계세요. 드물지만 때로는 집에서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그저 뭐가 고려 말로 물어보는 정도로요.  
 문: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답: 그냥 원했고, 화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전에 화학을 공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화학을 배우게 되었어요.  
 문: 누구와 살고 계세요?  
 답: 부모님과요.  
 문: 형제들은요?  
 답: 남동생. (남동생만 있어요)  
 문: 둘인가요?  
 답: 아니요. 한명이요.  
 문: 아나 한명하고....  
 답: 나와 남동생이요.  
 문: 동생도....  
 답: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문: 동생도 한국어를 아나요?

답: 1086학교에서 배웠는데, 읽고 쓰기 정도할 줄 알아요.

문: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못했나요?

답: 예. 학교에서 읽고 쓰기만 배웠어요. 그게 전부예요.

문: 언어실습은 적고요?

답: 예. 회화는 거의 안했어요. 그저 읽고 쓰기만 했어요. 작문은 많이 했어요.

문: 믿어지지 않네요.

답: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대화나누기를 쑥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듣기로 릴라 알렉세예브나는 한국어로 말을 잘 하는데 단지 우리들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쓰는 것이 전부였어요. 안 좋았어요. 지금은 원관에 다니며 배워요. 그곳에서 많이 들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문: 몇 년 되었지요?

답: 벌써 3년 되었어요.

문: 3년이요?

답: 3년 되었어요.

문: 스스로 선택했어요?

답: 음악 교습에도 다녔어요. 잘 부르지는 못해요.

문: 집에서 한국음식도 드세요?

답: 예. 어머니께서....

문: 만들 줄 아세요?

답: 떡볶이 만들 줄 알아요.

문: 떡볶이?

답: 비빔밥, 국수도요. 어머니께서 자주 만들어 주세요. 한국식 국도 자주 끓이고요.

문: 얼마나 자주 드세요?

답: 한국음식이요?

문: 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답: 밥은 매일 먹고요, 한국식 샐러드도 매일 먹어요. 아주 자주 먹어요.

문: 한국음식을 더 좋아해요?

답: 예.

문: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답: 한국음식이 더 좋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한국음식을 먹어왔거든요. 매운 음식도 잘 먹고요.

문: 어느 민족의 남성에게 시집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답: 누구도 상관없어요. 좋은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민족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문: 한인 친구도 있어요?

답: 예. 고려 말을 잘해요.

문: 뭐라고요?

답: 친구가 한국어를 잘 한다고요.

문: 어디서 배웠는데요?

답: 학교에서도 배우고, 원관에서도 7년째 배우고 있어요.

문: 학교에서 만났어요?

답: 예. 원관에서.

문: 한국에 가보셨어요?

답: 아직요.

문: 배우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초청한다면 기꺼이 한국에 갈 생각이 있나요?

답: 물론이지요.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조금 살아보고 싶어요. 일도 하고요.

문: 지금 어디에서 일하세요?

답: 건설회사에서요.

문: 건설회사요?

답: 예.

문: 어떤 일이지요?

답: 보급 담당 매니저로 일해요. 즉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필요한 페인트나 종이 등을 구입 주문하고, 그밖에 문서 및 서류관련 확인 작업 업무를 보고 있어요.

문: 대학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답: 화학-기술전문가로 전공분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러시아의 과학도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싶고요. 러시아의 과학 분야는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해요. 부끄럽지요.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문: 당신 스스로 물질적인 충당을 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나요?

답: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문: 부모님이요?

답: 예.

문: 얼마나 주시나요?

답: 일주일에 500루블(약2만원)이요. 나머지는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해요.

문: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답: 맛있는 것 사먹는데요.

문: 맛있는 것?

답: 예. 음식과 군것질에 사용해요.

문: 전화도요?

답: 아니요. 옷과 책 구입에 사용해요..

문: 부모님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어머니는 쉬콜라, 아버지는 기술전문학교(테흐니쿰)를 마치셨어요.

문: 부모님들은 한인들인가요?

답: 예. 모두 한인이세요.

문: 부모님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답: 좋고 대단한 나라로 평가해요. 강한 민족이고, 인내심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문: 언제 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으셨나요?

답: 제가 10살이었을 때 삼촌께서 한국에 일을 하러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삼촌은 그곳에서 조상들을 찾아보았고, 우리 집안의 출신을 알아보았어요. 우리 집안은 남한 출신으로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극동으로 넘어왔으며, 이후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다고 들었어요.

문: 삼촌은 한국과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지요?

답: 모르겠어요. 삼촌이 좋아요.

문: 삼촌이요?

답: 삼촌이요?

문: 이미 한국에 가보았다고요?

답: 예. 마음에 들었데요. 물론 일은 힘들었지만요.

문: 한국에는 일자리가 많아요. 일하기는 힘들어요.

답: 예. 일하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어찌되었든 조상들의 나라이고 좋은 나라잖아요.

문: 한국에는 모두가 한국인이예요.

답: 예. 모두 자기 민족들이지요.

문: 한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로는 역시 좋은 교육을 받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는 또한 한인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 한민족의 어떤 의식을 알고 계시나요?

답: 한민족 의식이요? 어머니께서 한민족의 의식과 전통, 결혼, 장례식, 명절, 설날과 기념일, 돌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문: 언제 모스크바에 이주해오셨나요?

답: 7년 전예요.

문: 함께요?

답: 예.

답(어머니): 거의.

답: 거의

답(어머니): 1학년에 들어갔어요.

문: 이곳에서요?

답: 예.

문: 당신이 한인이라는 점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답: 운이 좋았어요. 저에게 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한인이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로 저를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문: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들도 있나요?

답: 괜찮은 것 같아요.

문: 한국영화 시청 후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답: 마음에 들었어요. 매우 재미있고 익살스러웠어요. 특히 <마이 걸>은 재미있고 우스웠어요.

문: 가수 <비>도 좋아하세요?

답: 별로요.

문: 누구를 좋아하세요?

답: <세븐>이요. 노래가 아름다워요. <동방신기>도 좋아요. 그밖에 강타, S.E.S....

문: 당신은 완전히 남한 소녀네요. 더 많은 현대적인 문화들을 알고 말이에요.

답: GOD, Fly to the sky도 매우 좋아해요.

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요.

답: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문: 당신은 한국의 젊은이 같네요.

답: 한국의 젊은이요? 우리가요?

문: 인터넷을 통해 교제하는 친구가 있나요?

답: 여자 친구가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드물게 소식을 주고받고 있어요.

문: 학교에 같이 다니셨나요?

답: 아니요. 원관에서 알게 되었어요. 친구는 벌써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 친구는 이미 공부를 마쳤고요. 그 친구도 화학을 전공했어요.

문: 한국정부나 사회단체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잘 배웠으면 해요.

문: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답: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한국체류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싫든 좋든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한국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스크바 출신은 적어요.

답(어머니): 왜요?

답: 멀리 있잖아요.

문: 한국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한인 학생들은 많지만 모스크바 출신의 학생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답: 같은 반 친구인 남 나타샤도 현재 한국에 있어요.

문: 멀어요. 그래서이겠지요?

답: 아마도요.

문: 알마티, 타쉬켄트는 한국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답: 그곳도 먼 편이지요.

답: 모스크바 보다는 가깝지요.

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답: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러시아-한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요. 한국에서도 반갑게 우리를 보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전통과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우리 또한 그들이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우리 모두 한민족이니까 앞으로 더 서로서로 이해하는데 더 쉬워지리라 생각해요. 감사해요.

#### ④ 1086 한인민족학교 학생 리 료샤, 윤 드미트리 (16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6, 장소: 1086 한인민족학교 한국어 교실)

문: 나의 이름은...처음에는 한국어로, 이후에는 러시아어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나의 이름은....

답: 전부요?

문: 예.

답1(학생1): 나의 이름은 료샤입니다....러시아어로 해도 되지요?

문: 예.

답1: 제 이름은 료샤이고 16세이며,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요. 1086 민족문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문: 출생지는 어디인가요?

답1: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했어요.

문: 우즈베키스탄 어디이지요?

답1: 우르겐치에서요.

문: 언제 이사를 오셨어요?

답1: 8년 전예요.

문: 1999년이네요.

답1: 예. 1999년도예요.

문: 1991년도에 출생하셨어요?

답1: 예.

문: 누구와 살고 있나요?

답1: 부모님과요.

문: 부모님과요?

답2(학생2): 제 이름은 디마이고 16세이며,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에서 왔어요.

문: 포르투갈이요? 한인인가요?

답2: 절반은 한인이예요. 부모님과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한마디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지요. 7년 전에 어머니와 이곳으로 왔어요.

문: 7년 전예요?

답2: 예.

문: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요?

답2: 예.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고, 1086 민족문화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문: 여기서 얼마동안이나 공부를 하셨어요?

답2: 1학년은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이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9학년이예요.

문: 7년 전에 모스크바로 이사해 왔다고 말해주셨지요?

답2: 예.

문: 현재 9학년이고, 1학년부터 이곳에서 살아오셨네요?

답2: 예. 또 무엇을 말해야하지요?

문: 누구와, 어머니와요?

답2: 예.

문: 형제들이 있나요?

답2: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친척들이 있어요.

문: 이곳예요?

답2: 절반은 포르투갈에, 나머지는 이곳예요.

문: 어머니는 어디에서 출생하셨지요?

답2: 어머니는....음, 한인이시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 오늘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은 모두 한인이신가요?

답1: 예.

문: 부모님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시나요?

답1: 어머니는 주부이세요.

문: 주부시라고요?

답1: 아버지는 조종사이세요.

문: 조종사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세요?

답1: 만족하는 편이에요.

문: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답1: 그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문: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

답1: 예.

문: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답1: 교제를 나누고, 친구들도 있고,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요.

답2: 현재의 삶에 만족해요. 어머니는 <복사> 회사에서 수석 경리로 일하시고,  
학교는 마음에 들어요. 학교도 선생님도 매우 좋아요.

문: 정말로 그래요?

답2: 예.

문: 아니면 인터뷰를 위한 멘트인가요?

답2: 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도 좋고요.

문: 개인적인 질문인데 드러도 될까요?

답2: 물어보세요.

문: 주로 어디에 돈을 지출하시나요?

답2: 어디에 사용하느냐고요?

문: 예. 주로 어디에?

답2: 먹고, 구입하는데요.

문: 먹는데요? 어머니께서 안 먹이시나요?

답2: 집에서도 먹고, 이곳에서도 먹어요. 그밖에....즐기는 데에도 사용해요.  
 문: 먹고 즐기는데요?  
 답2: 또 여러 곳의 클럽에서도 돈을 써요. <파사테나>....  
 문: 청년 클럽이면 출입해도 되나요?  
 답2: 물론이지요. <파사테나>는 한국인 클럽이에요. 아가씨들도 예쁘고 멋져요.  
 문: 그래요?  
 답2: 예. 매우.  
 문: 같은 질문이에요.  
 답1: 먹는데,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해요.  
 문: 친구와 함께요?  
 답1: 예.  
 문: 용돈은 얼마나 받으세요?  
 답1: 어머니에서는 받는데 아버지로부터는 받지 않았어요.  
 문: 왜요?  
 답1: 얼마나 때렸는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문: 아니요. 용돈이요.  
 답1: 아, 돈을 얼마나! 하루에 50-70루블(약2천-2천8백원)정도 받아요. 만일 놀러 가는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줘요.  
 문: 추가로요?  
 답1: 예.  
 문: 집에서 어느 언어로 대화를 나누세요?  
 답1: 러시아어로요.  
 문: 러시아어로만이요?  
 답1: 예.  
 문: 한국어(고려 말)도 이해하세요?  
 답1: 아버지께서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세요.  
 문: 아버지께서 집에서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세요?  
 답1: 집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할 때요.  
 답2: 집에서 할머니만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세요.  
 문: 할머니께서 고려 말을 하시나요?  
 답2: 예.  
 문: 할머니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2: 그러니까 문장에서 단어 하나정도 말하는 수준이에요.  
 문: 예를 들면요?

답2: 가령 저는 할머니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보통은 저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하세요.

문: 할머니께서 당신과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2: 예. 때로는 포르투갈어로도 대화해요.

문: 포르투갈어로요? 모국어는 러시아어인가요, 고려 말인가요?

답2: 아마도 러시아어이겠지요. 러시아어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니깐요.

문: 부모님들도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답2: 예.

문: 매우 원하세요?

답2: 강하게는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문: 수업이 도움이 되나요?

답2: 수업이요? 예. 도움이 되요.

문: 그렇지만 언어실습이 적지요?

답2: 예. 우리 반에 한국 학생들도 공부를 해요. 드물지만 그 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있어요.

답1: 예. 저의 부모님들도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학교에서 한국어가 도움이 되요.

문: 얼마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답1: 3년이에요.

문: 옆에 분은요?

답2: 2학년 때부터요.

문: 그러니까 7년 되었네요?

답2: 2학년 중반부터 시작했으니 6년 반이 되었네요.

문: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나요?

답1: 아니요? 러시아인(어)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문: 그곳에서는 학습프로그램에 한국어가 없어서 그래서요?

답1: 예.

문: 부모님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2: 러시아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문: 어니께서 말씀하셨나요?

답2: 예. 그런데 가장 좋았던 곳은 포르투갈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문: 첫 번째는 포르투갈, 두 번째는 한국, 세 번째는 러시아인가요?

답2: 그곳은 깨끗하고 매우 좋았어요.

답1: 예.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깨끗하고 발전한 나라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문: 한국에 가보셨나요?

답1: 아직요.

문: 가보고 싶으세요?

답1: 한번 정도 가보고 싶어요.

문: 교장선생님에게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노력하고 더 잘 공부해야겠지요?

답1: 예.

문: 언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답1: 1학년 때쯤예요.

문: 1학년 때쯤이요? 러시아인 학교에서요?

답1: 아니요. 부모님들에게서요.

문: 그 학교에서는 못 들으셨나요?

답1: 예. 그런데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도  
한인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많고, 예, 들었던 것 같아요.

문: 언제 처음으로 자신을 한인으로 느껴보셨나요?

답1: 이곳에서 저 자신을 한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음....

문: 옆에 분은요?

답2: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 민족적으로 정말로 자신을 한인이라고 느끼시나요?

답2: 예.

문: 같은 질문인데요, 언제 처음으로 자신을 한인으로 느끼셨나요?

답2: 거울 앞에 설 때요.

문: 즉 어렸을 때부터요?

답2: 예. 5-6세 때부터요.

문: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싶으세요?

답2: 학교 졸업 후에 재정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문: 부모님들의 바람은 어떠신가요? 어머니께서는요?

답2: 어머니께서도 제가 재정 대학에 다니기를 원하세요.

답1: 저는 학교 졸업 후에 경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 같이 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1: 예.

문: 집에서 어머니께서 자주 한국음식을 만들어 주시나요?

답1: 어머니께서 매번 한국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문: 어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답1: 어제요? 국이요. 저는 아침은 안 먹어요.

문: 왜요?

답1: 보통 아침은 안 먹어요.

문: 낮에는요?

답1: 낮에는 국을 먹었어요.

문: 어떤 국이요?

답1: 김치찌개요.

문: 저녁에는요?

답1: 저녁에도 국을 먹었어요.

문: 어떤 국이요?

답1: 동일한 국이요.

답2: 집에서요? 러시아 음식, 포르투갈 음식과 나란히 한국음식을 만들 때가 있어요.

문: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밥인가요, 빵인가요?

답2: 밥인 것 같아요.

문: 한국음식을 좋아하세요?

답2: 예. 매우 좋아해요.

답1: 저도 매우 좋아해요.

문: 왜 학교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답1: 경제전문가요.

문: 비즈니스맨이 되려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답1: 예.

답2: 아마도....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문: 민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2: 좋아요.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문: 옆에 분은요? 한인 여성과 결혼할 것인가요? 아니면....

답1: 저는 일본 여성과 결혼했으면 해요.

문: 왜요?

답1: 예쁘잖아요.

문: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나요?

답1: 지금은 없지만 곧 생기리라 생각해요.

문: 곧 생긴다고요? 일본 여성이 예뻐요?

답1: 한인 여성도 예뻐요.

문: 부모님들은 한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나요?

답1: 예.

문: 왜요?

답1: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머니도 한인이고 한인이 더 가깝잖아요.  
일본 여성도 그렇고요.

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2: 제가 만나게 되는 여성과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문: 민족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네요?

답2: 예. 여기 학교에도 여학생들이 많아요.

문: 한인 학교에 여자친구가 있나요?

답2: 예.

문: 한인인가요?

답2: 예.

문: 결혼할 것인가요?

답2: 아직 모르겠어요.

문: 한국의 뉴스에도 관심이 있나요?

답2: 예.

문: 뉴스를 자주 들으시나요?

답2: 이곳 학교에서 자주 들어요. 특히 한국어 선생님 릴라 알렉세예브나께서  
전해주세요.

문: 뉴스를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그녀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답2: 들어요. 마침 이 학생이 선생님 아들이예요.

문: 아들이요?

답2: 예. 좋은 선생님이세요.

문: 한국인들과도 교제를 나누어보고 싶으세요?

답2: 예. 특히 여학생들과.

문: 학교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답2: 예. 매일 교제가 이루어 져요.

문: 옆에 분도 한국 뉴스를 자주 들으시나요?

답1: 예.

문: 어떻게요?

답1: 학교에서 남북한의 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문: 정치, 문화 관련 뉴스도요?

답1: 예.

문: 한국영화도 보셨나요?

답1: 예. <달빛 소나타>를 보았어요. 시리즈가 많아요.

문: <달빛 소나타>? <겨울 소나타>?

답1: 아, <겨울 소나타>.

문: 그 밖에도?

답1: 보았는데 제목을 기억 못하겠어요.

답2: 자주 시리즈물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보라고 하시거든요.

문: 어떤 시리즈물이에요?

답2: 시리즈물이나 영화를 보았는데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문: 영화가 다양하지요? 재미있지요?

답2: 예. 재미있어요. 때로 배우들이 너무 오버연기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러시아 것보다는 재미있어요.

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영화나 음악을 감사하신 후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답2: 한국영화는 강도가 있지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울지는 않지만 할머니는 많이 우세요.

문: 옆에 분은요?

답1: 예. 로맨틱하거나 코믹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지요. 가끔씩은 울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은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시청해요. 드물게 러시아어 자막이 없을 때에는 겨우겨우 이해해요.

문: 민족으로서 한민족에 대해 평가를 주신다면?

답1: 평가요?

문: 한국의 사람들은 이곳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답1: 물론 저도 한인으로서 <5점>을 주겠어요.

문: 왜요?

답1: 저도 한인이잖아요.

문: 가령 근면한 민족으로서요?

답1: 예. 근면한 민족.

문: 당신은 부지런한가요?

답1: 예.

문: 인내심 있고요?

답1: 예. 인내심 있거나 근면하거나 영리한 사람들이 있지요.

문: 부정적인 측면도 있나요?

답1: 부정적인 측면이요?

문: 한국 사람들도, 이곳의 사람들도....

답1: 매우 시끄러워요. 학교에도 한국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야기 할 때 너무 시끄러워요. 그 외에는 괜찮아요.

답2: 한인(한민족)은 매우 영리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에서 오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문: 이곳에서 한인으로 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답2: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혼자 다닌다면 매우 어렵지요.

문: 한인들이 모스크바에 살기가 어렵지 않나요?

답2: 저는 순수한 한인은 아니잖아요.

문: 옆에 분은 순수한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1: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 추석 등...한민족의 전통 명절을 잘 알고 계시나요?

답1: 명절들이요? 예. 잘 알아요.

문: 어떤 명절들을 아세요?

답1: 추석, 설날....

문: 돌은요?

답1: 돌은 모르겠어요.

문: 아이가 태어나 한 살 되었을 때....

답1: 아, 알고 있어요.

문: 한식도 알아요?

답1: 모르겠어요.

문: 즉 추석, 설, 돌을 알고 있네요?

답1: 예. 세가지만요.

답2: 저도 똑같아요. 설, 추석, 돌.

문: 집에서 기념하시나요?

답2: 집에서요? 집에서는 설날만 쇠요.

문: 음력으로요?

답2: 예. 쇠고 있어요.

문: 가정에서 설을 쇠시나요?

답1: 설만 쇠고 있어요.

문: 돌은요?

답1: 돌이요? 아이의 돌이 돌아오면 쇠고 있지요.

문: 당신이 한인이라는 점이 많은 점에서 삶에 도움이 되나요?

답1: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령 한인 학교에서 내가 한인이 아니었다면 다

른 사람에게 대하듯이 했었을 것이고, 아마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예요.

문: 한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1: 없는 것 같아요.

문: 없다고요?

답1: 예.

문: 제 생각에는 있는데요.

답1: 친구들과도 좋고, 우리를 모두가 알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지요? 아마도 다른 한인들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문: 부모님들과는 문제가 없나요?

답1: 예.

문: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라든지, 충돌이 없나요?

답1: 때로 있기는 하지요. 그 정도야 누구에게나 있지요.

문: 주로 어느 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답1: 다투는 정도이지요.

문: 가령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놀았다든지...

답1: 예. 늦게 오면 나무라시고, 점수를 <2점>을 받았든지 할 때 욕을 하시지요. 그 외에는 잘 대해주세요.

답2: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요.

문: 심각한 문제들이 없나요?

답2: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문: 작은 문제들은요?

답2: 욕을 한다면 누구와 다투다면 하는 등 작은 문제들은 존재하지요.

문: 친구들과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답2: 친구들과는 가투지 않아요. 간혹 여학생과 다투는 경우가 있지요.

문: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관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세요?

답2: 예. 더 많이 알았으면 해요.

문: 이 학교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2: 저희에게는 충분하다고 봐요. 만일 누군가 더 많이 알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겠지요.

답1: 예. 저도 많이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요.

문: 문화와 멘털리티를 아는 것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나요?

답1: 제 자신이 한인이기 때문에 대로는 실제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요.

문: 어떻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요?

답1: 가령 누군가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줄 수가 있거든요.

문: 학교 졸업 후에 한인으로서는 일자리 찾기가 쉽나요?

답1: 예.

문: 공부하러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답1: 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문: 한국어, 문화에 대한 공부가 실제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요?

답2: 러시아에서는 아니에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모를까.

문: 멘탈리티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답2: 예. 제가 민족 상 한인이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요.

문: 인터뷰, 감사해요.

답2: 저희도 감사드려요.

#### ⑤ 직장인 손 알렉세이 (46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7, 장소: <하나>식당)

답(아버지): 저는 1962년 11월 1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생이고, 학교 졸업 후에 1980년 타슈켄트 교통대학 운송학부를 진학하고, 1985년 졸업했습니다. 저는 친구인 김 겐나디와 1992년 말에 모스크바에 들어왔습니다.

문: 잘 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답: 예. 왜냐하면 모스크바에 일찍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가능성이 열려있거든요.

문: 아내와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답: 어머니 친구인 아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샤의 조카가 제 아내가 되었지요. 1991년도에 알게 되었고, 이후 결혼했어요.

문: 몇 년도에 온 가족이 이주해오셨나요?

답: 저는 92년도 말에, 아내는 93년도에 들어 왔어요. 94년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요.

문: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시나요?

답: 현재 친구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문: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답: 예. 2000년도에 이상길 목사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지요.

문: 이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나요?

답: 예.

문: 부모님들은 어지에서 출생하셨나요?

답: 아마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셨을 것예요. 사실 부모님들에 대한 상황을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 곁에는 할머니만 계셨거든요. 아버지 쪽의 가까운 친척들도 아주 적고요. 먼 친척들만 있고.

문: 아버지는요?

답: 아버지는 1972년도에 제가 10살도 채 안되었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저를 양육하셨거든요.

문: 자녀는 몇이나 두셨나요?

답: 아들 둘이요. 큰 아들은 1991년도에 타쉬켄트에서, 둘째는 1994년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어요.

문: 민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과거 소비에트 시기에 부모님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어른들은 한민족의 피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문: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답: 지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더 자유로워졌잖아요. 가령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유지해왔던 어떤 규정들을 지키고, 관습, 의식 등을 지키고자 노력했지요.

문: 관습들이 지켜졌지요.

답: 부모님의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관습 중의 하나로 아버지 장례 후에 아버지의 모든 옷을 태웠던 것을 기억해요. 옷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문: 러시아인 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어요. 순전히 한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지요. 즉 어른들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떤 풍습들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이지요.

문: 가정에서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 집에서는 고려 말을 사용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쉬켄트에서 살았는데 도시 중심가에서 고려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거든요.

문: 고려 말로 교제가 없었나요?

답: 예.

문: 가정에서는요?

답: 똑같아요. 아무도 고려 말을 모르고 있거든요. 가령 어렸을 적에는 아르말리크에 사시는 할머니 품에서 주로 자라며 고려말을 했었어요. 이후에는 거의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문: 자녀들이 고려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 답: 예. 그리고 제 자신도 배우고 싶고, 실제로 고려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 문: 한국어가 단순히 멘털리티는 아닌데요, 한국어가 실제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될까요?
- 답: 모국어이니까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정에서 아무도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습득이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알고 있는 고려 말도 죽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한국어는 고려 말과는 차이가 많지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웃어요. 우리는 조상들이 말해왔던 대로 말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문: 아들은 어느 학부에서 공부를 하나요?
- 답: 큰 아들은 리체이, 정보기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와 관련이 있고, 아들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지요.
- 문: 둘째 아들은요?
- 답: 둘째도 8학년부터 같은 학교, 같은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 문: 사립학교인가요?
- 답: 아니요. 공립이에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문: 일반 보통 학교보다 나은가요?
- 답: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학교는 한인학교거든요. 이 1086 한인민족학교는 시작단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가령 교장인 엄 넬리는 특별한 서류 없이도 신상관련 서류문제로 상황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문: 한국음식을 만들 줄 아세요?
- 답: 몇 가지 음식은 만들 줄 알아요. 가령 <국시>나 <트비차>(두부찌개).
- 문: 두부찌개요?
- 답: 예. 여기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트비차>라고. 하지만 한국음식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 문: 당신의 아내도 한국음식을 잘 만드시나요?
- 답: 잘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미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음식을 배워왔어요. 잘 하는 편이지요.
- 문: 하루에 몇 번이나 밥(쌀)을 드시나요?
- 답: 우리는 이미 러시아화된 사람들로서 매일 밥도 먹고 빵도 먹지요. 특별히 정해놓고 먹지는 않아요.
- 문: 어제의 경우에는 3번 밥을 드셨나요?
- 답: 예. 3번 빵 대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 문: 일반적으로 밥을 드시나요?

문: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무엇인가요?

답: 불고기예요. 한국음식을 좋아해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만드는 음식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문: 자녀들이 한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답: 잘 모르겠어요.

문: 민족이 어디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답: 현 시점에서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지요. 아들들의 선택에 관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족이 어디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나요?

답: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후로 저의 세계관도 변했어요. 저의 자녀들도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양육이 가장 최선의 가정양육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대다수 러시아-한인들의 의견은 아니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문: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양육하셨나요?

답: 어머니께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소비에트 시대였기 때문에, 정직하고 절도 있고 근면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하셨어요.

문: 한국뉴스는 자주 들으시나요?

답: 과거에는 독재체제, 학생시위, 시위진압 모습, 감옥수감 모습 등 부정적인 모습들만 보여주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한국의 모습 등 좋은 모습들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 한국 사람과 러시아-한인 간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까요?

답: 러시아-한인과 한국인 간에는 우선 멘털리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러시아-한인들은 소비에트 형성과정에서 소비에트 체제에 큰 역할을 기여했고,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라났으며,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러시아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단지 민족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 좋은 거였지만 때로는 해롭기도 하지요. 가령 자긍심이 강하다보니 친구를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우리 한인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매우 복수심도 강하고, 한인들의 강한 특성이라 할 수 있지요. 한인들은 성격도 강하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요. 또 돈을 벌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허용받았다 여기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지요.

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용돈을 주세요?

답: 일일 용돈을 주고 있어요.

문: 하루에 얼마나 주세요?

답: 50루블(약2,000원)이요. 평균적으로요.

문: 용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요?

답: 큰 아들은 저축 없이 바로 사용하는 편이고, 둘째는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사용하는 편이에요. 맥도널드 음식도 사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극장에도 다니며 지출을 하고 있어요.

문: 한국에는 가보셨나요?

답: 아니요.

문: 한국영화나 드라마는 자주 보세요?

답: 1-2번 보았어요.

문: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답: 매우 유명한 영화였는데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요.

문: 한국노래도 들으시나요?

답: 한국어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주고 간 노래 테이프를 자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두 개의 찬송가 테이프를 주어서 듣고 있어요.

문: 한국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답: 솔직히 말하면 자긍심을 느꼈어요. 마치 훌륭한 목소리의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하듯이 너무 훌륭했어요. 저도 한민족이잖아요. 한국영화들이 국제적인 영화 페스티벌에서 입상하거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에는 매우 기분이....우리도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피가 흐르는 어쩔 수 없는 한인이지요.

문: 어떤 명절들을 기념하시나요?

답: 양력 새해(설)을 맞이하는 것에 익숙하고, 전에는 2월 23일, 3월 8일, 5월 1일 등의 날들을 기념해왔는데, 지금은 그다지 큰 기념일로 새지는 않고 있어요.

문: 한민족 전통명절들은요?

답: 새해만 새어 왔는데, 최근에는 추석도 새로 있어요. 전에는 추서에 대해서 몰랐고, 모스크바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문: 부모님의 날은요?

답: 4월에 있는데, 특별히 크게 기념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새로 있는 명절들은 주로 즐거운 것과 연관이 되는 날들이었어요.

문: 돌은요?

답: 돌은 반드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결혼식, 환갑, 이 세 가지의 기

넘일은 항상 지켜오고 있어요.

문: 음력으로 설을 맞이해 왔나요?

답: 아니요. 양력으로.

문: 그러니까 설, 돌, 결혼식, 환갑을 주요 명절로 새고 있는 것이네요?

답: 예.

문: 한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 어려움이 있었지요.

문: 일종의 민족적인 민족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를 잘 모르고 있었지요. 우리가 능숙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할 때에는 사람들은 매우 놀라곤 했지요.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엑센트를 가지고 러시아어를 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한인들은 완벽하게 러시아어를 말했거든요.

문: 타타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답: 타타르인들은 뿌리가 튼튼하지요. 그들은 가정에서 오로지 타타르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양육하지만 한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단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콜호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에요. 소비에트 시대에는 모두가 러시아어를 사용했지요. 러시아어는 중심 언어였고 다른 언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가령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즈베크인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 어렸을 적에 가령 청년 모임 같은 한인 모임이 존재했나요?

답: 없었어요.

문: 현재 한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젊은이들의 양육이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요. 기독교적인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저 세속적인 방법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즉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해요.

문: 만일 한국정부가 한인 젊은이들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나요?

답: 어려운 질문이네요.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가령 한국이 북한을 사심 없이 무상원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교회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문: 교회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요.

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도움과 좋은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만일 국가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독립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젊은 학생들이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해요. 또한 한국정부가 이곳의 한인협회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일반 한인들에게는 그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 관련된 사람들만이 그 도움을 느끼고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문: 한국정부가 한인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한국 기업들이 학교에 여러 학습자재들을 기증하고 있기도 해요.

답: 그것은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봐요. 환영해요.

문: 인터뷰, 대단히 감사드려요.

답: 천만에요. 감사해요.

#### ⑥ 미래대학생 박 콘스탄틴 (17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8, 장소: 박 콘스탄틴 할머니 자택)

답(미래대학생): 1990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20세기 초에 러시아에 넘어왔고, 고조할아버지 김백추는 한말 의병이었어요. 할아버지 친척은 콜호즈(집단농장) 책임자이기도 했지요. 우리 가족은 모스크바 토박이들이며, 저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 어느 학부에 들어갈 것인가요?

답: 지질학부 지구물리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문: 왜 그 전공을 택하셨나요?

답: 우선은 할머니께서 지질학부에서 공부를 하셨고, 둘째는 수학, 물리, 화학 등의 자연과학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문: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시나요?

답: 양친 모두 계세요.

문: 부모님들은 한인인가요?

답: 두 분 모두 한인이세요.

문: 현재 누구와 거주하세요?

답: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고 있어요.

문: 남자 형제도 있나요?

답: 형과 누나가 있어요.

문: 부모님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버지는 건축학과 출신이고, 어머니는 의대 출신이세요.

문: 부모님들은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버지는 건축가이시고, 어머니는 의사예요.

문: 종교가 있나요?

답: 예. 정교회에 다녀요.

문: 교회에 나가세요?

답: 예. 여러 교회에 나가는데 보통은 <옥타브라스카야> 전철역에 있는 성 엘레나 교회에 나가요.

문: 목사가 한인인가요?

답: 아니요. 러시아인이예요. 저는 친구와 다니고 있어요.

문: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중간정도의 안정적인 수입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문: 즉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는 것인가요?

답: 매우 만족해요.

문: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택했을까요?

답: 예.

문: 즉 정말로 만족하시는 것이네요. 용돈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답: 액수로요?

문: 예.

답: 잘 모르겠네요. 액수가....

문: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정도나?

답: 200루블(약8천원) 정도요.

문: 하루예요?

답: 예.

문: 하루에 200루블이요.

답: 그 정도 액수로 생각돼요.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문: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많네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답: 교통비에요.

문: 주로요?

답: 주로요.

문: 여학생의 경우에 가령 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데.

답: 아니요. 저는 각종 여러 가지 악세사리나 신문, 잡지구입에 사용해요.

문: 신문, 잡지요?

답: 예.

문: 두 번째는요?

답: 두 번째는 교통비에 사용해요. 나머지는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하  
고요.

문: 집에서 부모님들과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세요?

답: 아니요.

문: 아예 고려 말을 사용안하세요?

답: 저와 식구들은 고려 말을 몰라요.

문: 할머니가 고려 말을 하면 이해하나요?

답: 아니요. 겨우 조금 이해해요.

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답: 예.

문: 언제부터요?

답: 대학 입학 후부터 한국인 친구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문: 부모님들도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답: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문: 어떻게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나요?

답: 좋게 평가하세요. 조국이잖아요.

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답: 역사적인 조국으로서 한국을 사랑하세요.

문: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 처음으로 들으셨나요?

답: 어렸을 적에 할머니로부터 들었어요.

문: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답: 저의 고조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을 지키려고 했던 영웅이었다고 들었어요. 고  
조할아버지는 나중에 러시아에 넘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문: 당신의 고조할아버지는 매우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  
나요?

답: 예.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 그는 장관직을 지낸 분이세요.

답: 한국에서요? 못 들었어요.

문: 못 들으셨다고요?

답: 예.

문: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고, 러시아에서도 임시 정부가 구성이 되었지요. 이때 당신의 고조할아버지도 한국 임시정부 요인이 되어 임시정부의 장관이 되었지요. 따라서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노보데비치 공동묘지를 아시나요?

답: 예.

문: 얼마 전 열친이 죽은 후 그곳에 안장을 했지요.

답: 예.

문: 그곳에 한명의 한인이 안치되어 있어요.

답: 누구이지요? 저의 고조할아버지인가요?

문: 한명의 한인은 바로 당신의 고조부이지지요.

답: 흥미롭네요.

문: 모르고 있었나요?

답: 예. 중요한 인물이었고, 한국의 영웅이었던 것만 알았어요.

문: 이에 대해서 당신의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발간된 고조부 관련 논문들을 보여 주셨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지 고조부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하셨고, 냉전시대를 거치며 알려져 오지 않았었지요.

답: 예. 알겠어요.

문: 따라서 고조부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어요. 당신의 진학과 관련 부모님들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답: 부모님들은 제가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세요.

문: 전공 선택은 강요하지 않으시나요?

답: 예. 단지 수학 계열로 갈 것을 권하세요.

문: 수학은 재미없나요?

답: 예. 순수수학은 재미없지만, 물리나 화학과 함께하는 수학은 매우 재미있지요.

문: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답: 아마도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문: 부모님께서 한국음식은 자주 만드시나요?

답: 거의 매일 만들다 시피해요.

문: 밥(쌀)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답: 거의 매일이요.

문: 매일이요? 밥과 빵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답: 밥은 현미밥, 빵은 흰 빵을 좋아해요.

문: 밥을 더 좋아하세요?

답: 밥을 더 좋아해요.

문: 어제는 세끼로 무엇을 드셨나요?

답: 저녁에는 밥과 시락장물(된장국)을 먹었고, 낮에는 닭고기 커틀렛, 저녁에는 시락장물, 그리고 아침에는 귀리죽을 먹었어요. 국시(국수) 라면도 자주 먹고요.

문: 국시 라면이요?

답: 예.

문: 왜 대학을 다니세요?

답: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문: 과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답: 예. 학문을 접해보고 싶어요. 학술적인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미래의 일에 대해서요?

문: 미래의 일, 삶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답: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고, 여러 나라에서 근무해 보고 싶어요.

문: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으세요?

답: 먼저 한국에 가보고, 이후에 영국과 유럽의 나라들을 가보고 싶네요.

문: 영국에는 왜요?

답: 영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역사와 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문: 언제 가보셨어요?

답: 몇 년 전 8학년 때예요.

문: 어떤 목적으로요?

답: 관광 목적으로 다녀왔어요.

문: 혼자서요?

답: 반 친구들과 함께요.

문: 학교에서 선발해서 보내준 것인가요?

답: 아니예요. 학생들이 지불한 거예요.

문: 민족 간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한인 여성을 원해요.

문: 왜요?

답: 문화도 익숙하고, 어머니께서 항상 한국음식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문: 이미 익숙해 진 것인가요?

답: 예. 익숙함 때문이지요.

문: 부모님은 당신이 한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나요?  
 답: 예. 원하세요.  
 문: 자주 이에 대해 말씀하세요?  
 답: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물어볼 때면 한인 여성이 좋다고 하세요.  
 문: 할머니도요?  
 답: 할머니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 민족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 중요하지 않지만 한인이었으면 해요.  
 문: 관습도 같잖아요?  
 답: 예. 관습도 같고요.  
 문: 세계관도 더 일치하고요?  
 답: 예. 멘털리티.  
 문: 자신이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예.  
 문: 한인으로서 모스크바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답: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러시아인은 매우 다정한 민족이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한민족에 더 익숙해 하고요. 부모님 세대가 더 힘들었었지요.  
 문: 부모님 세대가 더 힘들었다고요?  
 답: 러시아인 민족은 아시아 민족에게 이제 익숙해요. 다른 민족이지만요.  
 문: 어떤 이들은 소비에트 시기에는 다정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답: 아니에요. 지금은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더 적어졌어요. 전에 다른 민족들은 적었었는데, 지금은 한인들이 많아졌고 자신들의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문: 한국 뉴스에도 관심이 있나요?  
 답: 예.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문: 인터넷에서요?  
 답: 예.  
 문: 한국에 가보셨나요?  
 답: 아직.  
 문: 한국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물을 보시나요?  
 답: 러시아어 자막으로 보았어요.  
 문: 주로 어떤 영화를 보았나요?

답: 한국 액션영화였는데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요.

문: 한국노래도 들어보셨나요?

답: 예. 마음에 들었어요.

문: 영화 시청 후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답: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화 속의 드라이브와 액션이 좋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많은 사건이 지나가고, 한국영화는 마음에 들어요.

문: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역사적인 조국으로서 한국을 사랑해요.

문: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답: 예.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준비반에서 한국 학생과도 공부를 해요.

문: 지금 준비반을 다니고 계세요?

답: 예.

문: 그곳에 한국인 학생이 많이 있나요?

답: 같은 반에는 한 명 뿐이에요. 보통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는 한국인이 많아요.

문: 그들에 대한 인상은요?

답: 매우 똑똑해요.

문: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들도 있나요?

답: 아니요. 모르겠어요.

문: 민족으로 한민족의 성격적인 기질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답: 차분하고 지혜롭고,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민족이지요.

문: 공통으로 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공통적으로?

문: 러시아-한인들의 경우에?

답: 아, 러시아-한인들이요?

문: 우선 러시아-한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 러시아-한인들 또한 차분한 민족이지요. 러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민족을 존중할 줄 알고요.

문: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인가요?

답: 아니요.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문: 단지 긍정적인 측면만 있나요?

답: 모르겠어요.

문: 그럼 한국 사람들은요?

답: 한국 사람들 또한 매우 평화롭고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지요.

문: 부정적인 측면은요?

답: 부정적인 측면은 아직 모르겠어요.  
 문: 한민족 의식(가정의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답: 한민족의 명절(기념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문: 어떤?  
 답: 아이가 첫 생일을 맞이하면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잡도록 하지요. 앞으로 아이의 운명을 미리보고자 하는 관습이지요.  
 문: 당신도 그랬나요?  
 답: 예. 저도 무언가를 잡았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책을 잡은 것 같은데....  
 문: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답: 할머니, 제가 무엇을 잡았지요?  
 답(할머니): 학자로 가는 것을 잡았지.  
 답: 책을요?  
 답(할머니): 연필, 볼펜....돈은 안 잡았어.. 이것도 필요하지.  
 문: 그밖에 어떤 명절(기념일)이 있나요?  
 답: 환갑도 알아요.  
 문: 예. 환갑.  
 답: 한국의 새해는 동양식 새해이지요.  
 문: 집에서 기념하나요?  
 답: 예. 기독교식 새해도 한국식 새해도 새고 있어요. 더 기억을 못하겠어요.  
 문: 4월의 부모님의 날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답: 들어보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기념하지 않아요.  
 답(할머니): 이날은 회상의 날이지요.  
 답: 회상의 날이요?  
 답: 회상의 날이요. 더 기억 못하겠어요.  
 문: 추석도 기념하세요?  
 답: 아니요.  
 문: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추수감사의 날이지요. 그리고 음력으로 새해가 있고요. 자신이 한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시는지요? 만일 다른 민족이었다면요?  
 답: 제가 한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다른 민족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단지 다른 민족이었어도 저의 내면에서 아무 것도 변화 주지 못했을 거예요. 한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문: 언제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셨나요?  
 답: 한국의 학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는 자긍심을 느껴요. 한국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에는 항상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문: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는요?

답: 안타깝고 우울해요.

문: 인터넷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한국인 친구들이 있나요?

답: 아니요. 하지만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는 있어요. 그는 자주 한국에 다녀오고 곧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답(할머니): 준비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니?

답: 예.

답(할머니): 그 학생 이름이 뭐니?

답: 이제웅이요.

문: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으시나요?

답: 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문: 한인 학교는 다니지 않았나요?

답: 형은 다녔었는데, 저는....

문: 형이 있는지 몰랐네요. 누나와 당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답: 형은 23살이에요.

문: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바라세요?

답: 확대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교환도 확대되면 좋고요.

문: 현재 이 분야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답: 예.

문: 해외한인 젊은이들을 위한 교제 사이트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 예. 있다고 봐요. 한 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출신의 한인 젊은이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문: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이미 있었나요?

답: 예. 있어요. 교제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교제가 일어 졌으면 해요.

문: 저에게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

답: 예. <한인청년사이트>라고 불러요.

문: 모스크바에 한인청년협회나 단체가 있나요?

답: 특별히 그런 집단적인 것은 없어요. 때로 한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만나곤 하는 정도이지요.

문: 참여해 보셨나요?

답: 한번이요. 주로 러시아-한인 젊은이들이 모였었어요.

문: 제가 듣기로 전에 전러고려인연합회 산하에 한인청년단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답: 지금은 없을 거예요.

문: 그 이유를 아세요?

답: 몰라요.

문: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답(할머니):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노인협회는 있어요.

문: 러시아-한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모스크바 한인 젊은이들에게 스킨헤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매우 염려스럽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 예. 안타까워요.

답: 예. 지금은 당국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어서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문: 그 외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답: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저는 이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봐요. 만일 사람이 좋고 지혜롭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답(할머니): 문제는 대학 교육기관에 진학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답: 예. 교육 분야에 문제가 있어요. 대학 입학에 준비하고 진학해야 하지요. 이것은 문제는 아니고 목적이지요. 이후에 삶 속에서 자리가 생기겠지요.

문: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요.

답: 예.

문: 또 좋은 여자 친구도 필요하고요.

답: 예.

문: 한국의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도움 분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교환, 한국 방문, 한국 문화알기 등의 분야에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받기를 원해요.

문: 만일 기회가 와서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답: 초청해준다면 한국에 갈 거예요.

문: 한국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세요?

답: 예. 여러 가지 역사 서적들을 읽고는 있지만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문: 한국의 역사 관련 좋은 서적들이 있어요. 저자 티호노프의 책이지요.

답: 티호노프요?

문: 그는 러시아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학자가 되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역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자

신이 한국 역사를 쓰기도 했어요.

답: 예. 좋네요.

문: 한국문화(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삶 속에서 도움이 되나요?

답: 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조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흥미 있어요. 삶 속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요.

문: 한국어 습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까요?

답: 물론이지요. 한국인과 만나게 되면 그와 더 잘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한국어를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갖고 있지 못해요.

문: 러시아인과 러시아-한인 친구 중에 누가 더 많나요?

답: 러시아-한인 친구들은 아주 많아요. 또한 러시아인 친구들도 있고, 그루지야인 친구들도 있어요.

문: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이지요?

답: 그루지야인 친구예요. 물론 가까운 친구로 러시아-한인 친구도 있어요.

문: 즉 당신에게 있어서 민족 구분은 중요하지 않네요?

답: 중요하지 않아요.

문: 한국음식을 만들 줄 아시나요?

답: <밥차이>를 만들 줄 알아요.

문: 들어는 봤는데, 어떤 음식이지요?

답: 국의 일종인데요, <차이> 안에 감자, 양파, 고기 등을 넣어 만들어요. 마치 <시락장물>같은 것인데, 단지 안에 <씨레기>, 즉 배추가 없어요.

문: 예. 그렇게 만들어요?

답: 예. 그 외 야채샐러드를 만들 줄 알아요. <당근채>도요. 이미 러시아 샐러드라고 할 수 있지요.

문: 집안이 언제 이주해 왔다고요?

답: 20세기 초에 고조부께서 이주해 오셨어요. 어머니 친척들과 어머니는 강제 이주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요. 이후 어머니는 이곳으로 오셨지만 친척들은 그곳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문: 부모님은 서로 어떻게 만나셨어요?

답: 어머니께서 모스크바에서 의대에 다니고 있을 때, 이미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한인 레스토랑에서 만나셨어요.

문: 한인 식당에서요?

답: 예. 주인이 아버지의 지인이셨는데, 그분이 부모님을 서로 소개시키셨지요.

아버지께서는 매우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셨거든요.

문: 당신은 한국식당에 자주 가시나요?

답: 예. 자주 가요.

문: 왜 지질학을 택하셨어요?

답: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문제는 매우 당면한 과제이거든요. 각종의 재앙과도 같은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요. 적어도 러시아와 한국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예요.

문: 매우 흥미로운 테마네요. 이에 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문: 보통 러시아-한인 학생들,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부지런해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학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모두가 다양하게 학부를 진학해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문: 학교에 당신 외에 한인들이 또 있나요?

답: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한인 친구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문: 즉 당신 외에 1-2명의 한인 친구가 있는 셈이네요?

답: 학교에 전체적으로 약 10-15명의 한인 학생들이 있어요.

문: 러시아인 여성들은 한인이나 아시아권 사람들과 알고지내고자 하나요?

답: 예. 아시아권 남성들을 갈색인종으로서 흥미 있어 해요.

문: 왜 그렇지요?

답: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국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문: 점잖기도 하고.

답: 예. 점잖기도 하고. 한인 젊은이들은 모두가 매우 소박하고 점잖고 신사적이거든요.

문: 한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러시아인 여성과 한인 여성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그들이 좋다 나쁘다는 말하지 않겠어요. 단지 더 한인들이 익숙하지요. 우리의 세계관은 서로 일치하고 생각들도 매우 비슷하지요. 러시아인이나 다른 민족들의 생각과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하다고 할 수 있지요.

문: 더 구체적으로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답: 차별함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

답(할머니): 더 가정교육이 바로서 있다는 것도 들 수 있지요.

문: 만일 여자 친구가 생긴다면, 러시아 한인과 한국인 중 누가 더 좋을까요?

답: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랑에 달려있겠지요. 여자 친구를 위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여자 친구는 나를 위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공통 언어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 만약 그녀가 러시아어를 잘 한다면?

답: 그녀가 러시아어를 그다지 잘 하지 못한다 해도 상호이해는 어쨌든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상호간의 이해가 생겨날 것이라고 봐요.

문: 이는 개인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나요?

답: 예. 성격도 비슷해야겠지요. 그리고 사랑도....

문: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북한은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지요. 멘털리티도 다르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서 있겠지요. 이는 그들의 권리이지요. 그들만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북한도 존중해요.

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좋은 일이지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마다 어울리는 우방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지요. 서로 간에 잘 어울린다면, 남북한도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가령 북한은 주로 러시아와 어울리고, 남한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어울리고 있잖아요. 만일 모든 국가들이 서로 서로에게 잘 대하고, 국제민족주의적인 우정이 존재하게 된다면, 남북한도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요.

문: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젊은이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실래요?

답: 한국에 가서 그곳의 풍습과 멘털리티를 보고 싶고, 또한 한국에서만큼 러시아에서는 역사적인 조국을 그렇게 느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느껴보고 싶어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육을 받고 반드시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한국을 둘러보고 싶고, 아마도 혹시 그곳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답: 저도 감사해요.

### ⑦ 1086 한인민족학교 교사 전 마이나 (60세)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19, 장소: 1086 한인민족학교 한국어 교실)

문: 저는 한국에서 선생님과 인터뷰하러 온 고가영입니다.

답: 제 이름은 전 마이나입니다.

문: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과 가족은....

답: 저는 북한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출장 중이시던 1947년 5월에 태어났고,  
아홉 살 때 모스크바로 돌아왔어요.

문: 북한은 어떻게 기억 속에 남아있나요?

답: 조금 남아있어요. 깨끗한 거리, 가난한 사람들.

문: 무엇이 가장 좋았나요?

답: 그냥 전쟁 나고, 50-53년, 3년 동안 전쟁....

문: 47년에 태어나셔서 아홉 살이면....

답: 56년에 돌아왔어요.

문: 힘들셨겠네요. 한국전쟁을 북한에서 겪으셨네요. 56년에 모스크바로? 아버지  
지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답: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 형제는 몇 명이나 있나요?

답: 5명이요. 그리고 두 명의 오빠가 있어요.

문: 오빠 두 명이요? 또?

답: 그리고 누이 5명. 저까지 포함해서.

문: 그러면 오빠 두 분과 누이 다섯,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녔나요?

답: 예. 3학년은 여기 시골에 나가서 다니고, 4학년부터 모스크바에서 다녔어요.  
가난해서 졸업하고,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저녁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문: 낮에는 어떤 직장에 다니셨나요?

답: 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문: 선생님은 유치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답: 예.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었어요.

문: 낮에는 직장을 다니시고.

답: 저녁에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문: 직장은 어떤 직장?

답: 기술연구소(인스티투트)요.

문: 기술연구소에서 일하셨어요?

답: 예.

문: 어떤?

답: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기술공으로 시작했어요.

문: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답: 고등학교 졸업이고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좋은 직책은 못 얻었어요. 신임을 못 받았어요.

문: 그러면 기술연구소에서는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답: 화학 기술이요.

문: 대부분 한인은 수학, 화학, 물리 등의 전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답: 없어요.

문: 실제적인 유용성 때문인가요?

답: 이미 90년대에 다 문을 닫았지요. 소련이 무너지고 다 떠났어요.

문: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시고 어디서 일하셨나요?

답: 열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어요.

문: 가르치셨어요?

답: 아니요, 그냥 기술자로.

문: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한국어 교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답: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 학교를 설립하고 선생님들이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문: 몇 년도부터?

답: 94년도부터요. 91년도부터 제가 목사님이랑 일했어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분이셨어요. 부산에 사시다가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 분과 3년 동안 일했지요.

문: 그 분 성함이?

답: 김시경 목사.

문: 통역하셨나요?

답: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통역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그 분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문: 한 번 봤어요.

답: 그 분은 미국과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대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뭐하시는지는 몰라요.

문: 그 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답: 교회에 다니셨어요?

문: 6개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미국에 계셔서. 목사님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답: 그 분 없이. 이걸 전부 우리가 조직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이 학교 건물 1층에 있었어요.

문: 어떤 학교요?

답: 이 학교요. 이 학교 1층이요. 지금은 한인 학교가 있는....거기 1층이 사무실이었어요. 주일에 예배는 2층에서 드렸었지요. 여기가 거기에요. 이걸 다 우리가 조직했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과 3년 동안 일했어요.

문: 92년도에 학교가 있었어요?

답: 이 학교가 92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셨고, 그 후에 다른 회사들도 건물에 들어왔어요. 회사든 뭐 다른 것이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분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 목사님과 일했어요. 우리가 같이 벨라예프에서 부지도 물색하러 다니고. 결국 빌리기로 결정을 했지요.

문: 예. 제가 거기 있었어요. 코뮌니스치체스키인가 뭐가....

답: 맞아요. 그렇게 불렀었어요.

문: 거기 정말 친절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분이 건물을 돌보셨는데.

답: 그럼 그 분도 기억하시겠네요. 박....그 분은 카잔 음악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키 크시고. 박태....뒀었는데, 제가 잊었네요.

문: 전도사님.

답: 아, 그 분은 크라프첸코에 사셨어요.

문: 아, 기억해요.

답: 그 분들도 여기 계셨어요. 그 분도 떠났어요. 아내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셨고요. 한국으로 가셨어요.

문: 우리가 그 아파트에 세를 살았었지요.

답: 그 분들이 떠나시고 안순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분도 아세요? 3년 동안 그 목사님하고 알고 지냈는데....

문: 그럼 3년 동안 목사님하고 일하셨나요?

답: 예. 3년이에요.

문: 94년도부터 이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답: 예. 언니의 부탁으로. 조금만 일 한다는 게 13년이 되었어요.

문: 그럼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답: 전공은 기술이에요.

문: 이 일이 마음에 드세요?

답: 예.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문: 한국어 공부요?

답: 러시아 학생들이 한인들 보다 더 잘 해요.

문: 왜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답: 왜냐하면 1학년부터 한국어, 영어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하는 걸 바라잖아요. 한인학교니까 한인들을 쫓아내지 않지요. 아세요? 완전히 의식 구조가 달라요. 러시아인들은 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한인들은 반대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부모님들의 의식이에요.

문: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이 학교를 선택한다고요?

답: 예. 스스로 찾아와요.

문: 그런데 한인들은 그런 상황....아주 재미있네요.

답: 예.

문: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한인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답: 다 받아줘요. 거절하지 않고. 하지만 러시아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학생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 반에서도 러시아 여학생이 있는데 발음도 더 좋아요. 물론 우리도 발음이 안 좋지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기억이 나요.

문: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답: 예.

문: 몇 번 정도 가셨나요?

답: 처음에 94년에, 96년에, 98년에, 2004년에. 처음에 가서 올기만 했지요.

문: 왜요?

답: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자기 모국방문 못하고 있는데....그 대신에 제가 보고 있으니 아주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문: 부모님이 많이 가고 싶으셨어요?

답: 예. 옛날에....우리 고향은 강원도 동쪽이에요.

문: 고향에 가보셨어요?

답: 못 갔어요.

문: 다음번에 가보세요. 94-96년에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셨어요?

답:.. 예. 94년에 한번, 2004년에 두 번 받았어요.

문: 기간은 얼마 동안?

답: 3주 동안이요.

문: 한국어 교육을 받으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답: 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마지막 2004년에 새벽 3시까지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년생 중에는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이 수업 함께 하고....아주 차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졸업도 하고,

우리는 그냥....

문: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답: 바로 기억은 안 나네요. 저는 98년도에 벨리 니콜라예브나랑 같이 갔었어요.

문: 벨리 선생님이 장녀세요?

답: 아니요. 언니가 2명 더 있어요.

문: 2명 더 있으세요?

답: 예. 첫 째 언니 한 명은 돌아가셨고, 둘째 언니가 살아계세요.

문: 그럼 그 분이 셋째시고요?

답: 예. 셋째요.

문: 그럼 마이나 선생님은요?

답: 저는 다섯째예요.

문: 학생들은 몇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시나요?

답: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문: 조금 전 수업은 보충수업이었나요?

답: 아니에요. 이건 수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해결할 수 없는지....외국인들 같아요. 그 남학생은, 우리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당황해요. 이런 질문에조차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혼혈이거든요. 아버지는 한인이고 어머니는 타타르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문: 만약 반대라면 말을 잘 할 텐데요.

답: 언어를 해결하려면 시를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옮겨 적을 줄도 알아야하지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기억한 것을 말하고....

문: 말하자면 실습인가요?

답: 예. 실습이에요. 참 어려워요. 저도 다 이해하는데 가끔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쉽지 않은 언어로 질문을 하면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러시아어로 말할 때도. 그런데 외국인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문: 왜 그렇게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노력을 하셨어요?

답: 왜냐하면 첫째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한국어 자음, 모음을 아는데 저는 모르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 아이들은 어디서요?

답: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다녔어요.

문: 어떤 학원이지요?

답: 교회에서 운영하던....

문: 교회요? 제가 거기 선생님이었는데...

답: 아, 누가 있었나요?

문: 조운철, 이인기 선생님 다음에...

답: 제 딸은 5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다녔어요. 저는 어른 반에 들어갔고, 딸 아이는 아이들 반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때부터 딸아이는 한국어에 심취했어요. 내 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매력 있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노력한 겁니까? 딸은 한국 회사 LG, Lotte에서 초청을 받아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서울대 졸업장이 있어도 여기 러시아에서는 평가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스크바에서 다시 대학을 졸업했어요. 작년 9월에 루데엔(Руден)을 우수학생으로 졸업했어요.

문: 장한 딸이네요.

답: 그리고는 또 국제 자격증을 따겠다고 영어를 공부하러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일은 안하고 공부만 하겠대요. 공부 하는 게 좋은가 봐요.

문: 교수님이 되셔야지요.

답: 아마 뭐 교수가 되겠지요. 나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말로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지?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은 왜 이 초급반에 있느냐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수준이면 고급반으로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괜히 거기 갔다가 망신만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2년을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한한호 선생님께 1년, 그리고 전인철 선생님께 1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3년째 박시경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주로 회화를 배웠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에 가서 말을 해 보니까 말이 들리지도 않고...발음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되었어요. 목사님과 3년을 일하고 나서....

문: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답: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딱히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단지 기술은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어떤 텍스트를 받았어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떤 단어가 새로운 단어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사전에서 찾고, 그리고 나니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내용의 텍스트를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쓰인 것을 눈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점이 어려워요.

문: 지금은 있나요?

답: 여기에는 없어요. 서울에 주문을 해야지요.

문: 여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없나요?

답: 아직 없어요.

문: 한국어를 배우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답: 예. 많이 도움이 되죠.

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되나요?

답: 예. 주로 진학을 하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 나가요.

문: 몇 퍼센트나 그렇지요?

답: 저는 잘 모르고 벨리 니콜라에브나가 알고 계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고 교사 자격을 갖추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학생이 약 10정도 되요.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해요. 저는 항상 한국은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노력과 인내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문: 학생들이 한국 영화나 노래 좋아해요?

답: 예.

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답: 그럼요.

문: 학생들이 보통 어떤 직업이나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답: 글썄요. 학생들이 옛날에는 저는 의사가 될래요, 비행사가 될래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네요.

문: 왜 그렇지요?

답: 글썄요.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자기는 서울대학 교수가 되겠대요. 그리고는 농담처럼 서울대학 교수가 되겠다더니 공부하러 서울대학으로 떠났어요.

문: 아이들에게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답: 글썄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참 흥미로워요. 뭐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복잡한 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어려움도 없지요. 물론 잘 인내하고 유능한 아이들도 있지요. 이런 아이들은 뭔가 결과를 내고 학교를 졸업해요. 그런 학생들은 이미 어디에선가 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지금 5~6학년 학생들

을 보면 그런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 만약에 한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답: 어떤 도움이요? 제 생각에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다양한 의식구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문: 보통 부모는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답: 초급 학년 부모님들은 아직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5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있는데, 초급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일하러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시지요. 학생들은 1시 10분에 수업이 마치면 점심을 먹고 좀 놀다가 다시 학교에 와서 숙제를 해요. 이 그룹은 저녁 7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요. 일터에서 돌아오시면서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가족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이가 좀 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짓말도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공책이 아닌 다른 곳에 적어놓으면 부모님이 공책을 보셨을 때도 숙제가 적혀 있지 않으니깐. 아, 이 과목은 숙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 점들이 문제지요.

문: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 저는 답임을 맡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교사로서 볼 때....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했으면 친구들에게 서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아무도 숙제를 하지 않은 채로 학교에 와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어요.

문: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군요?

답: 그렇지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떤 과목 숙제를 안했다고 하면 다 같이 안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에 오면 당연히 선생님은 화를 내시지요. 그렇게 수업을 반 정도 진행하면 벌써 벨이 울리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돈벌이를 나가셔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집안의 많은 아이들이 집에 거의 버려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시각이면 벌써 아이들은 자고 있지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이 잘 때 부모님이 나가시고요.

문: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지요? 예전에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답: 없었지요.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했고, 바로 집으로 갔지요. 지금은 돈을 더 번다고 사람들이 다들 늦게까지 일을 해요. 능력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문: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학교에서는 학급의 선생님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이 학교에는 모스크바의 전 지역의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전화를 하죠. 모스크바도 서울처럼 큰 도시잖아요. 두 시간 걸리는 아이는 도착을 했는데, 한 시간 반 걸리는 아이가 도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단속이지요. 다른 학교는 8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9시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모스크바의 전역에서 통학하는 것을 고려해서 당국이 우리 학교 수업을 9시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고 있다면....이런 일 역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문: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 사회문제기도 하고 민족문제이기도 하지요.

문: 학생들이 고려인으로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인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놀렀나 봐요. 눈이 작은 중국인, 일본인, 한인....이런 식으로.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은 없지요. 교육을 시키니까.

문: 모스크바에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였나요?

답: 모스크바에서요. 나도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며 자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문: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답: 달랐죠. 그 때 사람들은 훨씬 지적이었어요. 지금은 교육받지 못한 이들이 많죠.

문: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우리 때에는....저도 학교에서 유일한 한인이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그런 문제로 동료들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를 해주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멍이 들어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문: 따님이 힘들었겠어요.

답: 어려웠겠죠. 하지만 잘 견디어냈어요.

문: 학교 외부에 한인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까?

답: 학교 내에는 있어요. 그런데 학교 외부에는....예전에 모스크바 한인협회 내에 청소년 그룹과 성인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 그룹은....

문: 왜 그렇게 되었지요?

답: 이유는 모르겠어요.

문: 하지만 성인들은요?

답: 있어요.

문: 청년들보다 활발한가요?

답: 예전에 90년대에는 협회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는데, 지금은 좀 약해졌어요.

문: 왜 그렇게 되었나요?

답: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희망(생각)이 있으니까요.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장소에서 모이고 담합이 되었는데, 지금은....

답: 협회 안에 여성 그룹도 있었어요. 넬리 니콜라예브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전화를 하면 바로들 모였죠. 지금은 한국 식당이 있지만 그 때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식당에 가면 되니까요. 이제는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도 해요.

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군요.

답: 어렵네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문: 성인 그룹도 청소년 그룹처럼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답: 없어요.

문: 그런데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인그룹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셨으니 이해가 됩니다만, 청소년 그룹은 왜 없는 거죠?

답: 어딘가에 그런 그룹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옛날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그룹이 홀을 빌려서 따로 설날 파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문: 의식이 변한 거군요. 예전에는 민족적인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걸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같네요.

답: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에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인들 모두가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그런 희망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문: 마이나 선생님의 자녀들은 다 결혼하셨나요?

답: 아들이 현지 한인과 결혼했어요.

문: 한인 학생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저는 반대해요.

문: 왜요?

답: 결속이 어려워요.

문: 왜지요?

답: 풍습이나 전통이 다르니까요.

문: 만약 마이나 선생님의 딸이 러시아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면요?

답: 저는 반대하지 못할 거예요. 제 딸은 한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곳 한인들에게는 아주 냉담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배워도 안 된다고 말하곤 하지요.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하면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공부를 너무 오래하지 말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하곤 해요.

문: 러시아인이든 한인이든 배우자를 찾기는 힘들겠는데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 무엇이 필요한가....어떤 이야기 문학 서적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 영화가 필요하지요?

답: 예. 영화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문: 영화는 있나요?

답: 영화는 없어요.

문: 아예 없나요?

답: 없죠. 하지만 다른 본문이 필요해요. 영화에서는 놓치는 것이 많죠.

문: 처음에는 영화를 보여주고....

답: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고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말을 하게 되요.

문: 그러니까 교재가 부족하군요. 한인 학생들이 다른 민족 러시아인 학생들과 잘 어울리나요?

답: 예. 문제는 없어요.

문: 학생들은 영화나 노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답: 예.

문: 한국에 대한 영화는 없나요?

답: 영화 유치원에, 여기 한국학교 유치원에 있어요. 테이프를 보여주죠.

문: 테이프도 부족하지요?

답: 예.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여기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문: 한국에는 많아요.

답: 예. 한국에는 많지요. 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 전부 다 가져오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여기 있는 것들도 벨리 니콜라예브나가 한국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저도 이렇게...저는 안타깝게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아이들 사전들....저기 더 두껍고 무거운 사전들도....

문: 혹시 우리 연구소나 정부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답: 먼저 한국으로부터의 큰 도움은 절실해요. 한국정부와 당국에서 전해주는 선물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있는 것들로 일단 해나가고 있습니다만...모든 게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문: 정말 감사합니다.

⑧ 모스크바 1086한인민족학교 교장 엄넬리 (68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고가영, 일시: 2007.5.20, 장소: 교장 집무실)

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답: 저는 4대입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강원도 영월에서 처음으로 그 두만강을 건너면서 배타고 여기 러시아로 넘어왔죠.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다 극동에서 태어나고 저는 40년생이니깐 37년 이후 태어났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그래서 우리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고려인들 극동에서 스탈린 시대에 중앙아시아 그 모래벌판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루어나가고 거기서 부모님들 그 교육 받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지요. 그 후는 음...

문: 어, 중앙아시아 캅크리에트나(자세하게) 타쉬켄트?

답: 저는 페르가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서 태어났는데...우즈베크 공화국인데 페르가나, 도시 이루는 그 페르가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이하 계속 학교)는 모스크바에서 졸업하고 제 2, 여기는 다 번호로 있지 않습니까? 제 2고등학교, 제 2고등학교는 수학학교입니다. 수학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범대학, 모스크바 사범대학, 사범대학 졸업하고, 수학과로 수학과로 가야 될 거. 저는 생물학과 졸업했어요. 생물지리학과.

문: 아, 몇 년도에 모스크바로 오신 겁니까?

답: 56년도에 여기 와서 5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65년도에는 대학 졸업했어요. 그 처음에는 학교 졸업하고 1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로 계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이 6명입니다. 6명이니까 아버지만 돈 벌고 계시는 거니까 식구가 많으니깐 좀 이렇게 가난한 생활 했죠. 그래서 딸들은 남자들은 군대생활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우리는 2년 동안 가정에 봉사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일해야 될 거 1년만 일하고 어머니 모르게 침대 밑에서 공부하매 대학교 붙었어요. 그때는 대학이 입학시험 치자면 아주 어려운 시대지만 제가 대학에 우수 점수를 다 맞

아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많이 욕했지만 아버님은 다른 아이들은 대학에 붙지 못해서 가정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니깐 공부하게 놔두라고. 그래서 제가 1년만 일하고 대학에 갔죠.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65년도부터는 180번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이로 있고, 그리고 72년도부터는 77번 학교에서 교감으로 있고, 72년도부터... 그리고 75년도부터는 제 930번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살에 제가 벌써 교장으로... 그리고 쭉 그때부터 이때까지 일반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다가 구소련 시대... 뭐라 해요? /와해/ 무너졌다 해요, 어떻게 해요, 무너진 이후는 민족들마다 자기 민족 해체를 조직하며, 제일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언어 소련 시대에는 우리 다 러시아 말만 하며 다른 말 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말 잘 했지만 한국말 못하게 하니깐 러시아말만 했지요. 그래서 37년도 이후는 뭐 대학이고 학교고 뭐고 한국말 배우는 그 교육 장소를 다 없애 치웠지요. 말을 못하게 하니깐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뭐 배우지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언어란 건 자꾸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구소련 시대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91년 이후는 민족마다 자기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 언어교육을 많이 시키자고 애를 썼어요. 그 시대에 92년도, 우리 고려인 협회는 89년도에 설립했지만, 92년도에 제가 이 새로 건물 지어놓고 /92년도요?/ 모스크바에서 시교육청에서 새 건물 여기 정해졌으니까, 제가 여기 아침에는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일찍이 장화신고 건축하고, 학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는가, 의논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2년도에 오픈식하고 아이들 언어 교육을 그 시킬 목적으로... 민족학교를 설립한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애국심하고 혼을 받아가지고 말은 모르지만 소수민족으로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도 그렇고 여러가지 모양이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부모님들 생각에는 꿈에라도 모국 땅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구, 그리고 죽으면 좋겠다는 그 말도 자주 생각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는 러시아에서 살지만 그래도 너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그렇고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민족 대표로서, 여기 모스크바만 해도 180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너들 다 민족대표로서 일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일하면서 어..잘했어요. 잘하니깐 77년도에 제가 레닌 훈장 받고, 그리고 우수 선생님, 우수 교장,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

고 작년에는 제가 우수애국훈장 2등 받고, 그런데 저는 목적은 부모님들 말씀 따라서 훈장받자고 제가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다.

문: 아, 우수애국훈장은 한국정부에서?

답: 아니요. 러시아에서, 푸틴대통령한테서 받았어요. 민족대표로서 제가 열심히 하고보니까 훈장도 받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대통령 콩쿨해서 우리학교가 이겼어요.

문: 1등으로요?

답: 1등은 아니지만 뭐 몇 개가 뽑히는 학교 중에서 제가 우수, 러시아 우수학교로 뽑혔습니다.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육을 시키자니까 물론 첫째로는 학교 설립한 목적은 우리 잊어버린 언어 아이들 가르쳐주자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알아야 된다고, 물론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뭐 공부에는 한국말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자기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한국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92년도까지는 한국말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사용하는 교과서를 갖다가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말 배우고 노래도 많이 단어를 외우느라고 많이 그 뭘니까? 배우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말 배우기 위해서.

문: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답: 뭐 겨울연가, 가을동화, 여름향기, 슬픈 연가, 뭐 천국의 계단, 올인, 많이 봤어요.

문: 저보다 더 많이 보셨네요.(웃음)

답: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보니까 대화를 한국말로 하자면 그래도 드라마를 보며 한국말 켈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 교민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만약에 한 장소에 한 500명 있는 데서 보면 한국말 아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보는 것도 부모님들은 물론 한국말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르니까 어렵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 뭘니까, 사투리 말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면 표준말 배워줘야 되겠는데 선생님들 표준말 잘 대화, 안 쓰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우리 그 양정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 와서 그 학교 교장이가 나와서 같은 엄씨입니다. 그분이가 국어 선생님을 여기다가 겨울 방학 적에 몇 번 보내서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하고 한글 교과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말 잘 모르니까 100개 이상 책을 갖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그림하고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나는 교

과서를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잘 이렇게 만들어(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를 우리가 만든 교과서를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문: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답: 예, 11학년까지...

문: 그때는 1학년 것만...

답: 아니,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 있어요. 음, 교과서를 만들고 보니까 뭐 말하기하고 쓰기는, 말하기는 잘 안되고, 쓰기하고 받아쓰기, 읽기는 잘 되는데, 말하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교류 관계로 양정학생들은 우리 학교로 오고 우리는 양정학생들 집에 가서 민박 시키니까 그 가정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민박하는 동안 한국말 교육을 잘 받게 되는 거...

문: 그거는 몇 년부터...

답: 그거는 구십... 96년도부터인가? 여기 어디 그 교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양정고등학교하고...교과서도 1학년 꺼만 아닙니다.

문: 아, 98년도?

답: 교과서도 1학년, 2학년, 여기 7학년...다 있어요. 학년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우리 학교 마크를 하고, 여기다가 모스크바 103...

문: 지난번에 1학년 것만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어요.

답: 그래서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1학년까지...그리고 러시아 교육청에서 우리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할 적에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한국어 시험 봐요. 한국어 시험을 봐요. 물론 다 이거 따라 못가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9번까지 배웠어요. 1학년 그러니까 이거 다 있잖아요. 노메르(권), 8권, 2권, 뭐 9권 해가지고... 1학년 책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학년 뭐 3학년, 4학년, 그렇게 노놔서...(나눠서...)

문: 9번까지 나와 있나요?

답: 아니, 11번까지 나왔어요. 11번. 그래, 거기다가 내용적으로는 뭐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전통도 배우고 그리고 뭐입니까, 여기 뭐 아버지날이면 여기 동화책을...뭐 추석이면 추석에 대해서 뭐 설날이면 설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체르뷰(인터뷰)도 할 수 있게 서로 서로 대화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책에 보면 노래도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말 배울 적에 노래를, 한 가지 노래를 배우면 서른두 가지, 서른 개 까지 단어를

외울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보면 뭐 전통 음악 인스트루멘틱(악기), 가야금, 팽과리, 뭐 북 그거 다 아이들 알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글 만든 사람 누구, 또 뭐 삼일절 행사 누구, 여기 여러 가지 보면 노래들 많잖아요? 내가 골라서 아이들 제목으로 알 수 있게 가르쳐주지요. 근데 아직도 프라블레마(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읽는 건 잘 읽어요. 근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받아쓰기도 잘 쓰고, 근데 말을 하라 하면 입을 열지 못해요. 프락치카(실습기회) 없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말 안하다가 한국에 가면 한 이틀 삼일동안은 말하기 어려워요. 이틀 삼일 지나 가구야 한국말 좀 나오죠.

문: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시나요?

답: 일주일에 수업은 초등학교 학생들 2시간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3시간해요. 그렇지만 수업시간 외에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해요. 수업 외에 특별 활동 하는데 한국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더 배우고, 또 한국 무용, 예, 그리고 한국 노래, 그리고 따로 또 한국 전통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가르쳐줘요. 말하자면 설날에 세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세배 드리는 모습, 식사 드릴 적에 어른들한테 어떻게 드리고, 어른들 위해서 말씀할 적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두 손으로 이상사람한테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다 가르쳐줘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부터는 특수수업도 해요. 그러지만 아직은 러시아말로 하죠. 앞으로는 한국말로 해야 되지요. 전통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할머니들은 설날에 뭐라 할까요, 기뻐서 울면서 고맙다는 전화를 나한테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녀들한테서 세배를 못 받았는데, 증중손녀, 손자한테서 세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이 날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할 적에는 교육이란 거는 여러 가지로 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설날, 추석, 어버이날 그 행사를 꼭해요. 그 행사할 적에는 아이들하고 음식 공부를 해요.

문: 아, 학교에서요?

답: 예, 학교에서. 그래서 제일 잘하고 맛있게 한 아이들 뽑혀 와서 그럼, 너는 네가 아주 음식 하는 솜씨가 좋으니까 내일 설날인데 할머니한테 제발, 할머니들 오는데 제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 할 적에 할머니들 오잖아요. 70세 이상 되는 할머니들, 손자들 우리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안 공부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아이들 그 5

월 달에 우리 4월 말일에 내가 한국에 가니까 4월 말에 우리 어버이날 행사했어요. 그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자기 만든 식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오친 고르더스치..(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할머니들도 이거 나의 손자, 손녀 만든 음식이니까 할머니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모여서 옛날 민요, 노래들 배우고 도라지도 그렇고 그리운 금강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래를 제가 테잎을 많이 갖다가 그리고 티비에서 하는 가요 있잖아요? 가요 디스크를 그거 틀어놓으면 할머니들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1년에 세 번은 그 행사를 제가 해요.

문: 1년에 세 번요?

답: 예, 설날, 추석, 어버이날,

문: 그러면 그 때 오시는 할머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프리메르나 스콜카(약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답: 한 100명부터 시작해서, 100부터 160명까지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4월 말일에는 5월까지 해서 다차(별장)에 나간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많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만 제가 초대해요. 200명쯤 올 적에는 좀 진짜 어려워요. 우리 고려인들 위해서 행사해야 되지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숫자를 좀 줄여요, 제가.

문: 그 학교에 총 학생은 몇 명 정도?

답: 한 700명. 그러지만 민족학교 중에서 우리 켈 큰 학교입니다. 켈...(중단) 유대인 320명 그리고 우립니다.

문: 우리가 켈 크고, 그 다음에 유대인...

답: 예.

문: 3위는요? 트레치에 메스터(3위)?

답: 트레치에 메스터(3위)는 아제르바이잔스카야 쉬콜라(아제르바이잔 학교) 270명

문: 그러면은 일반적인 러시아 쉬콜라는?

답: 일반적인 러시아 쉬콜라는 1,000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고 더 적은 학교도 있어요. 우리 여기 길 건너는 320명입니다. 일반학교. 아이들 적으니까 지금은 한국보다는 달리 우리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아이들 선택합니다. 어느 학교로 갈 꺼. 올만 우리 초등학교 우리 입학 시켰는데, 러시아 아이들만 뽑히잖아요. 우리 교민아이들은 제가 개들 위해서 설립한 학교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문: 아, 교민들은 다 받아주고?

답: 다른 민족들은 콩쿠르스(자격시험) 있어요. 한 50민족 이상 있어요. 우리 학

교에, 이상 있는데. 어떤 때는 10대 1, 13대 1, 올해는 7대 1이 되었습니다.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뽑혀 와서.

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근처 아파트 값이 이 학교 때문에 제일 비싸다고.

답: 옛날에는 데모도 하고 창문도 많이 마수고(부수고) 그랬는데, 설립 반대하느라고. 지금 오자고 하는 아이들 많아요, 여기서. 웬(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 손잡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자고 시험 보느라고 왔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지. 왜 학교 설립할 적에는 데모도 많이 했는데, 할머니, 왜 손자를 우리 학교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뭐 학교 비쌌(높다.) 아주 높아지니까 여기 오자고 선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다들 받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특히 고려인들 중에서는,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키르기지야, 북 카프카즈, 그리고 사할린 쪽에서도 우리 교민들 여기 모스크바로 많이 이사와요. 그러니까 개들 공부하기 쉽고 하니까.. 옛날에는 한 30%도 우리 고려인들 없었는데, 지금 60%되었습니다.

문: 그러면 92년도에 처음에는 고려인이 30%고 다른 민족들이 한... /70%죠./예, 근데 지금은?

답: 지금은 60%이상 그리고... 부끄럽게 저는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감사를 자주 나오잖아요? 그럴 적에는 제가 그래요. 60%는 우리 러시아 아이들이고, 한 35%는 고려인이라고. 그리고 다 나머지 5%는 약 50민족이라고 거짓말해요. 부끄럽게 설립은 러시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학생들 안 받아 줄 수 없어요. 일부러 러시아 아이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평가하느라고 숫자를 높여요. 실제로는 60%가...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아이들, 70명 이상입니다. 뭐 기업자 아이들, 선교사 아이들, 유학생들 아이들, 한 70명 공부해요.

문: 예전에는 한국 국적 가진 아이들이 다른 데 갔었는데, 이 학교 위상이 좋아져서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답: 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롯데 회사에서도 지금 자꾸 자기 아들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적도 많습니다.

문: 그럼, 한국어 선생님이나 이런 전통문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걸 어디서 배워서 하나요?

답: 한국에서 그 뭘니까... 재외동포재단하고 국제교육진흥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딱 한글학회에서 연수받았습니다.

문: 아, 한글 학회요?

답: 거기서는 뭐 문법도 가르치고 표준말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세미나도 있고 전통 교육을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장소에서도 배우고 저도 가서 그 뭘니까, 차 드리는 모습, 세배 드리는 모습, 그거 다 한글학회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우리는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의 선생님이니까 수업 안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여섯 시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업 할 적에 특히 아이들 전통 교육을 시켜줍니다.

문: 그럼, 선생님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셨나요?

답: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가르쳐 주죠. 타쉬켄트 그 쪽에서 오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투리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표준말 배운다 해도 사투리 말이 자꾸 나가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지만 표준말 하는 거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만 하면. 야단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뭘니까, 그 드라마를. 한국에 갔다오면서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말하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복사해줬어요.

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086졸업식에서 선생님들이 꼭두각시 인형 춤추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답: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공연도 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채춤도 추고, 탈춤도 추고, 꼭두각시 춤도 추고. 그리고 러시아 아이들 특히 그 뭘니까,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러시아 전통 춤은 우리 한국 아이들 추고, 한국 무용은 우리 러시아 아이들이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스포르트(스포츠) 댄스 하는 것도 뭐 한국 우리 남자 러시아 여자하고 추나,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남자 우리 한국 여자 하고 추나.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스포르트 댄스 너무 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남학생하고 추는 거 보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아이들...

문: 그러면 그 스포츠 댄스나 아니면 러시아는 1086선생님들이 한국학교에 가서서 가르쳐주시잖아요. /네./ 그럼 한국학교에서도 1086학생들을 위해서 뭐 선생님들이 뭐 가르쳐 주시는 거 있나요?

답: 한국학교에서? /예./ 그건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항상 한국 선생님들... 한국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니면 다른 뭐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한국어, 뭐 고려인들, 한국어 배우자고 애쓰는 사람들 있어요. 일주일에 한 한 시간이라도 교육시켜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프라그라마(프로그램) 안 돼요. 수업들 다 있고 하니까 좀 그 시간문제도 그렇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쳐 준다 해도 저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 이번에는 7월 달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꿈꾸고 있으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 제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제가 한국에 가자고...그러면 말하는 나라에서 말 배우면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죠.

문: 그 학생들 교류하는 거는 양정학교하고 하는 거는...지금도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답: 지금은 매년 안 해요. 지금은 또 한국 정부에 프라그람(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 거기서 아이들 모국 방문시켜요. 작년에는 26명 갔다 왔지만, 올해는 15명 가요.

문: 모국 방문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답: 한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온다 해도 와서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워요.

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관심이나 느낌은 어떤 건가요?

답: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하고 느낌이 집에서 자주 얘기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민족 차별이가 있어서 아이들 그 뭐니까... 다른 일반학교에서 다니면서 뭐 2월 달에도 우리 학생 한 분 고려인 왔어요. 그러니까 놀리기도 주고 때리고 하고... 선생님도 너 뭐 까만 사람 뭐,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예쁘게 치우고 항상 칭찬하며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공부 잘하고 하는데, 자꾸 애 때리기만 하고 욕하기만 하면 공부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 애는 막 투쟁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또 한 학생은 우리 고려인인데 가구 안에서, 그 옷장 있잖아요? 거기 한 달 반 동안 앉아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출근하면 학교를 가는 것처럼 하다가 도로 와서 그 가구 안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수업은 다 빼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물론 뭐 이 세상에서 한 민족만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할 동안은 조금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공부하기 위해서 민족학교를 많은 민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은 것 같아요.

문: 근데,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이 한민족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답: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도시에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뭐니까, 서류니 뭐니 필요한 증명서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우수리스크에서 설립하고 그리고 하바로프스크 만들었어요. 근데 국립학교로는 안 되었어요. 사립학교로 되었지만. 우수리스크는 국립학교로 되었는데. 근데 거기 통일부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며... 만든 학교 있는데, 교장으로는 그래도

민족대표로서 한국사람 있어야 되요. 다른 민족 있으면 민족학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해요.

문: 아, 우수리스크에는 그러면...?

답: 러시아 남자, 러시아 남자.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독일여자. 교감은 한국 분이지만, 교장은 독일 여자.

문: 한민족 학꾼데요?

답: 예, 한민족 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잘...

문: 우수리스크는 이제 국립학교로 된 거고요?

답: 된 건데, 남자 분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안 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만 두었어요. 그 사람. 그만 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없애치웠어요. 뭐 돈 때문에 그 지원 받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잘못, 잘못 쓰니깐. 저는 연금이고 월급이고 뭐고 다 학교를 위해요. 그리고 운영하는 분은 나의 남동생하고 나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돈 달라는 말 못하지만 안 해요. 근데, 러시아 분이니까 그 돈이가 조금 생기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사용 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민족학교는 꼭 그 민족 교장이야 운영하고야 올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 그럼 저기 학생들만의 어떤 아사치아치야(협회) 같은 게 있습니까? 아르가니자치야 말라쵸쵸나야...(청소년 조직)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 네, 있습니다. 학생자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 브 슈쿨레 일리 브네 슈쿨...(학교 안에서요 아니면 학교 밖에서요?)

답: 학교 안에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학생회? 학생회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담임선생님하고 말해야 말 안 듣는 학생은 그대로. 만약에 쓰레기를 쓰레기통 버리라고 하면 다른 데 버리고 껌 씹다가 종이에 싸서 놓으라고 하면 안돼요., 그러지만 저네끼리는 그거 다 보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습관도 알죠. 아, 이 친구는 이런, 이런 습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교육시키는 게 결과가 더 좋아요. 결과가 더 좋습니다. 너는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책임지고. 학기 지나가면 낙제 받은 학생 있는가 뭐 이런 학생 있는가... 또 학교 위해서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고 마수고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런 학생 있는가. 하는 거 선생님들 보는 거보다도 아이들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말하면 아이들 말 아이들끼리 더 잘 들어요. 그리고 더 효과가 더 있으니까. 그 우리 우체니체스카야 사마 우프라블레니에(학생자치회) 여기 남성 구역에서 이게 가랏스코

이 쿡쿠르스(시대화) 가요. 개들 일 잘해서.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 온다하면 책임자 있잖아요.

문: 책임자는 한 학년에 한 명씩 있는 건가요?

답: 아니요, 아니요, 딱 학교에 한 명 있어요. 한명. 다들 제가 안 불러요. 그 학생이 지금 11학년 졸업해요. 제가 개를 불러요. 부르면 내가 그러지. 내일 손님들 오니까 대사님 오니까

문: 여학생인가요?

답: 네,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너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문: 아, 그러면 프리 오오카 토체 예스치 말라쥬슈나야? (전리고려인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그룹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답: 아,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고려인 협회 산하에 청소년 그룹을 만든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 그것도 우리 내력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대해서 우리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할 사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문: 아직은 그럼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답: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도 제가 많이 해요. 조 바실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국말 모른다고 항상 말하지만 그 분은 한국말 알 필요가 없다고 해요. 사업을 러시아에서 보니까 러시아 말로만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으니까.

문: 그런데 이제 필요만이 아니라 어떤 멘탈리치트(의식)...

답: 다, 에타 멘탈리치트(그렇죠, 의식의 문제죠.) 저도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를 다르게 교육시켰더라면 나도 배우자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를 키우면서 모스크바에서 있고, 그리고 그 37년도 강제이주를 당하고, 그리고 항상 일하면서 그 소수민족 때문에, 저도 그래요, 러시아분들 보다는 10배 이상 잘하고야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10배 이상 하자면 아주 어렵잖아요. 10배, 20배 이상 하자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를 키우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학생 적에 모스크바에서 막 울며 그랬어요. 왜 우리는 북한에 갔을 적에는, 우리 아버님 북한에 가서 조금 일했어요, 그럴 적에는 우리를 따라 땀기며 (다니며) 밝게, 밝게 하고, 소련 대사관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러시아 와서도 모양이가 다르니까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렇게 팔시를 받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산다 해도 우리는 왜 모국이 없이 사는 사람인가 하면서리, 항상 제가 울었어요. 학교에서 오고 그럴 적에는. 그리고 아이들 모스크바에서 우리 아이 세 명 다 제가 아들 둘 딸 하나 다 여기 모스

크바에서 났지요. 개들도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어머니하고 질문하는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가 아버님하고도 그랬어요. 유치원에서 일할 적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 아니라고, 네 자신이가 네 사상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핏줄에는 한국사람 피가 흐르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국적은 러시아 국적이지만, 니가 모양을 보라고. 니가 러시아 사람이냐고. 그 자부심하고 그 애국심을 항상 우리한테 전달하면서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이거 큰 일 아니라고 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7살에 어머니 아버지 없었고, 우리 아버님은 좀 더 오래 계시다가 그랬지만 16살에 부모님들 다 죄 없이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살자고 했는데 못 살았다고, 죽었다고.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근데 넌 뭘 잘 먹고 잘 살고 그 학교에서 일할 수 있지, 유학...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지,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기 손자 손녀들 자랄 적에도 유치원에서 자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요. 너두 나하고 아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들 교육시킨 것처럼 그렇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물론 너들은 러시아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민족 대표로서 너들 한국 사람이라고, 민족대표로서 다른 민족들보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나라를 그 위해서 망신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문: 예, 그러면 선생님이 자라실 때 그 애국심하고 지금 학생들, 지금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요?

답: 어,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못가지고 있어요. 그러지만 선생님들은, 예, 선생님들은 그래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내가 막 애쓰고 하는 일보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힘이 나서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53명 중에서 절반 이상 우리 고려인입니다.

문: 아, 선생님 53명 중에서도요?

답: 예, 절반 이상.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고려인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지만 뭐 교감도 고려인이고, 뭐 도서관 관장도 고려인이고 현재 교감도 고려인이고 의사, 간호사 다 고려인이고, 수학선생님 고려인이고 두 분, 영어

선생님들은 다 고려인들입니다. 한글 선생님들 물론 고려인이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일하면서 보면 나를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내가 혼을 심어주는 거 그대로 그거 받아주고, 애국심도.

문: 요즘 젊은 학생들은 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더 어려운 시절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답: 젊은 학생들은 집에서, 집에서 가정교육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또 부모님들은 사업하느라고 뭐 시간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그렇게 밥 다 먹고 옷만 입혀주고 그 교육 끝인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켈 중요한 거는 돈이 주머니에, 주머니에 돈 많이 있으면 다라고 그런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에서는 좀 어려워요.

문: 요즘 젊은 아이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만 있으면.

문: 그러니까 자라실 때랑 틀리신거죠?

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 그리고 그 이제 그 자라실, 교장 선생님 자라실 때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할 때도 같은 고려인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어떤가요?

답: 요즘 아이들은 뭐 사랑은 단가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민족은 관계없이. 그러지만 우리 학교를 설립한 이후는 그래도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 우리 이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끼리 한 민족끼리 결혼하는 거 보면, 예, 많아졌죠. 이제 보면 1년에 6팀, 7팀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저는 항상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갈 적에마다 고맙다는 말 하는 거는 부모님들 이 학교 때문에 우리 아들은 고려인 찾아서 고려인한테 결혼했다. 물론 우리 학교 졸업생 아니라도 그래도 한국인인 고려인 자라서 결혼한다는 거, 그거 그 이미지가 바뀌운 게 돼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문: 그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 청소년 개발원...그 만약에 한국의 청소년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은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 음...압췌니예.(교류요.) 서로 서로 만나서 한국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의 대표로서 만나서 그래서 그 뭘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모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게, 서로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 같아서는 제일 중요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은 말은 몰라도 다 밥하고 된장찌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놀음(놀이)을 통해서 뭐 축구 한다, 농구한다, 뭐 그렇게도... 뭐 만나서 행사한다, 행사 준비도 같이 하고, 나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하는...

문: 부모님들은 지금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제일 원하시나요?

답: 부모님들은 물론 다들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그것. 대학을 다녀야 하고,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켈 중요한 거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이후는 자기 뭘 해야 될 거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

문: 아, 부모님이 강요하지는...그래도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답: 사업, 사업하는 거.

문: 사업하는 거요?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

답: 음.

문: 학생들 스스로는 어떤 직업을 제일 원하나요?

학생들 스스로는 지금 보면 만약에 56명부터 60명까지 우리 학교 졸업해요. 두 반 밖에 없으니까. 1년에. 그렇게 할 적에 보면 한 12명, 14명 모스크바 대학 입학해요. 그리고 12명, 14명, 여기 우데엔 가까이 있으니까...

문: 아 모스크바 대학은 엠게우(모스크바국립대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 예, 엠게우... 우데엔(민족우호대학교), 한 12명, 14명, 그리고 바우만 대학 6명, 그리고 외국어 대학, 무기모 2명, 2명 꼭 해요. 그리고 유리스트(법률가)는, 변호사는 한 2명, 3명, 그리고 언어학과는 또체(역시) 2명, 뭐 한국어 언어학과나 어디 공부하는... 그리고 다 나머지는 건축가도 2, 3명... 플레하놉스키 인스티투트(플레하노프 대학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경제 대학도 3~4명, 그러지만 엠게우하고 우데엔하고 바우만 대학은 다들 가요.

문: 좋은 대학들 가네요. 그런데 말라쵸쥬(청년)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어디로 다 흩어져 있는지...없어요.

답: 예,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대학 생활 한다면 그 대학에서 서로 서로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사업한다면 사업가들하고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복잡한 게 젊은이들은 더 복잡해요.

문: 삶이 복잡해서?

답: 네, 삶이 복잡해서.

문: 그래서 말라쵸쥬냐 아사치아치아가(청소년 협회)가...어려운...

답: 네, 잘 안돼요. 이번에 19일날 그 노래자랑 하잖아요?

문: 무슨 노래자랑이요?

답: 한국 노래자랑

문: 언제, 어디서 하는데요?

답: 19일 날, 인스티투트...악차브리스카야 있잖아요?

문: 예.

답: 거기 그 강당에서 해요. 12시부터.

문: 아, 가 봐야겠네요.

답: 가보세요.

문: 토요일이죠?

답: 토요일, 우리 아이들 거기 참석해요.

문: 고려인 노래자랑인가요?

답: 한국아이들도 해요. 우리 학교 한국아이들도 있으니까

문: 12시부터 노래자랑이요?

답: 예, 교수님들도 오실 겁니다.

문: 주소가 정확하게...

답: 정확하게 주소 모르는데...

문: 대사관에 물어보면 되나요?

답: 대사관에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려인 협회, 조 바실리...거기에 물어보면..

문: 그 학생들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저?

문: 예, 개인적으로...

답: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둘째 아들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아들도 그렇게 따님도 그렇고...다 우리...둘째 아들은..

문: 아 손녀도 있으세요?

답: 손녀 셋, 손자 넷입니다. 손자 중에서 24살짜리 손자 있으니까 결혼은 안했지만 어른 손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자기 민족끼리 만나고야 가정생활 분위기가 뭐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가 러시아 여자한테 결혼 할 적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돌아가셔서 1년 지났어요. 군대 갔다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문: 아, 아버님, 바슈 무슈? (남편분이요?)

답: 다, 다...(예.) 아버지 있었더라면 너 아버지 말 잘 들었을 거라고. 내 말은 니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아파트 10층에서 살았어요. 10층에서 사니

까 내가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고. 니가 나를 이해 못해주니까 나는 러시아 여자한테 결혼하는 거 절대로 반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 대답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어머니 왜 돌아가시... 죽겠는가, 그 말 하니까 손발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데 뭐 괜찮아요. 같이 뭐 학교생활... 그 러시아 여자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들은 옆에 학교에서 회의 뭐 같이 만나고 뭐 두루두루 그러면서 같이 만났지요. 그러지만 괜찮아요. 이제 뭐,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하고 내가 그 집으로 놀러간다면 다 한식으로 갖추어 줘요. 나는 세 끼 밥 안 먹고 있으니깐. 저네끼리 사랑하고 있으니깐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러시아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리냐 하면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서양사람 그 다르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한국 남자들만 지금 남자들은 많은 분들 안 그렇지만 그래도 어...하구서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구서리, 짐도 여자들만 막 들고 가는 데, 남자들은 그저 손만 내놓고 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봐요. 이번에 가셔도 제가 자기 양아들하고 그랬어요. 야, 너 젊은 사람인데 가방이라도 좀 들어주라고, 너 왜 그러는가라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러시아 남자한테 결혼하면 행복해요. 그러지만 한국 남자는 러시아 여자한테 결혼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러시아 가족에는 여자가 최곱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꾸 남편 이래라, 저래라, 설거지를 해라, 뭘 해라, 빨래해라, 다림질을 해라... 그거는 어머님으로 생겨서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문화가 좀 다르니까...

문: 아, 그러면은 만약에 손녀나 따님이 러시아 남자랑 결혼하면 그렇게까지 반대는 안하셨겠네요?

답: 안하죠.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가 그러니까 아들 둘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보면 벌써 16년 동안 사는 데 괜찮게 뭐, 행복하게 사니까 이제는 반대해도...(웃음)

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학교, 이 1086학교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답: 어, 첫째로는, 언어 교육하고 전통 교육은 모국 땅에서 도와 안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내가 아는 대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친구들 많아서 한국에서 많이 도와줘요. 뭐 서울시 교육청에 그 유인종 교

육감님도 8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여기서 여학생들도 첫 시대에 돈 있어도 식당 없어서 먹을 수 없었니까 내가 밥도 해주고 김장만 세 톤 이상 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들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많은 한국 분들 뭐 와서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뭐 러시아 방문 할 적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같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돕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지만 우리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 나는 항상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68세니까, 뭐 여기는 정년 없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걸보기엔 그래도 속은 다 늙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3년 후에나 2년 후에 제가 교장 일을 그만 두고 연금 나갈 수 있는데, 그 전통하고 언어 교육은 우리 모국 땅에서 도와 안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 만약에 도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도움이...

답: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만약에 기숙사를 짓는다면, 지금 기숙사 없잖아요. 기숙사를 짓는다면...(중단) 한국 말 지도도 하고 물론 아이들하고는 안 되면 선생님들이라도 같이 하면서 뭐 한식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프라그라마(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고 전통 무용도 그렇잖아요. 우리 좀 러시아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테이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테이프를 보면서 아이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해서 주니까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전통 무용하는 선생님이가 와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손은 이렇게 해라, 발은 이렇게 해라, 어깨는 이렇게 해라 하면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예,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뭘니까, 중국학교는 중국 학생 3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후진타오 4월 달에 왔을 적에 학교에 공연도 하고 매해 30명 이상 방문 시키고 무료로, 그렇게는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정성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한국 학교 도움 받고 있잖아요. 건물 빌려준다, 인터넷 다 무료로 해준다, 뭘 해준다, 그렇잖아요. 학생들 같은 것도 어디 박물관 가도 나의 도장 찍어서 다 그렇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서로서로 같이 하면서 이루어 나가면 제 생각 같아서 그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러시아 국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말을 제가 자주 듣지만, 나는 슬퍼요. 다른 민족 학교들 보면. 유대인 학교는 유대인 정부에서 선생님들 월급 받을 적에 월급까지 다 줬어요. 간식이니 뭐니 다 먹여주고. 근데 우리는 국립학교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다 줘요. 그러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해요. 그러지만 우리 할 수 없는 일은, 모국 땅에서 꼭 도와줘야 되는 일은, 우리를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양정학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말도 배우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교장선생님 바뀌면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로 서로 해준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지만, 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플 적에마다 저는 자기 건강 생각보다도 학교 생각 더 해요. 아이들 생각 더하고. 피땀 흘리며 설립한 학관에 다 내가 한 일이가 다 마사지고(무너지고) 없어지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가서 만약에 도와 달라 하면 절대로 못한다고, 러시아 국적가지고 있는 아이들 공부 시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못해준다 할 때, 그런 말 들을 적에는 이 막 가슴에 뼈가.. 똑같아요. 왜 나는 불법으로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아이들 70이상 받아주면서, 들키기만 하면 모가지 잘라진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문: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언어교육, 전통 교육이고, 또 더 있으세요?

답: 그게 쥔 중요한 거죠. 목적은 우리 아이들 모국어 자기 말 배워야 된다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행해야 되죠.

문: 학생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게 그 멘탈리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들이 되나요? 리알니에 귀즈니.(실생활에)?

답: 리알니에 귀즈니(실생활)? 노 유니흐 고르도스치.(하지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거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문: 실제로 뭐 모국어를 많이 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도 있나요?

답: 그런 것도 있죠. 우리 학생아이들 만약에 한국말 잘하고 영어 하고 러시아 말 잘하니까, 한국 회사에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러시아 애들도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회사에 일하는 애들 많아요. 뭐 엘쥐, 롯데, 삼성, 대사관에서 일하는 졸업생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 됐지만. 그래도 개들은 와서 항상 그래요. 이런 학교 있기 때문에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하면서 돈도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우리 졸업생은 한국하고 그 교류 생기니까 그 뭐 서류를 통역해야 되겠는데 물론 사전 가지고 다 통역해주니까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 사장님이야 우리 졸업생을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 한국 방크(은행)하고 교류 있는 그 책임자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날로 달아와서(달려와서) 아이 줄

업한 지 오란테(오렌테),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돈을 얼마, 얼마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좋잖아요?

문: 그 때 제일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답: 그렇죠, 그렇죠, 저는 러시아 아이들은 물론, 러시아 아이들도 다른 민족 아이들 50민족 이상 한국어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니까, 한국어를 알기에, 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회사들도 뭐 대우, 엘쥐, 삼성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름이가 난 회사지만, 그래도 다른 민족 아이들 학부모들, 부모님들 데려다가 우리 학교 와서 한국 말 배우라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문: 그 특별 수업에 고려인 학생들 말고도 오나요?

답: 그렇죠, 그렇죠.

문: 한 스콜카 프라첸터프 프리메르나....(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 50대 50.

문: 아, 예, 많이 있네요.

답: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아이들은 저는 고려인 한국 분이니까 한국 말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그렇지만 다른 민족 아이들은 여기서 안 배우면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문: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스바보드나(자유롭게)하게...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자유롭게요? 뭐 이미 마지막 할 말까지 다 말했습니다. 다른 민족 학교처럼 좀 이렇게 모국 땅에서 좀 인정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 너무 감사합니다.

답: 천만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

①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디자인 및 장식응용 예술학과 김 율리아 (20세)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2, 장소: 동서문화재단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답: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천만에요.

문: 이름과 생일 등 자신을 소개를 해 주세요.

답: 제 이름은 베로니카이고 20세이며, 대학교 1학년에 다녀요.

문: 어느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나요?

답: 디자인 및 장식-응용예술 학과에서 공부해요.

문: 아, 명칭이 길군요.

답: 예.

문: 성은 어떻게 됩니까?

답: 김 입니다.

문: 현재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고 계시나요?

답: 아직은 교양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요.

문: 주로 어떤 과목들을?

답: 수학, 역사, 심리학 등....

문: 사회학은요?

답: 사회학도 있습니다. 이후에 전문 과목들, 그림, 설계 등....

문: 그렇게 많아요?

답: 예. 매우 많아요.

문: 공부는 잘 하시나요?

답: 음....잘하는 편입니다.

문: 보통 성적은 좋은가요?

답: 보통은요. 하지만 때로는....

문: 때로는 3점도 받으시나보죠?

답: 예.

문: 종교도 갖고 계시나요?

답: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문: 교회에 다니세요?

답: 예. 다닙니다.

문: 어느 종류의 교회에 다니세요?

답: <고려사람>이라는 교회에 다녀요.

문: <고려사람>이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나요?

답: 5년 되었는데, 2002년부터 다녔어요.

문: 그전에도 교회에 다니셨나요?

답: 예. 다녔어요.

문: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나요?  
 답: 처음은 5세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 그럼 이미 교회에 다니신지 오래되었네요?  
 답: 예. 오래되었어요.  
 문: 어느 계통의 교회에 나다니나요?  
 답: 장로교회.  
 문: 어떤 사람들이 다니나요?  
 답: 주로 러시아-한인들이 다녀요.  
 문: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도 다니나요?  
 답: 예.  
 문: 부모님들은 어느 민족인지요?  
 답: 한인이예요.  
 문: 두 분 다 한인인가요?  
 답: 예.  
 문: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시나요?  
 답: 부모님,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문: 할머니도요?  
 답: 예.  
 문: 할머니는 몇 세이신가요?  
 답: 77세예요.  
 문: 77세요? 할머니는 고려 말을 하시나요?  
 답: 예. 할 줄 아세요.  
 문: 할 줄 아세요?  
 답: 예.  
 문: 아버지께서는 어떤 학력을 갖고 계시나요?  
 답: 대학 졸업자입니다.  
 문: 어느 대학을 마치셨지요?  
 답: 저는 모르겠어요.  
 문: 그럼 어느 학부인지는?  
 답: 역사학부.  
 문: 아버지의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교회와 한인 학교에서 일하세요.  
 문: 한인 학교에서도요?  
 답: 예.

문: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중등 기술학교 졸업자입니다.

문: 중등 기술학교요? 대학교요?

답: 기술전문학교(테흐니쿰)예요.

문: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시나요?

답: 교회에서 통역으로 일하세요.

문: 통역요?

답: <미르>선교부에서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통역하세요.

문: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것인가요?

답: 예.

문: 민족 외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반대하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문: 좋아요?

답: 민족 외 혼인, 예.

문: 민족 내 결혼보다 더 좋아요, 예?

답: 똑같아요.

문: 똑같아요? 가령 본인 자신도 러시아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답: 저는 한인과 결혼했으면 해요.

문: 한인하고요? 본인에게는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아마도 한인과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답: 예.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 모르겠어요. 단지 그러고 싶어요.

문: 문화,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겠지요?

답: 예. 문화적 차이요.

문: 차이가 있나요?

답: 있어요.

문: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답: 음, 멘털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들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답: 가령 한인들은 어디에서 양육되었든지 간에 어른들께 더 공손하게 대해요. 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일부는 마치 완전히 부모님의 친구들처럼 대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요. 저는 그들을 어른들로 대하거든요.

문: 당신의 말은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물론이지요.

문: 당신은 현재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답: 모르겠어요.

문: 중산층과 비교하여 당신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아마 중상 수준은 될 거예요.

문: 중상 수준이요?

답: 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문: 그렇다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답: 예.

문: 만족해요?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모르겠어요. 음....

문: 대략이라도?

답: 충분한정도요.

문: 대략 얼마정도인지?

답: 한 번도 액수를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문: 그럼 일주일 용돈은?

답: 모르겠네요. 항상 액수가 다르니까.

문: 다르게요?

답: 예.

문: 용돈을 부정기적으로 받나요?

답: 그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받거든요.

문: 당신의 친구들은 일주일에 얼마의 용돈을 받는지 아시나요?

답: 모르겠어요.

문: 용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답: 주로 먹는데 사용해요.

문: 학생인데 화장품이나 옷에는 사용하지 않나요?

답: 이것은 개별적인 지출에 해당돼요.

문: 개별적이지요? 주로 어디에 사용을?

답: 음식이나 때로는 친구들과 노는데 사용해요.

문: 친구들은 주로 어디에서 만나시나요?

답: 극장에 다녀요.

문: 극장요? 그밖에?

답: 혹은 카페(음식점)같은 곳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문: 용돈을 주로 어디에 지출하시나요? 놀이예요?

답: 예.

문: 식당에서는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답: 되는대로 아무거나 먹어요.

문: 부모님들과는 고려 말로 이야기하시나요?

답: 가끔 씩이요.

문: 가끔 씩이요? 고려 말을 이해하시나요?

답: 예.

문: 알아요?

답: 조금요.

문: 고려 말을 말할 줄 아시나요?

답: 예. 말할 줄 알아요.

문: 어떻게 배우셨나요?

답: 할머니께서 저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물론 한국어가 아닌 고려 말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요.

문: 어머니께서도요?

답: 예. 집에서는 고려 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려 말을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교회와 고려인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문: 어떤 언어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답: 러시아어로요.

문: 러시아어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나요?

답: 지금은 아니에요.

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요?

답: 예.

문: 왜 배우고 싶지요?

답: 모국어이니깐요.

문: 모국어요?

답: 예. 한국인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요.

문: 어쨌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있었잖아요?

답: 아니에요.

문: 배우고, 즐기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 좋게 생각해요.

문: 좋아요? 어떻게 좋게 생각하지요?

답: 매우 좋게요.

문: 언제 한국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나요?

답: 5세 때에 처음 교회에 왔었거든요.

문: 5세 때예요?

답: 예.

문: 몇 년도이지요?

답: 92년도요.

문: 92년도예요? 당시 교회가 <사립대학>이었나요?

답: 김신 목사이었지요.

문: 김신 목사. 그러면 건물은요? 대학교였나요? 건물이 음악원 옆에 있었나요?  
기억 못하세요?

답: 예.

문: 언제 처음으로 자신이 한인(한민족)임을 느끼셨나요?

답: 어렸을 적에요.

문: 어렸을 적에요? 어떻게? 스스로요?

답: 음, 예.

문: 어떤 계기라도 있었나요?

답: 음, 예. 당시 이곳에는 한인들, 동양 민족은 아주 적었어요. 숙모, 어머니,  
할머니,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도 한인들이었고, 그때 저는 제가 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 어떤 이유로 지금의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지요?

답: 배우고 싶었어요.

문: 배우고 싶었어요? 당시 부모님들은 어떤 바람이 있으셨나요?

답: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요. 저에게 강요는 하지 않으셨어요.

문: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답: 예.

문: 어떤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께서는 원하시나요?

답: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고, 그래서 제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제가 대학을 마치고 전공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세요.

문: 대학 졸업 후에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전공인가요?

답: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문: 힘들어요?

답: 예.

문: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후에는요?

답: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문: 어머니께서는 자주 고려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답: 거의 매일 고려 음식을 준비하세요.

문: 고려 음식을 만드신다고요?

답: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부....

문: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나요?

답: 아니요.

문: 사시나요?

답: 예. 두부김치.

문: 김치를 만드시나요? 배추로?

답: 배추.

문: 중국산 배추인가요?

답: 예.

문: 하루에 몇 번 김치를 드시나요?

답: 1회나 2회.

문: 밥은 매일 드시나요?

답: 예.

문: 때로는 안 드시나요?

답: 예. 때로는 집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문: 그때는 빵을 드시나요?

답: 예.

문: 밥과 빵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답: 밥이요.

문: 빵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답: 아니, 아니에요.

문: 어머니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요?

답: 타쉬켄트요.

문: 타쉬켄트요? 당신은 어디서 출생하셨나요?

답: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문: 상트-페테르부르크요? 그런데도 밥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셨는데, 밥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답: 예. 저는 러시아 음식보다 고려 음식을 더 좋아해요.

문: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 음식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시나요?

답: 예.

문: 당신도 고려 음식을 만들 줄 아시나요?

답: 조금요.

문: 가령 예를 들자면?

답: 된장찌개, 김치찌개....

문: 어떻게 만드시는지 당신의 요리법을 말씀해 주실래요?

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문: 당신의 요리법으로....

답: 물, 된장....

문: 물요?

답: 예. 물을 끓인 후 된장을 넣고, 감자를 넣은 후....

문: 감자요?

답: 가능해요. 호박이나 새우, 두부를 넣어도 되요.

문: 두부도 같이 넣나요?

답: 예. 준비해서 끓이면 되지요.

문: 맛있게 끓여지나요?

답: 예.

문: 어제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답: 예. 밥(쌀)을 먹었어요.

문: 아니 집에서요.

답: 어제는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문: 오늘 아침에는요?

답: 오늘 아침도 집에서 먹지 않았어요.

문: 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지요?

답: 높은 학력을 받아서 나주에 일을 하려고요.

문: 일을 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하나요?

답: 예.

문: 단지 일을 위해서만 배우시는 것인가요?

답: 음, 대학에서 배우고 싶었고, 마음에 드니까요.

문: 배우는 것이요?

답: 예. 지금 제가 배우는 곳이에요.  
 문: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대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고, 시집을 가고....  
 문: 시집을요?  
 답: 예. 그밖에 등등....  
 문: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답: 아마도요.  
 문: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요? 매혹되었네요?  
 답: 예.  
 문: 대학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답: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문: 어떤 일자리요?  
 답: 전공에 맞는 일자리요.  
 문: 확실히요?  
 답: 음, 대체로 재봉업 설계자.  
 문: 설계자요?  
 답: 예.  
 문: 재봉업요?  
 답: 예. 재봉업.  
 문: 공장에서도? 어디에서 일하지요?  
 답: 아마도 기업체에서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겠지요.  
 문: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요?  
 답: 아마 처음에는 조수나 일반 근로자로.  
 문: 이후에는요?  
 답: 이후예요?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개인 사업체를 열고 싶어요.  
 문: 많은 자본이 들지요?  
 답: 예.  
 문: 자본은 어디에서?  
 답: 펀드로요.  
 문: 펀드로요?  
 답: 예. 모르겠어요.  
 문: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좋겠지요?  
 답: 예.

문: 부모님들도 당신이 한인에게 시집가기를 원하시나요?  
 답: 어머니께서는 사람이 좋은 것이 중요하지 인종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 어쨌든 한인에게 시집가기를 원하세요?  
 답: 예.  
 문: 당신은 스스로를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예.  
 문: 당신의 한국과 한국의 뉴스에 관심이 있나요?  
 답: 뉴스요? 별로요.  
 문: 왜요?  
 답: 모르겠어요.  
 문: 보통 뉴스청취는 싫어하세요?  
 답: 이곳에서 TV로는 뉴스를 가끔씩 방송해요.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 그럼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답: 예.  
 문: 집에서요?  
 답: 예.  
 문: 자주 한국 카페에 접속하세요?  
 답: 아니요.  
 문: 한국어 읽기가 어려워서요?  
 답: 예. 어려워요. 조금 이해해요.  
 문: 조금 이해해요?  
 답: 예.  
 문: 한국 사이트 방문하고 싶으세요?  
 답: 예. 그리고 싶어요.  
 문: 어떤 한국 사이트들을 알고 계세요?  
 답: 한국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문: 배우들에 대해서요?  
 답: 예. 있어요.  
 문: 한국 출신의 또래들과도 어울리고 싶으신가요?  
 답: 예.  
 문: 그래요? 우선은 그런 교제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나요?  
 답: 모르겠어요. 연장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문: 연장자들과의 교제가 더 재미있어요?

답: 예. 연장자들과.  
 문: 한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답: 예.  
 문: 언제요?  
 답: 2004년, 2006년예요.  
 문: 얼마나 계셨나요?  
 답: 처음에는 2개월 반, 두 번째는 2주 동안 있었어요.  
 문: 무엇을 보셨나요?  
 답: 많은 것어요.  
 문: 무엇이 마음에 들었나요?  
 답: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답: 음....  
 문: 아무 것도 기억이 안나요?  
 답: 아니요. 민속촌이 기억나요.  
 문: 민속촌이요?  
 답: 예. 두 번이요. 아주 잘 기억이 나요.  
 문: 시장에서는 어땠나요? 가보셨나요?  
 답: 예. 가보았어요.  
 문: 한국이 마음에 드셨나요?  
 답: 예.  
 문: 어떻게 마음에 들었나요?  
 답: 사람들도 다르고, 공손하고 밝아요. 항상 웃고 음식도 맛있고요.  
 문: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드셔보았나요?  
 답: 많아요. 순두부.  
 문: 순두부요? 마음에 들었나요?  
 답: 예. 매우 좋아해요.  
 문: 이곳에도 있지요?  
 답: 이곳예요? 이곳의 한 한국식당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맛과는 달라요.  
 문: 달라요? 그밖에 어떤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두부만 드셨나요?  
 답: 아니요. 김밥도요.  
 문: 김밥이요? 이곳에도 있지요?  
 답: 아니요. 하지만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문: 한국음악도 들으시나요?

답: 예.

문: 어떤 음악들을 들으시나요? 대중가요?

답: 예.

문: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답: 영화<엽기적인 그녀>, <나는 믿어요>의 배경음악이요.

문: 어떤 음악이요?

답: 영화<엽기적인 그녀>, <나는 믿어요>의 배경음악이요.

문: 그 영화도 보셨나요?

답: 예.

문: 마음에 들었어요?

답: 예.

문: 그런 여자주인공도요?

답: 음, 별로요.

문: 별로요? 남자 주인공은요? 좋지요?

답: 우스운 남자였어요.

문: 그런 형의 남자가 마음에 드시나요?

답: 아니요.

문: 저런 남자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답: 예.

문: 흥미롭네요. 보통 여자들은 저런 남자 좋아하는데.

답: 모르겠네요. 남자 주인공이 실제로 저런 사람인지.

문: 한국영화 관람 후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답: 한국영화를 보고나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문: 한국에요?

답: 예.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문: 한국영화를 이해하세요? 어떤 문화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하세요?

답: 예.

문: 대체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로?

답: 빠르게 발전하고 아름다운 나라, 산이 많은 나라. 이곳에는 산들이 없어요.

문: 산, 예.

답: 예. 그곳에는 산과 바다가 있어요.

문: 당신이 생각하기에 왜, 어떤 이유로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하고 많은 일을 하고 영리해요.  
 문: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과 만나보셨어요?  
 답: 예.  
 문: 누구와요?  
 답: 주로 선교사들이었고, 젊은이들과도, 나이든 분들과도 만났어요.  
 문: 어떤 젊은이들이었죠?  
 답: 공부하러 온 젊은이들이요.  
 문: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좋아요. 그렇게 멀리서 공부하러 오고.  
 문: 한국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답: 아무래도 있겠죠. 별로 생각을 안 해 보았어요.  
 문: 하나의 민족으로 한인들을 평가한다면요?  
 답: 5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생각해요.  
 문: 한국(한민족)의 의식에 대해서 아세요?  
 답: 조금요.  
 문: 조금요? 하나의 의식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답: ....  
 문: 추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답: 예.  
 문: 무엇인가요?  
 답: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요.  
 문: 한식을 아시나요?  
 답: 음....  
 문: 모르세요?  
 답: 아뇨. 알고는 있어요.  
 문: 무엇이지요?  
 답: 들긴 들었는데.  
 문: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답: 잊었네요.  
 문: 어버이날을 아세요?  
 답: 어버이날이요? 러시아에는 없어요.  
 문: 러시아에는 없다고요?  
 답: 예.  
 문: 들어보지 못했나요?

답: 예.

문: 당신이 한인(한민족)이라서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나요?

답: 그렇다보다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문: 애요?

답: 민족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문: 물론 민족은 다르지요. 여기는 러시아잖아요.

답: 음, 잘 모르겠어요. 민족적인 차이는 거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문: 의미가 없다고요?

답: 예. 현재 사람들은 더 상황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문: 한인(한민족)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드나요?

답: 예.

문: 만일 당신이 다른 민족으로 출생할 수 있었다면 어느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답: 아마도 동양 민족이요.

문: 한인이요?

답: 혹은 일본인이요.

문: 일본이요? 왜요?

답: 동양 민족들은 근면하잖아요.

문: 근면하다고요? 노동을 좋아하세요? 일을 많이 하시나요?

답: 아니요.

문: 페테르부르크에서 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답: 때로는요.

문: 언제요? 왜요?

답: 스킨헤드족들 때문이에요.

문: 스킨헤드족이요?

답: 무서운 부류들이지요. 러시아에는 러시아인들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싫어해요.

문: 그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활동을 하나요?

답: 예.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조금 줄었어요.

문: 줄었어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갔죠?

답: 모르겠어요.

문: 그들을 본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어떻게 보셨죠?

답: 지하철 근처에서요. 접근해서는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떠나라고 했고, 심지어

어는 돈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문: 얼마나요?

답: 돈은 없었어요.

문: 없었어요? 스킨헤드족들은요?

답: 그들이요? 여자 두 명과 남자 두 명이었어요.

문: 네 명이요?

답: 예. 네 명이요.

문: 그때 혼자 있었나요? 우연하게.

답: 예. 하지만 두 명의 급우들도 있었어요.

문: 그들도 한인들이었나요?

답: 아니요.

문: 러시아인들이었나요?

답: 예.

문: 친구들이 도와주었나요?

답: 아니요.

문: 돈을 빼앗았나요?

답: 아니요. 돈이 없었어요.

문: 없었어요?

답: 예.

문: 없었어요?

답: 예.

문: 그냥 보내주었나요?

답: 그냥 보내주었어요.

문: 당신이 한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요?

답: 예.

문: 왜요?

답: 왜냐하면, 이곳에 러시아인이 더 많고, 나는 다른 민족이니까요.

문: 다른 민족이요?

답: 예.

문: 단지 그 이유로요?

답: 아니요. 음, 잘 모르겠어요.

문: 만일 해외한인 젊은이들의 교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당신에게 유용할까요?

답: 음.

문: 미국, 중국, 남한 등 모든 한인들(한민족)을 위한 사이트가 필요하겠죠?

답: 교제를 나누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 교제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여러 나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요.  
양육도 다르고.

문: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겠죠?

답: 예. 문화를 알 수 있어요.

문: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에 대해서도요?

답: 예.

문: 한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모르겠어요.

문: 몰라요? 심각한 문제가 없나요? 각자에게 문제는 있지 않나요?

답: 각자에게 자신만의 문제는 있겠지요.

문: 한인 젊은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답: 모르겠어요.

문: 당신에게는요?

답: 때로 교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해요.

문: 교제를 나누는데 에서요?

답: 예. 스스로에게서, 한인들 간에.

문: 한인들 간에요?

답: 예.

문: 자주 발생하나요?

답: 아니요.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해요.

문: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하군요. 왜 발생하지요?

답: 성격 차이지요.

문: 어떤 성격이요?

답: 다양한 성격 때문이에요.

문: 다양한 성격이요? 그 때문이에요?

답: 예.

문: 한국정부로부터 가장 받았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답: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문: 음....개인적으로, 물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요.

답: 아마도 한국방문이겠지요.

문: 한국방문이요? 문화나 그밖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답: 예. 또한 문화적인 정보를.

문: 무엇을 해야 하지요?

답: 어떤 책들이나, 인터넷도....

문: 어떤? 사이트요?

답: 예. 모르겠어요. 편지를 보내야겠지요.

문: 한국(한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가요?

답: 예.

문: 한국(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것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나요?

답: 음, 이곳에서는 그다지요. 하지만 누군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문: 어쨌든 한국(한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답: 예.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마워요.

답: 천만에요.

②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대 광고학부 이 아나스타시아  
(21세)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3, 장소: 미르교회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답: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마워요.

답: 천만에요.

문: 성명, 생일 등 본인에 대해 조금 소개해 주세요.

답: 제 이름은 이 아나스타시아, 21세이고, 1986년 2월 18일생이에요.

문: 현재 학생이신가요?

답: 예.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종합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문: 어느 학부이지요?

답: 국제교육프로그램대 <광고>학부에서 공부해요.

문: 본인 스스로 이 학부를 택했나요?

답: 저는 다른 학부를 택했는데 지금의 학부를 제의받고 입학했어요.

문: 누가 제의를 했지요?

답: 대학 측에서요. 제가 원했던 곳은 진학할 수 없었고, 결국 대안으로 이 학

부를 제의받았고, 제가 수용했어요.

문: 본인이 원했던 학부는 어느 곳인가요?

답: 저는 지역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중국어가 필요했지요. 진학할 수 없었어요.

문: 지역학이요?

답: 외교관이 되는 길이지요.

문: 이것도 동방학이지요?

답: 동방학과 비슷하지요.

문: 졸업 후에 어떤 분야(직업)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답: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투자 관련, 즉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혹은 어떤 광고 회사 같은 개인 사업체를 열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 업체를 열고 싶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문: 할 수 있겠어요?

답: 왜 안돼요?

문: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답: 나라요, 도시요?

문: 도시요.

답: 사할린에서 태어났어요.

문: 주요?

답: 예.

문: 어떤 도시요? 사할린?

답: 사할린은 섬인데, 수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어요.

문: 그곳에도 한인 잡지가 있나요?

답: 그곳에 <새고려신문>이 있어요.

문: <고려신문>? 언제부터 발간되었지요?

답: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문: 인터넷으로도 구독이 가능한가요?

답: 모르겠어요. 사할린에서 살 때 집으로 신문이 왔었어요. 당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구독을 했어요.

문: 인터넷 통해서도 이 신문을 구독하세요?

답: 아니요.

문: 왜 사할린에서 페테르부르그로 이사를 오셨나요?

답: 더 높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요. 이곳은 대도시이고 제2의 수도라서 더

많은 가능성과 장래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문: 왜 제1수도로 가지 않으셨지요?

답: 이곳 페테르부르크에 진학하게 되어서 모스크바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여자 친구까지 이곳으로 같이 진학을 하게 되어서.

문: 진학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인가요?

답: 교육도 그렇고, 큰 도시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은 도시의 출신이라서 대도시에서 생활해 보고 싶었어요.

문: 졸업 후에는 사할린으로 돌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남을 것인가요?

답: 얼마간은 이곳에 지내고 이후에는 해외로 나갈 생각이예요.

문: 해외로요?

답: 예. 어느 나라로 갈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뉴질랜드.

문: 뉴질랜드요?

답: 예.

문: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답: 개신교예요.

문: 교회에 다니시나요?

답: 물론이지요. 이곳에 <고려사람>, 선교부 <미르>가 있어요. 사할린에서는 오래전부터 침례교회<빛과 사랑>를 다녔어요.

문: 침례교회요?

답: 예.

문: 어떤 교회에 나가세요?

답: 예. 그곳의 목사님은 한국인이세요.

문: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나요?

답: 2001년도부터요.

문: 사할린에서요?

답: 예.

문: 당신은 어떻게...

답: 교회에 어떻게 나가기 시작했냐고요? 교회 행사 때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아마 14살 때였거든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다가 2003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문: 세례를 받으셨나요?

답: 저는 사할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곳에 살며 의식적인 진정한 신앙심을 갖게 되었어요.

문: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시나요?

답: 예. 부모님들은 사할린에 계세요.

문: 부모님들은 한인들인가요?

답: 예. 한인들.

문: 두 분 다요?

답: 예.

문: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의 아버지는 대학졸업자는 아니고 기술학교 졸업학력을 갖고 있어요.

문: 어머니는요?

답: 어머니는 쉬콜라 학력이 전부이고요.

문: 쉬콜라요?

답: 예. 전에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국적이 없는 한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2세대 한인들이에요.

문: 사할린에서요?

답: 사할린, 즉 러시아에서요. 할머니의 경우에는 전혀 러시아어를 모르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는 오랫동안 30세 혹은 40까지인가 국적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군복무도 하지 못하고 대학교육도 받을 수 없었어요.

문: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답: 예.

문: 사할린에서요?

답: 예.

문: 지금은 괜찮아요?

답: 예.

문: 다행이지요?

답: 아멘.

문: 민족 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민족 외 결혼에 대해서요? 저희 집안의 경우 민족 외 결혼자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경우에 한인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다지 좋은 견해는 갖지 않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좋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 민족 외 혼인을요?

답: 예.

문: 괜찮아요?

답: 예. 별로 나쁠 것은 없다고 봐요.

문: 부모님들의 의견은 다르지요?

답: 예.

문: 부모님들은 당신이 타민족에 시집가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답: 예. 조금 반대하세요. 오히려 친척들이 더 많이 반대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 당신의 경우에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꼭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 아버지는 무슨 일에 종사하시나요?

답: 아버지의 직업은 일정하지 않으세요. 일거리가 생기면 하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 어머니는요?

답: 어머니는 여행사에서 중국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룹을 인솔하는 일을 하세요.

문: 가이드일인가요?

답: 예 가이드.

문: 어떻게 그런 일자리를 구하게 되셨지요?

답: 어머니는 이미 18년째 중국을 왕래하고 계세요.

문: 중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답: 중국은 잘 알지만 중국어는 모르세요. 중국어 통역과 함께 다니시지만 그곳에서도 중국인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해요. 원칙적으로 통역은 그다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통역을 대동하지요. 어머니는 중국에 이미 많은 연줄과 지인들이 있어요.

문: 가정의 수입 수준은 어떠한가요?

답:.....

문: 현재 적절한 수준인가요?

답: 적당해요.

문: 적당해요?

답: 음, 예.

문: 소득 수준이 중간인지 중하인지?

답: 잘 모르겠지만 중상은 될 거예요.

문: 바램인가요?

답: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가정이 자녀를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대도시에서는 생활해야하고 배우고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데.

문: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요.

답: 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문: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받으세요?

답: 한 달예요? 5,000루블(약20만원)이요.

문: 5,000루블이요?

답: 이 돈은 생계유지비용이고요, 옷가지나 그 밖에 것은 이곳에서 구입을 안 해요.

문: 옷가지 이외예요?

답: 그러니까 용돈은 먹거리와 교통비에 쓰이지요.

문: 교통비에 5,000루블요?

답: 예.

문: 한 달예요?

답: 예.

문: 5,000루블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답: 적절해요. 일반적으로요.

문: 평균적으로요? 보통 그 정도를 받나요?

답: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더 적게 받아요.

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답: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문: 받는 돈으로 생활 유지가 되나요?

답: 아니에요. 가령 놀러 다니거나 영화나 카페 등에 출입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만. 먹거리나 교통비에만 지출한다면 충분해요. 오히려 남지요.

문: 화장품은 안사세요?

답: 안사요. 보통 집에 왔을 때에 사요.

문: 그러면 적당하겠네요.

답: 예.

문: 보통 받은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답: 저축을 해요.

문: 저축해요.

답: 예.

문: 왜요?

답: 미래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문: 만약을 위해서요.

답: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축은 항상 필요해요.

문: 관광을 위해서요?

답: 아니에요. 가령 생활하다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즉 이러한 때를 위해서 일정한 액수를 저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공부 후에 식사에 지출하겠네요?

답: 먹는 것에는 별로 지출 안 해요.

문: 보통 무엇을 드세요.

답: 다양하게 먹어요.

문: 물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세요?

답: 아니요. 만족 못해요.

문: 왜요?

답: 현재의 상태에 있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만족해한다면, 스스로 발전하고 높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따라서 조금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러워 할 필요가 있지요.

문: 가정에서는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나요?

답: 아니에요. 저는 별로 대화를 안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혼합된 언어(러시아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세요. 저는 말은 이해하지만 고려 말로 대답은 안 해요. 어머니께서 무언가 하도록, 혹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뿐, 이후에는 별로 대화가 없어요.

문: 부모님은 고려 말을 할 줄 아시네요?

답: 할 줄 알아요.

문: 잘 하시나요?

답: 잘 하신다고 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친할머니의 경우 고려 말로만 대화를 나누세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할머니와 고려 말로만 대화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 말을 잘 하시지요.

문: 할머니가 살아계시네요?

답: 예.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세요. 자주 함께해요.

문: 할머니는 고려 말만 하세요?

답: 예. 러시아말은 모르세요.

문: 몇 세시지요?

답: 87세요.

문: 본인은 고려 말을 잘 아세요?

답: 아니요. 읽고 쓰기정도 알아요.

문: 읽을 줄 아세요?

답: 예.

문: 이것을 읽을 수 있겠어요?

답: <고려인 학생 인터뷰>

문: 배우셨군요?

답: 예. 그저 조금....

문: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답: 학교에서 조금 배웠어요.

문: 사할린에서요?

답: 예. 이곳에서도 반년정도요. 읽고 쓰기는 알고, 대화하거나 이해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 알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문: 한국 드라마요?

답: 어떤 드라마요? 얼마 전 겨울에 <겨울 연가>와 <넌? 봤니?> 등 많이 보았어요.

문: <겨울 연가>의 주인공을 아세요?

답: 영화 제목만 기억이나요. 배우의 이름은 기억이 안나요. 별로 안 좋은 인물 들이지요.

문: 그런 유형이 마음에 드나요?

답: 어떤 유형이요?

문: <겨울 연가>에서와 같은 그런 유형이요?

답: 예. 좋은 영화지요.

문: 그러니까 고려 말을 아시는 셈이네요?

답: 아니에요.

문: 읽을 줄 아시잖아요.

답: 읽을 줄은 알지만 언어를 안다는 것-이것은 단지....대화는 못해요. 조금씩 이해는 하지만.

문: 배우고 싶은 바람이 있으세요?

답: 예. 큰 바람이 있어요. 언어를 읽고 쓸 줄은 알지만 실제적인 언어실습의 경험이 없을 때에 언어를 통한 배움의 싹은 죽게 마련이지요. 이곳에서 3년 동안 고려 말을 듣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배우고 영화를 보게 되면서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학교에서 고려 말을 배울 때는 모국어라서 의무적으로 배우다보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원해요. 주변에 고려 말 구사자가 없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언젠가 향후에는 한국에서도 잠시 지낼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문: 잠시 지내요?

답: 예. 언어실습이지요. 한 5년 정도 후에. 하지만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그런 바람이 생겼어요.

문: 부모님들께서 종종 한국, 즉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답: 나라요? 예. 자주 말씀하세요.

문: 어떻게요? 현재 그들은 힘들잖아요?

답: 저는 러시아 3세대 한인으로서 러시아를 모국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한인(한국인)이고,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지요. 저는 자신을 한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의 관계를 많이 잃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우리 간에는 이제 서로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희 가족의 경우 처음에는 국적이 없어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우리들을 한국 또한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가정에서 자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버지도 한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한국이 마음에 들어요. 저희 친척들도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요. 북한쪽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문: 그들은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답: 돌아가려고 하지만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러시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모국으로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들은 한국과의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요. 사할린뿐만이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한인 노인 분들은 영구귀국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해요.

문: 어머니는 고려 식(한국식)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답: 고려 식으로요? 어떤 음식들이요? 미역국, 두부국, 김치국, 된장국 등등. 전부 알지는 못해요. 많은 반찬들을 만드세요.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문: 밥(쌀)도 종종 드세요?

답: 밥은 매일 먹어요. 빵은 못 먹겠어요.

문: 사할린에서요?

답: 아니요. 여기에서도요.

문: 여기에서도요? 직접 음식을 준비하세요?

답: 아니요. 밥술으로요.

문: 밥술도 갖고 있으세요?

답: 예.

문: 직접 준비하세요?

답: 예. 하지만 이곳에서 고려음식(한국음식)은 안 먹어요.

문: 반반씩 드시나요?

답: 음, 때로는 김치나 찌개 등의 한국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 김치 만드는 법 아세요?

답: 예.

문: 그래요? 만들어 보셨어요?

답: 예.

문: 정말요? 대단해요.

답: 혹은 김밥도 들 수 있는데, 때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 생활 하는 기숙사에서는 집에서처럼 절인다거나 냉장고를 이용하거나 하는 등 음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빠르게 무언가를 끓여먹는 것으로 만족해하지요. 또한 시간도 부족하고요.

문: 재료는 있나요?

답: 가령 <김>은 제가 직접 가지고 와요. 제가 김을 좋아하거든요. 미역도 가지고 오고요. 이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워요. 4개월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거든요.

문: 4개월에 한 번씩이요? 멀지요?

답: 13시간 걸려요.

문: 13시간이요? 기차로요?

답: 아니요. 비행기로요. 비행시간만 10-11시간 타는데, 여기에 갈아타는데 2시간 기다리거든요.

문: <크라스-아비아> 항공이 다니나요?

답: 예. 크라스노야르스크 항공사.

문: 어떤 음식을 매우 좋아하세요?

답: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김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쌀(밥) 카리도 좋아해요.

문: 쌀 카리요?

답: 쌀(밥) 카리 모르세요? 한국식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먹어왔어요. 곁에 한국어로 글귀가 적혀있어서 아마도 한국음식 같기도 해요. 도시에 일본식과 한국식을 판매하고 있어서 서로 섞어서 만들어 먹어요.

문: 한국의 어떤 명절들을 알고 계세요?

답: 추석이에요.

문: 추식에 뭐하셨어요.

답: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문: 사할린에서요?

답: 사할린에서는 추식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온 이후에 이곳의 교회에서 어떤 한인들은 한국 명절을 기념하기도 하더군요. 사할린에서는 어버이날 정도 기념하고, 여름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소에 가

곤하지요.

문: 당신도 제사를 지내셨어요?

답: 나는 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하지요.

문: 세대가 달라서요?

답: 세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답: 예.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요. 단지 제사 준비를 도와줄 뿐이지요.

문: 그밖에 어떤 명절을 기억하고 계세요?

답: 잘 모르겠어요. 음력으로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요. 부모님들은 기념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날들은 이미 명절이 아니에요.

문: 이제는요?

답: 어버이날 정도 명절(축일)로 다가올 뿐이에요.

문: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지요?

답: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그렇게 불러요. 아마 8월 15일경으로 알고 있어요.

문: 8월 15일 경이요? 추석이잖아요.

답: 예?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날이에요. 날짜가 헛갈리네요. 해마다 여름에 사람들(한인)이 동시에 산소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 당신도 같이 명절을 기념하시나요?

답: 예. 저도 같이 다녀요. 하지만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요.

문: 당신은 민족적으로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한인이 아니에요.

문: 한인이 아니에요?

답: 제 마음으로 저는 러시아인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외적으로는 러시아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한인이지요. 누군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인>이라고 답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저는 이미 러시아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제가 항상 한국인이나 러시아-한인들과 어울렸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지요.

문: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는 한인들(한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답: 예.

문: 러시아 한인들, 한반도 한인들, 단지 그런 대상들만이요? 미국에도 한인들은 있지요.

답: 저는 자신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해요.

문: 그러니까 러시아-한인이 아닌 러시아인이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한인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러시아인, 러시아국적의 러시아인이라고요.

문: 러시아 국적의 러시아인으로요?

답: 모르겠어요. 러시아인으로 생각해요.

문: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세요?

답: 다녔던 학교가 한인 학교였기 때문에 한국어와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문: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답: 예. 학교에서 어떤 명절을 기념하기도 했는데 어떤 명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민속의상과 민속품을 보기도 했어요. 자주 전통 콘서트가 공연되었고, 전통의상을 입고 복을 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단지 보여주는 것은 가능해요.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보야 하지요. 다른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어요.

문: 한인 3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2세대를 닮은 듯하네요.

답: 왜요?

문: 물론 그러니까....

답: 그러니까 외적으로요?

문: 시간적으로는 3세대이지만 성격상으로요. 당신은 이미 문화를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1세대는 향수가 있고, 2세대는 전통을 원하고, 3세대는 전통에 가까워지고자 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2세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답: 모르겠어요.

문: 한국 뉴스는 자주 들으세요?

답: 아니요.

문: 안 들으세요?

답: 예. 전혀요.

문: 정보가 적은가요?

답: 예. 한국에 대해 들을만한 그런 것이 저에게는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늘 듣거나 한국 채널이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할린에도 한국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한국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고, 단지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등이 마음에 들 뿐이에요.

문: 어떤 영화나 음악이요?

답: 여러 가지 현대 음악이요.

문: 기억하시나요?

답: 가수 그룹이요?

문: 그룹이나 노래 제목?

답: 가령 그룹<신화>, 가수 보아, 그룹 SES, 현대적인 가수나 그룹들로서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져요. 듣기 좋아요. 이해는 잘 못하지만 흥미 있고, 러시아 음악과는 달라요.

문: 노래도 잘 하세요?

답: 적당히요?

문: 적당히요?

답: 가라오케에서는 잘해요.

문: 조금 불러 보세요.

답: 아뇨. 안부를 거예요.

문: 그래요?

답: 못하겠어요. 그냥은 못하겠어요.

문: 러시아 노래도 좋아하세요?

답: 예. 잘 부르는 좋은 노래들은 좋아해요. 러시아에서는 낸 돈만큼의 좋은 노래를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목소리들이 좋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노래와 공연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들어요.

문: 한국 사람들과도 만나시나요?

답: 여름마다 사할린에 다녀오는데, 그때 매해 일주일 여정으로 사할린에 들어오는 한국 선교사들과 만나곤 해요. 또 사할린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도 모두 한국 출신들이고, 그들과도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교회는 있지만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는 않아요.

문: 교제가 없다고요?

답: 음, 저에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묻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못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문: 그들은 러시아어를 못하는 모양이지요? 교제나누기가 어렵지요?

답: 어려워요.

문: 언어적 문제이지요. 그렇죠?

답: 예. 어머니께서는 제가 읽고 쓰기는 잘 하고 말도 듣기에는 괜찮다고 말해주곤 하셨어요. 제가 만일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면 말하기를 빠르게 배웠을 거예요. 주변에 러시아인들이 없었다면 빨리 배웠을 거예요. 주변에

- 러시아인들이 많다보니 한국어도 필요 없게 되었고, 언어실습도 없고 하다 보니 한국말을 잘 못하게 되지요.
- 문: 한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 좋게 생각해요.
- 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답: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 문: 교제가 적으니 견해를 말하기 어렵다고요?
- 답: 영화를 통해서 평가하자면 러시아 영화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더 재미있거든요.
- 문: 영화를 좋아하세요.
- 답: 예.
- 문: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세요?
- 답: 음, 코메디 영화들이요.
- 문: 어떤 코메디 영화들이요?
- 답: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영화<언니가 간다>. 정말로 웃기는 영화라서 좋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웃지를 않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웃고 그래서 좋아요. 이전보다 올해부터 한국에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견해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 문: 당신이 한인(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자긍심을 느끼시는지요?
- 답: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인이지만 주변에 전부 러시아인들이 있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주변의 시선을 받기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요.
- 문: 도움이 되요?
- 답: 예. 가령 학습과 관련해서도요.
- 문: 학습과 관련해서요?
- 답: 예. 대학에서 선생님이 비러시아계 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해주세요. 또 저에게 모두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고요.
- 문: 당신의 삶 속에서 한국문화가 필요한가요?
- 답: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답: 제가 한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잖아요. 문화도....우리에게는 역사적인 모국, 한국이 있잖아요. 문화는 흥미롭잖아요.
- 문: 흥미로워요?
- 답: 우리가 100% 러시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혼합된 형

태로는 될 수가 있잖아요.

문: 결코 되지 못하니까요?

답: 결코 우리가 러시아인은 될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의 모국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평생을 마치 러시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살아왔어요.

문: ....

답: 우리와 가깝기에 한국 민족이 그저 궁금해요.

문: 한국문화가 러시아-한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답: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한국문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리라 생각해요. 한인이면서 한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를 싫어하고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흥미로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문화가 유용하리라 생각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혹은 이곳 한국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튼 모두에게 문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문: 저는 멘털리티의 유용성을 말하고 있어요.

답: 멘털리티요?

문: 이것도 유용하니까요?

답: 유용하지요. 문화를 아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한국영화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고, 이곳에도 한국 영사관이 개설되었어요.

문: 영사관이 이미 개설되었나요?

답: 예. 가을에.

문: 좋은 일이지요?

답: 예. 좋아요.

문: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 모르겠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사관을 통한 한국과의 관계형성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들 수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더 수월해 졌다고 봐요.

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인으로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답: 처음에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문: 왜요?

답: 왜냐하면 대학 기숙사에 한인들이 매우 적고, 그래서 중국인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인 학생들이 많아요. 위험하다기 보다는 스킨헤드족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순간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문: 지금은 괜찮아요?

답: 한인이라서 갖는 콤플렉스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히려 좋게 작용했어요.

문: 사할린에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답: 사할린에는 한인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이곳에만 있지요.

문: 지금은 더 적어졌나요?

답: 지금은 한인들도 많아지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한국 샐러드가 무엇인지도 알고 많은 한국 콘서트가 개최되고, 한국의 북춤이나 전통춤 그룹들의 공연이 있었지요. 한국 영화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이제는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좋아졌어요.

문: 인터뷰 감사해요.

답: 천만에요.

### ③ 러시아문학 교사 박 클라라 블라디미로브나 (가명) (52세)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4, 장소: 미르교회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클라라 블라디미로브나.

답: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답: 감사해요.

문: 본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답: 이름은 클라라 블라디미로브나이고 52세이며, 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30년 동안 교편을 잡고 있으며, 2명의 자녀(남매)를 두고 있고, 가족으로 남편과 어머니 등, 5명의 가족을 두고 있어요.

문: 전부 같이요?

답: 예. 전부 같이 사느냐고요?

문: 좁지 않나요?

답: 크지는 않지만 지금의 크기로는 큰 아파트이지요.

문: 몇 년생이세요?

답: 1955년생이고 카자흐스탄 출신이에요.

문: 어느 도시에서 출생하셨나요?

답: 도시는 아니고 작은 마을인데요, 부모님들은 강제이주자들이었지요. 강제이주당한 곳에서 태어났지요. 5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이었지요. 그후 80년도에 이곳으로 이주해 왔어요.

문: 80년도에 온 가족이 페테르부르그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답: 예. 어머니는 조금 늦게 모셔왔고, 지금은 전부 같이 살아요.

문: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나요?

답: 문화 중심의 도시로 오고 싶었어요. 그곳의 삶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저 문화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문: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사를 왔지요?

답: 음, 그러니까....

문: 톰스크, 옴스크 등지로.

답: 톰스크와 옴스크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 우랄, 예카테린부르그 등에는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불가 지역에도 많이 살고요.

문: 교사로 일하고 계시지요?

답: 예.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문: 30년 간 근무를 하셨다고요?

답: 예. 30년 동안.

문: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네요.

답: 이제는 피곤해요. 지쳤어요.

문: 어느 대학을 마치셨나요?

답: 교사를 양성하는 카자흐스탄 사범대학을 졸업했어요.

문: 어느 학부요?

답: 철학부 러시아어 및 문학을 전공했어요.

문: 종교가 있으신가요?

답: 종교 있지요. 기독교, 즉 개신교 신자예요.

문: 교회에 나가시나요?

답: <고려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문: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나요?

답: 딸이 12살이던 2002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나요?

답: <고려사람>이라는 교회 명칭이 <고려민족>을 의미하고 있듯이 교회는 한인들을 단결시키고, 신앙을 갖고 서로 평화롭게 돕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

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민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인들과 함께 그들의 러시아인 배우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 또한 민족 구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 부군께서는 어느 민족이신지요?

답: 러시아인이예요.

문: 러시아인이요?

답: 예.

문: 자녀분이 2명인가요?

답: 예.

문: 부모님들은 모두 한인이신가요?

답: 예. 부모님들은 한인이세요.

문: 타민족과의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현지 적응을 위해서 민족 간의 결혼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좋고 나쁜 것이 존재하지요. 전에 소련은 15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고, 민족 간의 혼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후에 우리는 러시아어와 문화를 배웠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다보니 한국문화(한민족 문화)는 거의 모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러시아에 관심을 돌리고, 어떤 콘서트나 출판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들도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알기 시작하고 있고,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들은 고려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스스로를 여겼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만 사용했고, 부모님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했어요. 수업은 러시아어로 행해졌고, 저도 러시아어 교사로서 러시아어를 가르쳤고요. 물론 이제는 민족의 뿌리 쪽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민족적인 뿌리, 즉 역사적인 조국 쪽으로 마음이 끌리고 있어요.

문: 만일 당신의 아들이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허락하실 생각이세요?

답: 기꺼이는 아니지만, 어떤 민족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에요.

문: 딸은 학교에 다니나요?

답: 아니요. 딸은 음대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문: 음대요?

답: 아들은 20세인데 이미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문: 대학을 졸업했나요?

답: 아니요. 대학을 마치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교육제도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이나 대학 교육을 마친 학생이 전공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아들의 친구들이 올해 대학을 마치고 있는데, 아들도 다녔다면 올해 졸업반이에요. 아들은 기계조립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그만두고 직장을 잡았어요. 현재 아들 친구들도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러시아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고, 혹은 학교를 마치고 자기 전공이 아닌 상황에 따라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전문기술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월급도 매우 작고, 차라리 평범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평범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문: 딸은 음악 학교를 다니나요?

답: 딸은 1단계인 음악 학교를 마치고, 2단계로 음대를 다니고 있어요. 이 단계를 마치면 음악원을 들어가게 되요.

문: 딸 스스로 그런 진로를 택했나요?

답: 예. 딸 스스로 하고 싶어 했어요.

문: 재능도 있고요?

답: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어요.

문: 현재 피아노를 배우고 있나요?

답: 아니요. 교회 성가대에서 반주를 맡고 있어요.

문: 배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답: 예. 매우 재미있어 해요.

문: 당신도 딸이 계속 배우기를 원하세요?

답: 물론이지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지요. 딸도 소망이 있고, 저도 딸이 계속 배웠으면 해요.

문: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문: 생활수준과 비교해서요?

답: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입이지요. 중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 자녀들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용돈을 주세요?

답: 그런 것 없어요. 그 날 그 날 필요에 따라 주고 있어요. 교통비는 카드를 구입하고요, 이따금씩 일주일에 한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 일주일에 한번이요? 대략 얼마나요?

답: 500루블(약2만원)정도요.  
 문: 한 달에 2,000루블(약 8만원)인 셈이네요.  
 답: 예. 그런 셈이네요.  
 문: 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답: 적은 액수이지요.  
 문: 자녀분들이 용돈을 어디에 지출한다고 생각하세요?  
 답: 먹는데, 그리고 아껴서 화장품을 구입하겠지요.  
 문: 한 달에 2,000루블이면 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답: 학생에게 있어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해요.  
 문: 대략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 적어도 2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 4,000루블(약16만원)이요?  
 답: 음, 그 정도라도.  
 문: 그래도 학생들에게 부족하겠지요?  
 답: 물론 부족할거예요.  
 문: 가정에서는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 아니요.  
 문: 자녀들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누나요?  
 답: 물론이지요. 기본 언어잖아요.  
 문: 자녀들이 고려 말도 할 줄 아나요?  
 답: 고려 말은 못해요.  
 문: 하고자 해요?  
 답: 고려 말, 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문: 당신은요?  
 답: 자녀들이 한국말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저도 배우고 싶어요.  
 문: 가정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답: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고, 한국 영화도 봐요.  
 문: 어떤 영화를 보세요?  
 답: 최근에 영화<형제들>(아마 ‘태극기 휘날리며’-역자)를 보았는데 감독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영화였어요. 두 형제가 한 명은 남한을 위해서, 다른 한명은 북한을 위해서 서로 싸웠지요.  
 문: 한국 영화가 재미있으세요?  
 답: 예.  
 문: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받나요?

답: 물론 큰 인상을 받지요. 우선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는지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한국이 분단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과거에는 단일 국가였잖아요. 형제가 같이 살아야지요.

문: 아는 한국 노래가 있으세요?

답: 몇 곡 알아요.

문: 기억하세요?

답: 보통은 가사를 보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못하겠어요. 게다가 완전히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 한국노래와 한국문화에 자녀들이 관심 있어 하나요?

답: 물론이지요.

문: 어떻게요?

답: 우선 러시아의 거주자들은 한국의 상품이나 경제에 관심 있어 해요. 다음으로 문화적인 관계 또한 관심의 대상이지요. 하지만 문화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드물게 형성이 되지요. 콘서트나 전시회 등이 적거든요. 이 또한 최근의 현상이지요. 한국 상품과 관련해서, 바로 이 상품들을 통해서 상품의 질이라든가 한국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가 적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매우 적게 알게 되지요.

문: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송이 적나요?

답: 매우 적게 나오고, 정보가 없어요.

문: 상품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는 셈이네요?

답: 아니요. 그러니까 가령 폭넓은 차원에서 인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경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만일 최근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만, 즉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정상들이나 장관들이 서로 만날 때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고, 이런 소식은 우리도 알게 되지요. 하지만 더 개별적인 소식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문: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시나요?

답: 예.

문: 어떤 음식들이요?

답: 우리가 <국수>라고 부르는 <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고요, 국도 끓여 먹어요.

문: 모든 음식을 만들 줄 아세요? 맛있게요?

답: 매우 맛있게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아주 맛있게 먹어주지요. 러시아인들도 와서 맛있게 먹어줘요. 대체로 러시아에서 한국식(고려식) 음식을 매우 좋아해요.

문: 러시아인들도 좋아하나요?

답: 예. 러시아인들도 매우 좋아해요.

문: 주로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나요?

답: 샐러드 종류를 좋아해요.

문: 한국식(고려식) 샐러드요?

답: 고려 식 샐러드들은 도처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으며, 명절 때에는 꼭 사먹는 음식이지요.

문: 당신의 자녀들도 잘 먹나요?

답: 자녀들도 잘 먹어요.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할 수 있지요.

문: 하루에 몇 번 밥(쌀)을 드시나요?

답: 하루예요?

문: 일주일에요?

답: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어요.

문: 보통은 빵을 드시나요?

답: 빵이요? 예.

문: 국수 외에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시나요?

답: 국수 외에 <폐고자>라는 <만트이>를 만들어 먹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셨는데 한국말로 제대로 발음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 명절에 음식도 준비하세요?

답: 아무래도 명절에 준비를 하지요. 국은 <미역>이나 한국 배추로 끓여 먹어요.

문: 보통은 러시아 음식을 드시고, 특별히 명절 때에는 한국식(고려식) 음식을 만들어 드시나요?

답: 예. 꼭 만들어 먹어요. 한국식(고려식) 음식은 많은 노동을 요하는 것이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하는 반면에, 러시아 음식은 빠르게 준비가 되지요. 소시지를 잘라서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만 준비를 해서 먹어요.

문: 자녀들도 고려식(한국식) 음식을 좋아하나요?

답: 특히 국수를 좋아해요. 다른 것들도 좋아하고요.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근 샐러드인 <당근채>를 이곳에서는 매우 좋아해요.

문: <회>를 아시나요?

답: <회>? 예.

문: 회도 만드세요?

답: 예. 생선이나 고기로 만들어요.

문: 김치는요?

답: 김치요? 만들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몰라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고, 이곳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문: 자녀들도 좋아하나요? 맵지 않나요?

답: 한국서처럼 고추는 많이 넣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먹어요.

문: 한국에 관한 뉴스도 자주 들으세요?

답: 아니요.

문: 왜요?

답: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 아예 정보가 없나요?

답: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문: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셈이네요?

답: 예. 목사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얻고 있는 셈이지요.

문: 한국에는 가보셨나요?

답: 아니요.

문: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으세요?

답: 꼭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오면 꼭 활용해보고 싶어요.

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우선 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와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읽었는데, 경제적인 급성장이 있었지요? 한국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정상적인 수준에 있고, 국가가 문화와 경제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봐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요.

문: 한국인들과도 교제를 나누시나요? 어떠세요?

답: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이에요.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요. 문화적 다양성 하에서도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지요. 우선은 하나의 민족, 즉 우리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것이 서로를 가깝게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 기독교들과도 교제를 나누며 친근함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고 있어요.

문: 한국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동질성을 느끼시나요?

답: 동질적인 것?

문: 무엇이 동질적일까요?

답: 그러니까 동질적인 것은?

문: 하나의 민족이라든지 혹은....

답: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숭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고, 우리를 서로 가깝게 만들어 주지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 달라요?

답: 달라요. 예. 문화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아닌 셈이지요. 러시아 한인들의 운명이라 할 수 있지요. 러시아에 <타지에서는 주인이고, 고향에서는 외톨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들과의 접촉은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문: 하나님을 통해서요?

답: 예. 우선 하나님 없이는 다른 한국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아예 없어요. 교회가 우리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만들어 지지 않았을 거예요.

문: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멘털리티도 다르고?

답: 멘털리티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겨우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상 멘털리티는 다르지요. 단지 교회에서 한국의 학생들이나 선교사들과 만나고 있을 뿐이에요.

문: 한국의 명절들을 아시나요?

답: 가장 큰 명절인 추석도 이제 알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5월 5일은 어린 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7일(15일-역자)은 스승의 날로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요.

문: 목사님을 통해서요?

답: 예.

문: 추석에는 가정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답: 추석에 교회에 가요. 보통 집에서 추석명절을 보내지 않거든요. 러시아 한인들에게 추석은 새로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석명절을 보내는 것이네요.

답: 예. 동양식 새해도 러시아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문: 러시아-한인협회(고려인협회-역자)나 어떤 모임 등에도 참여하세요?

답: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것을 러시아-한인협회라고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 페테르부르크에도 있나요?

답: 예.

문: 어떤 단체들이 있지요?

답: 러시아-한인협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 교회 창립 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협회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관계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문: 그러니까 러시아-한인들이 주로 교회에서 모이는 셈이네요?

답: 예.

문: 교회에서 추석 등의 명절들도 맞이하고요?

답: 예.

문: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사세요?

답: 예. 한국 노래도 듣고요.

문: 한국에 대한 소식이 유용한가요?

답: 유용하고, 꼭 필요해요.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 사람에게는 많은 사물이나 대상들, 즉 국가나 교육적인 그 무엇이 아닌, 타고난 것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천성, 타고난 멘탈리티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역사적 모국과 관련된 것은 -역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한국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답: 예. 반드시.

문: 이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까요?

답: 우선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요. 왜냐하면 한국문화 속에서 어른과 아이들 간의 관계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유럽문화 속에서 보다 달라요. 따라서 유럽적인 것보다는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그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봐요. 러시아 문화 속에서는 전에는 존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사람들 간의 존경심, 어떤 평화로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양육방식이나 문화를 알고 그 곳에서 무언가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자녀들도 원하고 있나요?

답: 자녀들도 원해요. 딸의 경우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해요. 아들은 적게 알고 있지만 한민족이 매우 문화적인 민족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문: 감사해요. 클라라 블라디미로브나.  
답: 천만에요.

④ 전업주부 김 나탈리아 (가명) (40세)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5, 장소: 미르교회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나타샤.  
답: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마워요. 준비되셨지요?  
답: 예.  
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답: 제 이름은 나탈리아이고 68년생이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에요.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큰 아들은 21세이며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경제대학 법학부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11세로 쉬콜라를 다니고 있어요.  
문: 11세요?  
답: 예.  
문: 몇 학년 이지요?  
답: 5학년이에요. 남편은 46세이고 은행에서 근무해요. 저는 주부로 아이들을 돌봐요.  
문: 집에서요? 주부이시군요.  
답: 예. 집안일을 보지요.  
문: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답: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문: 쉬콜라만 졸업하셨군요.  
답: 학교 졸업 후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남편이 항상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문: 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결혼했나요?  
답: 예. 그래서 현재 대학생의 아들이 있어요.  
문: 예. 그렇군요. 종교는 있으신가요?  
답: 신앙이요? <고려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곳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 교회 신도가 얼마나 되지요?  
답: 약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문: 전부 러시아-한인들인가요?

답: 예. 러시아-한인들.

문: 100명이나요?

답: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문: 연령대는요?

답: 어린 아이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많아요. 중년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거나 대상자를 찾고 있지요.

문: 남편은 민족상 누구인가요?

답: 남편은 러시아-한인이예요. 남편도 타쉬켄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 또한 한인들이예요. 우리들은 한민족 전통에 따라 양육되고, 전통을 고수해 왔으며, 따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정의례들을 지킬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또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문: 민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민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자녀들이 같은 민족의 배우자를 택했으면 하면 바람이 있어요.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 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경우에 더 쉽고 편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 아들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답: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러시아 여성이든 다른 민족의 여성이든 그녀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이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에 이 문제에 매우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 큰 아들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지요?

답: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경제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문: 스스로 진로를 선택했나요?

답: 스스로 그런 학부를 선택했어요.

문: 당신도 허락하셨나요?

답: 반대하지 않았어요.

문: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답: 예.

문: 아들이 그런 과목들을 좋아하나 봐요?

답: 본인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말하기 힘들네요. 진학 당시 스스로 선택했고, 경제 분야 주에서 법률관련 학과를 선택했지요. 아들은 타쉬켄트 국민경제대학에서 국제경제관계를 1년간 배우기도 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두었어요.

문: 법학부에서의 공부가 미래에 큰 도움이 될까요?

답: 배우고는 있지만 아들 또한 향후에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관련 분야의 직업은 월급이 그다지 높지 않고, 직책이나 월급수준이 어떤지 살펴보았지만 그다지 월급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운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있겠지요.

문: 둘째 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답: 5학년생이에요.

문: 공부는 잘 하나요?

답: 학업성적이 중간정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사를 온 후 빠르게 적응해서 사교성이 있고, 러시아 학생들과도 쉽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문: 적극적인가 봐요?

답: 예. 적극적이에요.

문: 잘 하지요?

답: 잘 하고 있어요. 더 공부를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괜찮아요.

문: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답: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문: 아직 어리지요.

답: 아직 어려워요.

문: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답: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문: 당신 가정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소득수준이요?

문: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시지요?

답: 예. 은행에서 일해요.

문: 더 낮지요?

답: 아니요. 이사 오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남편은 20년 동안 큰 은행의 고위직 관리자로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후에는 어렵게 낮은 월급의 일자리를 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문: 중간 이하 수준인가요?

답: 예. 중간 이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직 주택도 임대로 살고 있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월급이 낮다고 생각해요.

문: 러시아-한인 가정이 평균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나요?

답: 평균적으로 두 부부의 월급을 계산할 때 약 20,000루블(약8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봐요.

문: 20,000루블이요?

답: 예.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봐요.

문: 달러로는 얼마나 되지요?

답: 약 800 달러정도요.

문: 두 부부의 월급을 합해서요?

답: 예.

문: 이 정도가 평균 월급 수준인가요?

답: 예. 그 정도가요.

문: 보통 맞벌이를 하나요? 아니면 남자만 일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해요. 혼자만 일하는 경우에는 두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자기 집이 없고, 대부분 임대로 살아가는데 임대료가 매우 비싸요.

문: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셈이네요.

답: 운이 좋다고요?

문: 집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답: 단지 한 달만 집에 있는 거예요.

문: 일을 해오셨나요?

답: 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문: 또 일을 하시려고 생각중이세요?

답: 예. 집에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문: 자녀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시나요?

답: 큰 아들에게는 약 3,000루블(약12만원)을 줘요.

문: 3,000루블이요?

답: 예. 교통비와 식비에 쓰이지요.

문: 전부해서 3,000루블이요?

답: 예.

문: 둘째 아들에게는요?

답: 아무래도 지출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줘요.

문: 대략 얼마나?

답: 한 달에 약 1,000루블(약4만원)정도요.

문: 충분할까요?

답: 예. 충분해요. 물론 더 많이 원하겠지만 아이들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아

는 만큼 더 요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 큰 아들은 대학생이지요?

답: 예.

문: 3,000루블이면 충분할까요?

답: 물론 부족하지요. 그래서 항상 어디선가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지요. 가령 이곳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물질적인 편의를 더 추구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문: 제가 생각해서 용돈의 액수가 적네요.

답: 예. 적어요.

문: 아가씨도 만나야 할 텐데....

답: 아가씨가 문제가 아니라 동료학생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부족한 액수이지요. 하다못해 어디 즐길만한 장소에 출입하는데 적어도 300-400루블(약1만2천원-1만6천원)이 들거든요.

문: 학생들이 평균 얼마의 용돈을 받나요?

답: 지혜롭게 자신의 지출을 관리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약 300달러 정도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적절할 것으로 봐요.

문: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액수를 받나요?

답: 이곳에는 부모의 지원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들은 부모들로부터 500달러씩 매월 받고 있기도 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지출을 감당하며 용돈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물질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문: 용돈으로 주로 무엇을 하지요?

답: 전화비용이나 먹는 것, 교통비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곳의 물가가 아주 비싸다고 생각해요.

문: 가정에서는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답: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고려 말 수준으로 교회의 목사님이나 선 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문: 한국어를 할 줄 아시나요?

답: 조금 할 줄 알아요.

문: 할 줄 아세요?

답: 조금요.

문: 어떻게 배우셨어요?

답: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셨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문: 자녀들도 고려 말로 대화를 나누나요?

답: 큰 아들은 고려 말을 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경우에, 교회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문: 그런 기회가 당신에게 이로움을 주나요?

답: 한국어요?

문: 예. 당신에게 필요하지요?

답: 저도 한국어가 필요하고 배워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이 나 손님들과 더 깊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상대의 말을 이해하게 될 때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향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 자녀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나요?

답: 자녀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일요일에 사역자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잖아요. 다 같이 배우고 있고, 이미 자모음과 음절, 단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문: 아이들이 영어에 더 관심 있어 하지요?

답: 예. 아마도요. 직장을 잡는데 필수적인 언어이니깐요.

문: 자녀들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답: 한국에 대해서요?

문: 한국인들에 대해서요.

답: 예. 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세상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문: 자녀들이 한민족(한국민족)과 뿌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나요?

답: 예. 관심 있어 해요. 우리 조상들이나, 조상들이 어떻게 러시아에 넘어왔는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 있어 해요.

문: 고려음식(한국음식)도 만들 줄 아세요?

답: 물론이지요.

문: 어떤 음식들이요?

답: 많은 음식들을 열거할 수 있지요. 첫째로는 반드시 만들어 먹는 김치를 들 수가 있고요, 항상 먹는 밥(쌀), 국, 콩으로 만든 음식들, 국수 등을 만들어 먹어요.

문: 자주 만드시나요?

답: 예. 자주.

문: <밥>도 자주 하시지요?

답: 밥은 거의 매일 해먹어요.

문: 매일이요?

답: 예. 매일.

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자주 만들어 드시나요?

답: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의 매일 고려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곳에서는 가  
능성이 더 많아서 더 자주 해먹었지요.

문: 한인시장에서 모든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지요?

답: 예. 물질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었고요.

문: 자녀들도 고려음식 좋아하지요?

답: 예. 좋아해요.

문: 밥(쌀)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답: 하루에 두 번 정도. 점심과 저녁에는 꼭 밥을 먹지요.

문: 빵보다는 밥이 더 가까이 있겠네요?

답: 학교 공부 이후에 점심으로 아이들이 주로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고, 이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밥을 주로 먹고 있어요.

문: 자녀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답: 타쉬켄트에서 태어났어요.

문: 어제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답: 저녁에는 밥과 가지 볶음을 먹었어요. 그밖에 잡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문: 잡채도 만들어 드세요?

답: 예. 이곳 교회에서 배웠어요.

문: 면은 어디서 판매되나요?

답: 이곳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문: 힘들잖아요. 많이 구하기가....

답: 재료들요? 괜찮아요.

문: 이제 익숙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답: 자주 만들어 먹지는 않아요.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길 때에만 만들어 먹  
을 수 있는 음식이지요.

문: 현재 집안일을 돌보고 계시지요?

답: 한 달째 집안일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식 음식으로 아이들을 먹이게

되었지요. 러시아 음식은 빠르게 만들어서 빵과 함께...

문: 러시아 음식들도 만들 줄 아시지요?

답: 예. 물론이지요.

문: 어떤 음식들을?

답: 제2 음식인 보르쉬, 야채국, 면수프 등이요.

문: 솔란카도 만들 줄 아시나요?

답: 그런 음식은 안 만들어 먹어요.

문: 당신은 자신이 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예. 러시아-한인이라고 생각해요.

문: 예. 러시아-한인. 곳곳에 있지요. 미국에 재미한인, 중국에 조선족...

답: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우리가 한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 한국의 뉴스도 들으시나요?

답: 뉴스요? 한국의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대중매체 수단이 이곳에는 없어요. 공식적인 채널로 방송되는 소식은 관심 있게 듣고 있어요. 하지만 주로 교회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문: 텔레비전으로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나요?

답: 텔레비전은 드물게 보도해요. 이따금씩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곤 해요.

문: 한국에 관한 서적을 읽은 적도 있나요?

답: 아니요. 책은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영화는 많이 보았어요. 영화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현대 영화보다는 주로 과거 시기의 옛 영화들을 좋아해요.

문: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세요?

답: 제목은 모르겠어요. 첩-아내에 대한 옛날 영화 한편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국의 전통이기도 했던 같아요. 자녀가 없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자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요.

문: 기가 막혔다고요?

답: 예. 과거에 그런 시기도 있었더라고요.

문: 옛날 영화를 좋아하세요?

답: 예. 현대영화도 좋아해요. 액션이나 멜로드라마는 저희 자녀들도 좋아해요.

문: 한국영화를요?

답: 예. 타쉬켄트에서는 <아리랑>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가르쳐주곤 했지요. 그밖에 드라마 시리즈

즈들을 시청했어요. 낯익은 단어들이 들려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흘러나올 때 얼마나 반갑던지요.

문: 2004년에 이미 타쉬켄트에서는 한국 시리즈들을 방송하고 있었나요?

답: 예. 타쉬켄트에서는 2000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리랑> 채널은 지금 까지도 방송하고 있어요.

문: 방송하고 있다고요?

답: 예.

문: <대장금>도 시청하셨나요?

답: 제목을 기억 못하겠어요.

문: 한국노래도 들으시나요?

답: 한국에서 음악 콘서트 단체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꼭 가서 보고 있어요.

문: 당신만 혹은 자녀들도 다니나요?

답: 음, 아이들은 덜 관심 있어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들과 남편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문: 자녀들은 현대음악을 좋아하나요?

답: 예. 현재 젊은이들은 러시아 음악도 완전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 남편과 같이 다니셨나요?

답: 예.

문: 자녀들 없어요?

답: 예. 아이들 없이.

문: 한국에는 가보셨나요?

답: 예. 98년도에 가보았어요.

문: 어떤 계기로 가보셨나요?

답: 그저 관광이었어요. 동시에 명승지들을 돌아보았는데 매우 재미있었어요.

문: 얼마나 계셨었나요?

답: 일주일이에요.

문: 어디에서 체류하셨나요?

답: 동대문 지역에서 지냈어요.

문: 서울에서요?

답: 예. 서울에서. 이태원도 기억이 나네요.

문: 무엇을 보셨나요?

답: 관광이라서 도시를 돌아보며 좋은 물건들을 구입했어요.

문: 인상은 어떠셨어요?

답: 우선은 공기가 맑아서 좋았어요.

문: 공기가 좋았다고요? 정말로요?

답: 예.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해서 더 맑게 여겨졌어요.

문: 또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나요?

답: 자신의 주변에 저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다니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오로지 외형상으로 한국인들만 생활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는 외형상으로 많은 구별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인가....

문: 모두가 동일하지요?

답: 예. 모두가 똑같았어요. 정말로.

문: 한국 사람들이 당신이 한국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가요?

답: 아니요. 서울에서 왔을 때 우리들은 실제로 서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곧바로 낯선 무언가를 보시더군요.

문: 왜 그렇지요?

답: 모르겠어요.

문: 모르겠어요?

답: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문: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는 것....

답: 예. 아마도. 옷이나 치장면에서.

문: 장식들.

답: 예. 우리들은 구별이 되었어요.

문: 아는 한국 사람들도 있으세요?

답: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 한국인들과 관계가 있으세요?

답: 남한과요, 아니면....

문: 예. 남한과요.

답: 주로 교회 사람들이예요. 이곳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 저요.

문: 보통 학생들이지요?

답: 학생들뿐만이 아니예요. 지난해에는 대기업인 삼성과 LG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문: 한국인들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답: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의 그런 것 없어

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세속사람들이거나 불신자였을 때에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관계도 좋고 더 많은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마음에 기쁘게 다가와요.

문: 한국 방문 이후에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답: 우리에게 낯선 나라이지요. 한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보면서....한국에서 나이든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자유롭게 삶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참 놀라웠어요. 휴일에는 작은 식당에 다니며 교제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사시는 우리의 노인 분들은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못해요.

문: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답: 손자들의 양육을 돕는 등 더 많이 수고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 한국의 명절들을 아시나요?

답: 예.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할 때는 9월에는 반드시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추석인지 몰랐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의 날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는 추석을 감사의 날로서 기념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조상들을 찾고, 산소에 다녀오곤 했어요. 또 4월 5일에도 부모님의 날로서 기념을 했어요.

문: 한식날이에요?

답: 예.

문: 명절 이름이에요.

답: 한식은 명절은 아니고요, 이 날도 부모님의 날로 여겨졌어요. 예. 아마도 한식날이지요.

문: 산소에도 다니셨나요?

답: 예.

문: 자녀들도요?

답: 아이들도 4월 5일을 잘 알고 있어요.

문: 자녀들도 다녔나요?

답: 예. 할머니께서 계시니까....만일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문: 이곳에서는요?

답: 이곳에 온 후에는 교회에서 명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문: 여전히 많은 전통과 의식들이 남아있지요.

답: 여전히 우리들도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 이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답: 예. 아이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4월 5일에는 부모님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집에서 상을 차리고 조상들을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며 보내고 있지요.

문: 이곳의 한인 모임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답: 한인 모임예요? 교회 내에서는 모임이 존재해요. 교회 내의 한인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문: 교회 외에서는요?

답: 그 밖의 한인 모임에는 참여안하고 있어요.

문: 교회 내에서만 참여하시나요?

답: 예. 주로 교회에서만. 삶은 좀 다르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인 비기독교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한인협회나 이 협회 주관의 행사 등에는 출입하지 않아요.

문: 보통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한인들과 어울리시나요?

답: 예. 이곳에 동향 한인 친구들이 있어요.

문: 자주 만나시나요?

답: 자주는 아니예요. 일 년에 3번 정도 만나요. 그들은 반년씩 우크라이나에서 계절농업을 하고 가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잠깐 만나는 정도이고, 봄에는 다시 떠나곤 해요.

문: 한국문화가 당신의 삶에서 도움이 되나요?

답: 우리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것은 어찌되었든 삶속에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동양의 가정에서처럼 아이들에게 깊게 심어주고 있으며, 세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지요. 우리의 전통은 여전히 우리 한인들을 단결시켜주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서로 보존하고 마음을 두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국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문: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당신과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답: 여전히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 말하기 어렵지만 러시아에 살면서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러시아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한인이라는 점이 아니겠어요?

문: 어찌되었든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답: 예.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적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는 모든 것이 더 단순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탄생, 돌이나 회갑행사 등의 전통들은

보존하고 계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전통들은 배우고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답: 천만에요.

##### ⑤ 한국어 교사 김 라리사 (47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6, 장소: 동서문화재단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괜찮습니다.

문: 여기서 지금 고려인 학생들에게 여기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답: 네, 맞습니다.

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성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네, 저는 김 라리사입니다.

문: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답: 어, 나이는요 마흔 일곱입니다.

문: 원래 전공은 어떤 걸 하셨나요?

답: 원래요 인쇄...뭐라고 합니까...인쇄 학교를 나왔는데요.

문: 인쇄 학교요? 인쇄소에서 일하셨습니까?

답: 예. 한.. 뭐.. 졸업하고 인쇄 콜리지라고 해야 합니까? 콜리지를 졸업하고 한 1년..예, 1년 동안 일하고 그냥 음...그 다음에 페테르부르그로 왔습니다.

문: 아, 페테르부르그로 왔어요?

답: 예.

문: 음..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답: 저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쉬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아, 타쉬켄트에서 있었고...거기서 자라셨고..

답: 예, 거기서 학교...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음..콜리지 졸업하고 그리고 페테르부르그로 왔습니다.

문: 음, 그게 몇 년도에 오신 거죠?

답: 아, 82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문: 82년도요? 그럼 20년 넘으셨네요, 지금은..

답: 30년...음, 20년 넘었습니다. 25년. /25년/? 예.

문: 아유, 뭐 오래되셨네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답: 현재 지금 여기 음...선교회 미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학교도 있고, 신학교에서 주로 통역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문: 아 그러시군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답: 한국어를요? 한국어는 우리 제가 옛날에 살았던 마을에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국어를 음..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자기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적인... 교육부에서 그 결정했어요. 애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예. /어떻게 잘 하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직도 잘 못합니다. 뭐.. 학교 좀 부끄럽지만 7년 동안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 책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음 그 때는 뭐 러시아어만 사용했으니까 일단 뭐 한국어는 아마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떤 날 또 관심이 있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 음, 뭐 특별히 어떤 관심이었어요?

답: 어떤 관심이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러시아 분을 만났어요. 어.. 대학생인데 한국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양들은 잘 지내십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때 좀 도전을 받았어요. 왜 저기 저 분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한국말을 잘 하는 데 나는 뭐냐 하고.. 그 때부터 저기.. 내가 결심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내...말을 배워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그리고 일주일 세 번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어요. 교회로. 그리고 많이 개인 혼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새벽 두시 세시까지요. 어, 그 다음에 뭐.. 통역도 나중에 하게 되고. 많이 울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문: 힘들게 공부하셨던 것 같네요.

답: 예.

문: 그래서 더 그러면은 그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그 가르치시면서, 학생들한테.

답: 예, 음...안타까운 거는, 애들, 뭐래야 됩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집에서는 다 거의 한국말 쓰시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하니까 집에서 애들이 안하려고 하는 거죠.

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겁니까? 어떤 계기로...

답: 처음에는 주로 뭐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뭐 대학생들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들 보면서 이 애들

은 나중에 음...자기 나라 말도 모르고. 뿌리를 알기 위해서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음 또 애들이 자라면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그거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문: 그러셨군요.

답: 예.

문: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답: 사실 시작하는 거는 음...사실 시작하는 거는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 때는 애들도 별로 많지 않고 그냥 2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애들이래도 이렇게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선생님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래서 누가 가르칠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음...우리 신랑이 나보고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일단 내가 기초만 내가 시작하고 나중에 선생님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음...한 6개월 동안인가 뭐 좀 쉬었어요. 애들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건물이 없으니까 일단 어디 가르칠 장소 없으니까 좀 불편하고. 애들이 혼자 올 수도 없고, 부모님들 따라서 오니까, 부모님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어... 교회에서 어차피 예배 보러는 오니까 부모님들 일요일 날 그러면 40분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문: 지금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답: 2학년, 뭐 초등...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문: 학생들은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답: 뭐,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재미로 뭐 그냥 참석하는 거죠.

문: 예. 그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은 그 어떤 이유로 수업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

답: 예, 저도 그게 아주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들 놀고 싶어 하고 모이기 좀 힘든데 그러나 우리 애들은 아마 교회 다니니까 순종하고 그냥 제가 모이라면 그냥 순종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명, 그 중에서 몇 명은 꼭 배우겠다고 그러는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끈질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그 애들,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답: 따로는....따로 보다는 일단 애들이 지금, 그 사상을 계속 심어주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저도 우리는 고려 분들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된다. 우리 문화도 알고 그리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시는데,,,이런 어떤 그 한국어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게요, 이런 어떤 그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 글쎄요, 음...잘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깊이 안 해봤는데요.

문: 돈이 좀 안 되는데 공부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뭐 지금 취직도 잘 안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답: 그런데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음..(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언어가 우리에게겐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알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안이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까?

답: 어...예. 뭐 다른 러시아 분들보다는 아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 다른 고려인들은 어떻게...

답: 예, 괜찮습니다.

문: 저기 그...학생들,,, 저기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대학생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녀분이 계시니까 여쭙보는데, 용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다 틀리죠.

문: 보통 한 중간정도...

답: 보통요, 뭐 한...100루블에서 아마 300루블 정도 같습니다.

문: 하루에요?

답: 예.

문: 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답: 한 달이면 뭐 3,000루블에서 뭐 한 9,000루블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한 달에 9,000루블 정도 용돈을 쓰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3,000에서 한 4,500...뭐 그 정도.

문: 그 정도면은 뭐 자기들 먹고...이렇게 ...

답: 예, 근데 따로 뭐 책 같은 거는 아마 뭐...힘들 곁요. 그래서 따로 예, 부모님들께 따로...

문: 혹시 그 자녀...따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한테는 어느 정도 용돈을

주시나요?

답: (웃음) 그거는 비밀인데요?

문: 비밀인가요? 그럼 정기적으로 주십니까?

답: 예, 매일..

문: 매일요?

답: 예.

문: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답: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씩 줬는데 그냥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더라고요. (웃음)---중단

문: 어, 지금은요, 수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애기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이라든지 언제 한다든지...

답: 어 일요일 날 마다요 5시 모여서 한 40분, 40분, 45분 정도요. 왜냐면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 해요.

문: 교재는 어떤 거...

답: 교재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보내준 교재로 하고 있거든요. 참 편하고 참 좋습니다.

문: 교재는 적당하다는 뜻이죠?

답: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딱 한 권만 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문: 아, 한권만 있으세요?

답: 네.

문: 한 권 가지고 지금 다 보는 겁니까?

답: 네.

문: 좀 그렇겠네요.

답: 네.

문: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한국어를 웬만큼 합니까?

답: 지금 좀 읽기 시작하거든요.

문: 읽기를 시작하고, 이제 알파벳 같은 거...

답: 고거는 이제는 다..아직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읽기는 이제 시작, 읽기 들어갔습니다.

문: 음, 교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답: 예.

문: 어떻게 그 수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좀 성과를 느끼십니까? 결과라든가...

답: (웃음) 어제도 제가 부모님한테 여자애가 있는데 한 명, 그 중에서 애들 중에서 그 애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숙제를

주면, 숙제를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린대요. 바빠서 뭐 학교도 다니고 하나까, 한 30분 정도 뭐 숙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참 자랑스러워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음,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 애는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운데요. 그 학교에서도 애가 1등이래요. 그래서 잘한다고. 엄마가 앞으로 애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기 그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면...한국어는 원래 아빠가 한국어학 졸업했어요. 아마 그 애는 앞으로 아마 한국에 대학을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문: 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그렇겠네요. 지금 몇 학년이죠?

답: 그 애는 지금 음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리고 또 남자애가 있는데 남자애는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에 통역가가...예. /소질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부모님들, 엄마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문: 어,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었나요?

답: 예, 하나도 못했었어요.

문: 그러면, 수업, 공부를 하면서.../예./ 사실 이렇게 또 재미있어 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답: 예. 좀 애들이니까 좀 재밌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좀 예, 노래도 하면서 뭐 배우면서 같이 저도 똑같이 애들처럼 애들까지 낮춰줍니다, 제가.

문: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든 일들이 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업에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 문제요? 장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예배 보는 장소에 원래 선교회 미르 센타 있거든요. 사무실하고 또 예배 보는 장소, 그리고 또 그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뭐 또 사람들 교체하는 장소도 없고 또 항상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그냥 그 칸막이를 치고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핸드폰으로 중단) 죄송합니다.

문: 그러면은 그 노래도 부르고 복잡하게 수업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답: 예, 어...그러나 저는 그냥 다섯 시 모이라고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있든 없든 시작을 합니다.

문: 어 그럼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답: 음...다른 문제는 뭐 잘은 모르겠네요...선생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웃음)

문: 수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들이 관찰하게 될 것 같아요. 보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학생들이 어떤 그 멘탈리치트(의식)

이런 걸 뭐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 청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치시는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 음, 그 애들은 아직은 뭐 한국이 우리 조상들이, 아 고향이고 그리고 저기 아..부모 언젠가 가보고 싶다, 뭐..예.. 그냥 뭐 아직까지는

문: 그래도 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그 자신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답: 예.

문: 그렇지 않으면...뭐..

답: 힘들죠. 하기 싫은데, 밖에 나가서 놀지...(웃음)

문: 학생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답: 한국에 대해서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냥 그 역사, 문화 그리고 또 뭐 한국.. 한국 대해서는 뭐 많죠. 글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은 아마 앞으로 꼭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사느냐...똑같은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들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여기 문화를 더 많이 알고. 그러나 본인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고려인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수업에 나오지 않는.. 아무래도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좀 보입니까?

답: 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지금 열심히 나오잖아요, 다른 애들은 지금 매일, 매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애들은 음 어느 정도 이제 는 알잖아요. 어 그리고 읽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다른 애들은 못하고,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애들도 열심히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하고 싶는데 인제 그게 잘 안되니까...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그 분들이 좀 부러워한다고 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들한테 그거 심어줘야 되요. 밀어주고. 그거 배워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웃음)

문: 그러네요. 진짜. 한국과 관련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결혼 문제 같은 걸 생각할 정도는 아니지

만, 좀 더 큰 학생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고려인 학생들이 그 다른 그 민족, 주로 러시아였지마는,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답: 글썄요, 저는 저의 딸애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하고 잘 모르겠어요. 음...뭐... 어떤 애들은 보면 꼭 고려 분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애들도 있고.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어... 여자는 러시아 분하고 결혼해도 결혼하는 거 괜찮은데, 남자는 꼭 저기 고려분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문: 왜 그런 말이 나왔죠?

답: 제 생각은 원래 동양여자들은 남편한테 잘 해주잖아요. 존경하고 순종하고. 어... 그러나 아직은, 아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여자들은 먼저 본인을 사랑하고 남편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두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같습니다.

문: 본인은 어떠세요? 따님이 계신 것 같은데...따님이 그 저기 다른 민족, 그 러시아 남자랑 결혼을 한다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답: 음...어느 민족이든 다 괜찮습니다. 켈 중요한 거는 어...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뭐, 신앙적으로요?

답: 예, 신앙적으로.

문: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답: 그러나, 그러나 예, 다른 ..음, 별로 처음엔 뭐 서운하겠죠, 섭섭하겠죠. 그러나 뭐 내가 뭐 인생을... 본인이 뭐 택하고.

문: 딸이 너무 좋아하는 데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답: 예, 그러나 이상하게, 12살 때부터요 이상하게 그냥 나는 다른 민족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까지도 아직도 예, 그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가끔.

문: 그 말이 듣기 좋습니까?

답: 예, 좋습니다.

문: 마음속으로는 저기 딸이, 따님이 그 이왕이면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외국 남자를, 그니까 러시아 남자를 만나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그런 말씀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려인 학생들이 러시아 학생들이랑은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교회에서?

답: 교회에서요? 교회에 별로 러시아 분들 없거든요. 러시아 학생들...

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답: 사회에서요?

문: 사회에서는 물론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답: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는데요. 보니까.

문: 잘 어울려요? 별 문제 없이?

답: 예.

문: 그래도 아무래도 고려젊은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도 같은데요.

답: 예,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어렸을 때는 그거 별로 못 느낀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뭐 다 거의 러시아 학생들이고, 근데 지금 점점 보니까...자기들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뭐 온라인...을 치고 들어가면 300명 정도 다 고려 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도 가지더라고요.

문: 러시아 사이트입니까?

답: 러시아 사이트가 봐요. 아마. 전 잘....

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젊은 고려인들이 같이 이제 서로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이제 그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모임도 만들고 그렇습니까?

답: 예.

문: 제가 듣기로는 뭐 여기 젊은이들만 따로 모이는 어떤 그 설날 축제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답: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4월 달엔가, 4월 달에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문: 전체 페테르부르크에서요?

답: 그렇게는 아니고, 뭐 몇 명 같이 모여서.. 모이더라고요. 만남이 언제 장소, 뭐 어디다 하면, 아마 그 시간에 뭐 누가 바쁘지 않으면 뭐 그 때.. 같이 당구장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가서 먹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뭐 그게 재밌는 거 봐요.

문: 교회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답: 예, 교회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문: 교회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따로 그렇게 고려인들끼리 모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답: 예, 제, 저 알기로는 여기 어...디스코테크를 고려 분들만 모이는 청년들, 그 디스코테크를 한다고 뭐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문: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까?

답: 예,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꼭 애들한테는 가르칩니다. 부모님들. 너는 누구냐, 너는 러시아인이 아니다. 너 러시아에서 살지만,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분명히 누구다 하고, 본도 꼭 가르치세요. 부모님들.

문: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겠군요.

답: 예, 그리고 또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고려분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김 마사다.(웃음)

문: 어떤 데서 자랑스러워합니까?

답: 글썽요, 원래 한국... 글썽요, 원래 민족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어디서든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문: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그 한국의 또 문화들 있잖아요. 문화라고 해서 옛날 문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요즘 현대 문화들, 그니까 한국 영화나 한국 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있습니까?

답: 노래는 가르치니까 수업시간에, 노래는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문: 영화는 아직 안볼 나이죠?

답: 예, 아직은...

문: 젊은, 또 좀 나이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답: 많이는 아니지만, 뭐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 노래는 어떤 노래 가르치십니까?

답: 노래는요, 뭐 어리니까 애들이, 애들 부르는 노래가... 뭐...고향의 밤, 아니다 봄? 그 다음에 뭐 또 애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동요 같은 거요?/ 예...

문: 가요 같은 거는 안하시죠?

답: 가요 몰라요. (웃음) 가요 같은 거는 몰라요.

문: 지금은 어떤 뭐 이렇게 애들 언어만 가르치시는 거잖습니까? /예./ 쯤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답: 앞으로요? 솔직히요? 솔직히 잘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웃음) 뭐 내년에는 꼭 선생님이 아마 다른 선생님이 올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웃음)

문: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가르쳐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야 되겠다, 어

- 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 답: 예, 앞으로는 애들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교회 행사 있을 때 뭐 그 때 노래도 부르고 또 뭐 연극, 연극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싶은 거는 좀 테이프를 구해서 한국 그 문화 특히, 옷을, 한국 한복에 대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예, 옛날...그리고 앞으로 그거는 꿈입니다.(웃음) 악기, 한국 그 뭐 그 한국 악기에 대해서, 북...그 다음에 또 피리, /단소.../ 예, 뭐 그런 거 좀...
- 문: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거네요?
- 답: 한국 춤도 좀 가르치고.../부채춤?/ 예... 그리고 요리, 요리를 좀 소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 한국이 어떤 나라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 답: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나이, 그 애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 삶을 좀.../비디오 올리든지?/ 예.
- 문: 학생들은 지금 뭐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은, 꿈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현실적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꿈이 있을 것 같은데...
- 답: 꿈...학생들 중에 그 남자, 아까 그 좀 얘기를 했는데, 박 티무르라고 하거든요. 그 애는 앞으로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꼬마가 있는데 그 애는 노래를 잘해요. 그 애는 일단 아마 음악학교 들어가겠죠? 예, 성악 공부해서 뭐 유명한 노래하는 가사, 아니다, 가수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 다음에 또 한명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 문: 아주 뭐 다양한 직업...하기는 뭐 현실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 답: 한명은 통역가 되고 싶다고...
- 문: 통역가요? 아, 어떤 통역가?
- 답: 글썄요, 그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죠, 아마 한, 음...언어를, 뭐 많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많이 한 8개 정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 문: 예, 어렵겠네요,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예./ 아직 그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서 큰 고민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답: 예,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니까 아직은...
- 문: 조금 더 큰, 어 나이든 아이들, 뭐 수업은 안 나오지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청소년들, 그러니까 뭐 따님 또래의 이런 친구들 고려인들이, 고

려인 청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뭐 같습니까?

답: 고민은, 그 나이 뭐 애들이 많겠죠, 여자 애들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졸업하고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뭐, 고민들 많겠죠? (웃음)

문: 일반적인 고민?

답: 예.

문: 그리고 또 어떤 고려인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들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고려인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들,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라는 나라인데 페테르부르그도 그렇고, 국적은 러시아지만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현실,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죠? 그 동안은 이제 가정 내에서만 있었고,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사회 고민이 남다를 것 같아요.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저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나라에 러시아인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 인은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게 될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족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때가, 아니면 그저 모욕을 당하는 때가 올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아마도 어른들의 잘못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문: 학생들이 뭐 전혀 고민이 없지 않겠죠?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하지만 뭐 지금 나이에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고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애들은 그런 중요한,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문: 예, 알겠습니다. 어,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미래요? 미래는 그 학생들의 손 안에 있지요. 학생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가는지, 자신들의 미래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저는 교회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원리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볼 때도,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은, 다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답: 예.

문: 물론 열심히 안 한다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학생들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런 것 같아요?

답: 예.

문: 자신감도 있는 것 같으세요?

답: 예. 뭐 꼭 저기 어... 선교사님들 8명 중에서 한 분 목사님 꼭 청년들 모임을 가질 때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목적이 뭐냐, 소망이 뭐냐, 꿈은 뭐냐, 꿈은 꼭 있어야 된다고, 목적도 꼭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고...그래서 생각을, 뭐 그런 거 도전을 심어주는,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하면은 꼭 확실히 뭐 답을...(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질문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할 겁니다. -

문: 한국말을 배우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전혀 모르면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차근차근, 집에서...(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어차피 주변에 다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집에서나, 부모님하고나...그리고 가정에서도 한국 전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음식도 한국 음식을 먹고, 성(姓)도 한국 성인걸요. 이제 아이들도 우리가 러시아에서 살고는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좀 긍지를 갖게 됩니까? 옛날에 한국이 좀 많이 못 살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핏줄이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도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이런 것들이 고려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답: 카네쉬나.(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또 보면 러시아에서 젤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삼성 꺼하고 엘지, 애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일본 꺼도 아니고 꼭 한국 꺼다...나도... 나도 한국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

문: 그런 것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니까...

답: 얼마 전에도 딸에게서 들었어요. 교회 한 번 여기 축구 선수가 왔었거든요. 그 때, 제니트요. 이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친구, 학교,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근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냐, 그래서 축구선수다. 제니트에서 저기하는...어, 어떻게 직접 만났었나? 만났었다고. 그러냐고. 그 분은 어떻게 뭐... 너하고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느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러시아 친구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면서.

문: 그런 것들이 그 살아남아서 자기가 공부하고 도전하고 이런 부분에 자극도... 좀 힘을 주겠네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전 세계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네/ 사실 한국 사람들의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 한국 사람이 있고,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 약간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중국에는 또 중국 한국 사람이 있고, 아메리카에는 또 아메리카 한국 사람이 있고, 다 한국 사람이고 다 한국인인데... 뭐 약간 좀 뿌리는 같지만, 약간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하지만, 다 한국 사람인....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어떤 한국 사람들의 젊은이가 희망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짚어질 사람들인데,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한국 젊은이들이 교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 젊은이들한테?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첫째로 각각의 한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자라나면서, 그 나라의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받았겠지요. 만약에 그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합하게 된다면 뭔가 세상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 서로 다른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한국인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인정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한 한국인이 아니라, 원래 조금씩은 다른...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인터뷰가 청소년, 한국에 있는 개발원에서 어떤 그 주관을 해서 하는 인터뷰거든요. 그 전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죠. 이 인터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청소년 개발원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시면서 많이 보셨고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 개인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고려인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 -우리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대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조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알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은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인 교류, 예를 들면, 박람회 같은 것도 좋고요, 한국의 전통이나 풍습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환 학생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쪽으로 오고...그런 교환 학생 제도요. 또 실습 기회... 정도.-

문: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가요?

답: 다.(네.)

문: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니체보. (괜찮습니다.)

#### ⑥ 미르한글학교 교장/동서문화재단 대표 이진우 (40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박지배, 일시: 2007.5.17, 장소: 동서문화재단 사무실)

문: 안녕하세요?

답: 안녕하세요?

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예.

문: 처음에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답: 글썽요, 러시아에 온지 한 15년 정도 되었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여기 있을 때까지 계속 러시아 역사 전공했었고, 러시아 문학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다보니까 뭐 한국 가는 것도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문: 성함이 지금...?

답: 이진우.

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답: 나이가...글썽요, 저도 (웃음) 올해로 한국 나이로 마흔이 넘었죠. 좀 들었죠.

문: 저기 그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답: 지금 2004년부터 미르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동서문화재단을 설립 해서 한국문화와 러시아 문화를 문화의 교류를 위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바쁘시겠습니까, 지금.

답: 글썄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죠. 뭐 생각은 많고 일은 잘 안되고, 또 뭐 한국 쪽 또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또 신경 써야 돼서 양쪽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죠.

문: 한국에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답: 어...울산, 지금 울산으로 편입되어 있더라고요. 울주군에서 아주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뭐 태어나자마자 돌도 안 지내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뭐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죠. 부산에서도 어릴 때 6살 때까지 살고 초등학교부터는 양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산이 고향이라고 그러죠.

문: 그럼 러시아에는 몇 년도에 오셨죠?

답: 91년도에.

문: 그 때 오셨을 때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오셔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나셨죠?

답: 음...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죠.(웃음) 교회에서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었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교회를 찾았었고 교회 다니면서 뭐 지금의 집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꽤 오래 사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었죠.

문: 그 분은 국적이 어디신가요?

답: 러시아 국적을 가졌죠.

문: 러시아 분은 아니시고?

답: 예.

문: 한국 분이신데 러시아 국적을 가지신...고려인이신가요?

답: 네, 고려인이죠. 3세대, 2~3세대 고려인으로서 뭐 당시에 한국말도 잘 했었고 의사소통 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튼 것 같아요.

문: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답: 뭐 사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 지금 그러면은 따님이 한 분 계시죠?

답: 예.

문: 따님하고 그러면은 가족이 세 식입니까?

답: 예, 지금 장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4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문: 아, 장모님이랑 그 분이랑, 따님이랑...총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군요.

답: 네.

문: 어...본 인터뷰가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딸...따님이 어느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죠?

답: (웃음) 글썄요, 러시아 이름으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디자인 경제 대학, 번역하면 대략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디자인..서비스디자인 대학.

문: 집안은 좀 넉넉한 편이죠? 다른 고려인들에 비해서...

답: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집사람 하고 둘이 벌어 벌면서 사니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풍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뭐 때로는 이제 부족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문제로 딸하고도 뭐 논쟁도 있을 때도 있고 집사람하고 도 논쟁도 있지만 마음이 풍요하니까 그걸로 카바를 많이 하는 편이죠.

문: 그니까 본인은 저기 그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군요.

답: 뭐 그렇죠, 일단은 살다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뭐 당장 해줄 수는 없고.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것도 많고 한창 뭐 돈 쓸 나인데, 또 뭐 너무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다보니까, 우리 생각에 필요 없는 거면 본인이 원해도 좀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문: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려인 가정이 어느 정도니까? 수입은 어떻죠? 일반적인 고려인들...평균 고려인들의 어떤 그 자녀를 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세대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답: 글썄요... 그걸 뭐 분명하게 뭐 통계가 없기 때문에 좀 말하기는 힘든데,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직업이 뭐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여기서 오래 살았다면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정도의 중산층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경우라면 좀 많이 힘들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재산 다 두고 아니면 재산 처분하고 여기 와서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뭐 중앙아시아에서 대학교육을 못 받고 전문직을 가지지 못 했다면 여기 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생활적인 문제도 힘들고 또 주택 문제도 해결을 못할 경우가

-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 수가 있죠.
- 문: 실례지만 그 아이한테 그 용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주십니까?
- 답: 뭐 특별한 일 외에는 매일 한 50루블씩 줬던 것 같아요.
- 문: 그러면은 열흘이면은 500이 됩니까? 한 달이면 1,500정도..
- 답: 예, 1,500정도 되죠.
- 문: 그 정도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답: 그렇죠, 사실 그 뭐 교통비는 따로 매달 뭐 티켓을 구입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따로 필요가 없을 거고, 뭐 1500가지고 뭐 점심 먹는, 뭐 점심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외에 뭐 필요한 더 때로는 급하게 필요할 때는 따로 줄 때도 있고, 뭐 책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할 때는 따로 뭐 사고, 또 어떤 때는 뭐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해서 본인이 모아놓고 본인이 사고 싶은 것들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돈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채지는 않죠.
- 문: 여학생이니가 옷이랑 화장품이랑 악세서리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답: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좀 고지식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론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제가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니까 뭐 그래도 뭐 집사람이 알아서 뭐 잘 해주니까...
- 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국말을 사용하십니까?
- 답: 집사람하고는 한국말하고 러시아말 두 가지 다 사용하죠. 근데 딸애하고는 80%이상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뭐 단순한, 간단한 이야기들은 한국말을 하지만, 못 알아 들을 경우도 있고...러시아어를 사용하죠.
- 문: 따님은 한국말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 답: 뭐 알아듣는 것은 한 70%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집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거의 90%, 100% 다 알아듣고 뭐 내 이야기는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죠. 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억양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외에는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표현은 잘 못해요.
- 문: 말은 아직 서툴고?
- 답: 예.
- 문: 그럼 혹시 어디서 한국말을 배운 거죠?
- 답: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서 한국말을 배웠을 거고,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은 100% 다 알아듣죠. 할머니하고도 대화할 때도 어려움이 없고 할머니하

- 고도 할머니는 주로 러시아어보다는 한국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 문: 할머니가 러시아어도 하시나요?
- 답: 네, 할머니의 러시아어가 뭐 그렇게 뛰어난 러시아어가 아니라서... 잘 못하시죠.
- 문: 생활 러시아어?
- 답: 예, 생활러시아어 실력이죠.
- 문: 나머지는 사고라든지 생각 같은 거는 한국말로 하십니까?
- 답: 예.
- 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올해 일흔 일곱.
- 문: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특별히 그 한국말을 가르치셨던 건가요?
- 답: 그렇죠. 할머니가 가르친 한국어도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가 아니라 가정적인 한국어, 생활 한국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죠. 좀 못알아 듣는 부분도 있고, 단어도 다르고.
- 문: 따님이 그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까?
- 답: 그리고 뭐 교회 다닌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한글학교, 그리고 미르 한글학교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었고 지속적이지는 못했지만 띄엄띄엄 다녔었죠. 근데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체계적이지는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 문: 어, 아이가 그러면은 따님이 학과를 갖다가 이야기하실 때 그 뭐 경제 디자인 과라고 이야기 하셨죠?
- 답: 예.
- 문: 그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그 따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은 조언을 좀 주셨습니까?
- 답: 뭐, 거의 본인이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릴 때부터 뭐 디자인 쪽 그런 쪽을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학과를 보낼 생각은 뭐 없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을 계속 해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3년 전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입학할 못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심리학과를 들어갔다가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학과라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재수, 삼수를 해서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갔죠. 본인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 문: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답: 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 등록금이 들어갈 일이 없군요.  
 답: 그래서 뭐 효녀 났죠. (웃음)  
 문: 공부를 잘하는 따님을 두셔서..  
 답: (웃음) 그래서 저희들이 어깨가 좀 덜 무겁죠.  
 문: 집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한국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답: 예, 거의 90% 한국음식을...예.  
 문: 뭐 주로 밥이랑 국이랑?  
 답: 예, 밥, 국, 김치...  
 문: 음식은 누가 준비하죠?  
 답: 집에서는 대부분 장모님께서 준비를 하시죠. 집사람도 나와 있고 나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휴일에는 우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모님께서 밥, 국, 반찬 다 만드시죠.  
 문: 그럼 식사를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  
 답: 예.  
 문: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겠네요. 입맛이 이제 한국음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문: 그 따님이 러시아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답: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문: 생각을 하셔야 하는 상황...아닌가요?  
 답: (웃음) 글썄요... 지금까지 사귀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사귀었는데는 모르지만, 한 2~3명 사귀었는데 다 뭐 현지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놓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농담반 진담반 나눌 때도 본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굳이 뭐 한국 남자든 러시아 사람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 되게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이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겠죠.  
 문: 따님이 그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답: 글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문화적인 동질감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동질감이 첫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교회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라든지 한국에서 온 선

교사님들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국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뭐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고,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친 부모, 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뭐 가슴에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문: 아이는, 지금 그 따님은 자신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답: 18살이 되면 어, 지금까지 러시아 성을 가졌었어요. 근데 뭐 러시아에서 살면서 러시아 성을 가지는 게 때로는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18살이 되면서 본인이 직접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한국인이고 싶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성을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꿨죠.

문: 현재 따님의 아버지.----(중단).

문: 저기 그 따님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다녀와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기전과 갔다 온 후와....

답: 글쎄, 뭐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의식 세계가 뭐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못 느끼는데...

문: 한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답: 일단,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느낀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옛날에는 한국 왜 가냐고 갈 이유가 뭐냐고, 우리의 역사적인 고향이라고 고국이라고 갈 이유가 있냐고, 가서 뭐할 거냐고, 그런데 두 번 갔다 온 뒤에 계속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항상 우물 안에 있는 것 보다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고 싶어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내고 싶죠.

문: 네,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도 하고 또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답: 그렇죠. 처음 갈 때는 사실 제가 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이제...뭐 유물을 따라서 고적 답사하듯이 다녀서 좀 지루해했었죠. 가장 한

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지루하더라도 좀 끌고 다녔었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쪽보다는 종교적인 색채가 좀 더 강했었죠. 앞으로 가게 되면 제가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젊은 이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어, 따님이 한국의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보는 편입니까?

답: 예, 자주 보죠. 일단,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접수되면 밤새고 같이 보죠.

문: 얘기 들어보니까 따님이 아버지 얘기를 잘 따르는 것 같거든요?

답: 그렇죠, 뭐 예. 좀 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좀 뭐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문: 그래도 잘 따릅니까?

답: 제가 너무 좀 너무 원칙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너무 강압적으로 뭐 시키는 일도 없고, 또 뭐 매를 드는 일도 없고 일단 모든 문제를 대화로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따르긴 따르죠.

문: 어, 그 지금 그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다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색채가 다른 약간 그 문화가 다른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결국에는 다 한국인이라고...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이 특별한 한 부분이고, 그 가운데 넓게 봐서는 다 자기 색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그 전 세계의 그 앞으로 이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젊은이들인데, 전반적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인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 그 고려인 젊은이들에게...

답: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현재의 젊은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건 좀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를 잘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모든 이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 그러면 그 고려인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 일단 러시아에 있는 다른 측은 일단, 별개의 문제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끼리도 사실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가 못해

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 뭐 사실 인터넷 사이트, 그런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고려인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특히 뭐 제 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년 전에 헤어진 친척을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찾더라고요. 인터넷이 필요한데, 그런 단순한 사람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국의 생활이라든지 자기 역사적인 고향에 대해서 좀 더,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이 단순한 뭐 러시아의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뭐 그 사람들을 100% 한국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죠. 어쨌든 차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그러나 어떤 공유할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 따님을 이제 그 키우면서 그 따님과 비슷한 고려인 그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고려인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님 또래의 그 고려인 청년들이...

답: 직업 문제가. 현재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상황이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자기들이 미래에 직업 선택을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뭐 다른 개인적인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청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직업으로 뭐 자기가 졸업한 뒤에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 그럼...힘들겠군요.

답: 그렇죠, 특히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이 뭐 거의 90%이상 러시아 사람이지만, 얼굴 모습은 부인 할 수 없이 한국 사람이니까 뭐 직장에서도 나중에 진급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문: 만약에 그 한국 정부가 고려인 그 젊은이들에게 들에게 그 도움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가장 그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글썄요, 그 뭐 어려운 문제인데 뭐 하루 이틀 어떤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청년들 전체의 문제지만 교육의 부재를 느낄 수 있어요. 교육 자체가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 붕괴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전인 교육이라 할까...사실 전인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총체적인 교육이 사라지고, 균일화된, 평준화된 교육을 지향하죠. 특히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게 더 가속화되고 뭐 앞으로는 미국적인 교육 시스템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도 많이 야기되는 문제지만 공교육이 사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도덕성이 붕괴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요. 그런 교육이 부재되면,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갈 지 사실 저 자신도 사실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뭐 모든 부분을 우리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고려인이라도 어느 정도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다른 지역에는 뭐 교육기관들이 좀 있지만은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인을 위한, 고려인을 위한 교육 기관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학..

아니요, 초등학교부터. 한국인을 위한.

문: 고려인들을 위한?

답: 예.

문: 고려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직업에도 도움을 주고? 또?

답: 예,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고려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을, 교육의 장을 만들고 싶죠.

문: 그런 것들이 좀 고려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거죠?

답: 예.

문: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답: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 2. 중앙아시아 (타쉬켄트, 알마티)

(타쉬켄트, 타쉬켄트 주)

① 니자미사범대 한국어문학과 학생 김 아리나 (22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최소영, 일시: 2007.4.22, 장소: 타쉬켄트 최소영 자택)

문: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음 뭐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이..

답: 저는 김 아리나라고 합니다. 스물 두 살입니다. 한국나이로는 22살입니다. 저는 지금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4학년입니다. 졸업반, 졸업반이에요.

문: 학과가 무슨 학과죠?

답: 아 학과는, 한국어, 한국문학..한국어 한국학과예요.

문: 지금 대학생인데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답: 음 저는 원래 저는 전문 통역가가 되고 싶은데 그 통역가가 하기...그 일만 ...

문: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답: 원래 통역가가 되고 싶은데 그 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습니다.

문: 어떤 일을?

답: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이 있냐면,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디자이너도 디자이너 아니라 포토샵 배우게 되었어요. 그 포토샵 잘하는 언니랑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토샵 통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 있는 꿈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은, 통역을 하는 거랑 디자인이랑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한국어와 나오는 거랑. 한국어 배우는 게 음 디자이너 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답: 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전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어에 관해 알면서 그리고 취미로 디자이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 음, 종교가 무엇이죠?

답: 전 기독교예요.

문: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나요?

답: 저는 벌써 4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원래 근데 예전에 믿게 되었어요. 원래 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닌 지 벌써 4년이 되

었어요.

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답: 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성경 저한테 애기를 위한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머니한테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문: 어, 그게 몇 살 때인데요?

답: 그게 아마 다섯이나 여섯 살 때?

문: 그러면은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기 전에?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이후에?

답: 네, 아니요, 독립하기 전에.

문: 독립하기 전에 어머니가 어떻게 성경을 구할 수 있었죠?

답: 음 사실은 우리 엄마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성경을 너무 예뻐서 거기 그림도 예쁘고 화려한 책이라서 책이니까 그냥 제가 읽기 위해서 재밌게 읽기위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받아서 재밌게 읽으면서 믿게 되었어요.

문: 지금 다니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답: 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소망이라는 교회예요.

문: 거기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인원수가 몇 몇이나 되죠?

답: 아마 150, 150명 쯤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다 같이 모였는데,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서 우리 다 따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아쉽지만, 이렇게 전혀 안 다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많은가요?

답: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 다 학교,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

문: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음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예요. 아니, 벌써 졸업생이예요.

문: 아, 왜 특별하게 사범대 학생들이 거기 많이 가게 되었어요?

답: 음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 그면 저기 부모님에 대해서 좀 여쭙 볼게요. 지금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해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답: 네.

문: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려 사람인가요?

답: 네, 다 고려 사람이에요.

문: 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어디 다른, 다른 민족 있었나요? 자구베(혼혈)?

답: 아니요, 없어요. 다 고려 사람이에요.

문: 친척들은 어때요? 친척들도 다 고려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답: 네, 아...아니요, 한 언니가 러시아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문: 그거에 대해서 친척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답: 아, 아무 말 안 해요. 원래 다 친척들이 다 사람이 안 그래요. 우리 친척만, 우리 가족만 그래요. 아무 반대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문: 보통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결혼 한다고 하면 반대하나요?

답: 네, 여러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별로 이런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문: 아, 왜요? 혹시 이유를 알아요?

답: 어떤 사람이 왜 싫으냐면요, 아마 이런 피 섞...혼혈이, 혼혈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리고 음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게 되면 애기가 혼혈 때문에 그 자기 성 전달할 수 없으니까 안 좋아해요

문: 그러니까 성을, 파밀리아(성)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한다구요?

답: 네.

문: 지금 누구와 같이 살고 있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답: 저는 지금 현재는 엄마랑,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문: 음 아버지는?

답: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어요.

문: 아버지는 따로 살고요?

답: 아버지는 재혼했어요.

문: 아버지는 재혼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여쭙 봐도 물어봐도 되는지?

답: 네.

문: 엄마, 아빠가 언제 이혼을 하셨어요?

답: 아마..다섯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문: 부모님이 이혼 한다고 하셨을 때, 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답: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문: 부모님이 이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마음이 어땠는지...

답: 슬프죠...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 벌써 갑자기 알

게 된 게 아니라 벌써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픈 게 아니었지만 슬펐어요.

문: 근데 지금은 아버지랑 자주 만나나요?

답: 네, 자주 만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했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음 아버지랑 멀어지는 게 전혀 안 느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랑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한테 도와주고 어떤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우리. 원래 우리 가족은 음 돈 문제 물어 보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도와줘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돈 못 버는 편이에요.

문: 아버지가, 아버지랑, 아버지가 학교를 어디를 졸업하셨죠?

답: 우리 아버지는 4번 입학 했는데, 왜냐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주 자기 자식을 잘 키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음 젊어서 음... 니 시료즈니 깍(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하죠?) 젊어서 많이 놀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졸업했어요. 입학했지만 못 졸업했어요. 세 번 졸업했는데, 아 두 번 졸업했는데 결국 못 졸업 했어요.

문: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답: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이제는 음 어.. 브리가지르(작업반장)...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일 못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조건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해요.

문: 어 무슨 조건이 나빠졌어요?

답: 날씨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보다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리고 열매 옛날만큼 많이 못 나와요.

문: 주로 무엇을 아버지가 심으셨죠? 농사를 지으셨죠?

문: 어디에서?

답: 우크라이나.

문: 지금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 계세요?

답: 지금 여기 있어요.

문: 그럼 고본질 가신 거예요?

답: 네, 네.

문: 고본질 가셔서 어떤 걸 했는지 혹시 아나요?

답: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파 모이무(제 생각에는) 아마 수박, 박, 여러 가지 했어요.

문: 고본질 할 때는 아버지 혼자 가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셨어요?

답: 한두 번 이렇게 같이 갔다 오고 앞으로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혼

자 갔다 왔어요.

문: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가셨어요? 혹시 기억나요?

답: 마지막 날을? 아니면 언제부터?

문: 어, 기억나는 대로...아버지가 고본질 어제쯤 가셨는지?

답: 아 작년에...2년 전에, 아니...

문: 처음에?

답: 아, 저는 저 태어날 때부터. 그 때 일이 잘 되었어요, 아주 그런데 이제는 잘 안 되요.

문: 아버지가 작년에도 다녀오셨어요?

답: 2년 전에.

문: 그럼 지금 아버지는 계속 집에만 계신 거예요?

답: 음...네. 집에 계시는 것 보다는 우리 원래 우리 큰 아버지가 있어요. 음 보통 그니까 우리 큰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쪽에 그 쪽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꼭 스카자치(뛰라고 하나..) 석유? 석유에 관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라서 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돈 필요하면 우리 큰 아버지가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문: 어머니는 어느 학교 졸업하셨나요?

답: 사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음악학과요

문: 아, 음악학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답: 음,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 피아니스트였는데, 아니 바이올린을 치셨어요.

문: 그럼 어머니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범대 졸업하고 나서

답: 어...왜 앙상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참석했고,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 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거기 우리랑 거기 일했어요. 제가, 제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어머니 거기 /유치원에./ 일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제가 다니기 끝났을 때 우리 엄마가 그냥 일을 그만 두고 집에 계셨어요.

문: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답: 며칠 몇 달 전에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문: 그럼 그동안 계속 직업이 없으시다가 옷을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

답: 네.

문: 그럼 장사는 좀 어떻게 잘 되요?

답: 어..괜찮게 되요. 왜냐면 그 시장은 새로 된 시장이니까 가게도 많지 않아서 원래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어머니의 동생은 거기 가게 샀어요.

그냥 거기 처음이니까 그냥 어머니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 거기 일하게 되었어요.

문: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에 어느 정도 돈을 버나요? 한 달에 대충... 생활하는 데 돈을 어느 정도 들어요?

답: 세지 않아서...(웃음)

문: 잘 모르겠어요?

답: 네. 근데 저한테 어떻게 전체 다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일주일에 10,000숨(1달러=1,250숨)씩 줘요. 음식비 빼고.

문: 아, 식사비는 빼고?

답: 네. 그냥 다니면서...

문: 차비, 뭐 이런 거?

답: 네.

문: 지금 엄마가 버는 거 가지고 생활하기에 어떻게 좀 넉넉한가요? 아님 부족한가요?

답: 생활 네?

문: 그 돈 버는 게 지금 엄마랑 아니면 아리샤랑 동생 아르바이트 해서 지금 식구들 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가족들 사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답: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 용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받는 게 좀 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면?

답: 저한테만?

문: 그냥 뭐 보통 일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용돈을 받아요? 한 달에?

답: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아마 저처럼 사만숨 씩...아니면 더 이상..

문: 그 정도 받아요? 용돈을 받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써요?

답: 저요? 일단, 대학교에 가서 점심비, 그리고 필요할...인터넷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랑 놀 때,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문: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드는 게 어떤 거예요?

답: 아...니 즈나유...(잘 모르겠어요.) 노 나베르나(아마도) 학교 다닐 때.

문: 그땐은 아리샤네 집에서 그 돈을 버는 거 그 가족들 들어오는 돈이 다른 집 그 고려인 가족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님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해요?

답: 다른 고려인 가족들?

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답: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문: 보통 고려인 가족들이 그냥 어느 정도 한 달에 버나요? 한 100달러? 150달러?

답: 150달러 아니에요, 더 많이... 식구 중에서 아마 일하는 사람이면 취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만 150달러 받아요.

문: 아, 그렇게 받아요?

답: 네...아마..

문: 아리샤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그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님 내가 돈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루 좀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답: 무엇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문: 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돈 쓰는 거라든가? 내가 용돈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 가족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가족들 이런 저런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사는 가족, 내가 사는 생활, 그니까 우리 집 뭐 우리 집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지금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좀 별로라서 앞으로 좀 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 저기 가족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물어 볼게요. 옛날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말을, 대화를 할 때 고려 말을 자주 썼나요?

답: 제가 떠날, 떠나기 전에?

문: 아니 같이. 자라면서...

답: 원래 우리 가족 빼고 나머지는 다 러시아로 말하면서 사투리, 고려 사투리를 사용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가족만 러시아어로만 말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여기 콜호즈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타쉬켄트에 부하라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타쉬켄트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고려인으로 말 할 때가 없어서 안 썼어요.

문: 그럼 아리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척들 모였을 때 고려 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답: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비밀을 말 할 때 다 고려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못 알아

들었는데 근데 한국어를 배우게 돼서 알아듣게 되었어요.

문: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답: 한국어를..입학..아,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4달이나 5달 전에.

문: 어,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답: 세종한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문: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답: 한국에 대해서?

문: 예,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우리 조상들의 나라다, 라든가 한국은 좋은 나라다, 라든가 혹은 뭐 한국에 대한 이런 저런 소식들을 집에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나요?

답: 아, 네. 방금 기억났어요. 원래 우리 어릴 때 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 왔었어요.

문: 언제쯤이죠?

답: 제가 그 때 아마 3살이었어요, 아니면 4살. 그 때 한국 사람이 여기 왔고,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우리 집에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모랑 할머니랑 같이 북한 쪽에 갔다 왔어요.

문: 그게 한국사람 처음 만난 거였어요?

답: 네.

문: 음, 그 사람이 어떤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해줬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답: 그 여기 왔었던 분이?

문: 네, 그 북한 사람이..

답: 한국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문: 부모님은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한 적 있으신가요?

답: 우리 조상에 대해서?

문: 조상이나.. 네, 조상에 대해서

답: 아, 네, 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얘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음...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떤 지역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한국에 살았을 때 그때는 양반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부잣집이어서, 부잣집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서 사는,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 아니기도 하고 할머니의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결혼한다는 허락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갔어요. (웃음) 일하는 사람이랑...

문: 그러면은 그 어떤 한국에 대해서 아리샤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가요? 답: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답: 아니요, 거의 없어요.

문: 그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혹시 강제 이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적이 있나요?

답: 아니,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근데 우리 학과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 때, 그 때만 우리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만..

문: 왜 그러셨는지 혹시 이유는 알아요?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답: 아마 자기 자붓(고생) 많이 있어서.

문: 그러면은 아리샤 같은 경우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언제쯤 인지 기억나요? 아,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한국이 나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답: 아...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길거리를 걸을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길을 골라야 되는지 고생했을 때, 그 때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그 때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사범대학에서. 그리고 그 언니가 저한테 조언을 주었어요. 그 우리 대학교 좋다, 라고 했고 그 때부터 항상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관심도 많이 생겨서 저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아마 그 때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문: 아, 그럼 그 이전에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 해준 적은 없구요?

답: 네..

문: 그 아리샤가 한국어과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 좋았어요.

문: 음 아리샤가 한국어과 말고 다른 과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는 않고요?

답: 다른 학과에? 네..

문: 부모님은 무슨 학과에 들어가라고 권했어요?

답: 원래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먼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으니까 디자이너에 관련이 된 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르히 척투르니(건축학과)...원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대학교 우리

지금 사범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문: 그래서 부모님은 그럼 아리샤의 직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직업 가져라, 저런 직업 가져라, 라고 말씀은 안 하셨네요.

답: 네, 저는... 원래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사마스타야첼나야(독립적인),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한테 믿고 저한테 그냥 아리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문: 그러면 지금은 혹시 부모님이 아리샤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답: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이... 제가 사마 우비라유(스스로 선택합니다.) 혼자 결정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 부모님들이 조언을 많이 했지만 제가 혼자 결정해요.

문: 부모님은 아리샤가 지금 지금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을 하세요?

답: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으니까 좋은 통역가가 되기를 원해요.

문: 통역가가 되기를 원해요? 왜 하필이면은 통역가를 생각하실까요?

답: 부모님들이? 왜냐면 제가 다른 걸로 돈 벌 수, 많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문: 부모님들은 집에서 고려 음식 자주 만들어서 드시나요? 엄마가 고려음식 자주 해주시나요?

답: 네. 보통 고려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 엄마가..

문: 그럼 리스(쌀, 밥)하고 항상 같이 먹나요?

답: 네, 밥도 많이 만들고 근데 빵도 잘 먹어요. 우리 가족은.

문: 보통 그러면은 밥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리스는 한 번? 빵 한번 이렇게 먹나요?

답: 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문: 부모님은 아리샤가 결혼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답: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문: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답: 네.

문: 그러면은 혹시 뭐 아리샤가 고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없나요?

답: 음...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꼭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런 말 안하고 그냥 제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면 어떤 민족인지 상관없다고 생

각해요.

문: 아리샤는 어때요, 아리샤는 꼭 고려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해요?

답: 저는 상관이, 상관이..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려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 왜요?

답: 같은 민족이니까 제가 원래 라시스트(민족주의자)... 어떤 민족주의자 아닌데 근데 제 남편이 고려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 아리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어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한국에 관련한 뉴스를 자주 듣나요?

답: 아니요, 많이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어서 못 들어요.

문: 그럼 한국에 대한 뉴스를 주로 누구를 통해서 들으세요?

답: 친구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문: 아, 그러면은 한국 뉴스를 얼마나 자주 듣나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한국에 대한 소식들...

답: 항상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항상 달라요.

문: 음 아리샤는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나요?

답: 네, 있어요.

문: 몇 번 다녀왔죠?

답: 두 번 다녀왔어요.

문: 언제, 언제 갔다 왔었어요?

답: 첫 번째는 2년 전에 돌아왔고, 두 번째는 작년 여름 갔다 왔어요.

문: 2년 전에 갔다 온 거하고 2년 전하고 작년하고 각각 어느 프로그램 이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답: 첫 번째는 그 때 한국에 광복 60 그 때 되었으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뽑혀서 가게 되었어요. 음 대회 나가서 거기 문장을 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뽑혀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문: 그 한국에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 차이점이 좀 있나요?

답: 네, 있어요.

문: 어떤 점이 좀 달라졌죠?

답: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갔다 오기 전에 그냥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열심히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는데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한글을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 깊이 알게

- 되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랑 대화 했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실력이 너무 모자라서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한국 사람도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제가 아, 이런 문법을 배웠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근데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극이 돼서 제가 그 때부터 한글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 문: 음, 한국에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아리샤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 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생겼나요?
- 답: 네, 제가 그 때 갔다 오기... 갔다 온 후에 음 결심했어요. 제가 꼭 한국어를 잘 배우고 꼭 전문적인 전문 통역사가 되야.. 하기 시작했어요.
- 문: 그럼 아리샤는 아리샤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 외에 어떤 공부를 또 하고 있죠?
- 답: 영어도 꼭 꼭 영어를 잘해야 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음.. 취미지만 잘 할 수, 할 줄 모르지만.. 그 할 수 있으면 영화도 찍고 음, 이런 디자이너에 관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할 예정에 있어요.
- 문: 영화를 찍어봤나요?
- 답: 네. 작년 가을에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음...우리 음 언니랑 언니, 포토샵을 잘하는 언니랑 이런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 문: 그 영화를 찍기 전과 찍고 나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자기 생활에 차이가 생겼나요?
- 답: 네, 영화를 찍기 전에 이런 관심이, 촬영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촬영하고 영화를 만든 후에, 제가 원래 이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 문: 앞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영화도 하고 싶고 디자인도 하고 싶고 한국어도 해서 전문 통역가도 돼야 되고 그 일들을 함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갈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 답: 네, 제 생각에는요 아무...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 문: 아리샤는 혹시 그 한국의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니면 영화를 자주 보나요?
- 답: 자주 보는 게 보다는 봐요. 어떨 때 봐요. 예를 들어 오늘도 봤어요. 눈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 문: 봤을 때 그거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떤 느낌들이 생겨요?
- 답: 음...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리고 그 영화 보면서 한국의 사람이 어떻게 사

는지 볼 수 있어요. 모습을 그리게 되요.

문: 여기서 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드라마들 많이 해주죠. 그 드라마가 한 3~4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 한국 드라마를 해주기 전과 해준 후에 우즈베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답: 음, 한국 사람이 얘기...

문: 한국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주고 나서 우즈베크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한테 이야기 할 때나 아니면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답: 예, 있어요. 원래 제가 우즈베크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를 못 봤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즈베크 사람들한테서. 우즈베크 사람이 이런 드라마 봐서,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 좋게?/ 네, 좋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소벤나(특히) 깍 에타(어떻게 말하죠?) 켈추켄나... 깍 에타 나즈바엿자(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당금? /장금? 대장금?/ 네, 대장금 보고나서 우즈베크 사람이 항상 아...항상 그 드라마 통해서 아주 잘..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을...한국 사람에 대해서..

문: 아리샤 개인한테는, 아리샤가 생각을 하기에, 솔직하게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답: 어떤 나라?

문: 한국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

답: 음....아, 딱 음 딱 말하면 하나 있어요. 한국사람 특별히 저에게 저한테는 대표적인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깍...오친(아주)..깍 에따 스카자치(뭐라고 해야 하나요..) 잘..어떤 일에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이, 이 표현이 한국 사람에 딱 어울려요. 놀기엔 열심히 놀고 일하기엔 열심히 일하고 라는 표현이 들어서 맞다고 생각해요.

문: 그거는 지금 한국에 대한 아리샤의 생각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아리샤가 만난 한국 사람은 어땠어요? 어, 아리샤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답: 음, 친절하고, 친절하고 아주 바른...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원래 젊은이들이랑, 청소년들이랑도 만약에 대화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국에 첫 번째 갔었을 때, 있었을 때 거기 젊은이들이랑 많이 대화해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나라는 젊은이들인 한국사람 젊은 청소년.. 여기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이랑 비하면 조금 더 빨리 어른이 되

요. 더..음..

문: 여기 청소년 들이 떠 빨리 어른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왜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답: 파타무슈타(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여기 나라, 여기 사람보다는 유치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 더 어려...유치하다..(웃음) 더 어려 보여요?/ 네, 더 어려보이기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도 많이 웃고, 많이 웃고, 농담도 잘하고..

문: 아리샤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한국 사람들은 참 마음에 안 들었나, 라는 그런 한국사람 있었어요?

답: 음...아, 있었어요.(웃음)

문: 어떤 사람이었어요?

답: 말하면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데, 우리 선생님이..우리 선생님, 선생님이었어요. 벌써 한국에 가셨던 선생님. 우리 학교에 그 선생님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무섭고 애들이 다 무서웠어요, 그 선생님을. 근데 안 좋아 하지만, 한쪽에 그 점이 좋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엔 익숙하지 않아서 다 놀라고 있었고 이랬어요.

문: 아리샤는 그 이제 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고려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식이나, 설날이나, 단오 같은 거, 추석, 이럴 때 명절을 다 지내나요? 고려 식으로?

답: 네,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문: 예전에는 어땠었는데요?

답: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각 민족마다 친척들이랑 다 모여서 다 시켰어요, 시켰어요.(지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그런지 잘 안 시키고(지키고) 있어요.

문: 아리샤 같은 경우는 한식이나 추석 때 저기 그 산에 가나요? /그거 뭐죠?/ 클라드비슈(묘지에)..

답: 아,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안 가보고 작년에도 안 가봤어요.

문: 왜 안 가게 되었죠?

답: 음...대학에 갔어요. 대학교 때문에...

문: 수업이 있어서?

답: 네.

문: 아리샤는 아리샤가 고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은 어떤 때 살다보면 아, 다른 민족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답: 아니요, 없어요.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다른 민족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문: 고려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 지내면서 학교 다니거나 여기 좀 다닐 때 좀

불편했던 점은 있나요?

답: 저는 없는데, 민족 때문이죠?

문: 네.

답: 저는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 시대 때, 이랬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이런 게 많이 심했어요. 다 차별하는, 차별... 차별이 심했어요. 싸우기도...그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많이 사건을 당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문: 아, 지금은 안 그렇고요? 아리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고려 사람들만의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 니면 고려문화협회나...아니면..

답: 고려인들만 모이는 데 있냐고요?

문: 네.

답: 네, 있어요.

문: 어디서?

답: 아, 여기 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이 있고 거기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떤 동아리 같은 거 다니고 다 모여서 어떤 일 같이 해요.

문: 한국교육원에서요? 어 무슨 일을 해봤죠?

답: 사물놀이, 아니면 태권도 배우고 있어요. 거기.

문: 그런 거 배워봤어요, 아님 지금 배우고 있어요?

답: 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 아, 잘못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접속(접촉)해봤어요. 근데 교육원 말고 다른 데. 얼마 전에 여기 한국에서 사물놀이 잘 하시는 선생님이 왔었어요, 그 선생님이 사물놀이를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이랑 모여서 10명 그 때 10명 연주했어요, 저는 그 때 장구를 쳤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는데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아주 재밌어서 피곤한 것도 느끼지 않고 그 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문: 혹시 아리샤는 그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답: 네, 있어요.

문: 한국친구요?

답: 네.

문: 그러면은 아리샤 생각에 그 만약에 그 한국에 그 세계청소년들이, 세계에 있는 한국사람, 한국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은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

여할 생각인가요?

답: 네, 이런 사이트 생기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문: 그런 사이트가 아리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답: 음 다른 저 같은 민족, 민족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채팅... 채팅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아주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대화하면서 서로 문화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알 수도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 아리샤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있는..졸업반이잖아요? 고려인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답: 음 아마, 취직..

문: 음 취직 문제를 왜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죠? 졸업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답: 네, 그런...그 문제도 있고요, 다른 문제도 있어요. 다 얘기...예를 들어, 옛날 비교하면은 고려인들이 대부분 농사일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 농사 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변해서 사람이 이런 생각 음 없고 그냥 입학 좋은 직업을 잡고 싶어요. 좋은 직업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음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지 취직은 어려워요. 한국어를 알면은 취직하기에 아주,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모르면 대충 대학 간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문: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일거리가 없고, 대부분 한국어만 알고 있잖아요? 한국 어과를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님, 많은 고려인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면 여기 고려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적은 있나요?

아리샤: 네, 아마 원래 여기 많은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공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졸업 할 수도 없고, 그 것을 보면 음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도 없잖아요. 돈 문제, 돈 문제예요. 문제는 돈이에요.

문: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아리샤는 생각을 하는 거네요?

답: 돈 문제?

문: 예, 돈 문제가.. 지금 공부를 지금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답: 네, 왜냐면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그냥 공부하면서 살 수 없고 돈 벌기 위

해서 살고 있어요. 공부위해서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중단

문: 그러면은 음 아리샤는 그 한국 구체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해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일을 해주면 그 청소년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주거나... 어떤 교육을 도와주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고려인 청소년들이 잘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답: 제 생각에는요, 여기 우리나라에 그냥 돈 주기만 하면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사람이, 여기 젊은 사람이 일거리를 돈 문제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일거리를 고를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많은지 어떤 고민해도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단체나 단체 같은 거 생기면 일거리를 고를 수, 고르기에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 일거리를 고를 수 있는 거?

답: 네.

문: 아리샤는 어떻게 지금 아리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아리샤는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답: 교육받기 위해서.

문: 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 음, 교육이 없으면 취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냥 무식하지 않게..

문: 아리샤는 앞으로 아리샤 미래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래가 굉장히 좋게 될 것이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답: 아니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없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 ② 세계언어대학 영어과 학생 최 빅토리아 (22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최소영, 일시: 2007.4.22, 장소: 최소영 자택)

문: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답: 제가 최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22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어...세

계대학에...

-----중단

문: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답: 제가 최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22살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언어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학과에 공부합니다.

문: 영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죠?

답: 음 앞으로 음 저는 음 한국에 한 번 가보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사람한테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문: 왜 비카는 영어과를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했나 봐요?

답: 음 저는 먼저 한국어를 배우다가 고등학생한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좀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입학하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좀 2년 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생겼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 그렇게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직업, 깡까야 프라페시아(어떤 직업)?

답: 음 원래 저는, 니 다브나(얼마 전에) 우리는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이런 직업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포토 찍게 돼서 이런 직업...

문: 사진 찍는 것과 관련된 직업?

답: 예.. .

문: 그렇구나.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애길 했는데, 포토샵은 어떻게 배우게 되었어요?

답: 한국 언니랑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 포토샵을 여기서는 잘 모르나요? 사람들이 많이 안 했나요?

답: 보통 내 생각에는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청소년들은 좀 이런 관심이 아마 없어요.

문: 컴퓨터에 관심이 없어요?

답: 예.

문: 비카는 종교가 무엇이죠?

답: 음...호리스찬스카야.(기독교)

문: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답: 1년 전에.

문: 1년 전부터?

답: 1년 전부터.

문: 어떻게 다니게 되었어요? 가족들 중에?

답: 아니요, 우리 가족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친구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하고, 저는 거기 갔어요.

문: 거기는 규모가, 사람들이 많나요?

답: 원래 많아요. 그리고 그냥 노 토치나 스콜카 니 즈나유. (하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문: 학교 지금 영어과라고 했죠? 영어과에 고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답: 몇 명...아마... 칠라백(명)

문: 고려 사람이?

답: 예..

문: 영어과 전체에?

답: 다. 다. 프시에 브메스치에 카레이스키에 (네, 한국인 모두)

문: 전체 학생은 몇 명인데요? 읍쉬예(전체)

답: 아, 읍쉬예...모쉴트 브이치. 스토 피지샷.(전체...아마도...150명) 아니면 드베 스치 칠라백.(200명)

문: 그 중에서 삼십 명이 고려사람 이에요?

답: 누 그지에 따 딱. 프리메르나.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문: 굉장히 많네요?

답: (웃음) 나베르나 딱. 또치나 니 즈나유. (네..뭐...아마도 그 정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문: 저기 비카 가정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신가요?

답: 네.

문: 음 그럼 지금 어머님 아버지는 다 고려 사람이고요?

답: 네.

문: 어 가족 중에 혹시 고려사람 아닌 사람 있어요?

답: 없어요.

문: 다 고려 사람이예요?

답: 네.

문: 어..그럼 지금 어떻게 가족들 누구누구 같이 살고 있죠?

답: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가족들 다 같이 살아요.

문: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 졸업했어요?

답: 우리 아버지는 부하라에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는 엔지니어.

문: 엔지니어과?

답: 네.

문: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답: 지금은 음 브 바얀넢 아르가니자찌이(군사기관). 거기서 그는 건물처럼 이  
런 거..

문: 아, 건물 지어요?

답: 네.

문: 아. 건물 짓고 계세요?

답: 네.

문: 스트로잇? (건물을 짓나요?)

답: 네트, 니 스트로잇. (아니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문: 프로젝치르? (설계사인가요?)

답: 네트. 니 프로젝치르. 프로스타 인지니에르(아니요, 설계사가 아니고, 그냥  
기술자인데..) 그리고 음...확실히는...

문: 잘 모르겠어요?

답: 네, 잘 모르겠어요.

문: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를 졸업했어요?

답: 어머니는 학교를 그냥 초등학교를..

문: 쉬콜라(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만 졸업했어요?

답: 네, 쉬콜라만 졸업했어요. 시골에서. 스페르들로프 칼호스...

문: 음, 스페르들로프 콜호즈(집단농장)에서?

답: 네..

문: 그럼, 어머니는 쉬콜라 졸업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죠?

답: 먼저 그녀가 바느질 하셨고 지금은 우리 엄마 시장에 일하고 있어요. 옷을  
팔고 있어요.

문: 어, 옷을 팔고 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셨었죠? 얼마  
나 다녀오셨죠?

답: 많이...차스터(자주)

문: 자주 왔다갔다 하시나보네? 옷을 사러 거기 다녀오시는 거구나?

답: 네.

문: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도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하시고 그러면 비카 같은 경  
우는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나 받아요?

답: 어느 정도.. 만숨이요.

문: 만숨 정도요?

답: 네.

문: 동생은?

답: 동생은 똑같아요.

문: 만습 가지고 일주일 생활할 수 있어요?

답: (웃음) 네.. 할 수 있어요.

문: 어때요? 힘들어요?

답: 네, 조금 힘들어요.

문: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답: 아마 이만 정도

문: 이만 습?

답: 네..

문: 이만 습이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돈이 두 배로 오르면 어떤 걸 더 하고 싶어요? 돈이 이만을 받게 되면은 어떤 걸 더 하고 싶어요? 무엇을 더?

답: 어...그냥 프로스타.(그냥)

문: 생각은 안 해보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답: 좀 더 사고 싶은 것 생각해요.

문: 어떤 것을 사고 싶어요?

답: 음..원래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그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만습 받았는데 좀 어려워요.

문: 그럼 컴퓨터 사려고 돈을 모으려고요?

답: 네.

문: 지금 비카 주변에 고려인 학생들이 컴퓨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나요? 자기 컴퓨터를 가진 학생들이 있나요?

답: 있는데, 노(그러나) 발원스트보(대부분) 없어요.

문: 컴퓨터 없어요?

답: 네.

문: 그러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나요? 뭐 리페랏(보고서)을 쓴다든가?

답: 그거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문제예요.

문: 대부분 컴퓨터를 어디 가서 쓰나요?

답: 인터넷 카페 가고 써요.

문: 그럼, 인터넷 카페는 인터넷 카페 사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답: 노 브 자비시머스치 브레메니. (그건 시간에 달려있죠.) 노 프리메르나 아진 콕스 그제 따 보심 슛. (대략 한 시간에 800습 정도)

문: 800숨?

답: 네, 팔백 숨.

문: 그럼 보통 그렇고 만약에 인터넷을 쓰게 되면? 인터넷을 쓰던 안 쓰던 컴퓨터를 쓰면 800숨?

답: 아니요, 그냥 컴퓨터 쓰고 그냥 쯤 쓰면 600숨.

문: 그러면은 하루에 600숨이면 하루에 한 시간씩만 써도 일주일이면은 4,200숨이네요?

답: 네.

문: 그러면은 컴퓨터 쓰면 진짜 돈이 용돈이 하나도 없네요? 만숨 받아서 4,200숨이면 차비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컴퓨터가 정말 큰 문제네요. 컴퓨터가 없어서 정말 힘들겠네요.

비카: 네.

문: 그러면은 비카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족들이 이제 버는 돈이 있잖아요. 어떻게 쯤 그 돈이 다른 가족에 비해서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충분하다고?

답: 음...원래.. 노 프 프린시페 딱 나르말나 프세흐 드냐흐 노 카네쉬나 두르기 미 나베르나 님노슈카 지줄로바타. (뭘, 요즘 보통정도이기는 하지만, 쯤 힘들죠.)

문: 그러면은 비카 어렸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렸을 때가 더 잘 살았던 거 같아요? 지금 더 잘 사는 거 같아요?

답: 음 누 밥시에 스레드니..(평균인데요.) 비슷해요.

문: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나요?

답: 네

문: 어때요, 그러면은. 비카는 지금 우리 가족들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요?

답: 잘 못 들었어요.

문: 어 지금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모습, 사는 거 있잖아요, 돈 쓰는 거, 함께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답: 브 프린시페, 각 비 하라쇼 스토잇 탁. 이렇게 살면 좋다고 그냥.. 그리고 예슬리 빌라 또 루체 빌라 비 오친 하라쇼. (지금도 좋지만, 만약 조금 더 낫다면 훨씬 좋겠죠.)

문: 비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고려 말을 쯤 사용하나요?

답: 다.(네) 우리 부모님들이 고려 말을 많이 써요.

문: 그럼 고려 말을 쯤 잘 알겠네요, 비카는?

답: 그냥 잘 이해하고 잘 말할 수 없어요.

문: 왜요?

답: 그냥 잘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워서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어요.

문: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고 할 줄은 모르고...한국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말씀을 하시나요? 너는 한국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답: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문: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답: 음...원래 조금 하셨어요.

문: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답: 우리 할머니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어요. 좀 힘들게 살아서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그들은 여기 오고 여기도 좀 힘들었어요. 이런 얘길 하셨어요.

문: 그러면 비카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답: 우리 친구들이.

문: 언제쯤? 몇 학년 때?

답: 입학 할 때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문: 영어학과 입학할 때?

답: 네, 왜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 한번 가고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문: 그럼 처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친구들은 뭐라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비카한테 뭐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답: 한국은 아주 라즈비타야. (다채롭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생각이 좀 아주 달라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리고...음...

문: 지금 비카는 한국어를 따로 배우고 있죠?

답: 네.

문: 그럼 그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답: 우리 부모님은 이거 안후에 아주 기뻐어요. 왜냐면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애들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문: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답: 네.

문: 한국어를 배워서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답: 네.

문: 그럼 부모님은 비카한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하기를, 부모님이 비카한테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답: 우리 부모님들은 영어가 한국말을 잘 배우고 통역사 되고 싶었../통역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문: 왜 통역사죠? 하필이면?

답: 왜 통역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으니까.

문: 처음에 비카 통역사였죠? 통역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답: 통역사는 좀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의 대화를 통역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언니랑 포토샵을 배우고 사진 찍기를 관심이 생겨서 이거 지금 직업을 이런 식으로 되고 싶어요.

문: 근데 지금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컴퓨터가 없으면...

답: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포토샵 배우기 어려워요.

문: 사진은 지금 어떻게 찍고 있어요?

답: 우리 선생님 있는 거 가지고 찍었어요.

문: 앞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사진기를 빨리 장만을 해야 하고 컴퓨터도 빨리 사야 되겠네요?

답: 네. (웃음)

문: 부모님이 집에서 요리를 주고 누가 하세요?

답: 엄마가. 엄마도 하고 저는...저도.

문: 집에서 한국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나요?

답: 보통 한국 음식..고려음식을 먹고 있어요.

문: 고려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답: 보통 국수, 시래기 국, 된장..그리고 반찬 여러 가지 반찬을 항상 우리 엄마가 만든 거 있어요.

문: 그럼 집에서는 주로 리스(밥)를, 밥을 먹나요?

답: 하루에 한 번 꼭 먹어요.

문: 비카한테는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밥 먹는 게 더 맛이 좋아요? 아니면 빵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답: 이 밥도 빵도 좋아요.

문: 어떻게 부모님은 비카한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결혼 빨리해라, 라든가 결혼 나중에 해야 된다, 라든가...

답: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서두르

- 지 마세요. 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 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웃음)부모님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 답: 고려 사람하고
- 문: 그냥 고려 사람만? 어떤 직업 가진 사람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 답: 안 해요. 노 밥시예...(그냥..) 러시아 사람 고려사람...노 밥시예(하지만 그냥..) 고려 사람하고 시집, 결혼하면 좋겠어요.
- 문: 만약에 비카가 고려 사람이 아니라 우즈베크 사람이나 아니면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답: 처음에 아마 좀, 노 니 다볼니 아 파툼 모췌 브이치 스메릿차. (처음에는 맘에 안 드시겠지만 나중에는 허락하시겠죠.) 노(하지만) 원래 저는 고려 사람하고 시집, 결혼하고 싶어요.
- 문: 한국 사람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 답: 음...없어요.(웃음)
- 문: 왜요?
- 답: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우리는 좀 문화가 달라요. 다르고 전통도 좀 비슷한데 우리는 여기 사니까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결혼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 문: 비카는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뉴스를 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좀 자주 듣는 편인가요?
- 답: 이나그다. (가끔)
- 문: 한국에 대한 소식은 주로 어떻게 듣게 되요?
- 답: 우리 한국어 선생님한테서 들어요.
- 문: 주로 한국어 선생님이요? 주로 한국어 선생님한테?
- 답: 아뇨, 가끔 친구들한테도.
- 문: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 답: 네.
- 문: 혹시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 답: 다, 카네쉬나. (네, 당연하죠.)
- 문: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 답: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노 인체레스타 파스마트레치 각 아니 쥐붓 브 카레이, 이 밥쉐 브 에투스트라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문: 한국에 가서 혹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답: 그것도 있어요.

문: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답: 음...한국 문화가 아니면 전통 배우고 싶고, 그리고 사진 찍기를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문: 한국 문화나 전통을 배운다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비카한테?

답: 이거 배우면 우리 여기 사는 고려 사람한테 더 말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 고려 사람들이 음 한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문: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가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게 별로 없나요?

-----중단.

문: 비카가 한국에 가서 문화나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비카가 앞으로 사는 거에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답: 한국에 가면 공부하고 이 시야를 많이 넓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미래, 앞으로 편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 어..비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떻게 비카 앞으로 사는 거라든가 직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었다고 생각해요?

답: 네.

문: 어떤 도움을 줬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답: 한국어를 배우게 돼서?

문: 네, 한국어를 배우지 전과 후의 차이점을...

답: 음...배우기 전에 저는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났고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목표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 배우고 음 부두섬 슈토피스 에침 샤짐 빌(미래에 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기를.)

문: 티비나 아니면 티비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우즈베키스탄에 방송해주는데 자주 보나요?

답: 우즈베크 방송 보여주는 데 저는 그거 안 봤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가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문: 한국드라마를 보니까 어떻게 좀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었나요? 아님 뭐 차이가 있나요?

답: 한국 드라마 보니까 관심이 떠 높아져요.

문: 한국드라마 보고나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비카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산

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모르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본...

답: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더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요.

문: 드라마에는 그렇게 보여요?

답: 네.

문: 혹시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여기 뭐 우즈베크 친구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우즈베크 친구들이라든가 다른 나라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여기서 한국 드라마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 제가 좀...

문: 어, 한국 드라마가 3~4년 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우즈베크 방송에서? 그게 이제 비카가 1학년 들어갔을 무렵인데, 그 한국 드라마를 방송에서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 비카 사이가 좀 달라지거나 우즈베크 사람들하고 고려 사람들 사이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 네, 우즈베크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드라마 보고 관심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한테 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좋게 더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전에 그들은 우리한테 좀 고려 사람들한테 좀 나쁘게...우리는 다른 라스...음...드루고이 라스(다른 민족). 그래서...

문: 그러면은 드라마가 비카한테는 좋은 영향을 줬네요?

답: 음, 네.

문: 우즈베크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겠고...

문: 비카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답: 한국은 아주 좋은 나라예요. 오친 라즈비타야. (굉장히 다채로와요.)

문: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 네.

문: 나는 생각을 할 때, 비카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고려 사람이다? 같은 민족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답: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여기 오래 사니까 좀 달라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좋다, 발전했다 하는데, 비카가 만난 한국 사람들, 비카가 만난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있

을 텐데, 어땠어요? 비카가 만난 한국 사람들...

답: 보통 대부분 한국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고려 사람한테 항상 도움을 주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싶어요.

문: 한국사람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답: 네.

문: 한국 사람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좀 안 좋던가요? 비카가 만났던 한국사람 중에서 이런 점은 참 안 좋았다 하는 거..

답: 음. 네카토르(몇몇)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좀 우리보다 좀 (높게) 이렇게 그런 각 스카자치(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던가요?

답: 그냥 아트나쉴니예(관계)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문: 비카가 여지껏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고려 사람이어서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려 사람이어서 불편하다, 라고 느꼈어요?

답: 음...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살다가 괜찮아요.

문: 비카는 내가 고려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답: 네.

문: 혹시 다른 민족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답: 아니요, 없어요.

문: 집에서 비카 같은 경우에는, 비카는 어떻게... 한국의 고려인들, 전통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답: 알아요. 조금 알아요.

문: 주로 누가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답: 우리 할머니가.

문: 주로 할머니가 이야기 하세요? 부모님은?

답: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더 많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애들한테 항상 말씀 하세요.

문: 어떤 이야기, 고려 전통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줬어요?

답: 어..전통?

문: 전통이나 문화. 고려인들에 대해서. 너는 고려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어요?

답: 우리는 고려 사람이니까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오기 전에 우리는 좀 ... 있었

어요. 우리는 고려 사람이니까 여기 오고 칼호즈 스스로 만들고, 프시에흐 칼호즈 파드날리(모든 콜호즈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항상 우리 고려 사람이니까 뜨루짓차. (일하자.)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문: 그럼 비카 같은 경우에는 비카 집에서는 뭐 여기 고려의 전통 명절 잘 지내나요?

답: 음..제사..

문: 제사랑 뭐, 뭐 있어요?

답: 제사, 돌잔치, 환갑. 이런 거. 네, 지내요.

문: 한식이나 추석 때 산에 가나요?

답: 네.

문: 비카는?

답: 저는 저도. 왜냐면 우리는 매년 묘지에 가요. 다녀요. 1년에 3번.

문: 언제, 언제 가요?

답: 봄에 4월 5일, 그리고 아마 가을에 토치나 각코이 치슬로 야 니 폼뉴.(확실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문: 추석 때?

답: 네, 추석 때. 그리고 레툼(여름).. 여름에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 그건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산에 간다고?

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거기에 다니니까 그냥 가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부모님과 항상 말하셨어요.

문: 그러면 비카는 지금 날짜 잘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아, 내일은 산에 가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답: 엄마가. 부모님들이.

문: 부모님은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답: 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지난...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는, 아니요 2년 동안 우리는 꼭 묘지에 가야 돼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돌아가신) 날에 그리고 제사 날 때도 가야 되요.

문: 여기 혹시 고려인 청년들끼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하는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여기 고려문화협회 있죠? 고려문화협회 거기 뭐 청년 연합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나요?

답: 만나 봐요. 저는 그거 가끔 기회를 가끔 다녀요.

문: 어떤 거?

답: 이런 청소년들 다 모이는 곳에 가끔 다녀요.

문: 언제, 어디서 고려문화협회에서 하는 거요?

답: 네.

문: 모임에서 뭐하는 데요?

답: 아니요, 저는 보통 원래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문: 그러면은 혹시 뭐 한국에 있는 친구나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주로 이메 일 주고받거나 하는 친구가 있나요?

답: 친구 아니고, 지난여름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집사님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문: 집사님하고?

답: 네.

문: 집사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답: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 하세요.

문: 여기에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카가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나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비카가 만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비카가 아, 한국이 더 좋은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답: 네.

문: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음...원래...음...

문: 비카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보통 좋은 사람들이예요.

문: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답: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말을 잘 배우고 한국에 가고 거기를 입학하고 공부하라고 말해요.

문: 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구나, 한국 사람들은.

답: 네.

문: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초청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들어 봤어요?

답: 들어봤는데 제가 한 번도 니 예즈질라. (안 가봤어요.)

문: 왜 한 번도 안 갔어요?

답: 그냥 안...노 니 프로바발라. (그냥 시도를 안 해봤어요.)

문: 왜 시도를 안 해봤죠?

답: 좀 실력이 모자라니까.

문: 그러면 비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답: 네. (웃음)

문: 만약에 비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쓰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쓰나요? 몇 시간?

답: 아마도 2시간 아니면 세 시간이요.

문: 일주일에 세 시간, 일주일에 세 시간이면 3, 8에 이십사, 2,400숨, 만숨 중에서 2,400숨이 나가는 거네요?

답: 네.(웃음)

문: 그러면은 하면은 주로 어떤 거를 하나요? 인터넷에서.

답: 보통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문: 어떤 친구들?

답: 한국에 있는 친구들.

문: 유학 간 친구들?

답: 네, 그리고 우리 고려 친구들하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어떤 인포르마치야(정보) 필요할 때 거기 가요. 인터넷 카페 가요.

문: 주로 어떤 인포르마치야가 필요하죠?

답: 보통 공부하면서 어떤.. 파 우쵸베. (학업에 관하여)

문: 음, 공부에 관련된 것들?

답: 네.

문: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그 이쪽 고려인들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여기서 일자리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 살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한국정부가 고려인 청소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답: 먼저 제 생각에는 컴퓨터 문제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 공부하려고 가고 공부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문: 어떻게 비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4학년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떤 문제 인제, 물론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인가요?

답: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 살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중단

답: 우리는 졸업하면, 우리는 졸업하는 후에 우리는 많이 걱정해요. 왜냐면 우

- 리는 취직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
- 문: 조금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졸업을 하죠. 그러면 비카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취직자리 찾은 친구들 있나요?
- 답: 음, 2명이나 있어요.
- 문: 2명요? 모두 몇 명이 졸업하죠?
- 답: 모두...우리 반에 모두 열여섯 명이에요.
- 문: 16명 중에서 2명이 취직되었어요?
- 답: 아마도 2명...
- 문: 그 친구들은 어디에 취직되었어요?
- 답: 어떤...그 친구들은 우즈베크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취직할 때 그냥 자기 실력이 안 보고 그냥 가까이 사이 이렇게 아는 사람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 문: 그러면 여기 우즈베크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고려 사람들이 좀 취직하게 힘들겠네요?
- 답: 네..그래서 보통 우즈베크 사람들은 자기 우즈베크 사람들을 이렇게 취직... 어떻게.. 비룻 나 라보투. (일자리를 주죠.)
- 문: 그러면은 비카는 지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카는 지금 이제 여지껏 영어 공부를 하다가 한국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사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 답: 프리치나 일리 부두셈 플라네?(이유요? 아니면 미래의 계획이요?)
- 문: 프리치나.(이유요.)
- 답: 카네쉬나 슈토브 루체 취치.(더 잘 살기 위해). 더 좋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가족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 문: 비카가 그러면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가요? 비카가 생각하는 미래.
- 답: 미래? 다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재미있는 직업을 잡고, 자기 가족 만들고, 이렇게 살면 미래 좋겠어요.
- 문: 재밌을 거 같아요, 그러면?
- 답: 네.
- 문: 어때요, 비카는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내가, 앞으로 그 미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답: 네.

문: 그러면 비카한테는 아주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중단

답: 쿠일록 살았어요.

문: 그럼 아빠 가족들은 어디야?

답: 벡테미르? 거기 아마...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문: 왜 아빠 쪽은 왜 안 가봤어? 할아버지 안 계셨어?

답: 아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지금 계세요. /아, 살아계셔?/ 네, 그래서 아빠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는 안 가봤어요.

문: 음...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그럼 처음에는 누구하고?

답: 아, 우리 엄마의 할머니가. 또 아빠의 할아버지.

문: 그쪽으로만 가? 엄마 쪽으로만? /네/ 아빠 쪽으로는 안가고?

답: 안가고. 왜냐면 지금 다 살고 있으니까.

문: 다 살아계시니까? 네, 우리는 그냥 아빠의 할머니 돌아가셨고.

답: 아빠, 엄마 지금 세르겔리에 살고 있어요.

문: 어, 같이?

답: 아니요, 같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가까이.

문: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살아계셔?

답: 네, 그냥 엄마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문: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의 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야?

답: 아니요,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금 거기 안가요. 안 다녀요.

문: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주 만나?

답: 네.

문: 얼마나?

답: 일주일에 네 번.

문: 일주일에 네 번? 어 바로 옆집이야?

답: 아니요, 옆에...

문: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같이 사셔?

답: 네.

문: 아빠 형제가 몇 명이야?

답: 트리 시스트리, 고모 세 명, 동생(삼촌) 한 명 있어요.

문: 고모하고 삼촌들을 어디 있어?

답: 고모 한명 쿠일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다른 고모들은 그리고 브라 치슈카(동생, 삼촌)는 세르켈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의 고모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몸이 건강이 많이 아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의 누나, 지금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고모에 대해서.

문: 엄마는 왜 대학에 안 들어가셨어?

답: 아. 엄마가 가 우리 엄마가 자기 실력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셨어요.

문: 그래서 입학 안하셨어?

답: 네.

문: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이시지?

답: 마흔 여섯 살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깍 쉬찌.(바느질)

문: 바느질?

답: 바느질 시작했어요.

문: 엄마 공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비카한테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답: 네 네 네, 자기가 공부할 수 없어서 우리 애들은 공부 꼭 해야 한다.

문: 엄마는 그럼 스페르들로프 콜호즈에서 태어났어?

답: 네. 엄마가 거기에서...

문: 그럼 엄마의 아버지...

### ③ 세종한글학교 교사 김 리타 (23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최소영, 일시: 2007.4.23, 장소: 최소영 자택)

문: 저기 어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 다 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요.

답: 안녕하세요? 저는 김 리타라고 합니다. 작년에 니자미라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세종한글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아 세종학교에서... 지금 나이가?

답: 나이는 23살입니다.

문: 23살이에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답: 지금 타쉬켄트에 벡데미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문: 아, 벡데미르 지역이에요?

답: 예.

문: 지금 선생님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사범대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선생님

이 희망사항이었나요?

답: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문: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음 리타 종교는 뭐죠?

답: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요.

문: 기독교예요?

답: 네.

문: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답: 어~ 9년 전에.

문: 9년 전에? 9년 전에 어떤,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기억나나요?

답: 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국친구를 만났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제가 그 친구 통해서 제가 교회 가게 되었어요.

문: 아.. 친구들 통해서?

답: 네.

문: 가족들 중에서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답: 아닙니다. 저만 다녀요.

문: 가족들이 뭐라고 하나요?

답: 음, 옛날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가 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엄마도 할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문: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죠?

답: 교회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모이고 노래만 부르고 아무 일 안하고 그런 그냥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문: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문: 리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음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신가요?

답: 지금 엄마만 계십니다.

문: 엄마만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엄마랑 같이 사나요?

답: 둘이 살아요.

문: 엄마랑 아빠랑 다 고려 사람인가요?

답: 다 고려 사람이에요.

문: 엄마는 학교를 어디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답: 음 그냥 전문학교를 졸업했어요.

문: 전문대요? 어~ 어떤 엔지니어?

답: 엔지니어학과요.

문: 엄마 직업이 어떤 거였죠?

답: 엔지니어.

문: 그럼 졸업하시고 나서 계속 엔지니어 하시다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답: 지금... 쉬지요.(웃음)

문: 아, 연금 받고 계신가요?

답: 예, 연금...생활자.

문: 언제부터 연금 받으셨어요?

답: 기억이 잘 안나요. 오래됐어요.

문: 여기서는 보통 몇 살부터 연금을 받아요?

답: 잘 모르지만 아마 55살, 55살부터...

문: 지금 그러면은 아리샤네...아니, 리타네 가족의 수입은 돈 들어오는 거는 지금 리타가 벌고 있는 걸로 생활을 하고 있나요?

답: 음 다 같이 합쳐서. 엄마도 돈 받고 저도 월급을 받고...

문: 혹시 엄마는,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물어봐도 되요? 되요? 어느 정도 받으시죠?

답: 아, 요즘 5만숨 정도.

문: 5만숨요? 5만숨이면 한 40달러정도 되네요. 아리샤는, 아, 리타는 어느 정도 받죠?

답: 저는 20만숨 정도.

문: 음, 20만숨 정도? 150달러 정도...음 둘이 버는 것으로 어떻게 생활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작다고 생각해요?

답: 중간.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문: 그렇구나. 지금 리타네 가족이 버는 돈이 다른 가족들 버는 돈에 비하면 어때요? 다른 가족들보다 좀 적게 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답: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문: 리타는 지금 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주로 하는데.. 리타는 지금 리타 벌어들이는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벌어들이는 금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아니면 조금 더 뭔가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답: 지금 딱 맞아요. 옛날에는 좀 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요즘 엄마 그냥 편안히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많이...

문: 혹시 돈을 벌면 그 정도 벌면은 어느 정도 저금을 할 여유는 있나요?

답: 음.. 저금? 저금까지는..

문: 저금까지는 못하고 그냥 버는 대로 그냥 생활을 하고 있군요?

답: 예.

문: 어머님하고.. 옛날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답: 예.

문: 어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엄마랑 살면서 고려 말로 대화를 좀 자주 하나요?

답: 옛날에 할머니랑 고려 말만 썼어요.

문: 할머니랑 고려 말만 썼어요?

답: 왜냐하면 할머니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랑 러시아 말만 써요.

문: 엄마는 고려 말 잘 모르세요?

답: 엄마가 알고 계세요. 고려 말로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써요.

문: 러시아 말로만 해요?

답: 예.

문: 얼마나 할머니가 혹시 한국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으세요?

답: 아니요.

문: 전혀 없어요?

답: 전혀...

문: 할머니도요?

답: 네..

문: 할머니는 여기서 출생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원동에서?

답: 원동에서..

문: 그 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나요?

답: 없어요.

문: 리타가 한국어과를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답: 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학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돈 내고 유료로 공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근데 제가 그냥 1년만 공부를 하다가 콘트랙트(계약한) 돈을 못 내고 그냥 포기 했어요. 다음에, 다음 년에 다시, 다음 해에 다시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학과를, 학과로 갔어요. 그 학과는 바로 한국어문학과였는데, 근데 그냥 다행히 무료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어떤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문: 아 그냥 장학금을 주니까? 거기는 장학금 받고 갈수 있으니까?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무슨 학과를 들어갔었어요?

답: 러시아 문학과.

문: 러시아 문학과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왜 시험을 좀 못 봤어요? 아니면 한국어과가 입학하기가 더 쉬운가요?

답: 어 거기서 그냥 음 한국어문학과에 들어갈 때 개인 대화.. /회화/ 회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력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 음, 근데 러시아어과는요?

답: 거기서는 그냥 쓰는 것만 있으니까 아마...쓰는 것을 아마 못하나봐....(웃음)

문: 러시아어과에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많았어요? 민족들이?

답: 우리 반 학생들 중에는 고려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

문: 한국어과는 어땠어요? 리타 학년에 그 고려 사람이 몇 명 듣고 다른 민족은 누가 있었나요?

답: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15명 정도였어요. 아 그중에 주로 고려 사람들이고 2명만 카작 사람들이었어요.

문: 음 리타가 한국어과를 다시 들어가겠다고,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답: 어머니가 아주 즐거워해요, 즐거워 하셨어요. 포기 안했으니까. 다시...

문: 그냥 대학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셨어요?

답: 예.

문: 부모님이 엄마가 리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라 말씀하신 것 있어요?

답: 음 현재, 현재.. 고려 여기사는 고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하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웃음) 아니요, 반대하세요.

문: 어..왜요?

답: 왜냐면 제가 제 고향을 떠나게 되니까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문: 집에서 한국음식 고려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나요?

답: 아니요. 드물어요. 국수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러시아 음식 아니면 우즈베크 음식 섞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요. 한국음식은 되게 복잡하니까... 만들기가 되게 복잡해요.

문: 그러면 할머니 계실 때는 좀 자주 만들어 주셨겠네요? /예./ 한국 음식?

답: 할머니 옛날에 김치 해주시고 장, 그런 고추장 같은 거...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문: 그럼 주로 뭐 만들어 먹어요? 메뉴?

답: 어제 우리 메뉴? 음.. 우리 집은 메뉴가 되게 간단해요. 아침에는 그냥 주스만 마시고 직장에 나가요. 그냥 밥, 국, 김치나 파김치...

문: 아 주로 밥 먹어요?

답: 제가 주로 밥 먹고 어머니는 주로 빵을 드세요.

문: 어..리타는 왜 밥을 먹어요? 밥이 더 맛있어요? /네./ 아~ 리타는 그럼 주로 밥을 먹고 어머니는 빵을 드시고..그럼 그렇게 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그거 한국, 고려 음식 아니에요?

답: 근데 만드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해도 간단하게...답아요. 한국의 김치는 아주 고추도, 고추도 많이 들어가고 양념도 아주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문: 그럼 그것도 고려 식 음식이죠, 뭐. 고려 사람들 다 그렇게 음식을 하는데..

답: 요즘은 우즈베크 사람들도 김치를 많이 만들어..만들어서 팔아요.

문: 아 김치는 그럼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아니면은 사서 먹어요?

답: 아니요. 사서 먹는 게 아니고..스스로 만들어요..직접 담가요.

문: 어떤 걸로 만들어요?

답: 배추나 무요.

문: 장은 어떻게 장은 좀 만들어 먹나요?

답: 장은 엄마가 작년에 만드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너무 복잡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기로 했어요. 지금 먹는 장은 우리가 샀어요. 시장에서. 고려인 할머니에게서.

문: 리타는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좀 주의해서 듣는 편인가요?

답: 우리 집에서 지금 아리랑 티비가 있어서 가끔씩 들어요, 뉴스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뉴스만 보고 있어요. 유행된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한국에 대한 설명을 아니면 깍 에타(뭐라고 하나..) 젊은이들에 한 뉴스를 발표해요.

문: 그럼 아리랑 티비는 어떻게 위성을 단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답: 음 지금 카말락 티비(녹취자-일종의 케이블 티비, 러시아 방송이나 CNN등을 볼 수 있음.)가 있어서 거기서 아리랑만 나와요. 한국 방송 중에서 아리랑만 나와요.

문: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답: 음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카말락이 뭐가 바뀌고 있어요. 아마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문: 그러면은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는 편이에요, 한국 방송을, 아리랑을?

답: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또 티비를 켜 때마다. /매일?/ 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문: 텔레비전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텔레비전을 봐요?

답: 저녁마다 봐요. /저녁마다?/ 1시간씩.

문: 아..하루에 한 시간 정도? 어, 주로 무엇을 봐요? 텔레비전에서..

답: 드라마나...

문: 한국드라마?

답: 네.

문: 러시아 방송이나 우즈베크 방송은 어떤 것을 봐요?

답: 음 거기서, 러시아는 오락 종류...오락 방송..

문: 우즈베크 방송은?

답: 우즈베크 방송은 아마 이거 날씨에 대한 뉴스..(웃음)

문: 날씨에 대한 것만 봐요? (웃음)

문: 그러면은 리타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러 가는 것에도 대해 관심이 많고, 혹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나요?

답: 제가 제 작년에 여름, 여름에 갔다 왔어요. 한국에..

문: 아 한 번 갔다 왔어요?

답: 예, 한번. 광복절 60주년 프로그램,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문: 아 그건 어떻게 선발이 됐죠?

답: 그냥 우리가 친구랑 인터넷 통해서 알아봤어요. 아..이런 게 있다. 글짓기를 써서 메일로 그냥 보내야 되면, 보내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문: 어 친구랑 같이?

답: 친구랑 같이.

문: 어 그래서, 한국에 그러면은 한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기 전하고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답: 음 옛날에 그냥 한국어문학과에서 공부했을 때 그냥, 그냥 책에서 나오는 정도만 알고 제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해 봤으니까 아 이런 나라구나, 새로운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도 애들이,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세종한글학교에서 물어봐요. 선생님 한국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웃음) 어때요? 그래서 자기 의견, 제 의견을 물어봐요. 제가 이런, 이런 나라다, 설명을 해주고, 또 호기심이 생겨요. 학생들한테...

문: 어떤, 어떤 나라예요, 한국은?

답: 어 아름답고, 깨끗하고... /깨끗해요?/ 예,(웃음) 자연이 아주, 진짜 훌륭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문화체험을 해보고 아주 우리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되게 독특했어요.

문: 어, 어떤 걸 했었는데요?

답: 사물놀이 배우고 그 다음에 부채 만들기도 해가지고, 아 한국, 전주에 비빔,  
유명한 비빔밥을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배로 갔을 때 거  
기 타이타닉 느낌도 해보고(웃음) 재밌었어요.

문: 그러면은 리타가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거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애들  
한테 설명해줄 때 한국은 이런 나라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왜 공  
부해야 되는 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 뭐라고 얘길 해주요?

답: 한국은 되게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적극적?/ 적극적으로 나가는 나라, 아  
주...어떻게...음... 아주 활발한 나라(웃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웃음) 힘을 줄 수 있는 나라,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나라.

문: 음 아주 활기차고 적극적인 나라요?

답: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문: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 예.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요.

문: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 예.

문: 어 그러면은 한국은 그런 나라데 리타가 만난 한국 사람은 어땠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든가요?

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문: 그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답: 음 아,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시끄러운 점. 예를 들어, 버스에 들어간 다음에  
한국 애들 아주 시끄럽게 말하고...아주 /버스에서?/ 버스에서....우리 사람들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문: 또 어떤 게 있나요?

답: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전통적인...전통적인...좀(웃음)

문: 그럼 친구들이 지금 한국사람, 아 나는 참 안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얘기  
할 때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가요? 리타 말구, 친구들이...

답: 음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가격 가격에 대해서 물건 가격을 깎는 습관. 구  
두쇠처럼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람들이...

문: 욕심쟁이라고 생각해요?

답: 네, 돈을 아주 아껴 쓰고, 아니면 자꾸 깎아요. 값을 아니면 이거 그냥 돈을 써서 쓴 다음에 또 종이에다가 꼭 써요. 얼마 썼는지 그런 점.

문: 또? /음./ 리타가 통역 나갔을 때 아, 이제 좀 기분이 나쁘다 했던 점 있었어요?

답: 아니에요, 다 만족했어요. 다 좋았어요.

문: 그럼 리타가 생각하는, 리타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아요?

답: 음 어떤 질서가 있는 나라, 질서가 있는 사람..

문: 한국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죠? 질서가 있다는 게?

답: 질서가요..모든 것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것, 끈기가 많은 사람,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문: 리타는 한국드라마를 좀 자주 보는 편인가요?

답: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즐겨 봐요.

문: 뭐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 몇 가지 이야기해 줄래요?

답: 음.. 대장금, 겨울연가, 여름향기, 가을동화...

문: 다 봤네요?(웃음)

답: 다 봤어요.(웃음)

문: 우즈베크 방송에서 했었죠? 러시아어로...

답: 예...

문: 어, 그거 보고 나서 어, 조금 더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보고난 후에, 예전과 한국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에 비했을 때?

답: 예전에는 그냥 책 볼 때 제가 책 봐서 얻은 정보는 기억에 새겨두지 않아요. 근데 영화 통해서 그냥 즐겨보면 그냥 바로 들어와요.

문: 주변에 혹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 중에 우즈베크 친구나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드라마를 좀 보나요?

답: 다들 보죠, 우즈베크 사람들이 열심히 봐요.

문: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답: 어, 아주 아름다운 나라.. 영화배우들도 아주 멋있고...이거, 이거, 이거 많이.. 칭찬을 해요.

문: 드라마 보고 나서 우즈베크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 드라마를 한 언제부터 해줬죠? 3년 전? 4년 전부터 해줬죠? 그 드라마를 해주, 해주기 전과 해주고 나서 고려 사람한테 어떤 물어보는 거라든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고려 사람들 대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우즈

베크 사람들이 달라진 게 있나요?

답: 우즈베크 사람들이 원래 옛날부터 고려민족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즈베크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아주 예쁘고 좋은 아름다운 나라, 스스로 직접 가보고 싶은 나라..

문: 그게 드라마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답: 주로 드라마의 영향이죠.

문: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어떨 거 같아요?

답: 원래 우즈베크 사람들은 한국어를 아주 쉽게 배우고, 문법 같은 부분에서 같으니까 아주 쉽게 배워요. 근데 요즘 많은 우즈베크 친구들이 한국을 한국에 가서...

문: 리타가 살면서, 내가 고려 사람이라서, 고려 사람이라서 사는 게 좀 편했다. 아니면 뭐 특별하게 그런 거 느낀 적 없다. 아니면은 고려 사람이어서 친구들에게, 쉬콜라 다닐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뭐 그런 점들 있어요?

답: 음...아니요.

문: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답: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문: 특별하게 어떤 차이점들 느껴 본적 없고?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답: 그냥 우즈베크 고려인..

문: 쉬콜라에, 리타가 졸업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민족들이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답: 아주 다양했어요. 러시아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 타타르, 고려인, 어 또 히브리스? 유테인, 그리스도...

문: 그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답: 예.

문: 같이 다 잘 어울렸나요?

답: 예.

문: 지금도 연락 좀 해요?

답: 아니요.

문: 왜요?

답: 다들 아마 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신 가 봐요.

문: 우즈베크를 떠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요?

답: 예, 많이 떠났어요.

문: 주로 어떤 친구들이?

답: 가까운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문: 어디, 어디로 갔어요?

답: 음...러시아 쪽으로, 한국 쪽으로, 주로 러시아로 떠났어요.

문: 리타네 집은 그 어떤 설이나 추석, 단오, 한식 이런 거 기념하나요?

답: 특별하게 기념하진 않아요.

문: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답: 예, 아...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아니요, 특별하게 기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문: 지금, 한식이나 추석 때 산에 안 가나요?

답: 이번, 음.. 금년에, 올해 가봤어요. 한식 때.. 엄마가..

문: 왜 엄마만 갔어요?

답: 엄마...저기 친척들이랑. 전 안 갔어요.

문: 왜 안 갔어요?

답: 거기서 절을 해야 되니까, 안 갔어요.

문: 음...종교 때문에?

답: 네.

문: 가서 절을 안 하면 되지 않나?

답: 그냥 어떤...친척들이 보자나요. 왜 안하냐...그거 때문에 안 갔어요.

문: 리타는 내가 고려 사람이어서 참 좋다,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나요?

답: 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고려인으로 태어나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고려 사람들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가요?

답: 아니요.

문: 리타는 지금 한국 학생들, 아니 학생들을 쉬쿨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주로 몇 명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 친구들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제가 한 반에 25명 정도. 주로 고려인들이예요. 우즈베크 사람들도 드물게 나와요.

문: 그 친구들은 지금 나이 대가 어떻게 되요? 나이가... 왜 공부를 하러 왔죠? 한국어 공부를?

답: 그냥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몰라서 그냥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요.

문: 한국어가 미래에 굉장하...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나요? 리타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답: 네.

문: 어떤 부분이죠?

답: 음, 말, 어..언어를 많이 알면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전문가로 되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나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문: 음, 고려 사람들이, 고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사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고려 말이다 해서 배우기보다는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한국어를 배우면은, 한국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더 많나요?

답: 음..두 번째 까.

문: 한국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그런 걸, 기대하고 있군요?

답: 네.

문: 한국에서 지금, 아 리타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있나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좀 사용을 하나요?

답: 아주 드물게.

문: 어, 얼마큼 사용을 하나요?

답: 한 달에 한번이나...뭐..

문: 왜 그렇게 드물게 사용하죠?

답: 컴퓨터 실력을 안 길렀기 때문에..

문: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답: 네.

문: 한 달에 한 번 쓰면은 인터넷에서 뭘 보나요?

답: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이메일을 보냅니다.

문: 아, 이메일을..그럼 한 달에 한 한 시간 정도 쓰겠네요? 인터넷을?

답: 한 시간...예.

문: 인터넷은 그림 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그림 주로 어디서 사용하나요?

답: 그냥 도시에 있는...인터넷이 있는.. /피씨방?/ 피씨방..

문: 피씨방에서 하시는군요.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는 컴퓨터가 없나요?

답: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이거 인터넷이 없어요.

문: 컴퓨터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답: 네, 그냥 자기..자기 활동에 관한 것만, 우리 학교에 관한 것만.

문: 그럼 인터넷,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답: 워드, 엑셀, 포토샵.

문: 엑셀 할 줄 알아요?

답: 엑셀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문: 포토샵은요?

답: 포토샵...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잘해요. (웃음)

문: 아 리타는 만약에 한국에 그 어떤 한국이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 청소년들이 서로 세계에 있는 한민족청소년들, 고려사람 조선족 일본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면 그것을,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볼 생각은 있나요?

답: 음.../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음.. 볼 것 같아요.

문: 리타는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은 그것을 들여다 볼 생각은 있나요?

답: 네, 제가 그냥 그 컴퓨터를 잘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

문: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은, 거기서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그 사이트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사이트를 찾을 것 같아요? 리타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 현대 생활, 공부하는 거, 교육 시스템, 그냥 보통 생활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문: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답: 네.

문: 지금 여기에 있는, 리타가 생각하기에 고려 사람들이, 고려사람,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답: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안 들어간 학생들, 그냥 어떻게 성공하게 입학할 수 있나?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을, 어떤 좋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찾을 수 있는 지 그런 고민을 해요.

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려인 학생들이 옛날에 비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수가 점점 줄고 있다. 그니까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답: 예를 들어, 우리 니자미에 제가 입학했을 때, 우리.. 들어간 학생 수가 15명이었는데, 요즘 5명밖에 안돼요. 근데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그냥 아마 한국어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왜냐하면, 니자미 사범대보다 세종한글학교도 있고, 한국교육원도 있어서...

문: 그게 그 장학생이 줄어드는 게 고려인 학생들 입학의 영향에 미치나요?

답: 다시 한 번?

문: 장학생이, 지금 숫자가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런 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범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다 줄고 있는데, 그게 고려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나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답: 확실히는 몰라요.

문: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고민하는 거, 여기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고려인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어떤 건가요? 성적? 아니면은 장학금 문제? 등록금?

답: 성적.

문: 첫 번째로 성적? 성적이 좋으면 다 입학 가능한가요? 실제로.

답: 실제로 아니에요.

문: 어,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그냥 들었던 얘기들, 아는 얘기들, 얘기 좀 해주세요.

답: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명중에 예를 들어 어떤 2명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입학했나...질문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되게 잘했어요. 한국말을 1등을 했는데, 전혀 못 들어왔어요. /입학을 못했어요?/ 전혀.

문: 그러면은 한 5명중에 2명 정도는 생각을 하기에, 애가 입학을 할 수 없는 애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게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 아는 사람 통해서, 아니면 돈을 써서.

문: 그렇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나요? 돈을 써서? 입학이 되나요?

답: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문: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을, 이제 혹시 뭐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답: 그런 건 없나 봐요.

문: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답: 고려인들이 주로..돈에 관련된 거...괜찮아요. 그런 아무 문제가 없나 봐요.

문: 여기 한국에서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고려인 학생들이 예전보다 공부하는 좀 학생들이 숫자도 줄고 그리고 점점 더 좀... 우즈베크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고려인 학생들은 점점 줄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고려인 학생들이 여기서 직장도 잘 잡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좋은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될까요? 리타는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 도움을 주는 건 사실 좀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답: 컴퓨터도 많이 지금 생겼어요. 대학교에서 보통..

-----중단

문: 한국에서 여기 고려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 원래 이때까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를 보면 에어컨까지도, 에어컨, 칠판, 분필까지도 다 한국에서, 한국 것이예요. 대사는 이거, 컴퓨터도 많이 설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애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되요.

문: 그런 것 말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 학생들 수업시간에 아, 이런 자료가 없다?

답: 아, 자료?

문: 네..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거.

답: 우리 수업시간에 그냥 프로젝터.

문: 아, 프로젝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 네. 프로젝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 프로젝터, 프로젝터 있었으면 뭘 하세요?

답: 동영상 찍은 거, 영화나...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문: 그런 거 자료는 많은 편인가요?

답: 그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웃음)

문: 그니까 그런 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것들, 자료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무엇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 주로 학생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 한국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주로.

문: 프로젝터랑 이제 그러 거에 관련된 콘텐츠, 콘텐츠 자료들이 필요한 거군요.

답: 네.

문: 그러면은 리타가 학생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웃음)

문: 그냥,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하는 학생도 있는데, 왜 공부를하라고 얘기를 해요?

답: 그냥 제가 말로 안 해요.

문: 말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 제가 네가 스스로... /때려요?(웃음)/ 아니요, 때리지 않아요.(웃음) 그냥 필요 하면 공부하게 되지요.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면.. 그냥 분위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문: 리타가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일단은 지금 리타는 리타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또 공부하거나 앞으로 뭐 더 배우고 싶거나 그런 거 있나요?

답: 음, 몇 가지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문: 어떤 거요? 어떤 것들이요?

답: 음, 처음에, 맨 처음에, 처음으로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조금 실력을 갖고 싶어요.

문: 학교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나 어떤 예술적인 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

답: 필요해요. 왜냐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영어 통해서도 가르치게 되요. 이 말은, 이 말 뜻은 이렇다. 예를 들어 영어로만 쓰면, 어...영어도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영어를 알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돼요.

문: 리타는 계속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로 일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혹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답: 아니요, 이런 길을 계속, 이런 길로 계속 가고 싶어요.

문: 학교 선생님이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리타가 생각하기에 나의 미래는 어떨 거 같아요? 내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거 같아요?

답: 아마 자기대학교를 운영하는 분으로 될 거예요.

문: 대학교를 운영하고 싶어요?

답: 예.

문: 어떤 대학교요?

답: 언어에 관련된.

문: 언어에 관련된 대학교? 플란(계획)을 좀 얘기해 줄래요?

답: 아니요, (웃음) 비밀이에요.

문: 어, 비밀? 카메라하고만. 어떤?

답: 아니요....(웃음)

문: 아니 또 우리가 10년 후에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지(웃음), 그 때 이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답: 아직 열심히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자세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문: 리타는 어떻게 생활이 앞으로 지금과 같을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답: 좋아질 것이다!

문: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수고 많으셨고요, 10년 후에 정말 좋은 언어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기를, 교장 선생님이 되어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④ 타쉬켄트 주 33번 쉬콜라 한국어교사 황 나제취다 (38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임영상, 일시: 2007.4.23, 장소: 황 나제취다 자택)

문: 자, 황 나제취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게 되었는데, 우선 선생님께서 그 스베르들로프 콜호즈에, 지금은 콜호즈가 아닙니다만, 쉬콜라에 선생님이신데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답: 반갑습니다. 저는 황 나제취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38살입니다. 1993년부터 시온고 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 99년까지, 98년까지 그냥 초급반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9월부터 그 한국어를 한국교육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99년부터 그 학교에서 33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음..

문: 네, 그럼 99년부터 한 8년 정도 7,8년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제가 콜호즈를 방문해봤습니다마는, 이 스베르들로프 콜호즈가 상당히 그 과거에 번성했던 우리 고려인, 고려사람 콜호즈였는데, 인구가 한 과거에는 8,000명 있다가 지금은 한 3,000명 줄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도...그럼 그 쉬콜라는 어떻습니까? 쉬콜라의 경우는 그 학생 수가..

답: 작아졌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학교는 반으로 줄어드는지, 반도 아니고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학생 수는 지금은 어 지금은 450명 정도라면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아마 거의 2,000명 정도...

문: 2,000명 정도요? 그럼 선생님이 쉬콜라 다닐 때는 몇 년 도였었죠?

답: 20년 전...

문: 그러면 한 1987년.

답: 87년, 82년... 그 때는 10학년 마지막 학년이였됐죠. 지금은 11학년이고.

문: 한 2,000명이었다가 450명이면 거의 4분의 1이 줄었는데요. 우리 고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답: 고려학생들이라면 학생 수는 고려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108명 정도.

문: 108명 정도요? 180명? 108명?

답: 아, 180명.

문: 아, 우리 고려 사람들의 전통이 자식들한테 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공부를 철저히 시켰던, 어딜 가나 우리 한민족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음 과거와 지금 이 우즈베크 사회가 변화되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 관점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요?

답: 보통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계속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많지만, 음 지금 거의 다 별로 공부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문: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답: 예, 아마 그렇죠. 오늘 1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공부하는 건 그 어떤가, 힘든가? 왜, 뭐 부족하는 거 좀 말해보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우즈베크 학생들이 말하는 건, 선생님 때문에라고, 선생님이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우즈베크 사람이 그렇게 우즈베크 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4명 중에서 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3명 고려인들이 아마 우리 직접 공부 하겠다하는 그거 없으니까 다 게으른 이처럼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 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직접 자기말로 하면서. 아, 또 다른 학생이 말한 건, 공부잘하지만 자신이 없다. 그 입학하는 거 말예요. 거기서 다른 학생들이 돈으로 입학하니까 저는 자신이 없다고.

문: 아, 그러니까 돈으로 입학... 이제 국가장학생이 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범 대학원을 가서 들어보니까 한 30%정도만 국가장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쉬콜라에 쉬콜라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답: 자신이 없다고, 공부 잘하지만 입학하겠는지 안하겠는지 자신이 없다고. 거기 다른 학생들이 돈으로 입학하니까...

문: 그 전에 제가 그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돈이 없었지만,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빌려가기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갚기도 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때는 부모님들이 대학에 꼭 가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돈을 내지만, 이제 과거에는 안냈고, 돈을 내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꼭 대학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그렇게 과거와는 다른 모양이죠? 옛날에는 거의 대학을 갔었죠?

답: 예. 어제도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보고.. 시험 다보고 나서 친구를 만났어요. 동갑이에요. 넌 그 때 입학했지? 음 했다고. 어떻게 돈으로? 그 때는 돈

으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그냥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왔어요. 쭈뼔에서, 쭈뼔, 그 러시아 쪽에 그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거기서 3년 동안 하다가 집에서 문제 만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냥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집이 문제, 집안의 문제..가만히 보면 그 때는 거의 다 입학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음...부모님들이 저희 반에서는 20명이라면 8명. 8명 부모님들이 꼭 대학을 입학해야한다, 공부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8, 9명.

문: 그러면 10명 중에는 4명, 5명이니까 40%, 50%밖에 안 되는 거네요.

답: 그래서 그리고 우즈베크, 거기도 우즈베크 학생이 6명이에요. 저희 반에서. 그러니까 우즈베크 학생들은 원래 입학하는 생각 없어요. 우즈베크 사람, 우즈베크 학생들은.

문: 우즈베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아예 다 생각을 안했다 말입니까?

답: 네, 그냥 졸업하고 그냥 일하러 가겠다고... 그러면 14명이죠. 14명 중에서 8명. 입학하겠다는.

문: 아, 20명 전체가 그중에 6명이 우즈베크 학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려 학생 14명 가운데 8명, 9명 정도가 공부를 꼭 해야겠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답: 네.

문: 그러면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이제 좀 ...

답: 다른 부모님들은, 이 8명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좀 사는 가족이에요. 거기서는 또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진짜 힘들게 사는...그러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 때는 돈이 없고..뭐.

문: 혹시 앞으로요 저희 청소년 개발원에다가 현 정부에다가 요청을 내년에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이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국가 장학생이 될 정도의 성적은 안 되고, 아직 탑 클래스가 아니고, 점점 앞으로는 이제 다 자기 돈 내고 대학을 다녀야 할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이 분위기가. 그런데 아..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학만 들어오게 되면 대학 들어오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 쉬콜라에서 대학에 들어올 때 그 때는 조금 그런 연결되는 고리가 적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구체적인 사례, 이름과 주소와 그런 거를 조금 씩 메모해 두세요. 알려주시면, 이런 일들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쉬콜라 학생 가운데 공부를 잘했지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뭐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 아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런 것 좀 해주시고.. 그럼 학생들은 주로, 그러면 대학가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전공을 택합니까?

답: 거기서 한 학생이 의학, 거기가고, 그리고 한 학생이 경제, 두 명이 사범  
대...

문: 사범대는 그럼 무슨 과인가요?

답: 한국어. 두 명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범대를 갈  
까 세계언어대학 거기를 갈까, 영어, 영어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음 또 두  
명. 기술대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부모들이 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자신  
이 있는지 없는지, 좀 쉬운데 가거라.

문: 아, 기술대가 좀 어렵습니까?

답: 네, 거기는 수학이 좀 필요 있잖아요. 수학, 물리학. 그러니까 거기는 좀 수  
학과 물리학 잘 공부 안하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그  
러니까 부모들이 좀 잘 생각해보라고 그 생각중이에요.

문: 그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의 그 이 반의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8명  
가운데 한 4명 정도가 사범대 한국어과나 세계언어대학 영어과, 그렇게 언  
어고, 또 4명은 또 의학, 경제, 기술 이런 식으로 비슷하네요. 분포가, 만드  
시 다 한국어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네요.

답: 네, 그런데 그 경제 대학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다음에 꼭 한국어를 공부  
하겠다고 제 앞에서 약속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도 약속하긴 했습니다.

문: 음 그러니까 경제 대학을 가더라도 한국어를 공부 하겠다?

답: 예. 그리고 그 우리 노인 회관에서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입학하는 고려인들한테 장학금을 준 거예요.

문: 대학 입학한 학생들한테, 무슨 과 상관없이?

답: 예. 고려인이라면. 또 많이 준건 잘 모르지만 25,000숨이라고 그래도 그 좋  
은 장학금이라고.

문: 25,000숨이면은?

답: 예, 1학년이라면 좀 다른 거요. 2학년이라면 조금 더 높게...제가 나타샤 거  
기 다니니까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나타샤는 25,000숨 받았어요. 시작  
할 때, 입학 할 때 20,000숨 받았어요. 매달.

문: 아 그러니까 박강운 회장께서 거기 장학회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콜호즈  
학생들한테 대학만 들어오면 장학금을 주겠다.

답: 예. 그렇게 도와주시죠..

문: 그 학생들한테는 큰 자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 들

어갈 때가.. 그 혹시 박강운 회장께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봤습니까?

답: 아니요, 그런 건 아마 없는 거 같아요.

문: 그 분은 대학생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답: 그리고 그 입학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노인 회관에서 공부 하다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회장님이 입학할 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노인 회관에서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그렇게 앞에서 입학하면 우리 폰드에 꼭 들어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문: 예, 아, 그러면 박강운 회장께서 우리 그 스베르들로프 쉬콜라 학생들한테는, 고려인 학생들한테는 대학 들어가면 장학금을 주는 것뿐 아니라 너네 꼭 대학 들어와라, 대학 들어오면 장학금 꼭 준다 하는 식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좀 뭐랄까, 자극도 동기도 많이 부여하는 셈이네요.

답: 예, 그래서 전체로 우리 시온고에서 아마 7명이 받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7명이?

답: 나타샤 나갔으면 6명..

문: 그럼 그 때 만났던 그 동방대 학생도 받고 있습니까? 국제 경제하는?

답: 예, 그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공부하잖아요.

문: 아, 그 학생이? 한국어를?

답: 예.

문: 이게 뭐 다른 콜호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답: 예, 아마 없을 거예요.

문: 그럼 그 시온고 콜호즈만 좀 특별하네요.

답: 네.

문: 그게 좀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그럼 이제 박강운 회장이 도와주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 한국 정부에 우리 쉬콜라의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조금 그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 그냥 잘 모르죠...그냥 학생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음..

문: 혹시 방문 취업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3년, 5년... 그 아직 쉬콜라 학생들이지만은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앞으로 한국에 가서 일을 3년 썩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답: 공부?

문: 아니, 그 일할 수 있다는 거...

답: 아, 그거 알죠.

문: 아,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물론, 25세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답: 예, 예, 25세...그러니까 음, 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다 대답하는 건 돈이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돈. 왜 돈이 필요한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건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할 때 꼭 그 개인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돈.

문: 아, 대학을 들어갈 때, 학교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인 수업을 받으니까? 그러면 과외네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답: 그렇죠, 여기서 수업에서 부족해요., 그래도 그리고 반에서 20명이라면 다들 똑같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잘하고 수업에서 받은 주제나 그 뭐 연습이나 작고, 부족하니까 따로. 원래 입학하려고 하자면 꼭 과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 그럼 그 과외를 어디 가서 받으니까? 누구한테?

답: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따로.

문: 아, 선생님들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답: 약속 시간 잡고 따로 선생님들한테 혼자.. /돈을 내고/ 예.

문: 그런 과외가 있군요. 그럼 이제 나탈리야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한국에 유학 가 있는데, 음 어떻습니까? 집에서 혹시 한국어로 따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님 나눴니까, 어떻습니까?

답: 물론이죠.

문: 주로 한국어로 합니까? 예. 일부러라도 한국어를 해요? 아니면...

답: 예, 일부러 제가 그 때 얘기한 것처럼 아빠는 몰랐을 때에 일부러 아빠 모르게 비밀로 할 때 우리 딸이랑 같이 그냥 한국어로. 우리 아빠는 또 다 이해한다, 그래 다 이해한다. 그래서 아들이 다 같이 세 명, 우리. 제가 나타샤 같이 사샤 같이 일부러 한국말...농담, 쉬운 거도 쉬운 단어도 얘기도 하고, 그냥 익숙하니까 저도 나타샤한테 학교에서 쓰는 말 막 나오고 그리고 집에 일도 뭐 설거지해라 뭐, 청소해라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그런...

문: 그럼 혹시 다른 부모님들, 대개 집에서 자녀들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경우가 좀 드물겠죠?

답: 음..제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과 같이 한국말 해야 된다. 또 연습 어디서 하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거의 다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해못한다고요. 그럼 이해해도 안 해도 계속 말을 해야 된다.

문: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한국어로 해봐라,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답: 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와서 부모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해 못한다고, 괜찮아요. 학생이 말하니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부모가 물어본다고 그제 뭐가, 아버지나 아니면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설날 있잖아요, 설날. 그 때는 꼭 그 세배 드리고. 예쁜 옷을 입고 세배 드리고 그제 부모들한테 세배할 때, 부모님들이 돈을 아니면 선물 준다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특별히 작은 아들이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숙제 그런 거 줘요. 아침에, 설날 아침에 가서 부모님한테 세배를 드려라. 그러면 다음날에 보면 누구 했어? 손을 들면. 지난번에 거의 다 손을 들어요. 그제 돈을 받았는가, 누구 받았는가? 누구 그 중에서 반으로.. 어떤 부모들이 아 그냥 관심 있고 돈을 줘야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대. 그러면 주고 어떤 부모들은 아마 그냥 안 주고..

문: 옛날에는 그렇게 설날에 부모님들이 돈을 주지 않았었죠?

답: 아니요.

문: 줬습니까?

답: 주는 건 모르겠어요. 아마 안주셨...

문: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혹시 그런 경험..

답: 음력으로, 음력설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 즈음인가요?

문: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예. /아이들에게 하게 되고../ 답: 예, 우리 집에 아들이 사샤나 나타샤나 그렇게 기다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파파(아빠) 돈을 줘야 된다고, 그제 잊지 마세요. 선물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제 언니들한테 친척한테 가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배 받으면, 절 받으면 꼭 돈을 줘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나 오빠나 할 수 없이 아이들이 말을 하니까 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문: 아, 그 새롭게 한국 전통문화를 좀 잃어버렸던 사회에서, 새로 보급하는 셈이 되는데요. 그 나탈리야가 지금 한의학 공부한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그 본인 전공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 어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까?

답: 여기 있을 때, 나타샤한테, 나타샤는 여기서 의학 하겠다, 벌써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어렵겠다.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공부하면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른 나라잖아요. 제가 없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다들 이렇게 쉽게 공부하고 놀고 다니며 넌 어떻게? 그래서 받은 일이 많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 계속 도와 줄 수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전화했어요, 나타샤가. 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거기 있으니까 직접 보고 잘하라고. 선택한대로 도와줄 만큼 도와주겠다고.

문: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의학 공부가 여기나 저기나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1, 2년만 잘 견디면,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제가 아까 그 노인 회관 이야기 하셨는데, 노인 회관에서 지금 한국어, 영어, 우즈베크어, 컴퓨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건 다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어있죠?

답: 그렇죠.

문: 매일 가르칩니까? 거기서?

답: 아니요, 매일 가르쳐주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세 번, 우즈베크어도 세 번, 제가 수업하고 나서 다음에. 그리고 영어는 두 번, 그리고 컴퓨터도 컴퓨터 수업도 두 번.

문: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까?

답: 네. 컴퓨터 선생님은 시내에서 또 따로 오시고 젊은 선생님, 아이티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요. 우즈베크 사람이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우즈베크어도 우리 쉬콜라 선생님이예요.

문: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몇 명이나?

답: 아, 우즈베크어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고...그 어...14명요.

문: 14명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어나 영어나?

답: 아뇨, 우즈베크어.

문: 우즈베크어?

답: 예.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다른 학생들이고. 거기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오늘 꼭 다녀야 된다는 학생들이 아니고, 하고 싶은 학생들이.

문: 몇 명이나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답: 지금...어제 생각해봐자니..27명.

문: 그럼 다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있습니까?

답: 어른들도 있습니다.

문: 어른들도 있습니까?

답: 어른들이 10명요.

문: 그럼 우리 고려인들인가요?

답: 네, 다. 고려인이예요.

문: 그 물론 무료로 배울 텐데 그럼 우리 고려인들이 노인 회관에 있는 그 학교, 학교를 참 고마워하겠어요?

답: 네, 처음에 잘 몰랐어요. 거기서 콜호즈에 사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무료로 다니는거. 그래서 박 회장님도 자꾸 도와주고 피아노도 사드리고 컴퓨터도 사드리고 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애들한테 계속 말하고. 무료로 공부한다. 그냥 고려 사람 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늘어났어요.

문: 그리고 단오행사도 하고 있죠?

답: 예.

문: 단오하고 추석 행사도 합니까?

답: 예. 그리고 우즈베크 명절도 나부르즈나.. 시간이 있을 때 마다. 박 회장님 계속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돈을 내주시고 그 때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기름밥이나 만들어 먹는다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테이프를 끝냈지만 다 대충 들었고 제가 이번에는 스페르들로프 콜호즈에 대해서 하나...

##### ⑤ 코이카 티쉬켄트 31번 학교 IT교육 파견교사 배희은 (28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임영상, 일시: 2007.4.23, 장소: 최소영 자택)

답: 카메라 보는 습관이 있어서...선생님 봐야겠다..

문: 그래요, 나를 봐요. 배희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답: 네, 반갑습니다.

문: 제가 이메일로 소식만 듣다가...우선, 좀 간단한 자기소개..지금 코이카 요원으로 와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저는 2006년에, 2006년 5월에 파견되어서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쉬콜라 31번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분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파견이 된 거고요. 저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처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어 분야만 계속적으로 파견으로 했었었는데요, 이제 컴퓨터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나고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장르의 기술을 가진 코이카 선생님들이 현지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 아, 그럼 이번에 그렇게 다양한 분야로는 처음 온 겁니까?

답: 예,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의료라든지 한국어 분야는 있었는데 그 밖에 어떤 다른 분야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리치료, 의료, 한국어 정도? 컴퓨터도 몇 명 소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 분야는 줄이는 추세이고요,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현지 한국어 선생님은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밖에 기초교육 분야라든지 또 거기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내는 게 저희 코이카의...

문: 아, 대단히 좀 좋은 방향으로 코이카의 정책이 바뀌는 것 같네요. /네./ 그럼 그 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쪽에 우즈베키스탄에 코이카 단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답: 그 우즈베크하고는 제가 인연이 좀 많은 데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우즈베크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광복 60주년 기념 거래문화창의단으로 4개월 동안 저희가 파견되어서 고려인 조사라든지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때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학교에서 학교생활하고 직장생활 쪽 해왔는데, 그렇게 사는 삶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래문화창의단 하면서 보니까 좀 다르게 사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코이카 활동을 한 번 가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좀 시기를 빨리 당겼는데. 나이가 들면 좀 은퇴할 때 쯤 되면 이제 기술이 있고 이럴 때 가서 그래도 한 번쯤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인생이 이제 근대 그중에 한 2년 정도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또 우즈베크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한 4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할 업무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파악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코이카 업무 뿐 아니라 여기서 봉사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음..

문: 아, 그러면 지금 쉬콜라 31번 학교에 있는데요, 코이카에서 그러면 대학이 아니라 쉬콜라로, 중고등.. 중고등 학교로 파견한 이유가 뭘까요?

답: 음...아...고등 교육이라면 대학교육은 좀 정형화되어있어요. 학과에서는 이제 커리큘럼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딱 지어져, 명확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소스만하나 제공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걸 기본 방향이기도 한데, 무상 원조를 할 때 이렇게 좀 가진 자보다는 좀 못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아린 사람들을 그 더 지원을 하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목표에 부합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파견이 되었는데, 사실 좀 가장 어려운 분야가 기초교육 분야예요. 왜냐면 언어가 전혀 통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언어를 사용했던 언어사용자들이 아니고 초등교육이라거나 기초교육 분야는 각 나라가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예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지만 가장 보수적인 교육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서 이게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면 학교 시스템을 다 오픈을 하고 모든 나라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 정규 수업이, 수업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니까 컴퓨터 정규 과목에 들어갔지만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나라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커리큘럼이 자체가 세계화와 맞지 않고 그리고 너무 필요 없는 것이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를 들면, 2진법을 가르친다거나 2진법을...아니, 2진법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2진법을 한 5장의 책 2진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컴퓨터 시간에?/ 네, 그니까 컴퓨터들은 쪽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실습이 아니라, 이런 위주의 수업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힘든 분야예요. 기초교육 분야가, 필요하지만 힘들고. 좀 다르게 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과 제가 받았던 교육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면 제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우즈베크에서는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 제가 먼저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많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기도 해요.

문: 그..아까 그 쿠일록 학교를 가보니까 컴퓨터실을 가봤거든요? 10대가 있는데 그 교장 선생이 아주 뭐...최근 거라고 자랑을 했는데..

답: 아주 최근 겁니다.(웃음)

문: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해준 겁니까? /예./ 전체 다 10대를?

답: 예. 우즈베키스탄에 300대의 컴퓨터를 지원을 받았어요. 한국의 서울시 교육청이 우즈베크 대사관과 함께 대사관에게 기증을 했구요, 그거를 이제 한국 교육원에서 배급을 했었어요.

문: 아, 서울 시청에서...서울시 교육청에서 300대를 우즈베크 대사관에 줬군요?

답: 네. 그런데 학교에...아, 300대인가 160대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고려인이 많은 학교, 그러니까 한글학교라고 하거든요.

음 저희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글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먼저 선 배급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기관에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글학교에 10대씩. 그게 제가 9월에 파견이 되었는데 컴퓨터를 받은 건 12월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이론 수업을 계속 했었죠.

문: 아, 그러면 그 컴퓨터실에 학생들이 그러면 그 선택 과목입니까?

답: 아니요 필수과목. 정규 과목이고요, 5학년, 6,7,8,9...그니까 우즈베키스탄 학제가 9학년, 11학년까지가 있거든요. 초, 중, 고 까지가 되는데..11학년까지가 있는데, 5학년부터 이제 컴퓨터를 배워야되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런데 8,9학년은 꼭 배워야 되요. 애네들은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고. 애네들에게는 책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나머지 클래스들에게는 책이 없어요. 교과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에요.

문: 예, 이제 거기 그 쿠일록 학교 거기 그 고려인 학생들이 40% 된다고 그 정도로 참 많이...있는데,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 저 이... 코이카 단원으로 오기 전에도 2002년에 4개월 동안 거래문화창의단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고려 학생들이 보면은 대학에 가보니까 양케트 보니까 전부다 통역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꿈이 다 통역사예요. 아, 그래서 통역..한국에서도 한 때는 통역사가 아주 선행의 직업이었는데 요 근래에는 통역사가 이제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거든요? /예./ 또 통역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만 찾게 되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안 찾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좀 있지만 대부분 다 좀 어렵거든요. 어떠세요? 여기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 또 우선 대학생들로 좀 좁혀 볼 테니까, 이 학생들이 이 나라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직 한국계 회사의 통역과 사무원으로만 하는 것이 목표인지, 다른 건 할 일이 없는지..

답: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좀 특정한 집단을 계속 샘플링을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건 아니건 간에 쉬콜라에서 물어보면, 아니 뭐 어디서 나와서 한국에서 나왔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제가 통역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학기 초에 저도 이제 아이들의 설문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받았었거든요. 양케트를 좀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못 썼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직업란도 없고, 어디 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몇몇 있는 애들이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법학과에 진학하겠다. 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너는 왜 이걸 가려고 그러니? 아, 그냥 아빠가 가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가. 의사가 되겠다. 왜? 우

리 할머니가 의사예요. 뭐...그니까...제가 이 우즈베크에 와서 기초교육 분야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꿈이 별로 없어요..그니까 꿈을..장래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즈베크에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는 이 나라에 돈이 안 되고요. 한 달에 5만숨을 받아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치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 이거도 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선생님 이거 특히 돈 안 됩니다. 이런 거 희망사항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존경심? 물론 존경심을 갖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우수한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뭐 이런 거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바라지 않는 상황인 거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실 어떤 직업이 있고 내가 무엇이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컴퓨터 수업을 하다가, 어, 선생님 이런 건 언제 써요? 누가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되게 많이 쓰지. 엑셀만 해도, 엑셀을 누가 써요? 왜 써요? 너희가 계산 할 때 쓸 거 아니냐? 하물며 주부가 되도 가계부를 쓸 때 쓴다...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이거 다 쓴다. 회사에 이거 누가 쓰냐, 경리 아니면 누가 쓰냐? 자기는 경리는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근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엑셀을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모든 회사원들이 다 쓰는 거고, 사무직이건 아니건 다 쓰는 프로그램인데...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직업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판매원, 그니까 뭘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너무 단편적이고 그니까 그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 산업이 발달해서 분화되는 그 세밀한 직업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관심도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문: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아까 그 설문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현빈, 한국의 스타들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했던데요, 쉬콜라 학생들도 한국 갔다 온 학행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소위 말하면은 좀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나라의 그런 실정 때문에. 그런 학생 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치지고 있고, 또 한국을 갔다 온 애들은 어떤 모습인지 좀 혹시 좀 관찰해 보셨어요?

답: 일단, 잘사는 나라 한국. 그리고 고려인들에게는 비밀 언덕 정도? 뭔가 비비면 나오겠구나. 제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말해서 코이카는 고

려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하지 않아요. 그 우즈베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안에 신경이 쓰이죠. 저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안 쓰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클래스만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그룹은 러시아그룹, 우즈베크 그룹은 우즈베크 그룹, 또 섞여있는 그룹도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한 마디 한국어를 하는 그 고려인 그룹이 저는 계속 마음이 가요. 제가 봐도 이쁘고 꼭 우리 집에 옆집 사는 동생, 애기들 같고, 마음이 가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거는.. 그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저한테 선생님은 치스타야(깨끗한, 순전한, 정통의)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한국인이냐고 표현하는...깨끗한 한국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깨끗하고 넌 더럽니? 이렇게? 그니까 자기들은 좀 약간의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난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좀 배우면 고려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하긴 요즘에는 우즈베크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좀 배우면 그래도 좀 그래도 한국 사람들 좀 똑같은 민족인데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점은 한류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헐리우드 좋아하는 것과 달리 애네들이 한류스타를 보는 거는 정말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금방 습득을 하고요, 그니까 가요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즈베크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훨씬 더 한국노래를 빨리 배우고요. 그리고 뭐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같은 것도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그니까 그게 흡수력이 빠르다는 게 아마도 이걸 내거였어,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문: 예, 저 잘 아시다시피 지금 IT 전문가로 오셨는데, 한국이 IT 강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 특히 한국의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IT 강국인 한국이 이제 IT를 넘어서 CT로 Culture Technology 뭐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아시아, 일반적인 한류가 아니라 이 아시아인과 같이 하는 아시아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해당 지역과 우리 한국의 이런 그 IT나 이런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같이, 같이 그 나라의 문화를 디지털화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 느낌에도 우즈베키스탄이 문화가 풍부한 문화산업이 풍부한 나라라서, 어떻습니까? 한국의 IT와 CT 이러한 그 기술, 또 문화를 읽는 눈과 또 만드는 힘, 콘

텐츠를 디지털화하는 힘, 이것이 이 나라 고려인 청년들, 또 이 나라 청년들도 포함해서 같이 만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 실제로 예가 있는데요, 이걸 고려인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행을 같이 갔어요. 학생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부하라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그 씨티를 구경을 하고 한 명이 부하라 사람이예요. 그 시티를 구경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엮어서 블로그를 만들자. 블로그를 만들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이 블로그를 블로그라는 의미를 하고 물론 개는 좀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친구데...블로그라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목적도 이해하고 이걸 누가 볼 것인지도 이해하고 좀 이해를 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고 이걸 왜 하는 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너희가 그 블로그를 만들면서 선생님, 어떤 게 들어가야 되요? 라고 제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기본적인 여행 정보와 너희들이 부하라에서 겪은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재밌지 뭐 여긴 얼마고 저긴 얼마고 여기서 저기는 몇 킬로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좀 뭐라고 그러나 좀...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정보가 재미가 나는 거지 이야기가 없고 그냥 정보들만 딱, 딱, 딱, 딱 묶어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도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맘대로 써봐라, 글을. 한국어로 써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긴 아랍어로 쓰겠다, 뭐 우즈베크어로 쓰겠다, 러시아어로 쓰겠다, 뭐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쓰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모든 언어든 뭐든지 그냥 써와라. 써오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고 이거는 뭐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은. 그냥 써오고 일단 써오고 나서 얘길 하자, 라고 애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써오니? 선생님은 이만큼 썼는데.. 제가 이제 이미지도 만들고 거기 갔다 온 우리 애들 얼굴을 넣어서 배경 이미지도 만들고, 바탕화면을 만들어 뒀어요. 좀 코믹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자기는 이런 걸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코믹한 이미지였어요. 아니 이거를 누가 본다고 올리느냐.. 그래서 부하라를 검색 키워드를 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 들어 왔을 때, 이런 이미지를 보고 부하라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사는구나, 너희가 부하라에 여행을 갔구나, 부하라에 갔더니 이런 게 있구나...

얼마나 재밌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기억을 여기에 남겨놓으니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재밌지 않니? 뭐 그렇게 애길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달 만에 애들이 좀 이게 되는 구나...블로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온 거 같아요. 그러더니 한편을 써왔어요. 뭐 경찰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 때 찾는 과정에 대해서 우즈베크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갔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안을 생각을 해온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글이. 저는 이제 그 우즈베크 말로 써온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서 읽었는데 번역을 해도 너무 재밌고 필요한 정보도 딱딱 들어가 있고 우즈베크 부하라라는 곳도 되어 있고 올드 시티와 그 이 건물들과 딱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거를 겪으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콘텐츠라 그러는데 그 개념을...저도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기술도 개인적으로 좀 습득을 하게 되니까..뭐 기획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건데 그게 없어요. 저희 쉬콜라 애들도, 쉬콜라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만들 것에 대한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저도 시키고 싶은데 저도 사실 책을 많이 읽어라 하지만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하라, 부하라를 갔다 와서 애들이 역사책을 읽었어요. 개네들이 자기 부하라, 자기가 사는 곳, 태어난 곳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읽어보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뭐 이걸 이렇게구나..조금씩 거기 안에 역사가 누가 언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가지는 의미를 하나씩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내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방법이 되는구나 싶었던 계기였어요. 근데 저도 쉬콜라에 있지만 애들에게 뭐 수업할 때 저는 주제를 주고 그거에 맞게끔 뭘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수업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에 뭘가를 만들어야 되요. 근데 애들이 한 10명이면 3,4명 만들고, 나머지는 제가 준 본을 그대로 만들어요. 보기를.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지워버려도 똑같이 만들어 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애들을 점수를 되게 낮게 주거든요. 다른 애들은 높게 주고, 좀 다르게 무조건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높게 주고.

문: 뭘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애들한테?

답: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아, 선생님은 이상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 줘,

가 된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닌데.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에는 애들이 뭐 하라 그러면 이제 제 스타일을 아니까 뭐 다르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문: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이야기 산업이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잖아요? 핵심이, 이야기, 이야기가 산업이 되고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아마 여기 애들이 조금 이 부하라 일로 조금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만난 고려 학생들은 자기들 역사를 몰라요. 고려인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려사람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했던 거를, 여기서는 인터넷이라 못 보여주지만 한국서는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여기 학생들하고 그 부채중이라는 단편 영화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구상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슨 새로운 좀 뭔가 좀 느끼고 새롭게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답: 사실 그 영화 만들고 솔직한 마음인데 좀 답답해진 거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 그럴 수도..그니까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느 면은 이해를 하지만 또 실존할 수 없다는 생각, 자기와 다르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게 그 하나만 있었던..그 주인공 우리는 주인공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 아이에게 애는 이런 성격이야 하고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애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다는 거를 애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주인공의 그 마음을 아, 그 이건 이해가 가는 데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애는 이렇게 하죠?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지나고 나서도 그 영화 어땠냐? 그러니까 오 그 이상한 여자에 나오는 영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그게 그렇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어떨...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조금은 또 다른 면은 애네들이 그래도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거, 아닌 거, 그니까 내 거는 이해를 하는데 남의 거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소한 거니까. 생각은 좀 하게 됐구나,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요.

문: 그런데, 그 작품 내용 주제보다는 그 과정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답: 아, 근데 저희가 좀 애들이 진짜 기분이 좋아했던 건, 이게 돈 된다는 생각을, 그니까 상금을 받았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큰 액수였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영화 만들었는데 이것밖에 안 주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하

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떤 장비를 살 거를 빼고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해줬어요.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받는다, 고 하니까 어휴...제가 이걸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니가 그때 아이디어 내서 이게 된 거야, 그거 니 아이디어니까 니가 한 거지, 그렇게 얘길 해줬더니, 아이들이...그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두 번째 뭐 공모전이 있다, 그러니까 흔쾌히 음...합시다! (웃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돈도 되고 이런 일들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문: 네, 나는 한국에서 그걸 홍보는 못했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좀 생각을 할 틈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혹시 우리 고려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공부를 하든, 뭘 공부를 하든, 간에 이제는 좀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무슨 큰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종의 벤처 아니예요? IT 같은 이 컴퓨터 벤처 사업인데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조금 눈을 뜨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어떠세요? 앞으로 총체적으로 한 번 이 나라...

답: IT 벤처 사업을 말씀하시는...

문: 예, 젊은이들 IT와 CT, IT 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일지 모르겠는데, CT는 좀 막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 베이스의 여기 많은 이야기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 고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즈베크에 실크로드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답: 사실은 그거죠, 그니까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기술을 모르고. 기술을 아는 사람은 정보에 관심이 없고. 정보를 알고 기술도 알고, 아니면 자기가 못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 그니까 저는 사실 말해서 기술보다는 아이들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근데 또 기술을 배제하고는...그니까 매체죠., 그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거나 어떻게 가공되는가를 모르고는 또 그만큼 한 발자국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아이들이 영화를, 카메라를 찍어보고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또 우리가 만들어낸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봤지, 그렇지 않고 주인공이 시나리오만 쓰고 뭐 고민을, 책만 읽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확실한 영상, 그니까 확실한 상, 영상이 아니라 그 모형을

만들어, 머릿속에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게 병행이 되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니까 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즈베크가 이렇게 좀 많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하나 살려면은, 예전에 인터넷을 이용을 했지만, 책도 있고 이럴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어요.

문: 예, 그러면 혹시 우리 학생들 만나보니까 카메라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기 좀 컴퓨터를 배워줘 봐야 또 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한국에는 많은 그런 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깔린 한국 학생들, 또 기술 가진 학생들, 또 콘텐츠를 이해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영상 캠프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하는 거를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쪽에다가 좀 장비 지원을 조금 한국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주고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전망이 있을까요? 그런 시도를 한다면은 많은...

답: 근데, 일단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일주일 와서 영상캠프를 열어봤자 애네들이 베이스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옆에서 보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직접 해본다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장비를 지원해주면 사후에 또 돌아가고 나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관리가 문제 될 것 같고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음...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어떤 팀에 한국에서 올 때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어떤 정보 교류도 없고, 그냥 애네들은 애네들... 있다가 한국에서 왔다, 이제 조직을 해보자, 그 중에 한국말 좀 잘하는 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좀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관심 있는 애들을 모으든지, 그거 하고 싶은 애들이 찾아오든지, 한국어과 안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모두다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컴퓨터를 다 잘해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 네, 그러면 결론으로 한 번 우리 배 선생께서 이제...

답: 장비는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웃음)

문: 장비와 함께 인프라, 또 사전 지식, 그리고 기간도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코이카 단원 가운데 배선생 같은 IT도 IT지만, 조금 더 지금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그런 요원이 단순한 언어보다도 이제 아까 음악도

미술도 필요하죠, 근데 이 나라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 있는 벤처 산업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그런 쪽으로 좀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죠./ 코이카에 아니면 한국 사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있으시면..

답: 네, 뭐랄까.../ 청소년 개발원 저희가 지금 할 거거든요./예, 코이카 산업은 코이카 산업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지만,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공장으로 가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인데, 저는 뭐 컴퓨터...언어를 배우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가르쳐 났더니 기껏해야 나이트 빠끼를 하더라. 한국에 나이트, 한국 나이트클럽에 여기 많거든요. 가라오케 빠끼를 하더라.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개네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서 난리고. 한국어를 좀 해야 들어가니까. 근데, 그니까 이렇게 직업을 저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방향 같은 거는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니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은 필요하거든요. 핵심 기술력. 컴퓨터를 전반적으로는 다 모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는 배울 수 있는 능력...그런 거는 좀...

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여기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몰랐잖아요. 결국은 한국사회와 연결을 시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한국도 이런 콘텐츠를,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시아인이 서로 협력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쪽과 한국과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벤처,,이쪽과 한국을 연결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꿈꿔보는데...

답: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국이 가지는 베네핏(혜택)은 뭐죠?

문: 한국이 가진 베네핏요? 한국은 지금 FTA가 체결되었어요. /네./ 미국하고, 아직 뭐 완전히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가 필요해요. 많은 그 이 매체에서. 지금 다 미국 거 갖다가 쓰는데, 점점 벽은 높아지고. 로열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도 이제는 미국서 만든 것만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양한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가 새롭게 문화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베네핏이 있죠, 한국에도. 이쪽도 또 나름대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죠.

답: 근데, 제 생각에는 우즈베크의 고유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려인이면

고려인 문화, 우즈베크면 우즈베크 문화, 이것들을 조금 더 다듬는 과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한국 문화들도 워낙 이제 복잡한 게 많잖아요. 풍물만이 한국 문화가 아니고, 판소리만이 한국 문화가 아니고, 지금 현대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묶어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아직 문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산업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와 교류하기 보다는 요거를 먼저 좀 다듬어 줘야 된다, 다듬는 데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류보다...

문: 그러니까 우즈베크의 고려인, 또 우즈베크의 그 자체의 문화를, 그 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것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바로 한국에서는 (10초 정도 영상 내 캡음으로 칭취 불가) 글로벌 문화라고. 이제 원래 콘텐츠라는 것은 글로벌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니크 하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문화가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니까..네, 여러 가지로 좀 믿음직스럽습니다. 단순한 코이카 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특별히 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또 만나면서 잘 좀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고민하고...

답: 제가 많이 배웁니다. 학생들에게..

문: 예, 고맙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 ⑥ 니자미사범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남 빅토르 (33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임영상, 최소영, 일시: 2007.4.20, 장소: 타쉬켄트 식당)

문: 영화, 게임 뭐 이런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문화 산업인데 그 문화산업의 기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산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최 선생 만나서나서 여기에 고려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산업, 이야기하고, 문화콘텐츠 이거를 좀 알려 주면 일자리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 좀 과거와는 달리 우리 고려인들이 그 공부도 별로 안하고 학자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다 비즈니스 하고. 실제 또 교수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고려인 연구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음 제가 박 마야라든지 뭐 김스베틀라나, 개들은 한국에서 만났죠? 만났고, 뭐 그 얼마나 돕겠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화콘텐츠 이 우즈베키스탄에 문화산업, 이것을 우리 고려학생들이 좀 빨리 알아서 먼저, 먼저 시작을 했으면, 먼저 시

작하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지금 우즈베크 청년들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쪽이 잘 아시겠지만 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고 또 문화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좀 개발 하면 그래서 지금 저 저희가 대학원에서 이번에 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특성화교육에서 지금 어플라이를 했는데, 되면은 이쪽으로, 아까 그 허 선생 만나고 왔어요..

답: 예, 예.

문: 뭔가 프로그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쁘데 공황가시니까.. 그 이번에 그렇게 여기서 양케트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을 하지만, 양케트는, 심층면접은 학생도 해야되지마는, 교육지도자,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제 쉬콜라는 제가 나제취다 선생님을 하려고 아무래도 이 대학은 아무래도 남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한 번 좀...

문: 선생님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답: 혹시 질문이 있나요? 혹시 준비된 질문...

문: 저희가 특별하게 질문 준비를 한 것은 없고요, 음 그냥 질문할게 이제 선생님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촬영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음 우선 대학이니까 옛날 대학교 그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들, 그 선생님 다녔을 때 그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들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의 차이점,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서 사실, 그 세종한글학교 가서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어를 배워서 통역하고 비서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통역하고 비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졸업 시키면 뭘 시킬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어떤 것을 이 한국어과를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면은 이 학생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잡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문: 우선,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알고 있지만...이...

답: 소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웃음)

문: 뭐 자기 이름하고 뭐...우선 흔히 뭐 자기소개..뭐 3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답: 예, 저는 남 빅토르입니다. 1975년도에 태어났고요 김병화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1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졸업하고 나서 1993년도에 니자미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5년 동안 98년도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리고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경희대에서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는 2001년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과장도 잠깐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고 어...지금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고요, 들어와서 논문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또 3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셋째를 볼 겁니다.

문: 선생님 93년도에 가셨다고 하셨죠? 그럼 그 때 입학했을 때 정원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국어과..

답: 그 때 입학 했을 때 25명을 모집을 했어요. 25명이 들어왔는데 졸업은 아마 20명 정도 졸업을 했던 거 같습니다.

문: 그 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주로 어...고려인이었나요? 아니면 민족구성이 어떻게 되었죠?

답: 그 때는 거의 98% 정도 고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25명 중에서 한 분만 러시아 사람이었구요, 다른 사람들은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문: 현재는 어떻죠?

답: 지금 많이 좀 달라지는 게 약 10% 이상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다른 점, 차이점입니다.

문: 제가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거의 여학생들이 많더라구요./그렇죠./ 그런데 쉬콜라에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려 사람들이 여학생을, 그러니까 여자 애를 선호를 해서 여자 애들이 많은가 싶었는데, 쉬콜라에 갔더니 남학생 여학생들 뭐 거의 다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여학생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 대학보다도 우리 사범대 자체가 사범대가 아마 서울도 만찬가지일 건데, 교원이 주로.. 교원 쪽으로는 여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라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는 말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라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그 입학하실 때 당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김병화 콜호즈에서 학생들 아시잖아요, 현재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그때 그 학생들이 많이 생각했던 진로와 지금 진로가 차이가 있나요?

답: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사실 92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통과를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몰랐었고 한국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었구요. 저희들 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에 가겠다, 아니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못했으니까...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려인들은 물론 모국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거의 90%이상은 실용적인 그런 목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구요. 대부분은 뭐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아니면 한국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거나, 한국 가서 좀 일을 하고 싶다..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약 10% 정도는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그렇게 나왔습니다.

문: 선생님 그 졸업하실 때 당시 쉬콜라에서 대학교를 많이 진출을 했었나요? 대학 입학은 많이 했었나요?

답: 음, 시험은 일단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시험을 보는데, 대학 실제 간 사람은 약 30% 정도, 40% 정도.

문: 그 때 당시에?

답: 예.

문: 지금은 어떻가요?

답: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몇 %정도 진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음, 그러면 그 때 당시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출을 더 선호했나요, 아니면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졸업하고 나서 더 선호했나요?

답: 글쎄,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좀 사람마다 좀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의 부모님은 사실 고려인들 부모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녀가 꼭 대학 고등교육기관을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대학 못 나와도 자녀는 꼭 대학을 나와야. 뭐 시장에 가서 팔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대학을 나와서 알아서 하라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역시 4남 1녀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다 대학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 갈 수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지금 그 때 당시는 거의 다 그 입학을 할 때 등록금이 어떻게 되었었죠? 93년도...

답: 90 아마..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96년까지인가, 그 때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100% 장학금 받았구요, 그리고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문: 지금은 어떤가요? 사범대 같은 경우?

답: 지금은, 사범대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70% 정도는 자비로 공부를 하고요.

문: 예, 그 사범대가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 혹시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제가 어디 콜호즈를 샀었는데, 고려인 학생들이 어디 입학할 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어떤 그 옷돈을 요구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장만을 못해서 제가 자살까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입학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당시와 현재가 그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 입학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고려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는지, 뭐 사범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답: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마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민족들도 공부를 부모님들이 일단 공부를 꼭 시키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돈이 없어도 돈을 마련을 해서도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좀 돈을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좀 잘사는 고려인 부모님들은 가서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기도 하고 다른 안 좋은 방법으로 시키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또 못사는 학생들은 고생을 하고요.

문: 제가 예전에 황 류드밀라 선생님 글에서 읽었는데, 학생들이 점점 고려인들이 입학할 수 있는 수가 줄어든다, 그게 등록금 때문이다. 경제...고려인들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등록금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 예전에 그 고려인 학생들의 퍼센테이지에 비교해서 굉장히 현재는 그 적은 학생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김병화 콜호즈나 아니면 그 주변을 봤을 때 옛날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답: 글쎄, 황 류드밀라, 누쿠스에 계시는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거구요, 사실..왜냐면 고려인들은 지금 1% 정도... 1%도 안 됩니다, 사실, 인구 중에서. 그 1%중에서 고려인들이 몇 %가 진학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글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범대학을 보더라도 한국어과에서 지금 120명 정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약 100명 정도 고려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범대학을 보면 13,000 중에서 고려인들이 약 400

명 정도 되면 그게 몇%나 되느냐, 몇%가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볼 때는 그게 1%넘는다면 다른 민족들 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고려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적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고려인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쉬켄트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문: 아, 그러나 뭐 이제 그 류드밀라 선생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누쿠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고려인 학생들이 들었던 거하고 좀 적게 들었다. 200달러면 등록금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대학을 포기한다.

답: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친척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아,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서 돈을 보내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누님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아들을 공부를 시킬 때, 등록금을 저쪽 이쪽 친척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나서 그 빚을 갚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등록금은 일 년에 약 500불정도 되니까..

문: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답: 앞으로는 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한국처럼 100% 아마 자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그때는 좀 어려워 질 것 같고요.

문: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 사범대이긴 하지마는, 선생님이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업률은 어떤가요? 졸업을 하고나서 이 학생들이.

답: 저희 좀 자랑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사범대 학생들은 거의 다 취직이 됩니다. 거의 100% 취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즈베크에서 사실 약 20%정도 남고 취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스크바나 알마티, 한국에서 지금 많이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체.. 한국 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했는데 그 업체 대표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좀 소개해주십시오, 좀 좋은 학생들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못하는 게 4학년 학생들이 이미 취직이 되어 있고, 아니면 갈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추천을 못하고 있어요.

문: 그 학생들이 그럼 그 한국어 수업을 해서 사범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가지고 그 취직하기에 그 인제 어느 방향으로 취직을 하는지 무엇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주로...

답: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사실 통역가가 많이 되고 싶

었습니다. 왜냐면 빨리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고 좀 통역가를 보면 좀 멋있고 그런 사람인 거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고, 학생들은 지금 젊어서 그런지 통역가가, 번역가가 많이 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고 있는데 좀 대학원 진학을 하고 석사 정도 마치면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 어, 어떻게 달라지나요? 통역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나요?

답: 부정적인 것보다도, /다른 길을 찾나요?/ 이 통역가라는 사실 직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통역은 그냥 취미로 아르바이트로 부업으로 할 수 있는데, 본업은 다른 것을 해야 된다, 한국어를 하면서 경영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뭐 다른 것을 공부를 하든지 저희 우수한 학생들은 지금 한국에 가서 전공을 바꾸고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고 뭐 다른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문: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다 여길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 떠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젊은이들도 떠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다 한국 가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 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경제도 좀 불안하고 하고 정치도 사실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여기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건데, 고려인들이 다 나가면 저도 나가야겠다, 고려인들이 있는 한 저도 여기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문: 고려인들이 사실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답: 예, 여기는 문제는 일자리를 찾아도 생활비가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옆 나라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이나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국적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은 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개방을 해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돈을 좀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다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문: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우리 고려 청년들

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물론 할 수 있지..배웠지만, 그저 그냥 한국 회사에 가서 비서나 통역이나 하는 것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답: 글썄, 문제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풀리면 일단 풀려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은 사실 사업도 할 수 있고 교육계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만들어주면, 뭐 좋은 조건은 아니더라도 카자흐스탄처럼 그만큼 해주면,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국한되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자꾸 이제 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그 노동비자를 주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즈베크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음...이제 돈 벌러 가고 너네는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왜 돌아올 생각을 하느냐, 이제 여기는 우즈베크 사람의 땅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가면 3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 정착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답: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 글썄 한국 가서 좀 돈을 벌면 사실 이쪽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나라로 갈 수 있고. 마지못해 또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요. 러시아어를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문: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싶으신 거죠? 그럼 이 어떤 아이고, 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면 음 이 고려 지금 고려청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떠나기도 하는데 아까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마는, 고려 청년들이 여기서 어떤 고려인들만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즈베크인과 차별이 돼서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과 연결을 해서 할만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어떤 점을 도와주면은 그런 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

답: 글썄, 그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가 그런데 옛날에는 파농사나 벼농사 같은 거는 고려인들이 하는 업이었거든요. 근데 우즈베크 사람들이 그걸 배워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고 고려인들은 못하고 있고요. 글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문: 혹시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한국에 들어가시면요 또 자랑 한 번 만나고 한국에서. 저는 이제 그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류 해가지고 한국 영화 드라마가 세계 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 IT 이런 컴퓨터 이런 IT 기술이 발달한 바탕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지지 않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산업화시키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역사니까...역사나 문화나 어문학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좀 알려줘서 여기서, 여기서 하더라도 컴퓨터의 서버는 한국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돈 안들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런 방 하나만 있으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문화를 콘텐츠화 하는, 문화를 자원으로 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래서 좋은 이제 제가 김병화 농장이다 그러면 김병화 얼굴을 약간 조금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캐릭터라이즈해서 그려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번에 70주년 행사 때, 김병화, 황만금 이런 훌륭한 분들 그런 좀 사진이 들어있는, 얼굴 들어있는 티셔츠를 좀 팔면 좋겠어요, 여기서. 근데 꼭 그대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좀 캐리커처로 그려가지고. 그게 바로 문화콘텐츠예요, 문화 산업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한 우리 학생들하고 좀 제가 만일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또 옷을 못 만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라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올 때 볼펜을 가져오니까 잡더라고요. 장사하는 줄 알고. / 공항에서, 세금 내라고/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최 선생한테 이제 얘기를 자꾸 했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남 교수님도 이제 조금 그런 쪽에 그러니까 무슨 또 자동차 만드는 공장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어문학을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나면 이거 가르쳐서 한 달에 100불 받는다 이거 말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으면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쓰면은 이게 하나의 부가가치가 되가지고 가르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그니까 저도 대학 교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자꾸 영상 기술을 좀 가르쳐야겠다, 한번 한국 애들을 보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 이 허선행 선생한테 우리 장소를 빌릴 수 있느냐...물어보게 되었죠. 과제가 되면. 학교는 지금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범대나 동방대나 아직 그런 걸 좀 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세종학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어요. 원래 학교랑 해야 되는데, 학교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직 그런 그... /그쪽 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그저 회사에 취직해서 비서하고 통역 가

이드 하고 여행 가이드하고 이거면 됐지. 뭘 또 뭐해야 하나? 지금 생각들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 선생님도 아직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 사실 그런 친구들도,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  
다. 카메라 들고 뭐 영화도 찍고 좋은 스토리도 만들고.

문: 아, 저번에 와서 만났었어요.

답: 누구죠? 루스란?

문: 네. 루스란.

답: 예, 루스란 친구나 뭐 좀...또 행사를 하면 자기 피디로 나서서 만들고 참  
재미있게 만들어요. 학생들 중에서 좀 재능 있는/문: 예,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을 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문: 예, 그런 사람을 좀 연결시키고 지속화시키고 한국어하고 관계되면은 비즈  
니스를 여기 있으면서 다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자료 보  
내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콘텐츠는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가 중앙아시아의 좋은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전 세계로 퍼뜨리거  
든요. 그걸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그럼 소스를 제공하고, 서로.. 그러  
죠? 윈윈 그러죠? 윈윈이라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남 선생님  
이 조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답: 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웃음)

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⑦ 세종한글학교 허선행 교장 (42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임영상, 일시: 2007.4.20, 장소: 타쉬켄트 세종한글학교 교장실)

문: 세종한글 학교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좀.. 비전.  
뭐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면... 그냥 한 번 초기 시작할 때, 91년도에 시  
작할 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 좀 들려주시면서. 오늘 제가 지금 미리 만들  
어가지고 홍보를 했으니깐.

답: 얘기를 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문: 아니, 준비는...준비하면 또.. 한 뭐 10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길게 하시기보다... 한 5분은 그렇고.

답: 사실 그 교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때 당시에 그 광주일보사에서 그 구  
소련 지역에 그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한글학교를 세우자는, 세우자라는 그  
런 캠페인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91년도 초인데, 그 때 제가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그 때 이제 그 우리 학과 지도교수가 임채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채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 데모를 많이 하니까 저희가. 데모만 하지 말고, 그런데 가서 한글을 가르쳐보는 것도 민족교육 차원에서는 아주 그 젊은이로서는 소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아니, 4학년 1학기 때. 저는 이제 교사로 나가는 것을 일단 접고. 이쪽으로 이제 나올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했는데 러시아어도 사실은 몰랐었고. 또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안기부에서 신원조회를 한 6개월 하더라고요. 특정 여행국가로 이 나라가 묶여있었기 때문에 구소련 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를 하고 2년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학과장, 학장이 연대보증을 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졸업과 이제 동시에 인제 저는 그 때가 3월 8일인데 직항이 있었어요. 모스크바를 통해서 여기 도착을 했을 때가 3월 8일 92년.

문: 여성의 날 오셨네요?

답: 네. 여성의 날 왔는데 정말로 그날은 비가 왔었어요. 여성의 날, 비가 온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와가지고 지금 이 사무실을 우리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게 안 고치고 제가 사실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 먹고 자고. 최 스베틀라나 선생님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구 여기서 생활을 했었고. 지금 교무실이 교실이었고 이쪽이 소파 있는 곳이 교실이었고 첫 번째 교실까지 교실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이렇게 교실이 총 세 개가 있더라고요. 교재는 그 때 당시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막 만들어낸 그 초급 한국어라고.. 그 책이 몇 권 들어와 있을 정도였고. 거기에 인제 그 조선어 북한에서 만들어낸 책, 정도 있었고. 분필이나 칠판은 거의 없었죠. 그 때 이제 러시아말도 모르죠. 손짓 발짓 해가면서 가르쳤죠, 사실은. 그 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게 그 여름에 정말 덥지 않습니까, 여기가. 더운데 선풍기 하나가 여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겨울에는 추운데 난방도 안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은. 그 때는 좋은 교과서도 없고 그냥 배우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그 때 학생들 대부분이 고려인이었어요. 사실, 우리 동포가 한 98% 정도 그랬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그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그 통역이라든가 좋은 회사에서 다 좋은 일자리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92년이었고. 93,4년 저도 이제 전라남도 도움에 의해서 참여를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한글학교 광주 전남 지역인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교실 한 칸을 지어준 게 지금 두 번째 교실

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지원을 받았었고, 2000년도 까지는 사실은 지원이 없었어요. 없었고. 정말 그 이제 그 어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수업료를 사실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고 선생님들 또 월급은 줘야 하니까. 그 때부터 조금씩 사실은 수업료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문: 2000년도부터요?

답: 아니요, 4년부터. 시작부터 거의 받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이제 동포 교육에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수업료 없으면,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럼 학교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사실 그래서 수업료를 받았고 그 받은 수업료로 겨우겨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월급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지인하고 비슷한 생활, 그런 자세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세종 한글학교, 이외 다른 한글학교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 99년도에 그 때까지 어렵게 하고 왔는데. 한국 최영화 대사님께서 그 때 당시에 우리 학교를 한 번 방문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0년인가? 1999년~2000년도 사이.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보니까 학교가 너무 한글학교가 너무 촌스럽고 쉽게 말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뭐 담장하나도 제대로 쌓아놓은 것도 없지. 교실 가 보니까 너무 형편없지. 티브이 하나 없지. 그 때 이제 최영화 대사님 비디오, 텔레비전 가져오시고. 담장 쌓으라고 돈 좀 주시고. 그래서 담장도 깨끗하게 쌓고.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에서 조금씩 지원을 시작했어요. 도저히 학교로서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 때가 2000년도부터 대사관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2003년, 5년도에 나주시에서 교실 하나를 또 세워줬어요. 나주시...하고는 저하고는 2년 선행인데. 그 분이 세워주신 교실이 4번 교실이에요. 4번 교실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15년 개관 행사를 하면서 앞에 새로운 건물을 어렵게 땅을 사고 어렵게 건물을 지어서 지금의 세종한글학교의 이제 본 모습이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한 7,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되다가 90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200, 200명, 200 한 50명. 더 학생들을 늘리고 싶어도 그 때는 교실이 없어서 도저히 뭐 안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한 400, 등록된 학생들이 이제 한 420명, 거기에 이제 우리 동포가 90%정도. 지금은 이제 80% 공부하고 있고. 우리 한글학교가 이제 4단계 코스인데 이번 주부터 5단계코스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25명. 그래서 지금 한 500정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가

르치면서 뭐라 할까, 우리 동포들을 물론 저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있고 그런데 좀 더 후원 기관이 있어준다면 저도 수업료를 받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동포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16년, 15년 전에는. 제가 가르치고.. 가르치고 생일 초대, 환갑초대, 그 결혼 초대 이걸로 일주일 생활을 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다고 좀 느끼거든요. 고려인들을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숨도 돈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수업료는 싸다고 애길 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도 많거든요. 장학생을 제가 지금 150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머리서 다니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각 반에 10명씩, 많게는 15명씩 장학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한 단계만 좀 더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멋진 우리 동포사회에서 가장, 지금도 물론 제일 잘 운영한다고 하지만, 더 멋진 한글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졸업은 한글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3,000명 이상 될 겁니다. 3000명 이상 공부를 했었고. 사범대를 가보셨겠지만 우리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비율이 한 40~50%가 우리학교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웬만한 심지어는 골프 캐드들도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고 하면 세종 한글학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잘 가르친다, 잘 운영한다 말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제 나름대로 우리 한글학교 나름의 책을 만들고 그 책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사실 이번에 또 국제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집필자로 저도 또 참가를, 참여를 했어요. 책을 미리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책을 병행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우리 학교 책을 그냥 단독으로 쓰면서 그걸 참고 교재로 쓸 것인지 고민스럽거든요.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교재이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출판하기는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네요. 앞으로 계획은요, 그 물론 심었는데 한글학교를 당분간 이곳에서 한 5년 정도를 지금 이 판에서 더 운영을 할 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단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아직까지는 이 나라 국민이고 더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즈베크어도 넣을 거고요, 무료로 한국어를 배운 학생에게는 우즈베크어를 무료로 시킬 겁니다. 거기에다가 컴퓨터 교육까지 무료로 시켜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즈베크어하고 컴퓨터, 그리고 한국어를 했을 때에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우리 그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컴퓨터 교육인데, 사실 대사관에서 컴퓨터를 10대를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문 대사님한테.

10대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대 정도만 더 확보되면 막 바로 컴퓨터 교육을 실행을 할 겁니다. 우즈베크어는 사실 작년에 시작을 했었어요. 했는데 동포들이 이상하게 참 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가 우즈베크어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컴퓨터. 그 다음에 한국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좀 하려고도 그래요. 많이 몰린다고요. 2주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얼마 안 남는 겁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교수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즈베크어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즈베크어가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끝까지 우즈베크어 교육은 제가 실시할 거고. 한국어 교육만 가지고는 절름발이거든요. 사실. 컴퓨터까지 병행해서 정말 그 세종한글 학교에서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을 때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글학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어떤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동포들의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을 시켜주고 싶어요.

문: 제가 질문을 조금 그 중간에 조금 끊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카자흐스탄 들렀다가 이곳에 왔었거든요. 그 때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원인가요? 그 선생님이 카자흐어 교육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때 인제 제가 여기 한국교육원에 얘기를 했죠. 아, 우즈베크어 필요하다고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희 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즈베크 청년들의 어떤 그 다큐인데 그 때 아, 우즈베크어 해야 되긴 해야 되요. 그렇게 말로는 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벌써 2000년이요 2006년 시작을 했으면 아직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고려인 고려 청년들이 아직도 어떤 좀 확실한 좌표를 못 잡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답: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좀 배우면요. 초창기에는 모스크바를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받고요. 지금은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한국말 조금 하면 대부분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모스크바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또 카자흐스탄은 우리 고려인 우리 동포들요 그 나라 국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러시아민족들은 차츰 타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카자흐스탄을 훨씬 더 선호하고. 우리 한국을 물론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보통 유학 때문에 많이 가려고, 유학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우즈베크어를 안 배우려고, 배울 필

요성을 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하고 가까워지면서 한국어만 잘 해도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하나의... 여기서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가 더 아마 더 그런 것을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5세 이상이 가겠지만. 자기 부모들이 나가있으면 자식들도 다 끌어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크어를 해라해라 해도 갈 수돌 더 안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에요. 너무 지금 개방이 되었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이번에 이제 5년짜리 비자를 내면 아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우즈베크 고려 청년들한테 어떤 그 출구가, 한국으로 가는 출구가 열려서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콜호즈 얘기를. 그 이 갈대밭에 빨밭에 70년대부터 와가지고 맨손으로 맨땅으로 일귀서 옥토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켰는데 결국은 내 땅이 되었는데 우리 고려인들한테는. 자꾸 콜호즈 빠져나오죠, 또 다시 또 카작, 카작은 또 그나마 다행이라 치더라도 한국으로 다 가버린다면, 또 다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우즈베크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어디다 어떻게 희망이, 희망을 한국 땅을 희망으로 해야 하나. 이 땅에서. 오늘 이 설문도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국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자. /아주 좋은./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타민족들과도 교류를 하지만. 그래도 우즈베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요 인재로, 인재가 되도록 하자. 그게 가장 취지이고 저는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한국에 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오고 왕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선조들이 살았고 뼈를 묻었으니까. 여기서 인제 지금은 국제인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걱정되네요. 우즈베크어에 대한 인제 그 자세가...

답: 지금 그 젊은이들은 자기 앞,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못 느끼죠. 사실은. 못 느끼고. 젊은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의식 자체가 우리라고 볼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 타쉬켄트로 오니까 더 늙은, 이제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한국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저도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정착해서 사는 것을 가장 원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25세 이하 젊은이들은 어찌됐든 방문 취업에는 막혀있는 상태겠지만 자기 형, 오빠, 그리고 누나 언니들이 가고, 부모님들이 가다보면 실제로 젊은이들도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 애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정착하기란 물론 저도 힘들다고 봐요. 거기서 월급 받고 생활하다가 좀 거기서 지치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 올 텐데 되돌아 와서도 일단 한국 물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또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더 암담해요. 사실은. 아예 거기 나갔으면 정착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살든가. 갔다 오면 반 바보가 돼요. 한국에서 받았던 임금 생각하고 여기서 1,200불 받고 생활을..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될 지. 저도 교육은, 우즈베크어를 잘 가르치고 컴퓨터를 잘 가르치고 한국말 잘 가르쳐서 여기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게 저의 어떤 목표인데 우리 한글학교의. 젊은이들 생각은 좀 눈이 더 크단 말입니다. 눈을 더 크게 본단 말입니다.

문: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크어, 한국어, 컴퓨터 교육. 컴퓨터 교육은 사실 이 시대가 컴퓨터를 다 다루어야 되는 시대가, 하나의 기본적인 자기 무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 지금 그 저는 한국과 항상 연결을 시켰죠. 한국어니까. 한국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한국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한국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더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즈베크어를 한다면 좋겠죠. 우즈베크 민족을 상대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은 못하더라도 우즈베크어 조금, 한국어 조금, 컴퓨터 조금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그 직장을 얻는 데라든가 나아가는데...

문: 그러면 또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한국 교육원하고. 약간.. 하는 일. 상호 물론 보완도 있겠지만, 경쟁도 있을 거 같고.

답: 하하.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교육원의 도움을 1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대사관의 도움도 마찬가지고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 속에는 교육원을 큰집으로 생각하고 저를 작은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저희는 항상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7반에 수업이 다 끝나는, 6시에 시작해서 마지막 수업이 7시 반에 끝나고 우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7시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납니다. 우리는 야간 학생들이 켈 많아요. 대신에 오전에 학생들이 더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시간대라든가 서로 보완, 상호 보완적인...경쟁은 지금까지.../아니, 그 다른 뜻이 아니고/ 경쟁은 제가 경쟁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요, 학생들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다닙니다. 우리 학교가 더 좋다, 세종한글학교가 더 잘 가르친다, 열심히 공부 한다 안해도요 학생들이 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했던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학교가 잘 가르치고 잘 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봤자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평가는.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든 평가는 학생들이 하는 거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웃음)

문: 교육원에서 큰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작은집을 좀 도와주고 그런 인재 좀 크고 힘 있고,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왔던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도 우즈베크어 교육을 했었고. 거기도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인재 혹시 독점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 교육원만 있는 카작과, 이렇게 국가기관과 현 정부, 그렇지만 민간 기관으로 있는 이런 이 우즈베크의 경우에, 사실은 이 세종한글학교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큰집에서 참 잘 한다, 박수쳐주고 잘 해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들어서 좀 다행이면서도 혹도 속 좁은 원장이 오면 어떨까 하는...그런 걱정을 또.

답: 하...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없는 문제고. 제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겠죠. 저도 왜 욕심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해보죠.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을 거며. 정말 좋은 학교로.. 지금도 교육부나 우리나라에서나 외교부에서도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민간 한글학교라고 평을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와가지고 전 세계 한글 교장들의 견학 프로그램에 넣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었어요. 그런 게 원장님한테는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행동을 해서 우리학교를 더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학교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 문 닫습니다. 우리는 수업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는 그래요.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 월급 못 올려준다, 솔직히. 이제는 나는 경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라,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이 되라. 실력 있는 선생보다도 학생을 안아라,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앙케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학교 3번 이상 결석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가

지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학생들 관리 선생님들에게 저는 맡겼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 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다 일임했어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야기 해주는 건, 저는 100% 수용하고. 대신에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선생님에게는 야단을 상당히 많이 치고. 지금 선생님들은 체크를 많이 해요.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왜 안 나오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정말 수업료 낼 돈 없어서 안 나오는 학생은 과감하게 오히려 수업료도 면제해주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출석률이 좋게.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 대단한 경영 마인드가 계신 거예요. 사실은. 경영학을 하시지 않았던 거 같은데도. 이건 진심에 의한, 진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조야 선생님 보니까 한국에 그 안 나오신 분으로 유일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2000년에 재외동포재단에서 CIS 한국어교사 양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한 분은 갔다 오셨고, 그래서 언젠가 갈 거다. 가서는 뭐 특별히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

답: 조야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참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가르쳐요. 대신에 아직 이 말이 안 트여서 조금 이제 그 말만 좀 하면 좋은데, 사실 갈려고 하는 거, 제가 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교사로서 자질이 있더라고요. 대신에 월급이 더 내가 개인적으로 주겠다.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자취비용의 절반을 제가 대주는 조건으로 다시 남게 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만이 학교가 운영되는 거고. 조금 제가 돈 좀 더 든다고 해서 그 교사를 잡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자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에게는 최대한의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복지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일간 여기서 가르치지만 일반 기업 통역하는 만큼 200불 정도는 월급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주는 것하고 합치면.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100%정도 더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방문취업에 대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 좀 하니까 한국으로 문이 열리면 선생님들이라고 안 나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아예 한국 월급에 절반 정도만 주면 남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질 있는 교사 거기에 참 좋은 학생들이 배출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한 가지만 더 그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데요, 그 이제 정규 한글 가르치는 수업 말고 컴퓨터 교육은 또 다르게 하시는 엑스트라 교육 같기는 한데, 또 그것 말고 좀 더 한글을 좀 잘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문화 이런 것을 알게

하기위한 또 다른 이제 엑스트라 교육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답: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5단계인데, 우리가 4단계 코스를 5단계 코스로 늘린게, 5단계는 이제 선생이 칠판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빙 둘러 앉아서 그냥 학생들과 차이 마시면서 주제를 하나 던져 주고 연구하고 해 와서 같이 토론하는 형태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 단계로..?/ 인제 제 마지막 5년 이후의 꿈은 물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지만 좀 큰 좀 운동장이라면 좀 크고 마당이 좀 더 넓은 데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쿠일록, 세르겔리, 칠란자르가 우리 동포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양기울까지. 최종 학교의 터는 세르겔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갇다만 유치원들,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있고. 그 쪽 구청장하고 무지 친해요. 이번에도 우리 학교 무상으로다 수리해주고 나무 심어주고 그 구청장이 그랬는데. 그 구청장이 나한테 좀 싸게 내놓는다면 이걸 정리하고 그 쪽으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 학생들 농구 골대도 좀 만들어 주고 싶고. 철봉 같은 것도 만들어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문: 거기가 시내는 시내입니까?

답: 아, 그렇죠. 수요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었으면 막상 이 저쪽을 지어놓으니까 저는 아 이제 교실이 좀 되었구나 했는데, 도서관하나 만들려고 하나까 만들려고 하고, 또 컴퓨터 교실을 만들려고 하나까, 교실이 또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그 욕심도 아닌데 사실 아쉬움이죠. 저 집을 2층으로 지었더라면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금 후회를... 돈이 없어서 그냥 빨리 단층으로 지었었는데.. 조금만 돈이 더 있었더라면 2층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교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문: 그러면 뭐 제가 할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만,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전남 광주 전남 기업들이 처음에.. 또 광주일보가 이야기를 했고, 또 그 후로 계속 무슨 연결된 뭔가가 좀 있기는 있겠습니까마는..

답: 제가 좀 불만이 많은 게요, 광주일보는 우리학교 못 들어옵니다. 제가 못들어오게 해요. 저 거기 한국에서 모집한다고 광고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불펜하나 안 준 데가 광주일보사예요. 우리 학교에. 저번에 그 2년 전엔가 광주일보 기자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세웠던 한글학교니까 취재 좀 해야겠다고. 제가 못하게 했어요. 지원을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한글학교를 왜 뭘로 무슨 면목으로

왔느냐니까. 미안해가지고요, 광주일보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너무 몰랐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사실. 물론 처음에 광주일보사를 통해서 한글학교가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왜 6개 한글학교가 5개가 다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죽었어요. 우리 한글학교는 세종한글학교는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원래 꿈이 교사였고, 그래서 사대를 갔었고 그런 꿈의 일관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 꿈 때문에 여기를 지켜왔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아버리고 한 5년 만에, 5년도 아니죠, 한 4년 3~4년 만에 다 문 닫아버렸어요. 전라남도에서 2000년도부터 매월 한 200불씩 준 거죠. 공식적으로. 그거 외에는 대사관 빼고요, 우리학교에 후원해준 돈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사업가가 100불, 50불 지원해준 적은 한두 번 있어요. 나머지는 수업료,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세종한글학교 설립후원회장 이렇게 막 명함 써가지고 오시면 짜증날 때가 많아요. 다 그 명함으로 학교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비새는 거 뭐 에어컨 하나 없는 것, 다 에어컨 제가 사업가들이 뭘 도와줄까 그러면 에어컨 하나 달아주시죠, 저 돈 주시면 써버립니다. 이쪽에는 뭘 하나...티브이 하나 지원해 주시죠, 여기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 시스템 하나, 히터 하나 사주시죠. 이렇게 해서 모은 게 지금 에어컨이라든가 다 모았어요. 제가.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웠어요. 사실. 물론 200불도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0불로 뭘 하겠어요? 우리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가스비랑 전기세.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는 수업료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관련 단체라든가 5월 달에 들어오는 단체라든가 왔다간 바르게살기운동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한글학교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든든한 어떤 지원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찾아야죠. 지금까지는 안 찾았습니다. 안 찾았고..

문: 대단해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랄 정도입니다.

답: 제가 좀 가서 좀 봐주시오 해야 되는데, 나주시나 이런 데는 일회성이 아닐까요? 뭐 일 년이나 이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기증.. 그것하고 한글학교 운영하고는 좀 지속적인 지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를 찾고 싶어요. (웃음)

문: 제가 볼고그라드에 경기도에서 연결해가지고 작년에 파견했거든요. 한 사람 파견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을 쓰더라고요. 경기도가.

답: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매월 2,000불, 3,000불씩 한국에서 보내주니

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이면 그 때 당시 우리 학교 1년 예산인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부러웠어요. 한글학교 9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광고비가 없어가지고 광고를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글학교라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진짜 3일간 잠 못 잤어요. 한번은. 나이, 저보다 더 많이 드셨는데,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우리 학교에 1달러라도 지원해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당신 충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어쩔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정말 그 나름대로는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걸... 도에서 한 번씩 왔다가고 어디서 뭐 도 의원들이 왔다가고 그러면 돈을 한 5,000불 10,000불 주고 간걸로 생각하는 가 봐요. 그러면 부자 되었겠죠, 저야.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실 와서 얼마주고 갑니까? 1,000달러, 1,000달러 봉투에 넣어주고 또 2,000달러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서줘야 그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기들 술 먹을 때 하루 종일 3,000불 5,000불 쓰는 건 비싸다고 생각 안하고 학교 와서 봉투에 넣어서 누가 보면 많이 줬다고 생각하겠죠. 학생들 앞에서 또 봉투에 사진 찍고 다 하잖아요. 전 선생님들한테 공개합니다. 돈.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저는 공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려고 하시면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밖에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떳떳하게 아껴 씁니다. 공개를 하십시오. 얼마라고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불 내 가지고 사진 찍고 갈 때가 있거든요. 시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학생들 보기에 얼마나, 허 교장은 그런 돈 많이 받아서 부자 된다. 이런 인식 저는 시키고 싶지 정말 않아요. 학생들에게. 그럼 제가 위선자밖에 더 됩니까. 아, 허교장이 일부러 차도 안사고 일부러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인식할까봐 학생들이. 저는 그런 것을 일체 안 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지.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화나요. 한 번은 작년에 15주년 기념 행사를 갔는데 도에서 왔어요. 도의 의장단, 그리고 세종한글학교 설립후원회 회장, 김중철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래요. 큰 도단체에서 오니까 우리가 현찰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다고. 돈 많이 가져올 거 아니냐고. 휴..알았습니다, 하고 그날 식을 했네요. 볼펜 600자루 가져왔대요. 그 15주년 행사를 하는데 볼펜 600자루만 딱 가져오고 끝났

어요. 제가 그랬죠, 대사관에. 우리 볼펜 600자루 받았습시다. 그리고 교민회에서 500볼 지원받았습시다.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얼마를 지원을 받아는 거예요. 그 때까지도 대사관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도이니까 매월 많이 받았겠지... 매월 180~200볼 받습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냐고. 사실 그래 왔다고. 2001년부터 제가 그렇게 지원 받았습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지원금을 올려주겠다. 대사관에서. 그래서 지원금을 올려 받은 겁니다. 사실. 제가 그걸 공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괜히 또 그 분들 얼굴에 침 뱉는 거 같아가지고 되도록 그냥 그걸 마음에 마음속에 담아두자. 그런데 담아두면 담아둘 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는 알렸습시다. 알리니까 이제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더 갖고 정말 힘들게 해왔구나 밖에서 보는 것 하고 안에서 정말 운영하는 것 하고 너무 차이가 크구나, 그런 걸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었죠.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도와달라고. 학교 사실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교육원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문: 그렇게 진정성이 있었고, 또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통련할 수 있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듣기만 했지 제가 관여할 일도 없었고, 이 우즈베크에 잠깐 왔고, 그 때는 3일, 작년에는 4일, 이번에는 7일 짧게. 저는 그냥 어떤 일을.. 제가 이제 어제 명함 드렸습시다...제가 사학도 가르치지만, 몇 년 전부터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도 이제 문화산업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인터넷 기관, IT기관에 이제 문화산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최소영 선생이나 배희은 선생, 그리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좀 하고 있는 계획들이 뭐냐면 이제 그 대학이든 세종한글학교든 한글교육, 통상하는 컴퓨터 교육 플러스 문화콘텐츠 교육, 문화산업 교육, 이런 게 좀 있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만일에 제가 과제가 되면 제가 연해주, 연변하고 이 우즈베크키스탄으로 대학원생을 파견할 거거든요. 방학 동안에. 그 프로그램. 그건 이제 저희 돈으로 오는 겁니다. 저희 그 문광부 사업인데 받으면 와서 2주든 3주든 영상교육을 시키는 거죠.

답: 저희 한글학교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젊은 대학생들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한 번 왔었고요, 인터넷 청년봉사단이 왔었는데 갈 때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여기서 거의 생활을 같이 하고 참 정적으로 이렇게 친해졌었어요.

문: 여기 숙소가 있습니까? 혹시?

답: 숙소는 제가 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게 2층으로 지었더라면 하는 게 참 아쉬움이 있어요. 기숙사도 한두 개 칸을 넣었었다면...그게 아쉬움인데. 또 다른 생각은 저 앞에 있는 좀 낮은 층을 아예 헐고 그쪽 터를 기준으로 2층으로 다시 짓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문: 글썄요, 저는 뭐 여러 군데 관계는 갖고 있지만,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또 이제 활용한 조그마한 작품들을 만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가 아주 문화 자원이 많은 나라거든요. 소위 말하면 문화자원은 그 문화의 역사, 스토리가 많은 나라거든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 나라니까. 결국 문화 산업은 이야기 산업이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야기학 그럽니다. 한국에 새로운 지금. 지금 전남대학이 아시아 전문대학이 되었어요. 무려 2조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돈이 다 그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답: 우리 쪽으로는 안 오나요? (웃음)

-----중단

답: 그 분은 정말 저는 대학 3,4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범대에서, 니자미 사범대학에서. 그 때도 성실했지만, 지금도 정말 정확하고 그 교육자예요.

문: 한국에서도 서로...

답: 오늘 출국합니다. 오늘

문: 월요일에 뵙기로 했었는데...

답: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가세요. 몇 시에 뵙기로 하셨어요?

(알마티)

### ① 카자흐국립대 한국어과 학생 전 다리아 (20세)

(질문: 황영삼, 일시: 2007.7.6, 장소: 카자흐국립대 한국어과 강의실)

문: 여기는 카자흐국립대학교입니다. 전 다리아 학생과 함께 지금부터 심층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다리아, 자기소개 해주시지요.

답: 저는 이름이 전 다리아이고 20세 이며, 현재 카자흐국립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문: 전 다리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예정인가요?

답: 저는 앞으로 한국어와 관련한 지역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 지역을 연구

하고 싶어요.

문: 종교를 갖고 계세요?

답: 기독교예요.

문: 고려인 몇 세대시지요?

답: 4세대에요.

문: 4대요? 그럼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요?

답: 예.

문: 두 분 다요?

답: 예.

문: 부모님은 어느 민족이시지요?

답: 두 분 다 한인이세요.

문: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시지요?

답: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문: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답: 어머니는 사범대를 나오셨고 지금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술을 전공하셨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문: 부모님의 전공은요?

답: 아버지는 기술자이시고 어머니는 교육학자이세요.

문: 예. 다리아 학생 가정의 생활수준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이지요?

답: 보통인 것 같은데요.

문: 그럼 중산층 가정의 수입에 비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답: 중산층 평균 수입보다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문: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답: 예. 만족해요.

문: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부모님과 집에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나요?

답: 예. 러시아어로 해요.

문: 러시아어로도 하시고 한국어로도 하세요?

답: 부모님께서는 고려말(한국어)을 조금밖에 모르세요.

문: 그럼 보통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대화하세요?

답: 러시아어로 해요.

문: 그럼 한국어는요?

답: 한국어로는 거의 안하는 편이지요.

문: 보통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나요?

답: 예.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문: 부모님은 다리아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걸 원하시나요?  
 답: 예. 원하세요.  
 문: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인가요?  
 답: 적극적으로 원하세요.  
 문: 그러면 부모님은 다리아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바라시나요?  
 답: 예.  
 문: 부모님이 다리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나요?  
 답: 아니요. 부모님이 고려 말을 거의 모르시기 때문에.  
 문: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자주 만드시나요?  
 답: 자주 하세요.  
 문: 다리아 학생의 부모님은 다리아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시나요?  
 답: 예. 그런 편이지요.  
 문: 다리아 학생은 한국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답: 예. 관심 있어요.  
 문: 현재 3년 후에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시지요?  
 답: 될 수 있다면요.  
 문: 한국에 그냥 실습 차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학을 떠나시는 건가요?  
 답: 예.  
 문: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답: 예.  
 문: 다리아 학생은 한국에서 온 동료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세요?  
 답: 예.  
 문: 학생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찾을 계획인가요?  
 답: 예.  
 문: 왜 그렇지요?  
 답: 왜냐하면 제 전공이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할 거예요. 저는 한국어가 좋아요.  
 문: 다리아 학생은 한국에 대해서 부모님보다도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답: 예.  
 문: 그럼 한국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답: 예.  
 문: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까? 다리아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미래에 직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 예.

문: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답: 2년 전에 한 번이요.

문: 얼마나 자주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나요?

답: 가끔씩 들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문: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답: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요.

문: 인터넷은요? 인터넷은 안 하시나요?

답: 인터넷은 사용할 데가 없어요.

문: 한국 드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나요?

답: 당연히 보지요.

문: 한국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보시고 나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답: 아주 좋았어요.

문: 재미있던가요?

답: 예. 재밌었어요.

문: 한국에 대한 다리아 학생의 느낌은 어떤가요?

답: 아주 흥미롭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문: 민족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점수를 매긴다면은?

답: 한국인들은 아주 친절하고 성실한 민족인 것 같아요. 좋은 나라인 것 같은 데요.

문: 한국인들이 많은 면에서 다리아의 삶에 도움을 주었나요?

답: 예.

문: 한국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답: 부분적으로 한국 명절을 지내기도 해요. 추석, 설날, 돌 때에.

문: 단오도 지내시나요?

답: 단오는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지는 않아요. 한식도 그렇고요. 보통 설날, 돌, 추석을 기념해요.

문: 다리아 학생은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답: 그런 편이에요. 대학교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문: 한국에 가셨을 때, 무엇을 보셨나요?

답: 많은 걸 봤어요. 한국 사원(절)들과 산들....

문: 경주에도 갔었나요?

답: 경주....전통 부엌을 봤어요.

문: 경북공도 보셨어요?

답: 예. 그런데 그 명칭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문: 한국말 대화가 귀에 들어오던가요?

답: 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문: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으세요?

답: 예. 대화는 가능해요.

문: 한국말로 읽고 쓰는 것은요?

답: 할 수 있어요.

문: 다리아 학생은 본인이 한인인 것이 자랑스럽나요?

답: 예.

문: 한국역사와 전통, 풍습 등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답: 예.

문: 다리아 학생은 사회 조직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답: 예. 알마티 한인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문: 이곳에 한인청년협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답: 예. 카자흐스탄에 한인청년운동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알마티 한인민족센터가 있는데, 그 산하에 청년 그룹이 있어요. 저는 알마티 청년센터를 방문하곤 해요.

문: 마리아 학생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답: 아니요. 잘 알지 못해요.

문: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답: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문: 한인 센터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나요?

답: 예.

문: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인협회들과도 연락을 하시나요?

답: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문: 만약 제가 한국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 같나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글썄요. 저한테는 별로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문: 어떤 기회요?

답: 한국의 기관들과 연락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문: 한국 청년들과의 관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시나요?

답: 예.

문: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좀 들어가시나요?

답: 가끔 들어가요.

문: 한국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답: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인상을 주었나요?

답: 예.

문: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답: 예.

문: 몇 명 이야기해 주세요.

답: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카자흐스탄 민족대학교에 한국에서 교환학생들이 오는데, 아쉽게도 그 학생들과 만나서 많은 것을 소통할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가끔 만나기는 했었지요.

문: 한국에서 온 학생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나요?

답: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문: 다리아 학생은 한국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어요.

문: 예를 들면?

답: 카자흐스탄의 한국대사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답: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문: 한국정부나 해외 한인청년들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다리아 학생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답: 학업 부문에서요.

문: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답: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 유학.

문: 유학이요? 한국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특히 젊은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 제 생각으로는 한국 대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문: 이제는 역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리아의 가족 중에 누가 최초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하셨나요?

답: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문: 부모님께 들어본 적 없으세요?

답: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 언제 쯤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답: 1880년-1890년경일 거예요.

문: 다리아 학생 가족 중에 최초로 이주하신 분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답: 제 생각에는 북한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고요.

문: 그럼 누구의 가족이 러시아 극동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나요?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나요? 알고 계신가요?

답: 예. 카자흐스탄으로요.

문: 어느 도시이지요?

답: 알마티.

문: 극동에서 바로 알마티로요?

답: 예.

문: 나중에 다리아의 가족이 살게 된 곳의 이름은 뭐였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문: 콜호즈 생활은 안하셨어요?

답: 부모님....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알마티에서요.

문: 부모님은요?

답: 부모님은...강제 이주 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문: 우즈베키스탄 어디지요?.

답: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후 우리 부모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셨고, 나중에 다시 극동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극동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오게 된 거지요.

문: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강제이주나 그 생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답: 예. 자주 들었어요.

문: 다리아 학생은 카자흐스탄 어디서 태어났지요?

답: 저는 알마티에서 태어났어요.

문: 누구와 함께....

답: 부모님과 함께 이주했어요.

문: 어떤 이유로 지금의 거주지로 이사를 하셨나요?

답: 가족들이 다 같이 이사를 했으니까요.

문: 교육이나 생활상의 이유가 있었냐는 말인데요, 무엇보다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나요?

답: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봐요.

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앙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이 앙케트는 해외 한인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정보들이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교류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 교류에....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뿌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답: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의 성함은 김 타마라 니콜라예브나예요.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셨고, 하바로프스크 사범대학을 나오셨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국어를 잘 공부해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한국어를 못하세요. 이 주 후에 언어를 잊어버린 거지요.

문: 고려말을 전혀 못하시나요?

답: 아니요. 생활언어 수준에서는 조금은 하세요. 그런데 남한 쪽 말투랑은 좀 다르고, 우리가 하는 고려말을 하세요.

문: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답: 초등학교에서 일하세요.

문: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② 카자흐스탄 건축아카데미 디자인과 학생 리 나탈리아 (20세)

(질문: 황영삼, 일시: 2007.7.7, 장소: 카자흐국립대 한국어과 강의실)

문: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답: 저는 리가이 나탈리아 발레리예브나이고, 카자흐스탄 건축 아카데미 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나이는 20살이에요.

문: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예정이신가요?

답: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문: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답: 기독교 신자예요.

문: 정교도인가요? 얼마나 되었나요?

답: 11년 되었어요.

문: 한인 몇 세대인가요?

답: 4세대예요.

문: 부모님은 살아계시나요?

답: 두 분 다 살아 계세요.

문: 부모님은 어느 민족이시지요?

답: 아버지는 한인이시고, 어머니는 반은 한인이시고, 반은 일본인이세요.

문: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신가요?

답: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문: 부모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 어머니는 기술대학을 나오셨고요, 아버지는 건축대학을 나오셨어요.

문: 부모님의 직업은요?

답: 현재 어머니는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건축가로 일하고 계세요.

문: 현재 나탈리아 가정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 중간정도 되요.

문: 다른 중산층 가정과 비교했을 때 수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문: 그럼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답: 지금의 생활에 아주 만족해요.

문: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나요?

답: 가족 중에서 어머니만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고, 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세요.

문: 어머니께서 한국말을 잘하신다고요?

답: 예.

문: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시나요?

답: 예.

문: 부모님께서는 나탈리아가 한국어 배우는 것을 원하시나요?

답: 예. 매우 원하세요.

문: 부모님께서는 그럼 나탈리아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답: 예.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문: 부모님께서 나탈리아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시나요?

답: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문: 부모님께서는 한국음식도 자주 만드시나요? p

답: 예. 항상요.

문: 어떤 음식이지요?

답: 국수, 김치, 된장, 미역국 같은 거요. 나물.

문: 불고기도 드셔보셨어요?

답: 불고기요? 예.

문: 맛있던가요?

답: 예.

문: 나탈리아의 부모님은 나탈리아가 한인과 결혼하기를 바라시나요?

답: 예.

문: 나탈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답: 저도 한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문: 나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답: 예. 노력하고 있어요.

문: 앞으로 2-3년 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 예. 그러고 싶어요.

문: 한국에 그냥 실습차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은 건가요?

답: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문: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까?

답: 예.

문: 한국의 동료들과 교류하고 싶으세요?

답: 예.

문: 나탈리아 학생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찾기를 원하세요?

답: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문: 나탈리아 학생은 부모님보다 한국의 소식에 대해 더 관심이 있나요?

답: 아니요. 부모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세요.

문: 한국에 대해서는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나요?

답: 아니요. 부모님이 더 잘 아세요.

문: 만약 한국어를 배우면 직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답: 그렇게 생각해요. 언어를 아는 것은 언제나 유용해요.

문: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답: 아니요.

문: 얼마나 자주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나요?

답: 일주일에 한 번이요.

문: 어떤 수단을 통해 들으세요?

답: 텔레비전과 라디오요. 그리고 한국 신문을 읽어요.  
 문: 한국 드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접하시나요?  
 답: 한국 드라마를 봐요.  
 문: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답: 아주 좋았어요.  
 문: 영화도 보셨어요?  
 답: 아니요. 영화는 본 적 없어요.  
 문: 한국에 대한 본인의 느낌은 어떠세요?  
 답: 글썄요.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문: 그럼 민족으로서 한인들에 대한 생각은?  
 답: 근면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문: 적극적인가요?  
 답: 예.  
 문: 아주요?  
 답: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 능력이 있나요?  
 답: 매우 능력이 있어요.  
 문: 한인들이 나탈리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나요?  
 답: 예.  
 문: 어떤 한국(한민족) 명절을 알고 계세요?  
 답: 설날, 돌, 환갑....  
 문: 풍습 말고 명절이요.  
 답: 설날, 추석. 나머지 명절은 우리가 지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문: 단오나 한식은? 추석 때 보통 뭐 하시나요?  
 답: 우리는 보통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에 다녀와요. 아침부터 상을 차  
 리고 절을 한 뒤에 묘지에 가서 절을 해요.  
 문: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답: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문: 책을 통해서요?  
 답: 주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문: 아, 부모님께서요. 나탈리아 학생은 한국말 대화를 잘 이해하시나요?  
 답: 잘 못 알아들어요.  
 문: 한국말로 말할 수 있으세요?  
 답: 아니요. 못해요.

문: 못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못하시나요?

답: 못해요.

문: 나탈리아 학생은 본인이 한인인 것이 자랑스럽나요?

답: 예.

문: 나탈리아 학생은 한국역사나 전통, 풍습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답: 예. 노력해요.

문: 나탈리아 학생은 한인들로 구성된 협회 같은 조직에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시나요?

답: 예.

문: 나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답: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문: 본인이 한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까?

답: 예.

문: 여기 한인들이 많은가요?

답: 많아요.

문: 한인센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나요?

답: 예. 알마티 한인센터.

문: 그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답: 시폴리나-비노그라도프에 있어요.

문: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과도 연락을 하시나요?

답: 아니요.

문: 전혀 안하세요?

답: 전혀요.

문: 한국 청년들과의 교류확대를 바라시나요?

답: 예.

문: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하시나요?

답: 전혀요.

문: 한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예.

문: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그런 학생들을 잘 모르는데....한두 명 아는데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문: 본인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 되었습니까?

답: 예.

문: 한국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답: 못 들어봤는데요.

문: 그럼 한국정부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답: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문: 해외한인 청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정부나 다른 기관들로부터 먼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요?

답: 초, 중, 고, 대학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요.

문: 한국정부나 다른 기관들이 해외에 있는 한인 청년들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특별히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할까요?

답: 3번이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한국의 대학에서....

문: 나탈리아의 가족 중에 누가 최초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했나요? 알고 있나요?

답: 예. 알아요.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요.

문: 언제요?

답: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대략 1910년도 경일 거예요.

문: 최초로 이주하신 분들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남한인가요, 북한인가요?

답: 어머니의 부모님은 남한 출신이시고, 아버지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세요.

문: 증조할아버지가?

답: 어머니의 증조할아버지는 남한 분들이세요.

문: 지역은?

답: 모르겠어요.

문: 러시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나요?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카자흐스탄?

답: 아버지의 부모님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문: 도시였나요, 아니면...

답: 안디잔으로요.

문: 콜호즈인가요?

답: 콜호즈는 아니에요.

문: 그럼 도시였나요?

답: 도시이긴 하지만 작은 도시이지요.

문: 그 분들은 콜호즈에서 사셨나요?

답: 아니요. 콜호즈에서 그 분들을 안 받아주셨어요. 어떤 콜호즈에도 등록되지

않으셨어요.

문: 그럼 도시에 사셨나요?

답: 도시라기보다는 큰 마을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 분들은 스스로 지은 움막에 사셨어요. 그리고 어떤 콜호즈에도 등록하지 못하셨어요. 아무런 서류도 없으셨기 때문에.

문: 할아버지나 할머니께로부터 강제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자주요?

답: 예.

문: 나탈리아는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답: 알마티에서요.

문: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지요. 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의 거주지로 이주했나요?

답: 어머니는 학업을 위해 사할린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셨어요.

문: 아, 사할린에서요?

답: 예. 어머니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공부하셨는데, 실습 때문에 알마티로 오셨어요.

문: 어머니께서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고 하셨지요?

답: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곳 기술학교에 입학하려고 이주하셨어요. 그렇게 여기서 두 분이 만나셨고 여기 살고 계시지요.

문: 그럼 어머니는 사할린에서 태어나셨나요? 남 사할린에서요?

답: 아니요. 보스톡에서요. 보스톡이라는 마을에서요.

문: 다른 도시인가요?

답: 예.

문: 어머니의 아버지는 일본인이신가요?

답: 예.

문: 어머니가 왜 사할린에 사셨는지 아세요?

답: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어머니의 부모님께서 사할린으로 오셨어요. 그 곳이 좀 덜 위험해서.

문: 마지막으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나탈리아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답: 제게 교육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문: 그리고요?

답: 저는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문: 이 양케트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답: 음, 먼저 저는 이런 주제의 양케트는 처음이에요. 재미있었고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문: 인터뷰, 감사해요.

### ③ 리 나탈리아의 어머니 김춘옥 (60세) (한국어인터뷰)

(질문: 황영삼, 일시: 2007.7.8, 장소: 알마티 아르바트 거리)

문: 오늘은 리 나타샤 학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한국 말도 잘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세요.

문: 어머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옛날 어떻게 해서 사할린에 사시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답: 1945년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은 사할린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이 만나게 되셨어요. 두 분이 사할린에서 결혼하고, 저는 사할린에서 태어났어요. 이후 제가 대학교 갈 때 가족은 사할린을 떠났어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대학 졸업하고, 알마티에 왔어요. 78년도부터 알마티에서 살고 있어요.

문: 1978년 그때부터 알마티에 오셨군요.

답: 예. 그때부터 알마티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결혼하고 아들 한 명과 딸 나타샤를 낳았어요.

문: 사할린에서 바로 알마티에 오셨어요?

답: 아니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대학 졸업하고.

문: 거기서도 좀 사셨어요?

답: 예. 5년 대학 공부할 때까지.

문: 아버지께서 사할린에서 사셨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답: 우리 아버지는 49년대 자기 식구하고 사할린에 와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를 낳았어요. 친구는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문: 남한에?

답: 예. 그리고 몇 번 갔다 왔어요. 적십자에서 지원해 주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번 갔다 왔어요.

문: 지금 살아 계세요?

답: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 계세요.

문: 사할린에?

답: 예. 작은 아버지는 한국에 생활하고 계세요.  
 문: 사할린에 가보고 싶으세요?  
 답: 예.  
 문: 어머니 보러?  
 답: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문: 전화는 자주 하시고?  
 답: 전화는 매주 마다 하고.  
 문: 형제분은 알마티에도 계세요.  
 답: 예. 동생 두 명.  
 문: 나타샤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집에서 나타샤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답: 아니요. 자주는 안하지만 조금은. 남편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러시아말만 하자나요. 나타샤는 듣고 조금 배웠어요. 한국말.  
 문: 나타샤가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허락하실 건가요?  
 답: 예. 그러면 좋잖아요. 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공부하면 좋은데...근데 모르겠어요.  
 문: 나타샤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답: ....  
 문: 집에서 한국음식 많이 만들어 먹습니까?  
 답: 예. 집에서 한국음식을 먹어요.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하고, 미역국 같은 것.  
 문: 나타샤가 나중에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십니까?  
 답: 나타샤 마음대로요.  
 문: 카자크 사람하고 한다고 해도요?  
 답: 카자크 사람과 하면 좋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문: 좋은 거 없습니까. 왜?  
 답: 카자크,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살아야....  
 문: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카자크 사람 친구 없습니까?  
 답: 있어요. 친구는 있어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고.  
 문: 집에서는 텔레비전 보시지요?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답: 아니요. 잘 안 나옵니다.  
 문: 한국영화 본 적 있습니까?  
 답: 예.  
 문: 아이들 키우면서 다른 민족들과 있으면서 겪은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답: 문제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카자흐스탄인데 뭐 카자크 사람들은 자기네... 어디 좀...일 들어갈 때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말 안 하지요. 바로 일도 못 들어가도, 안 받아도, 바로 말 안 해요. 왜 안 받는지 한국 사람이라고 안 받는다고. 그런 게(문제-역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아닌데.

문: 지금 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답: 그래도 우리나라 아니지요. 자기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문: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한국 사람도 조금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문: 한국 사람도 다르다.

답: 우리하고 다르게 하잖아. 우리는 일해도 같이 일하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한국 사람은 다르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하고, 한국 사람도 다르게. 그런 게 중요하니까.

문: 한국사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답: 예. 있어요.

문: 나타샤가 정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답: 예. 친구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매년 같이 대학 졸업할 때부터 78년부터 같이. 나타샤도 정교회 세례를 받았어요.

문: 교회에 자주 나가세요?

답: 아니요. 자주는 안 나가요. 이야기는 그렇고요. 자주는 안 나가요.

문: 러시아 사람 친구가 있군요.

답: 예.

문: 어머님께서는 사할린도 갔다 오셨는데요, 한국 어떠세요? 한국은 다녀오셨어요?

답: 한국은 한 번도 못 갔다 왔어요.

문: 가보고 싶으세요?

답: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나타샤가 한국에 갈 때,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문: 나타샤 아버지도 한인이지요?

답: 예.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문: 여기서 만나셨어요? 알마티에서?

답: 예.

문: 그래서 결혼하셨군요. 마지막으로 나타샤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답: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타샤 마음대로.

문: 자유롭게.

답: 예.

문: 인터뷰, 감사해요.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 필 진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 강사  
고가영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전임연구원  
박지배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전임연구원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 강사

###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학 · 교수  
김 빅토리아 우즈베키스탄국립동방학대학 · 교수  
남 빅토르 우즈베키스탄국립니자미사범대학 · 교수  
이 브로니슬라브 우즈베키스탄니자미사범대학 · 교수  
황 류드밀라 우즈베키스탄국립누쿠스대학 · 교수  
이형근 러시아 모스크바삼일문화원 · 원장  
허선행 우즈베키스탄 세종한글학교 · 교장  
황 나제쥐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주 33번학교 · 한국어교사

### ◆ 연구보조원 ◆

김동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 석사수료

---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sup>⑬</sup>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sup>⑭</sup>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sup>⑮</sup> 「청소년육성제도론」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5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운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13-0(93330)